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총서로 출간된 책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물품 번호 36481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35554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35969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36315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36787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35744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35970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36786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36492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36907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35892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36500 320)

이 책들을 주문하시려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배부과에 가거나 [store.lds.org](http://stor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이 책들은 [LDS.org](http://LDS.org)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Curriculum Developmen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cur-development@ldschurch.org](mailto:cur-development@ldschurch.org)

보내실 때에는 여러분의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 명칭을 적으시고, 반드시 책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책의 장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the USA

영어 승인: 8/02

번역 승인: 8/03

*Teachings of Presidents of the Church:*

*Joseph Fielding Smith의 번역*

Korean

36907 320



## 목차

|                                             |     |
|---------------------------------------------|-----|
| 소개.....                                     | v   |
| 역사적 사건 요약.....                              | ix  |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와 성역.....                      | 1   |
|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35  |
| 2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 49  |
| 3 구원의 계획.....                               | 59  |
| 4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하십시오.....                      | 73  |
| 5 신앙과 회개.....                               | 83  |
| 6 성찬의 중요성.....                              | 95  |
| 7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 105 |
| 8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 117 |
| 9 물문경의 증인들.....                             | 127 |
| 10 진리를 구하며.....                             | 139 |
| 11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신권 열쇠를 존중하십시오.....        | 151 |
| 12 신권의 맹세와 성약.....                          | 161 |
| 13 침례.....                                  | 171 |
| 14 성신의 은사.....                              | 181 |
| 15 영원한 결혼.....                              | 191 |
| 16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십시오.....                   | 203 |
| 17 인봉의 권능과 성전 축복.....                       | 215 |
| 18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십시오.....           | 229 |
| 19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 241 |
| 20 모든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           | 253 |
| 21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 263 |
| 22 기도—계명이자 축복.....                          | 275 |
| 23 개인적인 책임.....                             | 287 |
| 24 후기 성도 여성의 일: “이 영광스러운 대업에 쏟는 이타적인 헌신” .. | 297 |
| 25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 311 |
| 26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 319 |
| 시각 자료 목록.....                               | 333 |
| 색인.....                                     | 335 |



*Joseph Fielding Smith*



## 소개

**제**일교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총서를 마련했다. 총서에 포함되는 책들이 출간될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 소장하는 복음 참고 서적들도 늘 것이다. 이 총서에 포함된 책들은 개인 학습과 일요일 공과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책들은 또한 여러분이 다른 공과나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교리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는 1970년 1월 23일부터 1972년 7월 2일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

### 개인 학습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신의 영감을 구한다. 각 장 끝에 있는 질문은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이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가족 및 친구들과 나눌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읽은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

### 이 책으로 가르치기

이 책은 가정과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마련되었다. 일반적으로 대제사 그룹과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에서는 매달 두 차례 일요일 공과를 이 책에 나오는 장에서 가르칠 것이다. 이 책에는 12개월 동안 다룰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장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와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소속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할 만한 장들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제언은 여러분이 이 책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 가르칠 준비를 한다

가르칠 준비를 할 때 성신의 인도를 구한다.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는 확신이 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공부한다. 스미스 회장의 말씀에서 직접 영향을 받을 때 더 진지하고 힘 있게 가르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1:21 참조)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공과를 가르친다면, 이 책을 제쳐 놓거나 다른 자료에서 공과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에서 선택한다. 어떤 장에는 공과 시간에 토론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반원들에게 공과 전에 본문을 공부하고 이 책을 공과 시간에 가져오도록 권유한다. 그렇게 할 때 반원들은 토론에 참여하여 서로를 가르치고 이룰 수 있도록 더 잘 준비될 것이다.

가르칠 준비를 할 때, 각 장 끝에 나오는 “학습 및 교수 제언”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이 제목 아래에는 질문과 관련 성구와 교사를 위한 도움말이 나온다. 질문과 관련 성구는 그 내용이 수록된 본문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은 반원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복음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 공과를 소개한다

공과를 소개할 때뿐만 아니라 공과 시간 내내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에 영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반원들이 본문에 있는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본다.

- 각 장 첫머리에 나오는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부분을 읽고 토론한다.
- 각 장에 나오는 사진이나 성구를 토론한다.
- 관련된 찬송가를 다같이 부른다.
- 주제에 관한 경험담을 짧막하게 나눈다.

##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에 대한 토론을 이끈다

반원들이 생각을 나누고, 질문을 하고, 서로 가르치도록 격려하면서 이 책을 가르친다. 반원들은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배우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도록 준비된다. 모든 가르침을 다 다루기보다는 바람직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게 한다.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각 장 끝에 있는 질문을 사용한다. 반원들을 위해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보아도 좋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음 제언을 고려해 본다.

- 반원들에게 개인 학습을 하며 배운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주 중에 반원 두세 명에게 연락하여 배운 내용을 나눌 준비를 해 오도록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작은 조로 나누어) 각 장 끝에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읽으라고 한다. 본문에서 그 질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한 다음, 자신이 생각하고 깨달은 점을 반원들과 나누도록 부탁한다.
- 본문에 나오는 스미스 회장의 말씀 일부를 골라 함께 읽는다. 반원들에게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경전 구절이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도록 부탁한다.
- 반원들에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마음속으로 읽어 보라고 한다. 같은 부분을 선택한 사람 두세 명을 묶어서 배운 내용을 토론해 보게 한다.

## 배운 것을 나누고 적용하도록 격려한다

반원들이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생활에 적용한다면 매우 큰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본다.

- 반원들에게 가정과 교회에서 책임을 수행하는 데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질문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반원들이 남편이나 아내, 부모, 아들, 딸, 또는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로서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토론하도록 도울 수 있다.
- 반원들에게 스미스 회장의 몇몇 가르침을 가족 및 친구들과 나누도록 격려한다.

- 반원들에게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하고, 다음 공과를 시작할 때에 그 경험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 토론을 마무리한다

공과를 짧게 요약하거나, 반원 한두 명에게 공과를 요약해서 말해 보도록 부탁한다. 토론한 가르침에 대해 간증한다.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나누도록 권유해도 좋다.

---

## 이 책에 실린 인용 자료 안내

이 책에 실린 가르침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설교, 글, 책, 편지, 일지에서 직접 인용했다. 인쇄 자료에서 인용한 내용은 독자가 읽기 편하도록 편집 또는 인쇄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원문에 사용된 구두법, 철자법, 대문자 사용, 문단 설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이유로 본문에는 미미하나마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문 *gospel*(복음)은 어떤 인용문에는 소문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다른 곳에는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스미스 회장은 남녀 모두를 지칭할 때 *men*(남자들), *man*(남자), 또는 *mankind*(인류)와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he*(그), *his*(그의), *him*(그를) 같은 대명사를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스미스 회장 당시에는 이런 어법이 통용되었다. 이런 언어 관습이 현행 어법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 역사적 사건 요약

다음 연대표는 이 책에 실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스미스 회장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                   |                                                                                             |
|-------------------|---------------------------------------------------------------------------------------------|
| 1876년 7월 19일      |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줄리나 램슨 스미스와 조셉 에프 스미스 사이에서 태어나다.                                             |
| 1884년 7월 19일      | 아버지에게 침례와 확인을 받다.<br>아버지에게서 생애 처음으로 물몬경을 받다.                                                |
| 1893년 4월 6일       | 솔트레이크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다.                                                                         |
| 1896년             | 멜기세덱 신권과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다.                                                                      |
| 1898년 4월 26일      |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루이 에밀리 셔틀리프와 결혼하다.                                                               |
| 1899년 5월~1901년 7월 | 영국으로 부름받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다.                                                                     |
| 1901년~1910년       | 신권 정원회 회장, 청남 상호향상회 본부 위원회 위원, 고등평의원, 교회 옹호용 자료 준비 임무를 맡은 본부 교회 위원회 위원 등 교회 내 여러 부름에서 봉사하다. |
| 1901년 10월         | 교회 역사가 사무실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다.                                                                   |

|              |                                                                                                                                                                                              |
|--------------|----------------------------------------------------------------------------------------------------------------------------------------------------------------------------------------------|
| 1902년        | <i>Asael Smith of Topsfield, Massachusetts, with Some Account of the Smith Family</i> 라고 제목을 붙인 가족 역사 책자를 펴내다. 이 책자는 그가 발행한 수많은 출판물 가운데 첫 번째이다. 그는 25권의 저서를 펴냈고 교회 잡지 및 정기 간행물에 실은 기사를 기고했다. |
| 1906년 4월 8일  | 연차 대회에서 교회 역사가 보조로 지지받아 1921년 3월까지 봉사하다.                                                                                                                                                     |
| 1908년 3월 30일 | 루이 셔틀리프 스미스가 세 번째 임신과 관련된 심각한 병을 앓다가 별세하다.                                                                                                                                                   |
| 1908년 11월 2일 |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에설 조지나 레이놀즈와 결혼하다.                                                                                                                                                                |
| 1910년 4월 7일  | 아버지에 의해 사도로 성임되다.                                                                                                                                                                            |
| 1918년 10월    | 당시 교회 회장이던 아버지가 불러주는 대로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계시를 기록하다. 오늘날 이 계시는 교리와 성약 138편에 나온다.                                                                                                                   |
| 1919년 1월 6일  | 솔트레이크 성전 회장단 보좌로 지명되어 1935년까지 봉사하다.                                                                                                                                                          |
| 1921년 3월 17일 | 교회 역사가로 지명되어 1970년까지 봉사하다.                                                                                                                                                                   |
| 1934년        | 유타 계보 협회 회장으로 지명되어 1961년까지 봉사하다.                                                                                                                                                             |
| 1937년 8월 26일 | 에설 레이놀즈 스미스가 4년간 병고에 시달리다가 운명하다.                                                                                                                                                             |
| 1938년 4월 12일 |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제시 엘라 에번스와 결혼하다.                                                                                                                                                                  |

|                    |                                                                                                                                                            |
|--------------------|------------------------------------------------------------------------------------------------------------------------------------------------------------|
| 1939년 5월~11월       | 제시와 함께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레일리아, 독일을 방문하며 유럽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유럽에서 모든 미국인 선교사를 철수시키는 일을 감독하다. |
| 1945년 6월 8일        | 솔트레이크 성전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아 1949년까지 봉사하다.                                                                                                                     |
| 1950년 10월 6일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성별되다.                                                                                                                                      |
| 1951년 4월 9일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받다.                                                                                                                                        |
| 1955년 7월~8월        | 제시와 동행하여 아시아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괌, 한국, 오키나와, 필리핀을 헌납하다.                                                                                           |
| 1958년 9월           | 영국 런던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다.                                                                                                                                        |
| 1960년 10월~1961년 1월 | 제시와 동행하여 중남미 교회 지도자와 선교사들을 방문하다.                                                                                                                           |
| 1963년 5월           |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 정초식을 집행하다.                                                                                                                                   |
| 1963년 9월           | 미주리 주 캔자스 시티에 있는 개척자 기념비와 미주리 주 리버티에 있는 리버티 감옥 사적지를 헌납하다.                                                                                                  |
| 1965년 10월 29일      |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지시 아래 제일회장단 보좌로 봉사하도록 부름받다.                                                                                                                 |
| 1970년 1월 18일       |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서거하자 선임 사도이자 교회를 감리하는 지도자가 되다.                                                                                                              |
| 1970년 1월 23일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다.                                                                                                                                |

|                  |                                                                 |
|------------------|-----------------------------------------------------------------|
| 1970년 4월 6일      | 연차 대회에서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다.                                           |
| 1971년 8월 3일      | 제시 에번스 스미스가 별세하다.                                               |
| 1971년 8월 27일~29일 |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교회의 첫 번째 지역 대회를 감리하다.                              |
| 1972년 1월 18일     | 유타 옥든 성전 헌납 기도를 드리다.                                            |
| 1972년 2월 9일      | 유타 주 프로보 성전 헌납식을 감리하다.<br>헌납 기도문을 작성한 후 해롤드 비 리 회장이 낭독하도록 지명하다. |
| 1972년 7월 2일      | 96세 생일 17일 전에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서거하다.                              |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와 성역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사용하던, 절대로 잊지 못할 두 단어로 된 위대한 어구”를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참되고 충실한”이다.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대중 앞에서 말씀할 때나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나 주님께 기도드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참되고 충실하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sup>1</sup>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도 비슷한 기억을 전해 주었다. “노년기에 들어서도 [그분은] 늘 ‘끝까지 참되고 충실하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sup>2</sup>

“참되고 충실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에게 이 말은 그저 입버릇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그의 소망을 담은 진심 어린 표현이었다. 또한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기까지 그의 전 생애를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

---

### “약속의 자녀”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조셉 필딩 스미스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회장의 사위이기도 한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줄리나 램슨 스미스는 “딸 셋을 두었으나 아들이 없었기에 고대의 한나처럼 주님께 나아가 ‘서원’[사무엘상 1:11]했습니다. 그녀는 주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가 주님과 자신의 아버지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도록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그녀 역시 주님께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sup>3</sup> 1876년 7월 19일, 줄리나와 그녀의 남편 조셉 에프 스미스는 갓 태어난 사내아이를 가족으로 맞아들였다. 그들은 이 아기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조셉 필딩 스미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신앙과 봉사, 지도력이 충만한 가정에 태어났다. 그의 조부인 하이럼 스미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형이며, 복음의 회복을



조셉 필딩 스미스의 부모인 조셉 에프 스미스와 줄리나 램슨 스미스

증거한 용감한 증인이다. 주님은 하이럼을 “[그분]의 교회에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존귀하게 기억되[리라]”(교리와 성약 124:94, 96)고 말씀하셨다. 하이럼은 1844년 6월 27일에 아우인 조셉과 함께 폭도들에게 순교당하여 피로써 자신의 간증을 인봉했다.(교리와 성약 135편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의 부친인 조셉 에프 스미스는 어린 시절부터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하이럼과 메리 필딩 스미스의 맏아들인 그는 다섯 살 때 아버지의 순교를 겪었으며, 아홉 살에는 마차로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솔트레이크 밸리까지 이주하는 여정을 과부인 어머니를 도우며 감당해야 했다. 그는 훗날 선교사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했으며, 제일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던 시절에 아들 조셉을 얻었다. 1901년 10월 17일부터 1918년 11월 19일까지 그는 교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의 어머니인 줄리나 램스 스미스는 솔트레이크 밸리에 정착한 초기 개척자 가족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아홉 살 때부터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삼촌 조지 에이 스미스와 숙모인 밋세바 더블유 스미스의 집에서 성장했다.(훗날 스미스 장로는 브리검 영 회장의 제1보좌로, 스미스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성인이 되어서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이며 성실한 상호부조회 회원이 되었다. 그녀는 동정심과 산파술로 유명했으며, “천 명에 가까운 아기”를 받고 산모들을 보살폈다.<sup>4</sup> 1910년 10월부터 1921년 4월까지, 그녀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다.

---

### 일을 하고, 놀이를 즐기던 소년

조셉은 일찍부터 일하는 법을 배웠다. 집에서 16킬로미터쯤 떨어진 유타 주 테일러즈빌에 가족 소유인 농장이 있었는데, 그 농장에서 조셉과 형제들은 물을 대고, 건초를 수확하고, 가축 돌보는 일을 거들었다. 또한 가족들은 집에서도 널따란 채소밭과 과일나무 몇 그루, 길게 늘어진 포도 넝쿨 세 줄기, 닭 떼와 소 세 마리, 말 몇 마리를 돌보았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복수 결혼을 시행했기에 집에는 부양할 식구와 일손이 많았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이 대가족 안에서 큰 아들 축에 속했기 때문에 으레 성인

에게 주어졌을 법한 몇 가지 책무를 맡아 했다. 조셉은 책임을 다하면서도 늘 학교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다.

집과 농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은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 조셉은 아이를 받으러 가는 어머니를 위해 종종 마차를 몰았다. 십 대 후반에는 시온 협동 상업 협회(ZCMI)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매일 오랜 시간에 걸쳐 고되게 일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온종일 노새처럼 일했으며 날이 저물면 밀가루 부대와 설탕 부대, 햄, 베이컨을 등으로 지고 나르느라 녹초가 되었다. 나는 68킬로그램이었지만, 91킬로그램짜리 부대를 어깨에 메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여겼다.”<sup>5</sup>

조셉은 그런 힘든 책무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놀이 시간도 찾았다. 조셉과 동기들은 “특히 포도가 탐스럽게 익었을 때” 포도 넝쿨 사이로 숨으며 밤에 집 주변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sup>6</sup> 조셉은 야구도 무척 좋아했다. 각 와드에는 정비된 야구팀이 있었는데, 그는 이런 우호적인 경쟁 관계를 즐겼다.

---

### 복음 공부와 영적인 성장

어린 조셉 필딩 스미스에게 야구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이 소년은 종종 야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에 이끌려 경기에서 일찍 빠져나왔다. 그럴 때면 몰몬경을 “계속 읽기 위해 건초 다락이나 나무 그늘”에 조용히 자리를 잡은 조셉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sup>7</sup> 조셉 필딩 스미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처음으로 글을 읽게 되었을 때부터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경전을 공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성취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 데서 큰 기쁨과 만족을 느꼈다.”<sup>8</sup> 조셉은 여덟 살에 생애 첫 몰몬경을 받으면서부터 개인적으로 복음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표준 경전과 교회 출판물을 열성적으로 보았으며, 소형 신약전서를 들고 다니며 점심시간과 ZCMI로 출퇴근하는 길에 읽었다. 그는 회복된 복음에 관한 간증의 힘을 꾸준히, 끈기 있게 더해 나갔다.



어린 시절, 조셉 필딩 스미스는 가족의 건초 다락에서 물문경을 읽기 위해 종종 야구 경기에서 일찍 빠져 나왔다.

그러나 조셉의 영적인 성장은 조용히 혼자서 공부하는 것에서만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교회 모임과 공과에 충실하게 참여했으며, 신권 의식과 축복을 받았다. 특히 성전에 매료되었는데, 조셉은 솔트레이크 성전 착공을 시작한 지 23년째 되는 해에 태어났다. “유년 시절 내내 조셉은 이 웅장한 건물의 건축 공사가 나날이 진척되는 모습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그는 채석장에서 화차에 실려 마지막으로 운반되었던 어마어마한 크기의 화강암들을 직접 보았다. …… 위풍당당한 침탑들이 마침내 제자리에 올려지는 광경도 보았다. ……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볼 만큼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sup>9</sup>

조셉은 1893년 4월 6일에 열린 솔트레이크 성전 헌납식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다. 교회 제4대 회장인 월포드 우드럽 회장이 모임을 감리하고 헌납 기도를 드렸다. 단상에 있던 우드럽 회장의 왼쪽에는 그의 제2보좌인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앉아 있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열아홉 살 때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 당시 교회 축복사로 봉사하던 삼촌, 존 스미스에게서 받은 이 축복은 조셉에게 더욱 큰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조셉은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았다.

“그대는 장수하는 특권을 받았으며 주님은 그대가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시느니라. ……

그대는 그대의 형제들과 함께 평의회를 하고 사람들을 감리하는 임무를 받을지어다. 또한 육로와 해로로 성역을 베풀며 이 나라와 외국을 두루 여행하는 임무를 받을지니라. 또한 그대에게 말하노니, 두려움이나 치우침 없이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라. 주님의 영이 그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그대에게 임하리니, 그분의 영이 그대의 마음을 인도하고 그대에게 말씀과 지혜를 주어, 간악한 자의 간교를 파하고 불의한 자의 조언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하리라.”<sup>10</sup>

스무 살이 된 조셉 필딩 스미스는 그 해가 끝나갈 무렵, 봉사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었다. 멜기세덱 신권 장로 직분에 성임되고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것이었다.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웠을 때 그는 이렇게 공언했다. “제가 성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평생 신권 안에서 제 부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생에서 끝까지 견뎌 내세에서 충실한 성도들과 함께 우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sup>11</sup>

---

## 교제와 결혼

가족을 부양하고, 복음을 연구하고, 신권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청년 조셉 필딩 스미스를 알아본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루이 셔틀리프였다. 루이는 본가가 유타 주 옥든에 있었지만, 당시 스미스 회장 집 건너편에 있던 유타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스미스 일가의 집에 머물렀다.

처음에 조셉과 루이는 평범한 친구 사이였지만, 점차 교체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둘의 연애는 주로 거실에서 함께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산책하러 가고, 교회 활동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조셉은 루이의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도 좋아했다. 두 사람은 종종 지역 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에도 다녔다. 루이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칠 무렵, 둘의 관계는 사랑으로 무르익어 있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방학 동안 조셉은 옥든에 있는 루이를 만나기 위해 바퀴 자국이 깊이 패인 흙길을 따라 왕복 160킬로미터를 자전거로 두어 번 다녀오기도 했다.<sup>12</sup>

마침내 루이와 조셉은 결혼을 상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궁금증이 남았다. 조셉은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부름받을 것인가? 당시에는 선교 사업을 원하는 젊은 남녀가 감독을 찾아가 추천서를 써 달라고 하지 않았다. 선교사 부름장에 관한 전 과정은 교회 회장단 사무실에서 전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언제 선교사 부름장을 우편함에서 발견하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1897년 봄에 루이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옥든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1년 뒤, 당장 선교사 부름장이 오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두 사람은 결혼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에 조셉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루이에게 거처를 옮기도록 설득했고, 우리는 1898년 4월 26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으로 가서 나의 아버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을 집행자로 모시고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했다.”<sup>13</sup> 조셉과 루이는 시가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

### 선교사 부름에 순종하다

교회 초기에는 종종 기혼 남성이 전임 선교사 부름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1899년 3월 17일에 로렌조 스노우 회장이 서명한 선교사 부름장을 우편함에서 발견하고서도 조셉과 루이는 놀라워하지 않았다. 어쩌면 조셉은 부름받은 지역을 확인하고서야 다소 놀랐을지 모른다. 그는 부름장이 도착하기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프랭클린 디 리차즈 회장과 함께 선교사 부름장을 받을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훗날 조셉은 이렇게



전임 선교사 시절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

회상했다. “[그분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물으셨다. 나는 특별히 원하는 곳은 없으며 부름받은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호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다면, 독일이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를 영국으로 보냈다!”<sup>14</sup>

루이는 조셉이 없는 동안 친정 부모님과 살기로 했다.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데 그편이 더 나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하면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면서 조셉의 선교 사업 비용에 보탬을 벌 수도 있을 것이었다.<sup>15</sup>

1899년 5월 12일, 선교 임지로 떠나기 하루 전에 스미스 장로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지 티즈데일 장로와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그것이 전임 선교사

로 떠나기 전에 받은 유일한 훈련이었다. 이 모임에서 선교사들은 각자 공식적인 선교사 증서를 받았다. 스미스 장로의 증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이 증서를 소지한 조셉 에프 스미스 이세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충실한 신앙으로 회원 자격을 행사하고 있으며, 상기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직분과 관련된 모든 의식을 집행하도록 영국 선교부로 합당하게 부름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열어 주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인 스미스 장로가 전하는 가르침과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여정에 도움을 주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것을 만민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스미스 장로와 그를 영접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축복을 세세 영원토록 부어 주시도록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99년 5월 12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상기 교회를 대표하여, 제일회장단 로렌조 스노우, 조지 큐 캐넌, 조셉 에프 스미스.”<sup>16</sup>

이튿날, 가족들은 조셉과, 조셉보다 나이가 더 많은, 영국으로 부름받은 또 다른 한 장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집으로 모였다. 그러나 가족 중 한 명이 보이질 않았다. 조셉의 여동생인 에밀리가 몇 년 전에 한 일이 부끄러워 숨어 버린 것이다. 조셉과 루이가 교제를 할 당시 이따금 조셉이 루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에밀리를 포함한 어린 동생들을 일찍 잠자리에 들게 했었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느껴 불만을 품은 에밀리가 주님이 오빠를 멀리 선교사로 보내 버리시도록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오빠가 떠나게 되자 에밀리는 자신이 어느 정도 이 일을 거들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다.<sup>17</sup>

그러나 조셉과 루이는 영국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이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았다. 조셉은 의무를 다하려는 의욕이 불타올랐고, 루이는 남편이 선교 사업을 나가게 되어 기뻐했다. 그러나 헤어져 지내야 한다는 점이 두 사람을 괴롭게 했다. 기차역으로 출발할 시간이 되자 “루이는 마음을 다잡고 조셉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붉어진 눈시울을 감출 수는 없었다. 조셉 역시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 지독한 그리

움을 느꼈고, 누구와 말을 나누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 퍼스트노스 거리에 있는 고향 집 문 앞에 멈춰 서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과 아주머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나누자마자 조셉은 목이 메었다. ‘잘 있어요, 내 소중한 루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저를 위해 당신을 지켜 주시기를.’”<sup>18</sup>

---

### 영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불편한 데다 담배 연기까지 자욱한 기차는 고향을 뒤로하고 달려 나갔고, 스미스 장로는 그 순간부터 선교 사업에 혼신을 다했다. 그의 일지와 서신에는 선교사로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고자 쏟은 그의 신앙과 헌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영국에서 선교사로서 보낸 첫날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내 짧은 인생에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집을 떠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다. …… 나는 오늘 전도하러 나가서 소책자 25부를 건넸다. 처음 해 보는 일이었는데, 도통 수월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 나는 오늘 처음으로 세상에 간증을 전했으나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도움에 힘입어 나는 내가 받은 부름대로 그분의 뜻을 행할 것이다.”<sup>19</sup>

아버지가 필요한 물품을 사라며 몇 달러를 보내오자 그는 이렇게 회신했다. “보내 주시는 돈은 아주 신중하게 쓰겠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저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스미스 장로는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겠다는 결의를 아버지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다. “저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곳에 있으며 그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 이곳에 있는 동안 제 생각과 재능을 키워서 인생의 모든 행로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모든 면에서 의롭고 싶습니다. 복음에 관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만큼 제게 큰 기쁨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복음에 해박해지고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sup>20</sup>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에게 칭찬을 담은 답장을 보내 주었다. “네 태도에 마음이 흡족하구나. 나는 너의 진심을 믿으며, 네 덕분에 행복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 아버지는 네가 성령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 아니라 지혜와 신중한 판단력과 인내심을 기르기를 바란다.”<sup>21</sup> 루이의 아버지인 루이스 셔틀리프 역시 스미스 장로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나는 늘 자네가 영광스러운 선교 사업을 완수하고, 장차 오를 높은 지위에 유용할 경험을 하게 되리라는 느낌을 받아 왔다네.”<sup>22</sup>

루이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늘 그녀를 향한 조셉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조셉은 종종 납작하게 눌러서 말린 꽃을 “다정다감하고 애정 어린 편지”에 함께 담아 보내기도 했다.<sup>23</sup> 또한 그는 서신에 자신이 직면한 시련을 토로했다.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이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나와 복음을 받아들일 도덕적 용기가 없다 오.”<sup>24</sup>

루이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편지를 보냈다. 한 번은 이렇게 적어 보냈다. “이곳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단 한 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저는 늘 제 소중한 남편인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려요.”<sup>25</sup> 루이는 늘 남편만을 바라보았으며,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도 똑같은 충실함을 보였다. 루이는 조셉에게 향수병으로 봉사에 대한 결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끊임 없이 각인시켜 주었다.

스미스 장로는 그런 격려가 필요했다. 그는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려는 사람을 거의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년 후에 스미스 장로는 “아들 조셉에게 그때 상황이 안 좋았고, 사람들이 극도로 무관심해서 선교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sup>26</sup>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이들이 보내온 격려에서 기운을 얻고, 그 사람들의 기도와 더불어 봉사를 갈망하는 본인의 소망에서 힘을 얻어 그런 사념을 떨쳐 버렸다. 스미스 장로는 주께서 자신을 부르셨으며, 가족들과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적었다. “영예로운 기록과 해임 없이 귀환하느니 차라리 이곳에 영원히 남으리라. …… 복음의 영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샘솟아서 영예롭게 해임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한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드린 수많은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sup>27</sup>



루이 셔틀리프 스미스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1901년 6월 20일에 선교 사업에서 영예롭게 해임되었다. 2년 동안 성실하게 봉사했지만 “그가 개종으로 이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그는 단 한 번의 침례도 주지 못했다. 개종자 한 명에게 확인 의식을 해 준 게 전부였다.”<sup>28</sup> 그러나 스미스 장로와 동반자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많은 사람이 더 큰 평화와 지식을 얻도록 도왔고, 그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교사로서, 신권 지도자로서 더 크게 성장했다.

---

### 새로운 보금자리와 새로운 책임

조셉은 1901년 7월 9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옥든에서 처가 식구들과 며칠을 보낸 조셉과 루이는 조셉의 집에 딸린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고, 둘이 함께하는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가정과 가족을 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보여 준 신앙과 근면, 봉사로 특징지어진다.

귀환하고 얼마 후, 조셉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주선으로 그는 솔트레이크 카운티 서기 사무실 임시직에 취직했다. 그리고 약 5주 후에 교회 역사가 사무실에 채용되었다. 조셉은 교회 역사를 알아가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사람들에게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는 교회를 옹호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일했다. 이것이 장차 교회에 유익이 된 봉사의 시초였다.

1902년 봄, 루이는 임신을 했다. 루이와 조셉은 당시 살던 아담한 아파르트도 감사히 여겼지만,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짓고 싶은 마음이 컸다. 조셉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이들은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건설업체를 고용했고, 대부분의 일은 조셉이 손수 해결하여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1902년 9월에 첫 딸 조세핀이 태어났으며, 약 10개월 후에 이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1906년, 루이는 힘겨운 임신 기간 끝에 둘째 딸 줄리나를 낳았다.

조셉은 늘 주님의 구원 사업에 기꺼이 동참하려 했으며, 그럴 기회 또한 많았다. 1902년에 그는 칠십인 제이십사 정원회 회장 중 한 명으로 부름 받았으며 정원회 교사 임무도 받았다.(당시 교회에는 100개가 넘는 칠십인 정원회가 있었다. 그 정원회의 회원들은 총관리 역원은 아니었다.) 또한 조셉은 청남 상호향상회 본부 위원회 및 솔트레이크 스테이크 고등평의회 일원으로 부름받기도 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그의 형제 하이럼의 손으로 대제사에 성임되었다. 1906년 4월 연차 대회에서는 교회 역사가 보조로 지지받았으며, 이듬해 1월에는 “교회의 적들이 가하는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옹호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는” 목적을 띤 특별 위원회에 임명되었다.<sup>29</sup>

아버지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할 때 조셉은 종종 아버지와 서신을 주고받고 그 밖의 행정 업무를 완수하도록 도왔으며, 이따금 교회 임무를 수행하는 아버지와 동행하기도 했다. 스미스 회장을 대신해서 방문을 간 적도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유타 주] 브리검시티로 가서 브리검시티 제2와드 집회소를 헌납했다. 와드 회원들은 아버지가 헌납 기도를 해 주시기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독감에 걸리신 아버지는 나를 대신 보내셨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이 기차역에서 조셉을 봤

을 때 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다.<sup>30</sup> 전하는 말로는, 스테이크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엉엉 울음이 터져 버릴 것만 같군요. 교회 회장님이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아들이 대신 왔어요.” 일설에 따르면 조셉은 재치있게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저도 엉엉 울음이 나올 것 같네요.”<sup>31</sup>

교회에서 맡은 임무 때문에 집에서 지낼 시간은 적었지만, 그 와중에도 조셉과 루이는 함께 봉사하고 같이 지낼 시간을 마련했다. 조셉은 1907년 11월 1일 자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거의 온종일을 루이와 함께 보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자 최고로 유익한 날로 손꼽힐 것이다.”<sup>32</sup>

---

### 시련과 축복

1908년 3월, 조셉은 집에 머물며 루이 곁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느끼고는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책임을 한쪽에 미뤄 두었다. 루이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초기에 계속되는 극심한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있었다. 기도와 신권 축복,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과 의사들의 세심한 치료에도 상태는 악화되었다. 결국 루이는 3월 30일에 세상을 떠났다.

비통에 잠긴 조셉은 이렇게 기록했다. “불안과 근심이 끊이지 않은 이번 달 동안 나는 가장 사무치고 고통스러운 경험 및 시련과 마주했다. 이 모든 역경 속에서 나는 힘과 위안을 주시도록 주님께 매달렸다. 삼사 주간 이어진, 극에 달하는 통증과 두 달여간 지속된 병고 끝에,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나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남겨 두고 더 나은 세상으로 떠났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만남을 위해 참을성 있게, 슬픔 속에서 기다릴 것이다.” 조셉은 아내가 “확고한 신앙을 간직한 채 모든 복음 원리 앞에 진실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전했다.<sup>33</sup>

엄마 없는 가정에서 어린 두 딸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조셉의 부모는 어린아이를 둔 조셉의 가족과 함께 지내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한 도움이 있었지만, 홀로 남은 조셉은 어린 자녀에게 애정 어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조셉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늘 그래 왔듯이 이 문제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기도했다. 기도는 교회 역사가 사무실 서기였던 예설 조지나 레이



에설 레이놀즈 스미스

놀즈를 통해 응답되었다. 조셉은 1908년 7월 6일에 딸들과 함께하는 공원 나들이에 그녀를 초대했다. 네 사람은 모두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며 나들이는 성공리에 끝났다. 열흘 후, 조셉과 에설은 아이들 없이 둘만의 데이트를 했고, 곧 두 사람은 약혼하게 되었다.

에설과 조셉은 1908년 11월 2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몇 년이 흐른 후 에설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셉은 이런 말을 전했다. “내게 동반자가 필요했을 때 실수를 범하지 않은 것에 주님께 얼마나 자주 감사드리는지 모를 거요. 당신은 내게 보내진 사람이라요.”<sup>34</sup> 에설은 조셉에게 사랑스러운 동반자였을 뿐 아니라 금세 조세핀과 줄리나에게도 어머니가 되어 주었다.

---

###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하다

1910년 4월 연차 대회를 앞두고서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존 알 윈더 회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존 헨리 스미스 장로가 제일회장단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십이사도 정원회에는 공석이 생겼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공석을 채울 책임자를 논하기 위해 솔트

레이크 성전으로 모였다. 이들은 한 시간여를 논의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혼자서 한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자리로 돌아온 스미스 회장은 머뭇거리며 열세 명의 다른 형제들을 향해 자신의 아들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를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지를 물었다. 스미스 회장은 자신의 아들 하이럼이 이미 평의회 일원이고 또 다른 아들 데이비드도 감리 감독단 보좌이기 때문에 제안하기가 주저된다고 말했다. 스미스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또 총관리 역원이 되는 것에 대해 교회 회원들이 불평하지는 않을지가 우려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조셉을 고려해 보도록 제안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사람들은 즉시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조셉 필딩 스미스가 그 직분을 맡는 것을 지지했다.

스미스 회장은 대회에서 발표하기 전에 [조셉의] 어머니에게 조셉이 선택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조셉의 누이인 에디스 에스 패트릭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1910년에 아버지가 성전 평의회 모임에 다녀오셨을 때 매우 근심 어린 표정이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무슨 일인지 여쭙자 아버지는 조셉이 십이사도 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총관리 역원들이 조셉을 만장일치로 택했으며, 하지만 현 교회 회장이 자기 아들을 사도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아버지께 사람들의 반응은 단 일분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주님이 조셉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며, 조셉이 그 부름을 적절히 수행해 내리라는 것을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당시에는 부름에 선택된 사람에게 미리 알려 주지 않은 채 대회에서 지지를 묻기 위해 호명할 때 당사자가 알게 되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래서 1910년 4월 6일에 연차 대회장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설 때까지도 조셉 필딩 스미스는 자신이 선택된 것을 알지 못했다.” 그가 태버내클로 들어서자 안내원이 말했다. “조셉 형제님, 누가 새로운 사도가 될까요?” 조셉은 이렇게 답했다. “모르죠. 하지만 당신도 아니고 저도 아닐 겁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이 호명되기 전에 조셉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것이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그는 훗날 말하기를, 그랬음에도 자신의 이름이 발표되었을 때 “화들짝 놀랐으며 어안이 병병했다.”고 한다.



1921년 십이사도 정원회.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제일 왼쪽에 서 있다.

그날 오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에설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 조셉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다. “소를 팔아야 할 것 같소. 더는 소를 돌볼 시간이 없으니 말이오!”<sup>35</sup>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한 60년 세월 동안, 조셉 필딩 스미스는 세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 예로, 그가 사도로 부름 받았을 때에도 기본 운송수단은 여전히 말과 마차였다. 그러나 정원회에서 봉사하던 말년에는 임무를 수행하러 다닐 때 종종 제트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스미스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신망과 책임이 따르는 여러 직책에 있었다. 사도로 봉사하기 시작하고서 첫 8년 동안에는 아버지의 비공식 비서로서 봉사했다. 그는 1918년 11월에 부친이 작고 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다. 그 시절에 조셉 필딩 스미스는 아버지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을 불러 주는 것을 받아 적었으며, 그 내용은 오늘날 교리와 성약 138편에 실려 있다.

스미스 장로는 교회 역사가 보조 및 교회 역사가로 50년 가까이 봉사했으며, 솔트레이크 성전 회장단 보좌, 솔트레이크 성전 회장, 유타 계보 및 역사 협회[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Society] 회장, 유타 계보 및 역사 잡지[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초대 편집장 및 영업부

장, 교회 교육 위원회 집행 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했다. 또한 교회 출판물 위원회 위원장으로도 봉사했는데, 이때 공과 교재와 기타 교회 출판물로 제작될 어마어마한 분량의 원고를 미리 읽어 보아야 하는 일이 그의 임무였다.

그는 1950년 10월 6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성별되어, 1951년 4월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될 때까지 그 직에서 봉사했다. 또한 1951년 4월부터 교회 회장이 된 1970년 1월까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제일회장단 보좌로서 봉사했다.

---

### 엄중한 경고와 온화한 용서의 성역

연차 대회에서 처음으로 연단에 서던 날,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교회를 감리하는 지도자들의 조치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모든 사람을 겨냥하는 말씀을 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선포했다. “저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모든 교회 회원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이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신앙을 잃게 될 것이며, 진리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sup>36</sup>

스미스 장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내내 경고의 음성을 높였다. 그는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고 말하[는] …… 것을 제 사명으로 여겨 왔습니다. 저는 시온의 스테이크를 방문하면서 주님의 영으로부터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촉구하는 것을 제 사명으로 느낍니다.”<sup>37</sup>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칠 때 보이는 똑 부러지고 직설적인 방식은 그의 온화함과 친절함으로 보완되었다.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조셉 필딩 스미스가 교회 선교사 위원회 위원장이던 시절에 참석했던 한 모임에서 그런 면을 목격했다. “교회 소유 차량에 타고 있던 두 장로가 당한 사고 소식이 들어왔다. 한 늙은 채소 장수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트럭을 모는 바람에 선교사 차량이 옆면을 들이받혀 무참히 찌그러졌다. 트럭 운전수는 경찰에게 딱지를 떼었다. 그에겐 보험이 없었다. 다행히도 선교사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안을 고려하는 동안 스미스 위원장님은 잠자코 앉아 계셨다. 어느 정도 논의 끝에 위원들은 선교사부 관리 책임자에게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지시했다.

그제서야 위원들은 스미스 위원장님에게 그 조치에 동의하시시기를 여쭙었다. 이에 그분은 나지막하게 말씀하셨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걱정하고 달려든다면 그 가난한 노인에게서 트럭도 뺏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먹고살죠?’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무색해서 서로의 얼굴을 힐끔거립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교회가 새로운 선교사 차량을 구입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이 문제는 덮어 두기로 했습니다.’<sup>38</sup>

---

###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이자 아버지”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스미스 장로에게는 조세핀과 줄리나, 그리고 그와 에설 사이에 낳은 첫 아이 에밀리까지 세 자녀가 있었다. 7개월 후에 이 가족에게 넷째 딸이 태어났다. 에설과 조셉은 아이에게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나오미는 태어날 때 겪은 합병증 탓에 생사를 넘나들었고, 가족들은 나오미를 잃게 될까 봐 염려했다. 그러나 훗날 그녀의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나오미는 “소생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와 신권 축복의 힘으로 살아났다.”<sup>39</sup> 에설은 그 후로 로이서, 에밀리아, 조셉, 루이스, 레이놀즈, 더글러스, 밀튼까지 일곱 자녀를 더 낳았다.

스미스 회장은 사도로써 임무를 수행하느라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집에 있을 때면 가족에게 온 정성을 기울였다. 아내인 에설은 그를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이자 아버지이며, 그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포부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자신을 완전히 잊는다.”<sup>40</sup>라고 묘사했다.

스미스 회장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혹독하고 엄격한 사람으로 여기는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재미있어 했다. “스미스 회장이 올바른 자녀 훈육의 중요성에 관해 다소 격하게 설파하자, 이에 마음이 상한 한 여성이 스미스 회장의 어린 두 딸에게 다가와 동정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버

지가 때리시지?” 말도 안 되는 이 말에 딸들은 그저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그 여성보다 아버지를 훨씬 잘 알았으며, 아버지는 절대로 자신들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스미스 회장이 장기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들은 기차역에서 아버지와 열광적인 재회를 하는 순간부터 며칠 후 다시 슬픈 작별을 고했을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놀이를 하고, 파이와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소풍을 가고, 기차를 타며, 협곡과 강 근처에 놀러 가기도 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세계 곳곳에서 수행하는 교회 임무에 관해 듣는 것도 좋아했다.<sup>41</sup> 그들은 또한 함께 일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sup>42</sup>

아들들은 운동을 했는데, 스미스 회장은 기회가 닿는 대로 아들들의 경기에 참석했다.<sup>43</sup> 그는 아들들과 운동 경기를 하는 것도 즐겼는데, 특히 핸드볼을 좋아했다. 그는 아들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경쟁을 좋아했다. 스미스 회장의 아들 레이놀즈와 루이스는 두 명이 짝을 지어 아버지와 겨루던 일을 기억한다. 스미스 회장은 경기 동안 자신이 어느 쪽 손을 사용할지를 아이들에게 정하라고 했다. 스미스 회장은 한 손을 뒤로 하고도 항상 “그 둘을 손쉽게 이겼다.”<sup>44</sup>

---

## 슬픔과 희망

집을 비워야 하는 스미스 장로의 임무는 예설과 자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스미스 장로 역시 몇 주씩 떨어져 지내는 것을 괴로워했다. 1924년 4월 18일에 스미스 장로는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기 위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다. 당시 예설은 임신 7개월이었으며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당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입니다.”<sup>45</sup> 가족을 마음 깊이 그리며 그는 자작시로 편지를 맺었다. 이 시의 몇몇 구절은 현재 “가시밭 험한 길”이란 제목의 교회 찬송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시 밟 험한 길  
찌는 더위 중에  
저 높은 곳 오르려 할 때  
있는 힘 다해야

도달되는 저 곳  
 여행 길게 생각 되느냐  
 근심의 짐 저서  
 맘에 약함 절망  
 영혼 모두 피곤해질 때  
 네가 진 그 짐은  
 너무 무거웁고  
 도움 없다 생각되느냐  
 맘의 고통으로  
 네 가슴 아플 때  
 이제까지 걸은 저 아래  
 골짜기 내려다 보고  
 한숨지며  
 되돌아 가기 원하느냐  
 너의 여행 이제  
 시작되어 가니  
 네 마음에 낙담 말아라  
 오라 손짓하는  
 우리 주 계시니  
 위를 보고 기뻐하여라<sup>46</sup>

1933년부터 단란했던 스미스 가족은 9년 전 스미스 장로가 이 시에서 언급한 무거운 “근심의 짐”으로 굴곡을 겪기 시작했다. 에설이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병에” 걸린 것이다. 그녀는 가끔 깊은 우울감에 젖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몸이 혹사될 정도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가족들의 애정 어린 사랑과 도움, 기도, 축복, 심지어 입원 생활마저도 전혀 소용이 없는 듯했다.”<sup>47</sup> 4년 동안 그렇게 시달린 끝에 에설은 1937년 8월 26일에 눈을 감았다. 그녀의 죽음을 기록하며, 아내를 잃은 남편은 이렇게 적었다. “그녀보다 더 훌륭한 여성이나 더 충실한 아내, 어머니는 없을 것이다.”<sup>48</sup> 슬픔은 참담했지만, 스미스 장로는 자신과 에설 레이놀즈 스미스가 성스러운 인봉의 성약으로 영원히 결속되었음을 알고 있다는 데서 위안을 얻었다.

## 새로운 우정이 결혼으로 이어지다

에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스미스 회장 집에는 아직 다섯 자녀가 살고 있었다. 그 중 둘은 곧 집을 떠날 예정이었다. 어밀리아는 약혼한 상태였고 루이스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열여섯 살 난 레이놀즈와 열세 살인 더글러스, 열 살인 밀튼만 남겨질 터였다. 엄마 없이 남겨진 아들들에 마음이 쓰인 조셉 필딩 스미스는 재혼을 숙려했다.

이를 염두에 둔 스미스 장로는 곧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유명한 독창가인 제시 엘라 에번스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다. 에설의 장례식에서 독창을 해 준 제시에게 스미스 장로는 간단한 감사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를 계기로 두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 이런 교류가 있기 전에는 친분이 없는 사이였지만 둘은 금세 좋은 친구가 되었다.

스미스 회장은 여러 날에 걸쳐 제시에게 구혼할 가능성에 관해 숙고하고 기도했다. 마침내 그는 제시와 좀 더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고 싶은 속마음을 편지에 담았다. 나흘 후에 스미스 회장은 용기를 내어 그 편지를 직접 건네기로 했다. 그리고는 제시가 카운티 기록관으로 일하던 시 및 카운티 사무실로 편지를 가져갔다. 훗날 그는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카운티 기록관 사무실에 갔다. …… 나는 매우 중요한 기록관과 면담했고 내 편지를 전달했다.”<sup>49</sup> 한 주간 기차로 여러 스테이크 대회 모임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온 스미스 장로는 다시 한 번 제시를 찾아갔다.

직설적인 평소 모습대로 스미스 장로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제시 에번스 양과 만나서 중요한 면담을 했다.” 서로 흠모하는 마음에서 스미스 장로는 제시의 어머니를, 제시는 스미스 장로의 아이들을 만나보도록 약속을 잡았다. 한 달도 채 안 된 1937년 11월 21일에 제시는 약혼반지를 받아들었다. 1938년 4월 12일, 두 사람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교회 제7대 회장인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집행 아래 인봉되었다.<sup>50</sup>

스미스 회장이 교회 회장이었을 때 제일회장단 비서로 봉사한 프랜시스 엠 기븐스 장로는 조셉 필딩 스미스와 제시 에번스 스미스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와 제시 에번스 스미스는 스물여섯 살 나이 차이에 기질, 배경, 교육적인 배경이 매우 달랐지만 놀랄 만큼 잘 어울렸다. 제시는 활기 넘치고 외향적이며 유쾌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으며



피아노 옆의 조셉 필딩 스미스와 제시 에번스 스미스

대중의 이목을 즐기는 성향이였다. 반면, 조셉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위엄 있고 독립적이었으며 공적인 자리를 늘 불편해하는 듯 보였고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바란 적이 없었다. 판이한 두 사람의 성격 차를 매워 준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이였다.”<sup>51</sup> 이러한 사랑과 존경은 제시가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살았던 그녀의 모친 저넷 뷰캐넌 에번스에게도 돌아갔다. 에번스 자매는 딸과 함께 사위 집에서 살며 손주 돌보는 일을 거들었다.

---

### 혼란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돌보다

새로 가족이 된 스미스 자매는 스미스 장로의 자녀와 증손주에게 제시 아주머니라 불렸는데, 그녀는 남편이 스테이크 대회에 방문하기 위해 여행할 때 자주 동행했다. 그녀는 현지 지도자들에게서 종종 모임에서 노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가끔씩 그녀는 함께 노래를 부르자며 남편을 설득하기도 했다. 1939년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스미스 장로 부부에게 유럽 교회의 모든 선교부를 돌리도록 지시했다.

스미스 부부가 유럽에 당도했을 때는 아직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이었지만, 국가 간 긴장은 이미 고조되고 있었다. 스미스 부부가 독일에 체류 중이었던 8월 24일, 제일회장단은 스미스 장로에게 독일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중립국으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했다. 스미스 장로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 일을 지휘했다. 선교사들을 이동시키던 그 시점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윌리스 토론토 역시 안전을 위해 아내 마사와 아이들을 코펜하겐으로 보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은 억류된 선교사 네 명을 무사히 철수시키기 위해 현지에 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여러 날 동안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다. 마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모든 기차와 여객선과 배가 독일에서 마지막 귀환을 시작하는 날이 다가왔다. 우리는 윌리[토론토 회장]와 그가 데리고 있는 네 젊은이가 모항을 향하는 마지막 여객선에 탔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내가 깊은 근심에 휩싸여 시시각각으로 더욱 심란해하자 스미스 회장님은 내 어깨에 그분의 든든한 팔을 두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토론토 자매님과 토론토 형제님, 그리고 그분의 선교사들이 이곳 덴마크 땅에 닿기 전에는 이 전쟁이 시작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해가 저물고 초저녁이 되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 윌리였다! 이 다섯 명은 영국 공사관과 함께 그들을 위해 마련된 전용 기차로 체코슬로바키아를 빠져 나왔고, 독일에서 출발한 마지막 여객선에 몸을 실었으며, 현재는 [덴마크] 해안에서 코펜하겐으로 향하는 운송 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선교 본부와 350명의 선교사는 짙은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내리쬐는 것만 같은 안도와 행복감을 느꼈다.”<sup>52</sup>

스미스 장로는 철수한 수많은 선교사를 받아 준 덴마크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결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스미스 장로는 그들이 베푼 관대함 덕분에 덴마크인들은 전쟁 동안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수년 후 “덴마크인들은 그 어떤 유럽 국가 사람들보다도 수월하게 전쟁을 이겨 냈다. 덴마크 성도들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 고통받는 후기 성도들에게 복지 물자를 보내기도 했다. 회원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덴마크 선교부 십일조 수령액은 두 배 이상 늘었다. …… 덴마크 성도들은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덕분에 자신들이 그러한 여건을 축복받았다고 여겼다.”<sup>53</sup>

전쟁이 터지자 스미스 장로는 유럽에서 봉사하는 미국인 선교사 697명을 철수시키는 일을 조직했다. 일부 선교사들은 지방부 및 지부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었기에 스미스 장로는 그런 역원들의 책임을 현지 회원들에게 이양했다. 이 임무를 완수한 스미스 장로는 제시와 함께 배편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들은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서 7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스미스 장로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무사히 집으로 귀환할 수 있어서 기뻐했지만, 각자의 조국에서 전쟁의 비극을 겪게 된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염려를 표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모임을 하고, 모임 끝에 사람들과 약속할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모두 우리를 따스하게 반겨 주었으며, 그들이 보여 준 [우정]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칠 것이며 살아서는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들이 가여워, 주님이 이 두려운 나날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매일 기도드린다.”<sup>54</sup>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영국에 있던 스미스 장로의 아들 루이스도 마지막에 임지를 빠져 나온 선교사 중 하나였다.<sup>55</sup> 그로부터 약 2년 반 뒤에 루이스는 또다시 대서양을 건넜다. 이번에는 군인으로서 참전하기 위해서였다.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슬픈 일이었다.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인간의 간악함 때문에 온 세상을 뒤덮는 갈등 속으로 떠밀려 가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sup>56</sup>

1945년 1월 2일, 아들이 전사했다는 전보가 스미스 장로에게 전해졌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루이스가 곧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던 우리에게 이 소식은 정말 큰 충격이었다. 우리는 전에 몇 번이나 위험을 면했듯 루이스가 이번에도 안전하리라고만 생각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세상에 널리 퍼져 있고 군대에 만연한 해로운 습관에서 루이스가 자유롭고 깨끗했다는 것을 알기에 큰 평안과 행복을 느낀다. 루이스는 신앙에 충실했으며, 우리가 재결합하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아이였다.”<sup>57</sup>

## 신임받는 교사이자 지도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서 조셉 필딩 스미스는 종종 후기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불러 회개하게 했다. 그는 연차 대회에서 125차례 이상 설교했고, 수많은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으며, 계보 학회 및 라디오 방송 등에서도 말씀을 전했다. 그는 또한 저술을 통해 가르침을 전해 주었다. 수년 동안 그는 교회의 *Improvement Era*[임프루브먼트 이라] 잡지에 특집 기사를 기고하며 독자들이 보내온 질문에 답하는 임무를 맡아 했다. 또한 여러 교회 잡지와 *Deseret News*[데저렛 뉴스] 교회란에 기사를 내기도 했다. 1910년부터 1972년까지 사도로 봉사하는 동안 그의 글은 *Essentials in Church History*, *구원의 교리*,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Answers to Gospel Questions*를 비롯한 25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교회 회원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저술을 읽으며 스미스 회장을 복음 화자로서 신뢰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법을 배웠다. 엔 엘든 테너 회장이 말한 것처럼, 조셉 필딩 스미스는 “모든 복음 원리를 실천하고 말씀과 글로 그 원리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그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에게 불멸을 주시려고 목숨을 내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sup>58</sup>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생애와 업적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일들만 함으로써 보여 드리고자 한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

2. 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를 통해 회복된 영원한 진리, 순교자로서 죽음을 맞이한 자신의 조부인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 우리를 살리려고 피 흘리신 분의 대업을 위해 용감하게 인내한 자로서 해의 왕국에 영원히 기록될 이름인 자신의 아버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에 대한 충절.

3. 해박한 복음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 의의 전도사로서 보여 준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함,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모범과 교훈으로 순수한 종교를 실천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sup>59</sup>

스미스 회장과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한 총관리 직원들은 그를 현명하고 인정 많은 지도자로 여겼다. 그의 8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십이사도 정원회 동료 회원들은 그에게 바치는 헌사를 발행했다. 이 헌사에서 그들은 이렇게 밝혔다.

“그분의 지도력 아래 봉사하는 우리 십이사도 평의회는 그분의 성품에 깃든 참된 고결성을 맛볼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임무 지명을 하고 주님의 사업을 진척하기 위해 우리의 활동을 조정할 때 그분이 동료에게 베푸시는 이해심과 배려를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 회원이 그분의 다정함을 느끼고, 불행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복리를 몸서 염려하는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분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며 쉬지 않고 죄인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놀라운 분별력을 지닌 그분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오직 다음 두 가지만을 고려하시는 듯합니다. 제일회장단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왕국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sup>60</sup>

---

## 교회 회장

1970년 1월 18일 안식일 아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필멸의 생애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교회를 인도할 책임은 93세 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이끄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맡겨졌다.

1970년 1월 23일, 십이사도 정원회는 함께 모여 스미스 회장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스미스 회장은 해롤드 비 리를 제1보좌로, 엔 엘든 태너를 제2보좌로 택했다. 그런 후 세 사람은 그들의 새로운 책임을 위해 성별되었다.

그 모임에 참석한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는 이렇게 회상했다. “총관리 직원들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택하고 성별하며 팔을 서로에게 돌렸을 때, 그 모임에는 훌륭한 단합의 영과 위대한 사랑이 느껴졌다.”<sup>61</sup>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과 제일회장단에 있던 그의 보좌 해롤드  
비리 회장(중앙)과 엔 엘든 테너 회장(오른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스미스 회장의 부름과 관련하여 자신이 받은 증거를 들려주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에 저는 주말에 대회에서 수행할 임무를 생각하면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5층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열리는데 안에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사무실은 아래층이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출입구에 서 계신 그분을 보았을 때 제게 강력한 증거가 임했습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서 있노라.’ 순수한 예지와 일맥상통하는, 빛에 가까운 그 감미로운 영의 음성은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sup>62</sup>

스미스 회장의 지도력 아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 일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첫 번째 스테이크가 세워진 것을 포함하여 81개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으며, 교회 회원수는 3백만을 넘어섰다. 유타 주 욕든과 프로보에 성전 두 곳이 헌납되었다.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수록 스미스 회장은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후기 성도들에게 “사실상 교회 조직은 가족과 가족 구성원이 승영에 도달하는 일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sup>63</sup>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현세와 영원을 통틀어 가족은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 주님은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하기를 바라십니다.”<sup>64</sup> 가족과 개인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는 가정의 밤을 더욱 강조했다. 가정의 밤은 스미스 회장의 아버지가 교회 회장이던 1909년부터 권고해 온 프로그램이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재임 기간에 월요일이 가정의 밤을 위한 날로 공식 지정되었다. 교회는 월요일 밤에 어떠한 모임도 열지 않고 현지 교회 시설을 닫게 했다.

고령이었음에도, 스미스 회장은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과 젊은이와 같은 기운으로 부름에 임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가 교회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봉사하는 2년 5개월 동안 전 세계 후기 성도들은 그가 전한 메시지로 고취되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의 자녀입니다.”<sup>65</sup>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sup>66</sup> 그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서서 실제로 그분들을 보았[으며]”<sup>67</sup> “이 시대와 세대를 위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구원의 지식을 계시한 사람”<sup>68</sup>이 되었다고 간증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의 방식을 뒤로하고”<sup>69</sup>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격려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한두 가지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돕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장점을 보아야 한다는”<sup>70</sup> 것이었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과 형제애”를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은 복음을 나누는 것, 곧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대에 …… 계시된 영생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권유[하는 것]”<sup>71</sup>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대규모로 모인 후기 성도 젊은이들과 직접 만나서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굳게 서[라고]”<sup>72</sup> 격려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자주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을 대표하고 그분의 권세를 소유하도록 부르받[았음]”을 일깨워 주었으며 “자신이 누구 인지를 기억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sup>73</sup>고 권고했다.

그는 모든 후기 성도에게 성전 축복을 받고, 성전 성약에 충실하며, 그들의 조상을 위해 성스러운 의식을 받도록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독려했다. 유태 옥든 성전을 헌납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점을 상기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성전을 헌납할 때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이 집을 사용하겠다고 성약하고 주님을 위한 봉사 에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sup>74</sup>

그는 이렇게 촉구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며 끝까지 견디십시오. 모든 성약과 임무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sup>75</sup>

브리검 영 회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스미스 회장의 영향력과 지도력을 이렇게 묘사했다. “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종교를 실천하고 영의 속삭임을 따른다면, 우리의 영은 무너지거나 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육신이 수명을 다해 감에 따라 영은 휘장 뒤편에 있는 끝없는 실체를 더욱 강하게 붙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예지의 보석을 길어 올릴 것이며, 이 예지는 노쇠하고 오그라져가는 성막을 불멸의 지혜라는 후광으로 둘러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장에게만 결정권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토론에 참여하면서 이 말이 참됨을 거듭 목격했습니다. [스미스 회장님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이 번뜩이는 지혜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 그분의 이해력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sup>76</sup>

---

### **“주님으로부터 …… 더 위대한 또 다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다]”**

1971년 8월 3일, 제시 에번스 스미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세 번째로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스미스 회장은 딸 어밀리아 맥콩키와 사위 브루스와 함께 살게 되었다. 다른 자녀

들은 정기적으로 번갈아 가며 아버지를 찾아가고 차를 태워 주었다. 스미스 회장은 계속해서 주 중에는 매일 사무실에 가고 모임에 참석했으며, 교회 업무를 보기 위해 여행했다.

1972년 6월 30일, 하루가 저물 무렵에 스미스 회장은 교회 행정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을 나섰다. 비서인 디 아서 헤이콧과 함께 그는 교회 회장이 되기 전에 봉사한 교회 역사가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싶어했다. 모두와 악수를 한 스미스 회장은 건물 지하로 내려가서 전화 교환원 및 그 구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악수를 건넸다. 그것이 사무실에서 보낸 그의 마지막 날이었다.

96세 생일을 열이레 앞둔 1972년 7월 2일 일요일, 그는 자신이 소속된 워드 성찬식에 참석했다. 그날 오후에는 아들 레이놀즈와 함께 첫째인 조세핀을 방문했다. 그날 저녁,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맥콩키 장로 집에서 평소 제일 좋아하던 의자에 앉은 채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 사위인 맥콩키 장로가 훗날 말했듯이 스미스 회장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충실하게 섬긴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영원한 포도원에서 더 위대한 또 다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sup>77</sup>

이로써 이 지상에서 선임 사도가 된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스미스 회장의 서거 소식을 듣고 맥콩키 일가를 방문했다. 그는 “조용히 의자로 가서 무릎을 꿇고 선지자의 손을 잡았다. 한동안 그는 말없이 그 자세를 한 채 기도 또는 명상에 잠겼다. 그런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그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전했으며,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스미스 회장을 기리도록 권고했다.”<sup>78</sup>

---

### “하나님의 헌신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조문

스미스 회장의 장례식에서 앤 엘든 태너 회장은 그를 “하나님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을 참으로 고귀하게 섬긴 사람, 자신이 감리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과 가족을 모범으로 인도한 사람, 간사함과 교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온 마음을 다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칭했다. 태너 회장은 그를 두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요한복음 12:43]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sup>79</sup>이라고 했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태너 형제와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이 우리를 지지하고 신뢰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지지했습니다.”<sup>80</sup>

60년도 더 전에 받은 십이사도 부름까지도 의문을 제기할 만큼 스미스 회장에게 비판적이었던 한 신문도 다음과 같은 조문을 실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데 엄격했으나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 사항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던 조셉 필딩 스미스는 동료에게 현명한 조언을 주고,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폈으며, 교회에서 맡은 책임에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우리는 그를 그리워할 뿐 아니라 특별한 존경심으로 기억할 것이다.”<sup>81</sup>

아마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가족, 즉 스미스 회장의 사위인 브루스 알 맥콩키가 바친 조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스미스 회장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묘사했다.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예언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그분의 저술에서 복음 교리를 배울 때 그분의 음성이 티끌에서부터 말할 것입니다.”<sup>82</sup>

이 책, 즉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공부한다면 그것은 이 선언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 교리를 배울 때” 그의 음성이 “티끌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다.]”

## 주

1. 고든 비 힝클리, “주의 예언자를 믿으십시오”,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52쪽.
2. Thomas S. Monson, in “News of the Church,” *Ensign*, May 1996, 110.
3. Bruce R. McConkie, “Joseph Fielding Smith: Apostle, Prophet, Father in Israel,” *Ensign*, Aug. 1972, 29.
4. Julina Lambson Smith, in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52.
5.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65.
6.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51.
7.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57.
8. In Conference Report, Apr. 1930, 91.
9.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62.
10.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71-72.
11. Joseph Fielding Smith,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92.
12.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73-74;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1992), 52-53 참조.
13.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 Joseph Fielding Smith, 75.
14.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79.
15.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80 참조.
16.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81.
17.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82 참조.
18.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83.
19.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90.
20.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17; 또한 page 116 참조.
21. Joseph F.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16.
22. Lewis Shurtliff,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12-13.
23.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13.
24.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96.
25. Louie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13-14.
26.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92.
27.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15.
28.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91 참조.
29. In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124.
30.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52-153 참조.
31.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113 참조.
32.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60.
33.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62.
34.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69.
35.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74-76.
36. In Conference Report, Oct. 1910, 39.
37. In Conference Report, Oct. 1919, 88-89.
38. Lucile C. Tate, *Boyd K. Packer: A Watchman on the Tower* (1995), 176.
39. Joseph Fielding Smith, in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162.
40. Ethel Smith, in Bryant S. Hinckley, "Joseph Fielding Smith," *Improvement Era*, June 1932, 459.
41.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4 참조.
42.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234 참조.
43.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5 참조.
44.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237 참조.
45.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88-89.
46. 찬송가, 87장.
47.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242-43.
48.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249.
49. Joseph Fielding Smith, in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275.
50.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251-258 참조.
51.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278-79.
52. Martha Toronto Anderson, *A Cherry Tree Behind the Iron Curtain* (1977), 32.
53.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204.
54.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282-83.
55.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315 참조.
56. Joseph Fielding Smith, in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332.
57.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287-88.
58. N. Eldon Tanner, "A Man without Guile," *Ensign*, Aug. 1972, 33.
59. Bruce R. McConkie, "Joseph Fielding Smith: Apostle, Prophet, Father in Israel," *Ensign*, Aug. 1972, 28.

60.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Improvement Era*, July 1956, 495.
61. Ezra Taft Benson, in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411.
62. 보이드 케이 패커, "성신은 증언하시나니", *성도의 빛*, 1972년 1월호, 9쪽.
63.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단 메시지", *성도의 빛*, 1971년 4월호, 1쪽.
64. 조셉 필딩 스미스, "성도들과 온 세상에 드리는 권고의 말씀", *성도의 빛*, 1972년 12월호, 8~9쪽.
65. Joseph Fielding Smith, *Sealing Power and Salv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Jan. 12, 1971), 2.
66. Joseph Fielding Smith, "The Plan of Salvation," *Ensign*, Nov. 1971, 5.
67. Joseph Fielding Smith, "To Know for Ourselves," *Improvement Era*, Mar. 1970, 3.
68. 조셉 필딩 스미스,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첫 예언자", *성도의 빛*, 1979년 12월호, 31쪽.
69. 조셉 필딩 스미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의 책임", *성도의 빛*, 1971년 12월호, 1쪽.
70. Joseph Fielding Smith, "My Dear Young Fellow Workers," *New Era*, Jan. 1971, 4.
71. 조셉 필딩 스미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 *성도의 빛*, 1972년 5월호, 3쪽.
72. Joseph Fielding Smith,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Speaks on the New MIA Theme," *New Era*, Sept. 1971, 40.
73. Joseph Fielding Smith,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92.
74. Joseph Fielding Smith, in "Ogden Temple Dedicatory Prayer," *Ensign*, Mar. 1972, 6.
75. 조셉 필딩 스미스, "성도들과 온세상에 드리는 권고의 말씀", 8쪽.
76. Harold B. Lee, "The President—Prophet, Seer, and Revelator," *Ensign*, Aug. 1972, 35.
77. Bruce R. McConkie, "Joseph Fielding Smith: Apostle, Prophet, Father in Israel," 24.
78.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495.
79. N. Eldon Tanner, "A Man without Guile," *Ensign*, Aug. 1972, 32.
80. Harold B. Lee, "The President—Prophet, Seer, and Revelator," 39.
81. *Salt Lake Tribune*, July 4, 1972, 12.
82. Bruce R. McConkie, "Joseph Fielding Smith: Apostle, Prophet, Father in Israel," 24, 27.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하여 복음의 모든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그 당시에 이루어진 기술 발전에 경의를 표했다. “기계, 화학, 물리, 수술 등의 분야에서 놀랄 만한 진보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감추어진 은하계를 볼 수 있는 훌륭한 망원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현미경의 도움으로 광대한 미생물계도 발견했습니다. …… 인간은 질병을 통제할 방법도 발견했습니다. …… 인간의 촉감보다 더 섬세하고 인간의 눈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비바람을 통제하고 산을 옮길 만한 기계도 만들었으며 그 밖에도 열거하기 어려운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경향을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탄식했다. “그러나 이 모든 발견과 발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데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겸손이나 회개의 정신을 심어 주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그들을 정죄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 세상 사람들은 신앙도, 의로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도 키우지 못했습니다.”<sup>1</sup>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욱 무관심해졌지만, 반대로 스미스 회장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냈다. 그의 한 외손자는 이렇게 회상했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좋으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종종 우리 집에서 식사하셨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음식 축복을 부탁하시곤 했다. 할아버지의 기도는 언제나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매우 친밀하고 개인적이었다.”<sup>2</sup>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회복되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1

####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시작으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우리 시대에 회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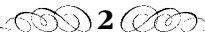
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 선지자에게 나타나 인간에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다시 회복해 주신,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매우 감사히 여깁니다.<sup>3</sup>

우리는 1820년 당시에 모든 기독교 종파가 하나님에 관한 참된 교리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 사도와 성도들이 그토록 분명하게 이해했던 단순한 진리가 배도한 세계의 미궁 속에 잃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경전에서 그토록 분명히 가르치듯이, 모든 고대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의 개별적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배도 때문에 이 지식이 잃은 바 되었습니다. .... 하나님은 미지의 존재가 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된 영의 유출물로서 육체도, 지체도, 감정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출현하시면서, 지상에는 하나님의 참된 본질에 관한 지식을 경험을 통해 세상에 회복할 수 있는 신성한 증인이 생겼습니다.<sup>4</sup>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사람의 몸과 같은 만저볼 수 있는 몸을 가지신 개체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셉 스미스는 성신이 아버지와 아들의 개체와는 별개로 분리된 영의 인격체라는 계시도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세상은 이 지극히 중요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는데도 인간이 그토록 먼 길로 벗어났다는 점은 놀랍고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요한복음 14:28]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만져 보게 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누가복음 24:39]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아버지, 아들, 성신이 별개의 개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고, 자신들이 쓴 편지에서 이 사실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만물이 아버지에게 복종할 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린도전서 15:28]

조셉 스미스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세기 1:27]는 경전 구절이 참되다는 사실을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신비롭게 혹은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sup>5</sup>



##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에게 전달된 한 계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인해 영화롭게 되신 것같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영화롭게 되려면 어떻게 무엇을 예배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93:19~20 참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하여 복음의 모든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과학자나 철학자에게로 갈 것이 아니라-경전을 상고해야 합니다. 요한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가져올 복음 회복에 관해 전한 위대한 예언을 보면, 복음은 인간에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요한계시록 14:7) 다시 말해서,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 회복이 시작되면서 인간은 온 세상에 만연하는 거짓 하나님이 아닌 저들을 지으신 이를 다시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은 선지자를 부르셔서 거짓 예배에 대항하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거짓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사야는 저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이사야 40:18, 28)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지식을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에도 영광스러운 존재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정지으려 하는가? 어찌하여 그대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이하로 여기는가? 그대는 알지 못하였는가? 듣지 못하였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권능과 능력과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이 그분 면전에 나타나 있음을.”

교리와 성약 20편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를 재조직하라는 지시가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기본적인 구원의 교리 몇 가지가 간략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나니, 그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니라.”(교리와 성약 20:17) ……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0:22)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권능과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식, 신앙, 권능, 공의, 정의, 자비, 진리, 그리고 모든 신성한 성품을 온전하게 겸비하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온전한 특성과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며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므로 이 온전한 권능과 성품을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지니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sup>6</sup>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능과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영화롭게 되고 승영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독생자를 통해 이 지상과 무수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증거합니다.<sup>7</sup>

---

3

---

### 하나님은 개별적인 존재이시며 우리 영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의 자녀입니다. …… 우리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 우리는 전세에서 오랜 세월 그분과 함께 거했습니다. …… 그분은 성장과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모든 것에 충실하고 참되면 그분과 같이 될 때까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sup>8</sup>

우리는 경전을 통해 하나님이 상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심을 배웁니다. 우리 구속주께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신 무덤 근처에서 마리아에게 하신 다음 말씀은 참으로 장엄하며 영광스러운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한복음 20:17] 이 말씀에서 자신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가 같은 영원한 아버지를 갖고 있다고 선언하시는 독생자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진리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sup>9</sup>

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분의 율법이 우리 시대에 회복된 것에 감사드리며, 또한 그분께서 일부 다른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우주를 떠도는 안개와 같은 율법의 집합체[무질서한 모음]”가 아닌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교회 회원인 우리가 알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고 영의 아버지이시며, 율법을 제정하여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때까지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권능을 지니셨으며, 그분의 발전이 더 많은 지식이나 권능을 얻거나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더욱 온전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의 왕국을 넓히고 늘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 감사합니다.<sup>10</sup>

---

4

---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값진 진주에서 모세가 심히 높은 산에 이끌려 올라가 하나님과 마주하여 얼굴을 보면서 그분과 대화할 때 받은 시현에 나오는 한 표현이 떠오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손으로 지은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모



여기서 약속된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모세는  
시현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영광에 관해 배웠다.

세는 세상을 보았으며 마지막 세대에 이르는 모든 사람의 자녀를 보았습니다.[모세서 1:1~8, 27~29 참조]

또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보라, 내 권능의 말씀으로 사라져 버린 세상이 많으니라.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많으니, 그것들이 사람에게서는 셀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만물이 헤아려지나니, 이는 그것들이 내 것이요, 내가 그것들을 알고 있음이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주께 말씀하여 아뢰되, 오 하나님, 당신의 종에게 자비를 베푸사 이 땅과 그 주민과 또한 그 하늘들에 관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당신의 종이 만족하겠나이다.

이에 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하늘들, 그것들은 많으니, 사람에게는 헤아려질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헤아려지나니, 이는 그것들이 내 것임이니라.”[모세서 1:35~37]

무수한 세상과 그중 상당수가 이루는 거대한 규모에도, 그것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목표 그 자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시려고, 그분의 아들과 딸들을 두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교리와 성약 76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교리와 성약 76:24]는 것을 배웁니다.

제가 읽어 드린 이 구절과 주님이 주신 여러 계시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배웁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시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땅이 사라지고 그 하늘들도 그리하면, 그와 같이 또 다른 것이 오리니, 나의 일에는 끝이 없고, 나의 말에도 끝이 없느니라.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 -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8~39]

이 구절과 여러 경전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업이 각자에게 그의 행위에 따른 보상을 주어 그분의 자녀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상에 있는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각 영혼마다, 즉 그분의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상에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닐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큼니다.<sup>11</sup>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보고 우신다.**

우리는 주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시고 땅의 민족을 보여 주시고 그들이 그분의 계명을 범하여 받게 될 형벌의 속성을 설명하실 때 우셨으며 그들

의 불순종에 관해 눈물로 슬픔을 비치셨음을 배웁니다. 에녹은 이를 보고 놀랐으며 주님이 우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기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머지 백성을 보시고 울었더라. 그리고 에녹이 그것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니, 이르되, 어찌하여 하늘들이 울며 산 위에 내리는 비같이 눈물을 흘리는고?

또 에녹이 주께 아뢰되, 당신은 거룩하시며 모든 영원에서 모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온대 어찌 우실 수 있나이까?

또 사람이 땅의 티끌 참으로 이 땅과 같은 수백만의 땅을 셀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창조의 수의 시작도 되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막은 여전히 펼쳐져 있고 아직도 당신은 그 곳에 계시오며, 당신의 품도 거기 있사옵고, 또한 …… 당신은 영원토록 자비롭고, 친절하시나이다.” [모세서 7:28~3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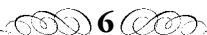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 이 네 형제들을 보라, 그들은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니, 내가 그들을 창조하던 날에 그들에게 그들의 지식을 주었고, 에덴동산에서 내가 사람에게 그 선택의지를 주었느니라.

그리고 네 형제들에게 내가 말하고 계명도 또한 주기를, ……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택하라 하였으나, 보라, 그들은 애정이 없으며 그들 자신의 혈육을 미워하느니라.” [모세서 7:32~33]

이것이 주님과 하늘들이 온 이유입니다.

저는 한 형제님으로부터 자녀 중 한 명이 해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해의 왕국에서 온전히 행복할지를 질문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 중 한 명이 해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그 상황에서 슬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모두 해의 영광에 합당한 것은 아니며 상당수는 그들이 저지른 범법으로 초래된 그분의 진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주님은 자연법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율법에 따라 구속을 받아야 하며 공의의 율법에 따라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얻지 못할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며, 각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하실 것입니다. ……

저는, 가능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구하고자 하셨을 것이며, 그들에게 해의 영광, 곧 충만한 승영을 주고자 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에게 그분의 선택의지를 주셨으며, 인간이 의인이 누리는 승영을 얻고자 한다면, 계시된 바에 따라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sup>12</sup>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속할 방법을 마련하시어 우리가 그분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면전에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아담은 범법하여 아버지 면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경전에는 그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 즉 하나님 면전에서 차단되었다고 나옵니다.<sup>13</sup>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담이 타락하여 세상에 가져온 영적인 사망과 육체적인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속할 권능을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는 것을 압니다.<sup>14</sup>

[아담의 범법을] 보상하고 육신이 다시 영으로 회복되도록 구속할 방법은 오직 하나, 무한한 속죄뿐이었습니다. 속죄는 사망을 겪지 않아도 되는 존재, 즉 사망할 권세도 있고 사망을 이길 권세도 있는 무한한 존재가 이루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사 그분을 우리가 있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예수 그리스도]은 핏줄에 피가 흐르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사망할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사망에게 내주었으나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요한복음 10:17~18)<sup>15</sup>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도하는 빛이 전혀 없는 암흑 속에서 인간이 그 가 나아가야 할 길을 더듬어 살피면서 나아가도록 내버려두려 하신 적이 없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거룩한 면

전으로 돌아올 길을 찾아 내기를 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친절을 베푸셨으며 그들에게 지침을 내려 주고자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늘은 열려 있었으며 주님은 신성하게 임명된 종들에게 그분 면전에서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종들은 신권 권세를 소유한 이들로써 사람들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경고하며 의를 가르치도록 위임받은 자들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 면전에서 온 이 사자들에게서 이러한 지식과 영감과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눈을 감은 채 의지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듯 빛이 없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늘 인도하고 안내하고 길을 보여 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그분 면전에서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출판하여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알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sup>16</sup>

저는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늘에서 다시 말씀하셨음을 여러분과 온 교회와 온 세상에 알려 드립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은 만인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와서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선하심에 참여하고 그분의 명예를 메며 그분의 복음 율법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광과 존귀, 이 세상에서의 평화,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의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sup>17</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친구에게 말하듯”(“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를 강화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
- 스미스 회장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1편)을 회복한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감사를 표했다. 여러분이 첫번째 시현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무엇인가?

- 스미스 회장이 2편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특성 중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그분의 특성을 아는 것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증거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의 자녀입니다. …… 우리는 그분의 가족입니다.”(3편) 이 진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4편과 5편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우리는 가족과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본다.(6편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보내 주신 것에 관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 인도하는 빛”을 어떤 식으로 보내 주셨는가?

### 관련 성구

요한복음 3:16, 17:3, 니파이전서 11:17, 엘마서 30:44

### 교사를 위한 도움말

“교회에서 행해지는 꽤 많은 가르침이 너무나 딱딱합니다. 그것은 강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하는 강연에 그다지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찬식이나 대회에서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가르침은 주고받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과 시간에 쉽게 질문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보이드 케이 패커,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5쪽)

### 주

1. In Conference Report, Apr. 1943, 15-16.
2. Unpublished manuscript by Hoyt W. Brewster Jr.
3. In Conference Report, Apr. 1930, 90.
4.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3:117.
5. “Origin of the First Vision,” *Improvement Era*, Apr. 1920, 496-97;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1권, 2~3쪽 참조.
6. “으뜸이 되는 지식”, *성도의 빛*, 1971년 9월호, 1~2쪽.
7. “암흑으로부터”, *성도의 빛*, 1971년 10월호, 1쪽.
8. *Sealing Power and Salv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Jan. 12, 1971), 2.
9. “Purpose and Value of Mortal Probation,” *Deseret News*, Church section, June 12,

- 1949, 21;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1쪽 참조.
10. “으뜸이 되는 지식”, 2쪽.
  11. In Conference Report, Apr. 1923, 135–36. 모세서 1장에 기록된 모세의 시현은 구주께서 신성한 권세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 예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 (“The Father and the Son: A Doctrinal Exposition by the First Presidency and the Twelve,” *Improvement Era*, Aug. 1916, 939 참조; reprinted in *Ensign*, Apr. 2002, 17) 이 장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가 쓴 경전 문구와 해설은 모세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준다.
  12. In Conference Report, Apr. 1923, 136–37, 139. 또한 모세서 7장에 기록된 에녹의 시현에도 적용되는 이 장 주 11 참조.
  13. In Conference Report, Oct. 1953, 58.
  14. “A Witness and a Blessing,” *Ensign*, June 1971, 109.
  15. In Conference Report, Apr. 1967, 122.
  16. In Conference Report, Oct. 1931, 15.
  17. “A Witness and a Blessing,” 109.



“모든 것은 세상의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으며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려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깁시다. 그것은 진리이며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집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사도로서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교리와 성약 107:23)이 되는 자신의 부름에 충실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 구속주를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려 합니다. 그것은 제 의무입니다. 저는 그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이 나라를 두루 다닙니다.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sup>1</sup>

스미스 회장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구주를 증거하는 자신의 책임에도 온 힘을 기울였다. 1948년 7월 18일에 그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 중이던 아들 더글러스와 밀턴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때때로 나는 자리에 앉아 명상에 잠긴다. 그리고 경전을 읽는 동안 주님의 사명과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관해 생각하지. 이런 감정이 밀려올 때면 나는 그분께 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셨으며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나도 온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행여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말이야. 구주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다. 나는 구주의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그분이 내게 직접 오신 적도 없다. 그분을 뵈는 적도 없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으셨다.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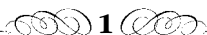
나는 그분이 임재하심을 느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밝혀 주시고 내게 그분을 알려 주셔서 내가 나의 구속주를 사랑하고 소망을 품고 이 사실이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참됨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을 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을 알지 못했을 거야. 나는 그분께 충실하고 싶단다. 그분이 나와 너희와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살게 하셨음을 안다. 또한 내가 내 어리석은 행동과 죄를 용서받고 그것에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돌아가셨음을 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지. 이 사실을 아는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나는 선교 임지에 있는 내 아들들도 그렇게 느끼기를 바란다. 내 자녀와 손자 손녀가 나와 같이 느끼고 진리와 의의 길에서 절대로 빗나가지 않기를 바란다.”<sup>2</sup>

스미스 회장의 한 아들은 이렇게 기록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짊어지신 그 모든 시련과 환난과 죄를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 이 말을 하실 때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공부하시는 동안 아버지 곁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깊은 명상에 잠겨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고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앉아 있으려 했지만 마침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지난 목요일에 내가 성전에서 총관리 역원들을 만났을 때 너도 함께였다면 좋았을 걸 그랬구나. 그분들이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간증하는 걸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다음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셔츠를 적셨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는 좀처럼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가만히 끄덕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척 사랑한다!’”<sup>3</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세상의 구주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온 힘을 다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 없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sup>4</sup>

우리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장자 이심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도록 천국 회의에서 택함받고 예임되셨음을 알며, 그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사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타락하여 세상에 가져온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으며 회개를 조건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음을 분명히 압니다. ……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믿으며[니파이후서 25:23 참조],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속죄의 기초 위에 주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빌립보서 2:12, 골로새서 9:27 참조]<sup>5</sup>

구주와 우리의 차이는, 우리에게는 유한하며 따라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버지가 계시지만, 구주께는 유한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셨으나[요한복음 10:17~18 참조] 우리는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얻을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과 복음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입니다.<sup>6</sup>

그분은 실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셨으며[시편 68:18 참조], 그분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그분을 세상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압니다.[히브리서 5:9 참조] 후기 성도들은 이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sup>7</sup>

인간은 계획을 구상하고 학설을 채택하고 이상한 전통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특이한 교리를 모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가르침은 기본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세상의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으며, 그분에 관한 것이라는 가르침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육신을 입으신, 아버지의 독생자, 즉 육체 안에 거했으며 불멸하는 아버지를 두신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받으신 생득권과 지상에 오실 때의 환경 때문에 인류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이

마련하신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sup>8</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계획임을 증거합니다. 또한 주의 속죄 희생으로 모든 인류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며, 육으로 있는 동안에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며, 충만한 복음의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서 일어나 영생에 이르리라는 것을 증거합니다.<sup>9</sup>

## 2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성약을 통해,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구주는 영으로서는 장자이시며, 육신을 입은 자로서는 독생자이십니다.<sup>10</sup>

그분[예수 그리스도]은 우리의 맏형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으로 구성된 최고의 회장단 일원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충만한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으셨습니다.<sup>11</sup>

경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시며 곧 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단순한 진리 측면에서 그분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볼 때 출생상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취하신 사업으로 볼 때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sup>12</sup>

이 용어를 경전에서 사용되는 대로 이해해 보면,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치르신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다는 점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베냐민 왕의 훌륭한 가르침에서 다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났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모사이야서 5:7, 또한 8~11절 참조]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성약을 통해 그분의 자녀, 곧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성스러운 권세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태어난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sup>13</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성약을 통해  
그분의 자녀, 곧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베냐민 왕 시대에 살았던 니파이인처럼, 후기 성도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었습니다.[모사이야서 5:1~9, 6:1~2 참조] 우리는 우리가 명 받은 것처럼 매주 성찬을 들 때 항상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받듭니다. 그것은 니파이인들이 성약했던 것입니다.<sup>14</sup>

### 3

**구주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우리는 모두 그분을 믿는 변함없는 간증을 지닐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속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경륜의 시대에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고대인들, 즉 그분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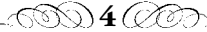
대에 살았고, 그분이 성역을 베푸실 때 그분과 대화했으며,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방문을 받은 합당한 고대인의 간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시대에 살았던, 주님을 보았고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알았으며, 이 사실을 우리와 세상에 증거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간증이 참됨을 압니다. 조셉 스미스가 이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해 증거하도록 남겨진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른 증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구속주를 보았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분이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들로 둘러싸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간증을 전했으며, 이 간증은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려 세상에 맞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인 우리는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계시와 시현을 받아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세상의 구속주임을 알게 된 조셉 스미스나 올리버 카우드리, 시드니 리그돈 또는 그 외 죽은 자들의 간증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영이 복음에 따라 생활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침례 받고 성령의 은사를 위해 안수로써 확인받은 후 진리에 들어맞는 생활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것이 참됨을 밝혀 주십니다. 우리는 이 지식에 관해 누구의 간증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영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속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sup>15</sup>

제가 아는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의 마음에 가장 큰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닌, 변치 않는 간증,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증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공격하고 조롱하며, 그분이 세상의 구속주가 아니고 그분의 사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혹은 그분이 피 흘리신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조건으로 죄 사함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경전에서 말하듯이 그것이 진리임에도 그리스도께서 적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나아오신 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속을 가져오셨으며,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복음 원리와 그분의 사명을 믿고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기본이 되는 것이며, 영원한 것이고, 인간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든 파괴될 수 없는 것입니다.<sup>16</sup>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려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깁시다. 그것은 진리이며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집니다.<sup>17</sup>



###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따라 생활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완전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잘 해내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니파이후서 31:10]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삶의 본을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그분의 삶에서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백성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마의 유혹을 받고 그에게 사로잡혀 이끌려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도한 것같이 너희도 내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는 내 백성 가운데서 기도하라. 보라 나는 빛이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취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 들 빛이니 - 곧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그것이라 ……”[제3니파이 18:15~16, 24]

이 점에 관해 그분이 주신 가장 완벽한 조언은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질문하신 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sup>18</sup>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침례 받으셨듯이 우리도 침례 받고, 그분이 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선행과 의를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표본이요, 구원의 위대한 원형이십니다.<sup>19</sup>

어떤 문제가 생겨 선택을 해야 할 때 이렇게 자문한 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다음 그분이 하셨을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영감을 구하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매일 주님이 임재하시는 기쁨을 느끼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분의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까이 오라고 하셨던 어린아이들이 느꼈던 그대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령의 위안하는 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sup>20</sup>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화롭게 되어 영광과 권능과 권세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마음의 뜻을 다해 그분을 따른 몇몇 니파이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는 나와 같이 되겠고, 나는 아버지와 같으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제3니파이 28:10] ……

저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과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 소망이며 여러분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sup>21</sup>

## 학습 및 교수 제안

### 질문

- 스미스 회장이 그의 자녀에게 간증을 전하고 구주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 자녀는 어떤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참조) 구주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키우고 그분에 관한 간증을 나누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 스미스 회장은 “모든 것은 세상의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으며 그분에 관한 것”(1편)이라고 선언했다. 이 진리는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진리는 우리 가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2편에 나오는 가르침은 여러분과 구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 스미스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관한 진리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경고했다.(3편 참조) 어떻게 하면 우리

의 간증을 강화하여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부모는 자녀가 간증을 강화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스미스 회장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고 자문해 보라고 조언한 것을 생각해 본다.(4편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 관련 성구

요한복음 14:6, 니파이전서 10:6, 모사이야서 3:5~7, 힐라맨서 5:12, 제3 니파이 11:3~7, 교리와 성약 34:1~3, 76:22~24, 조셉 스미스-역사 1:17

### 교사를 위한 도움말

“너무 많은 자료를 다루려는 유혹을 …… [피하십시오.] 우리는 공과 내용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칩니다. …… 제가 여태껏 보아 온 모든 공과 개요에는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제프리 알 홀런드,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9쪽)

### 주

1. “Message of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address delivered May 22, 1955, Joseph Fielding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2.
2. In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387-88; italics in original
3. In Leon R. Hartshorn,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Student of the Gospel,” *New Era*, Jan. 1972, 63.
4.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첫 예언자”, *성도의 벗*, 1979년 12월호, 30쪽.
5. “암흑으로부터”, *성도의 벗*, 1971년 10월호, 1,3쪽.
6. 개인 서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1권, 28쪽에서 발췌.
7. In Conference Report, Apr. 1912, 67.
8. “The One Fundamental Teaching,” *Improvement Era*, May 1970, 3; italics in original.
9. “암흑으로부터”, 3쪽.
10. 개인 서한, *구원의 교리*, 제1권, 18쪽에서 발췌.
11. “The Spirit of Reverence and Worship,” *Improvement Era*, Sept. 1941, 573;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15쪽 참조.
12. 개인 서한, *구원의 교리*, 제1권, 28쪽에서 발췌.
13. 개인 서한, *구원의 교리*, 제1권, 28쪽에서 발췌.
14. *Man: His Origin and Destiny* (1954), 117.
15. In Conference Report, Oct. 1914, 98.
16. In Conference Report, Oct. 1924, 100-101.
17. In Conference Report, Oct. 1921, 186;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267쪽 참조.
18. “Follow His Example,” *New Era*, Aug. 1972, 4.
19. “The Plan of Salvation,” *Ensign*, Nov. 1971, 5.
20. “Christmas Message to Children of the Church in Every Land,” *Friend*, Dec. 1971, 3.
21. “Follow His Example,” 4.



“우리는 이 땅의 기초가 정해지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살고 거했습니다.”



## 구원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의 자녀가 영생을 얻을 때까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1901년 4월 29일, 조셉 필딩 스미스의 열여덟 살 난 여동생 앨리스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는 조셉 필딩 스미스가 이제 막 영국에서 전임 선교 사업을 마치고 무렵이었다. 앨리스의 사망 소식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가족을 향한 그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관한 그의 간증이 잘 드러난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앨리스가 아픈 건 알았지만 병세가 그토록 심각한 줄은 몰랐다. 이제 몇 주만 있으면 다른 가족과 함께 앨리스를 만나리라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될지어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희망이 가장 고마울 때는 바로 이런 시기이다. 우리는 모두 회장 저편에서 다시 만나 서로 함께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단절되지 않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절하신 자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언제나 진리의 길을 걷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언젠가 내 친족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내게 가장 감미롭고 영원하기를 겸손하게 기도드린다.”<sup>1</sup>

사도로 봉사하고 훗날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희망에 관해 거듭 간증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집행하고 그에 따라 생활합니다. 복음은 지상에 화평을 가져오고 온 세상에 존재하는 잘못을 바로잡을 유일한 방편인 동시에 세상이 갈구하는 유일한 희망이 기도 합니다.”<sup>2</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1

#### 전세에 있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기뻐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분과 함께 살고 거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뵈었고 그분의 사랑을 느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제정하여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우리만의 영원한 가족을 얻게 하셨습니다.<sup>3</sup>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의 자녀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은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는 삶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이 지니신 권능과 지혜와 지식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sup>4</sup>

값진 진주를 통해, 우리는 천국에서 회의가 열렸으며 그때 주님이 그분의 영의 자녀를 그분 앞에 부르셔서 그들이 이 지상에 와서 필멸의 삶을 경험하고 육체를 받으며 지상 생활의 시험 기간을 거친 다음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이룩될 부활로 더 높은 승영에 이르게 되리라는 계획을 알려 주셨다는 것을 배웁니다.[모세서 4:1~2, 아브라함서 3:22~28 참조] 그들은 필멸의 상태를 거치고, 현세에서 인생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유혹과 시련 등 지상 생활의 모든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게 될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충실한 상태를 유지할 때 부활하여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에 이르러 그분과 같이 된다는 생각으로[요한1서 3:2 참조] 기쁨으로 차고 넘쳤으며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욥기 38:4~7 참조] 이 필멸의 삶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으며, 육체를 받는 것은 승영에 꼭 필요했습니다.<sup>5</sup>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고통과 슬픔과 사망을 가져왔다.  
그러나 …… 그것[은] 축복도 가져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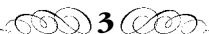
## 2

###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려진 구원의 계획, 즉 율법 체계는 창세 전에 하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조상 아담은 지상에 와서 온 인류의 머리가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가 그의 자녀에게 궁극적인 선을 안겨 주기 위해 금단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여 세상에 고통과 죽음을 가져 오는 것은 이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sup>6</sup>

타락은 인간이 지상에서 시험받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상 생활이라는 위대한 은사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손을 갖지 못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큰 계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sup>7</sup>

아담의 타락은 필멸의 상태의 모든 희망성쇠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 그것이 축복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식과 이해력과 필멸의 삶이라는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sup>8</sup>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타락과 우리의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 희생양이 되겠다고 자청하셨다.

아담의 범법은 두 가지 사망, 즉 영적 사망과 육체적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으며, 필멸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 육체의 모든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다시 하나님 면전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깨뜨린 율법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공의는 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sup>9</sup>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 즉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짓값을 치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공평합니다. 따라서 아담이 율법을 범했을 때, 공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그가 죄를 보상하고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율법을 깨뜨리면서 저주를 받았으며, 저주에 놓였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을 속죄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자녀도 그 저주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이 원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가 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죄를 속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죄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어 아담의 범법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속죄하여 공의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주께서는 죄에 대한 희생양이 되겠다고 자청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아담의 범법과 우리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회개한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타락에서뿐 아니라 우리 죄에서도 구속해 주셨습니다.<sup>10</sup>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유익을 얻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그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이를 위해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 이상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외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왜 그곳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그분은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인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되는 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데려오고 우리의 몸과 영이 재결합하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죄를 사함받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었고 거절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청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이 어떨지 아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고자 하셨습니다. ……

구주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것은 그분이 겪으신 고통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점만 생각한다면 그분이 겪으신 고통은 십자가에 달린 다른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겪으신 큰 고통은 무엇이였을까요? 저는 이 교회의 모든 회원이 다음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가시기 훨씬 전에 이미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 몸의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극심한 영혼의 고뇌 가운데 아버지께 부르짖으신 것은 겻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그 큰 고통은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게 묻지는 마십시오.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 그 엄청난 형벌을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법을 짊어지셨고 고통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방식으로 구주께서 모든 사람의 짐, 즉 고통을 한꺼번에 짊어지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분의 고통은 그분께 고통의 고뇌를 안겨 준 원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고뇌하며 아버지께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잔은 물릴 수 없었습니다.[마태복음 26:42, 마가복음 14:36, 누가복음 22:42 참조] 이 점에 관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두 소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19]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겸손해집니다. 주님은 인류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짊어질 수 없는 짐을 대신 지시고 누구도 치를 수 없는 끔찍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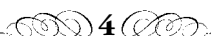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제가 구속주가 되어 인간을 아담의 범법으로부터 구속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또 회개하는 자를 모두 그의 죄로부터 구속하거나 구원하겠습니다.”<sup>12</sup>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걷던 어떤 사람이 우연히 아주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졌지만 기어올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곤경에서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혼자 애를 쓰더라도 그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구덩이 속에는 탈출할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자 어떤 친절한 사람이 그의 구조 요청을 듣고 서둘러 도와주러 와서 사다리를 내려 구덩이 속에 빠진 사람이 다시 지면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것은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와 그의 후손이 처하게 된 상황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누구도 지면으로 올라가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덩이는 주님 면전에서 추방되는 것이자 육체적 사망, 곧 육체적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모두가 사망을 겪어야 했으며 아무도 빠져나올 방법을 마련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sup>13</sup>

그 구덩이 밖에 계신 구주께서 오셔서 사다리를 내려 주십니다. 그분은 구덩이 안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 사다리를 이용해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sup>14</sup>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그분 자녀의 외침을 듣고 빠져나올 방편을 마련해 주시려고 사망을 겪지 않아도 되고 죄도 없으신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께서는 무한한 속죄와 영원한 복음을 통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sup>15</sup>

우리는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 마음속에 [구주]의 크고 온화한 자비에 대해 감사하는 느낌이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결코 그분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받으신 크나큰 고통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흘리신 피로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를 사셨습니다.<sup>16</sup>



### 우리는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초로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장과 구원을 위한 이 위대한 계획에서 중심이 되십니다.<sup>17</sup>

속죄의 토대 위에, 구원의 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말씀에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율법에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버리며, 주저 없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인봉할 권능이 있는 승인받은 집행자의 손에 의해 물에 잠김으로써 침례를 받으며, 이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고, 우리의 죄와 악을 불로 태워 버리듯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태워 버려야 하며, 성신의 권능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침례 받은 후에 계명을 지켜야 하며, 주님 앞에 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경건한 성품을 지니고 해의 왕국의 영광과 경이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sup>18</sup>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장과 구원을 위한 이 위대한 계획에서 중심이 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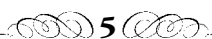
이제 저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순종해야 하는 이 율법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율법들이 오늘날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계시되었으며, 현재 그분이 지상에 다시 세우신 그분의 교회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sup>19</sup>

지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시험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보내진 것은, 첫째는 우리의 영원한 영을 위한 성막[육신]을 받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시련으로 시험받고, 영원한 복음 원리에 순종하겠다는 성스러운 성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풍성한 기쁨과 행복과 더불어 환난을 겪기 위해서입니다. 리하이가 그의 자녀에게 가르쳤듯이 지상 생활은 “시험의 상태”(니파

이후서 2:21)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원하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떨어져 나 오긴 했으나,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한지를 시험받고 연단받음으로써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가르침을 받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sup>20</sup>

우리는 선뿐만 아니라 악을 겪으며 시험받고 검증받기 위해 이곳에 왔 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우리를 유혹 하도록 허락하셨으나, 우리는 주님의 영의 인도 및 계시로 주어진 계명을 통해 스스로 선택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그 의로움에 대한 영원한 보상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 다.<sup>21</sup>

이 현세의 시험 기간은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를 잇는 극히 짧은 기 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 이생은 영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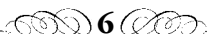
###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부활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에 그 점 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상에 오기 훨씬 전에 논의되고 정해진 계획의 일부입니다. …… 우리는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 면전에서 이곳 지상으로 여정을 떠나면서 이생에서 겪게 될 모든 것, 즉 기쁨과 슬픔을 경 험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기꺼이 그러고자 했 습니다. 죽음은 출생만큼이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sup>23</sup>

육체적인 사망, 곧 인간의 사망은 영과 육체의 영원한 분리가 아닙니다. 사망은 영과 육의 일시적인 분리 상태로, 비록 죽어서 육신이 흙으로 되돌 아간다 하더라도 부활하는 날이 이르면 그 육신은 흙으로부터 다시 모아지 고 영으로 생기를 얻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은 지상에서 사는 동안 섰든 악했던 그것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모든 인간에 게 주어집니다.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사도행전 24:15)이 있다고 말했 으며, 구주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 5: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24</sup>

죽을 때 육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에 관계없이 모든 육신의 기본적인 신체 부위는 부활 때 다시 그 온전한 위치로 회복될 것입니다. 육신이 불에 타든 상어의 먹이가 됐든 말입니다. 육신의 모든 기본 부위는 본래의 온전한 위치로 회복될 것입니다.<sup>25</sup>

영은 살과 뼈의 몸이 없이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육체와 영은 부활을 통해 불멸과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는 다시 나뉘는 일이 없습니다. 육체와 영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받게 됩니다. 영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부활하는 것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sup>26</sup>



###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가족과 함께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의 근면으로 부를 상속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왕좌와 권력과 지위를 상속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근면하고 인내하여 세상적인 지식과 명성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으뜸가는 한 가지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영생, 즉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삶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라고 나옵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 사람만이 이 은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써 승리한 자요,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내려 주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자들이니라. 그들은 장자의 교회 회원인 자들이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의 손에 만물을 주신 자들이니 -”[교리와 성약 76:53~55, 또한 52절 참조]<sup>27</sup>

이 구원의 계획은 가족을 중심으로 합니다. …… 이 계획은 우리가 스스로 영원한 가족을 이루도록 마련되었습니다.<sup>28</sup>

해의 왕국에서 승영에 이른 자들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 계속”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sup>29</sup>

해의 왕국의 승영에 관한 한, 가족 조직은 완전한 것이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가족은 한 세대의 아

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로부터 다음 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에게로 연결되어 끝까지 확장되고 펼쳐지는 가족입니다.<sup>30</sup>

영원한 상속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은 계명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고통을 받겠다는 기꺼운 마음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 영생, 즉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모두 제단에 바치도록 요구받을 경우 그렇게 해야 하며, 그분의 대업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내려놓도록 요구받을 경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된 풍성한 축복을 절대로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sup>31</sup>

세상에서 나와서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 우리는 해의 영광에 갈 수 있는 후보가 됩니다. 아니, 충실하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후보 이상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충실할 때 해의 왕국에 들어가리라고 확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상속받을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그분 면전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살고 약속받은 충만한 축복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알도록 합시다. 후기 성도 중에 우리가 약속받은 충만한 구원보다 못한 것에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겸손한 가운데 회개하는 정신으로 계속 전진하고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목표는 영생, 즉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32</sup>

저는 바야흐로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는 지점에 서서, 멀지 않은 장래에 그분 앞에서 필멸의 시기에 가졌던 저의 책임에 관해 보고드려야 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얼굴을 뵈는 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마태복음 25:34)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 모두가 이처럼 행복한 부류에 속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sup>33</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 질문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에 나오는 일지 내용을 읽으면서 구원의 계획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었던 때를 떠올려 본다. 가족이나 친구가 그런 위안을 받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스미스 회장이 천국 회의에 관해 가르친 내용은 우리가 시련에 직면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1편 참조)
- 스미스 회장은 “그러나 우리는 ……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축복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2편)라고 가르쳤다. 이 진리를 기억하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 3편에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 관해 스미스 회장이 들려준 설명은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구주께서 속죄를 통해 어떻게 우리를 구해 주셨는지 생각해 본다.
- 4편에 나오는 스미스 회장의 말씀은 지상 생활의 목적에 관해 어떤 점을 시사하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험 기간을 무사히 거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주셨는가?
- 여러분은 5편에 나오는 “죽음은 출생만큼이나 꼭 필요한 것”이라는 스미스 회장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부활의 교리는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세상적인 부는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상속”과 어떻게 다른가?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관련 성구

욥기 38:4~7, 니파이후서 2:15~29, 9:5~27, 앨마서 12:20~35, 교리와 성약 19:16~19, 모세서 5:10~12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우리가 경전 및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돕기 위해, 교회에서는 공과 교재와 기타 자료들을 발행했다. 논평이나 기타 참고 자료

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복음 교육을 위한 참고 지도서[1999], 52쪽)

## 주

1. In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117-18.
2. “영국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성도의 벗, 1972년 2월호, 3쪽.
3. In “Pres. Smith Tells of Parents’ Duty,” *Church News*, Apr. 3, 1971, 10.
4. Address at the Logan Utah Institute of Religion, Jan. 10, 1971, 3; unpublished manuscript.
5. “Is Man Immortal?” *Improvement Era*, Feb. 1916, 318;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1권, 54~55쪽 참조.
6. *Elijah the Prophet and His Mission and Salvation Universal* (1957), 65-66.
7. In Conference Report, Oct. 1966, 59.
8. “Principles of the Gospel: The Infinite Atonement—Redemption, Salvation, Exaltation,” *Deseret News*, Church section, Apr. 22, 1939, 3;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109쪽 참조.
9. “The Atonement,” *Deseret News*, Church section, Mar. 2, 1935, 7;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115쪽 참조.
10. *Elijah the Prophet and His Mission and Salvation Universal*, 79-80.
11. *Seek Ye Earnestly*,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1970), 118-20.
12. “Principles of the Gospel: The Infinite Atonement—Redemption, Salvation, Exaltation,” 5;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116~117쪽 참조.
13. *Elijah the Prophet and His Mission and Salvation Universal*, 80-81.
14. “Principles of the Gospel: The Infinite Atonement—Redemption, Salvation, Exaltation,” 5;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117쪽 참조.
15. *Elijah the Prophet and His Mission and Salvation Universal*, 81.
16. “Purpose and Value of Mortal Probation,” *Deseret News*, Church section, June 12, 1949, 21;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126쪽 참조.
17. Address at the Logan Utah Institute of Religion, Jan. 10, 1971, 3; unpublished manuscript.
18. “The Plan of Salvation,” *Ensign*, Nov. 1971, 5.
19.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 성도의 벗, 1972년 5월호, 2쪽.
20. In Conference Report, Apr. 1965, 11.
21. In Conference Report, Apr. 1964, 107-8.
22. “Purpose and Value of Mortal Probation,” 21;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65쪽 참조.
23. In “Services for Miss Nell Sumsion,”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an. 1938, 10-11.
24. “What Is Spiritual Death?” *Improvement Era*, Jan. 1918, 191-92;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192~193쪽 참조.
25.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5:103; italics removed.
26. “The Law of Chastity,” *Improvement Era*, Sept. 1931, 643;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76쪽 참조.
27. *The Way to Perfection* (1931), 21-22.
28. *Sealing Power and Salv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Jan. 12, 1971), 2.
29. 개인 서한, 구원의 교리, 제2권, 254쪽에서 발췌; 기울임체 제거.
30. In Conference Report, Apr. 1942, 26;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156쪽 참조.
31. *The Way to Perfection*, 23.
32. In Conference Report, Apr. 1922, 61-62.
33. “조화의 영이 깃들게”, 성도의 벗, 1972년 11월호, 10쪽.



“복음은 가족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하십시오

“주님은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하기를 바라십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선언했다.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족은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sup>1</sup> 그가 이 점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친 곳은 가정에서였다. 그는 사랑이 많은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 모범을 보였다. 사도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그는 언제나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마련해서 “집에 있을 때면 가족에게 두 배의 사랑을 쏟아부으며 떨어져 있던 시간을 메꾸어 주었다.”<sup>2</sup>

스미스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인 에셀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신이 그분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교회 회원이 남편을 지나치게 근엄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안 에셀은 이렇게 답했다.

“제가 그분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죠. 저는 그이가 없을 때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는 아주 착하고 진솔하고 정통적인 사람이야.’ 그들은 대중이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과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무척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그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포부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자신을 완전히 잊습니다. 그는 칭얼대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 주어 재우고, 어린 자녀에게 잠자리에서 이야기책을 읽어 주며,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큰 아이들이 어려운 학교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밤늦게까지 안 자거나 아침 일찍 일어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병마가 찾아오면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아픈 가족을 자상하게 돌봐 주고 간호해 주지요. 아이들이 울 때 찾는 것은 아빠예요.”

요. 아빠가 곁에 있는 건 만병통치약과 같거든요. 그의 손은 상처를 싸매 주고, 그의 팔은 고통받는 아이에게 용기를 주며, 그의 음성은 자녀의 실수를 부드럽게 바로잡아 줘요. 아빠를 기쁘게 해 주는 게 자녀의 기쁨이 되었지요. ....

제가 아는 그 사람은 비이기적이고, 불평하지 않으며, 배려심이 많고, 사려 깊으며, 동정심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그 사람이지요.”<sup>3</sup>

스미스 회장의 자녀들은 스미스 회장이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하며 그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 기울인 노력 몇 가지를 들려주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전기의 공동 저자인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와 존 제이 스튜어트는 다음과 같은 추억을 실었다. “어린 자녀들은 아빠가 앞치마를 두르고 적잖은 양의 파이를 만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면 기뻐했다. 건포도, 사과, 향료 등을 섞은 내용물로 속을 채운 파이는 그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였다. 그는 자신만의 비법으로 파이 속을 만들었다. 하지만 사과, 버찌, 복숭아, 호박 등 다른 파이를 만들기도 했다. 아이들을 집 안 곳곳으로 보내어 필요한 도구와 재료 모으는 일을 돕게 하다 보면 파이 만들기는 온 가족의 협동 작업이 되었다. 커다란 오븐에서 나는 향긋한 파이 굽는 냄새 덕분에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했다. 스미스 회장은 수시로 오븐을 살피며 더도 덜도 말고 딱 알맞은 시각에 파이를 꺼내도록 했다. 그동안 에셀은 아이스크림 재료를 저어 주었고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아이스크림 기계를 돌렸다.”<sup>4</sup>

더글러스 에이 스미스는 그들 부자가 “훌륭한 관계”를 맺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들이 즐겨 한 활동 몇 가지를 들려주었다. “이따금 우리는 권투를 했습니다. 권투라기보다는 그저 시늉에 가까웠죠. 아버지를 치기엔 제가 아버지를 너무 존경했고 저를 치기엔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 그래서 그건 권투 시늉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체스를 두기도 했는데 아버지를 이길 때면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떠올려보면 아버지께서 저 모르게 일부러 저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sup>5</sup>

어밀리아 스미스 맥콩키는 이렇게 회상했다. “아버지가 극진히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아픈 게 즐거울 정도였습니다. .... 아버지는 낡은 에디슨

축음기에 듣기 좋은 음악을 틀어 주시며 우리를 즐겁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 주려고 아버지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방 안을 행진하듯 걸어 다니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셨습니다. …… 아버지는 크고 달콤하고 탐스러운 오렌지를 가져와서 침대에 앉아 까 주셨고 한 알씩 건네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나 그분이 아플 때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돌봐 주셨는지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필요할 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sup>6</sup> 어밀리아는 부친의 자녀 훈육 방식도 들려주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여 바로잡아 주셔야 할 때면 아버지는 가만히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가슴 아픈 표정으로 우리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들이 착하게 행동했으면 좋겠구나.’ 그보다 더 효과적인 회초리나 벌은 없었을 것입니다.”<sup>7</sup>

자녀를 향한 스미스 회장의 사랑과 관심은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어졌다. 그의 손자인 호이트 더블유 브루스터 이세는 그가 네덜란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1958년에 허락을 받고 영국 런던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을 때의 일을 들려주었다. 그와 동료 선교사들이 헌납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할아버지가 그를 알아보았다. 훗날 호이트는 이렇게 회상했다. “할아버지는 머뭇거리도 없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벌리며 제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인 조셉 필딩 스미스가 아니라 극진히 아끼는 손자를 만난 할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동료 선교사들을 뒤로한 채 재빨리 단상으로 나아갔으며, 할아버지는 엄숙하게 모인 모든 회중 앞에서 저를 부둥켜안고 입맞춤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가장 성스럽고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sup>8</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1

**현세와 영원을 통틀어 가족은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전반에서 가족이란 단위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교회 조직은 가족과 가족 구성원이 승영에 도달하는 일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족 유대와 복음에 대한 가족의 충실함이 지극히 중요한 까닭에 대적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삶에

서 선하고 고귀한 것의 바탕이 되는 가족의 기본적인 특성은 사면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인 낙태법 완화 추세는 생명의 존엄을 모독하는 세태를 보여 줍니다. 가족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약물, 그리고 합법적이나 중독성이 있는 약물의 남용으로 유리되고 있습니다. 날로 더해 가는 젊은이들의 권위 경멸 풍조는 으레 가정에서의 불손과 불순종에서 싹틔웁니다. ……

악마가 개인을 가족이라는 뿌리에서 분리해 떼어 내려고 공격하고 있기에, 가족을 존속하고 강화하려는 후기 성도 부모의 노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족의 지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강단이 센 사람들이 있기는 할 테지만, 우리는 대부분 가슴 깊이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의 사랑과 가르침과 포용이 필요합니다.<sup>9</sup>

세상이 있는 한 존속할 것이고, 어떠한 진보에도 변하지 않을, 예부터 내려오는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조직인) 가족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순결하고 건전한 가족생활에 위배되는 죄는 필경 세상에서 가장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을 꾸리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나 부를 누리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가 참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러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한, 그 외 모든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sup>10</sup>

의로운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여기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 가족은 하나님 왕국에 속한 단위 조직입니다.<sup>11</sup>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족은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 주님은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들에게 가장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을 간청드립니다. 우리는 어머니들에게 남편을 지지하고 도우며 자녀에게 빛이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sup>12</sup>

복음은 가족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을 본 뜬 영원한 가족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훈련을 받는 곳은 가정입니다.<sup>13</sup>



“교회 조직은 가족과 가족 구성원이 승영에 도달하는 일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 2

### 주님은 가족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제정하셨다.

우리는 결혼이 창세 전에 제정되었고, 사망이 들어오기 이전에 지상에 세워진 영원한 원리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는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조직되었음을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를 위해 마련된 계획의 토대는 해의 왕국을 다스리는 율법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이요 영광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모세서 1:39]입니다. 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과 가족을 통해서이며, 실제로 이것은 승영한 사람들 사이와 무수한 세상에서 집행되어 온 영원한 질서입니다.<sup>14</sup>

지상에 있는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주어진 복음의 율법과 계획은 하나님 왕국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전형적인 율법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의 권리를 잃은 채 존재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겠

습니까?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이란 단위 조직이 없는 나라, 모든 국민이 서로 외인이고, 타고난 사랑은 없으며, 가족 관계의 결속이 없는 국가를 상상해 보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 같은 상태는 결국 혼란과 소멸로만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고 있듯이, 하나님 왕국에서 가족과 친족 관계가 없이 모두가 “천사”로만 존재한다면 그곳을 행복한 곳,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sup>15</sup>

부부는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고 결혼하기 위해 주님의 성전에 갑니다. 이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현세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가 되며,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 족속이 됩니다.[에베소서 3:14~15 참조] 그 가족의 질서는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

이 부부에게 태어나는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와 동반자 관계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로에게 신실하며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여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가족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책임이 있습니다.<sup>16</sup>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해의 왕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음 이후에] 가족이라는 조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 조직은 이 지상에서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받게 되어 있는 모든 성약과 의무를 기꺼이 지키려는 사람들만이 계속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sup>17</sup>

하나님 왕국은 하나의 대가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고[로마서 8:16~17 참조],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며, 회개하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왕국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sup>18</sup>

부활하는 날 가족이 재결합하리라는 소망과 더불어 영생을 바라보면 가족 개개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이런 소망을 품으면 남편은 아내를 더욱 거룩하게 그리고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아내 역시 같은 방법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과 행복이라는 꿈을 수 없는 끈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은 커집니다.<sup>19</sup>

## 3

###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실천하면서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한다.

후기 성도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온 가족이 완전을 향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도록 모두가 노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단순히 자녀의 물질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이상으로 시간과 정력을 바쳐야 하며, 자녀들은 타고난 이기적 성향을 절제해야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사회와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바치는 만큼의 시간을 가족과 가정을 위해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조직인 가족에게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최선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바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가족의 관계는 인생에 아무런 보람도 안겨 주지 않는 단순한 일상에 불과합니까? 가족이 승영하려면 부모와 자녀는 가족의 책임을 기꺼운 마음으로 우선순위에 두려 해야 합니다.<sup>20</sup>

가정은 인성과 태도가 빚어지는 공간이며 이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이 관계가 올바른 형태를 갖추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인성과 태도가 부모와 자녀의 쌍방 책임인지를 떠나서, 부모의 책임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sup>21</sup>

한 어머니가 분주하고 조급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세 살배기 딸이 어머니를 도우려 하자 “저리 가, 엄말 좀 내버려 두렴. 네 치다꺼리를 할 겨를이 없단다.” 하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 보통의 자녀는 누구나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며 부모는 이를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거들 때 따분한 집안일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힘을 합치다 보면 즐겁고도 따뜻한 협동심과 우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부족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연민에서 우리나라의 자녀에 대한 이해심을 들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 자녀가 흥미로워하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sup>22</sup>

우리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가정에서 복음과 단합과 신앙의 정신을 좀 더 많이 함양하며, 아버지는 종교적인 책임을 더 열심히 수행하고 영성을 갖추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복음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부모에게 강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sup>23</sup>

교회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십시오. 도덕률을 지키고 복음을 실천하십시오.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십시오. 그들에게 구원하는 복음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가정을 주님의 영이 거하고 온 가족의 마음에 의로움이 깃드는, 지상의 천국이 되게 하십시오.<sup>24</sup>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지닌 참된 잠재력에 도달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회원들의 가정에 주님 영이 임하셔서 그 안에 사랑과 조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들어 올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sup>25</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에 나오는 일화를 읽으며 스미스 회장이 보여 준 모범을 어떻게 여러분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 1편에 개괄적으로 서술된 가족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본다. 가족을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 스미스 회장은 “부활하는 날, 가족이 재결합하리라는 소망과 더불어 영생을 바라보[는 것]”(2편)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러한 소망은 여러분과 가족 사이의 교류와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편에서 스미스 회장은 숙고해 보아야 할 질문 세 가지를 들었다. 마음속으로 이 질문에 답해 본다. 이 편을 읽으며 집안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해 여러분 생활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해 본다.

### 관련 성구

잠언 22:6, 니파이전서 8:37, 교리와 성약 88:119, 93:40~50, 또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참조

##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이 장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마음속으로 읽어 보라고 한다. 같은 부분을 선택한 사람 두세 명을 묶어서 배운 내용을 토론해 보게 한다.”(이 책 vii쪽에서 발췌)

## 주

1. “성도들과 온 세상에 드리는 권고의 말씀”, *성도의 벗*, 1972년 12월호, 8쪽.
2.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14.
3. Ethel Smith, in Bryant S. Hinckley, “Joseph Fielding Smith,” *Improvement Era*, June 1932, 459.
4.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228.
5. Douglas A. Smith, in D. Arthur Haycock, *Exemplary Manhood Award*,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Apr. 18, 1972), 5.
6. Amelia Smith McConkie, “Joseph Fielding Smith,” *Church News*, Oct. 30, 1993, 10.
7. Amelia Smith McConkie, “Joseph Fielding Smith,” 10.
8. In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1992), 254.
9. “대관장단 메시지”, *성도의 벗*, 1971년 4월호, 1~2쪽.
10. “Our Children—‘The Loveliest Flowers from God’s Own Garden,’”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69, 4.
11. In Conference Report, Oct. 1948, 152.
12. “성도들과 온 세상에 드리는 권고의 말씀”, 8~9쪽.
13. “Mothers in Israel,” *Relief Society Magazine*, Dec. 1970, 886.
14. *The Way to Perfection* (1931), 251.
15. “A Peculiar People,” *Deseret News*, Church section, Apr. 2, 1932, 6;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2권, 58~59쪽 참조.
16. In Conference Report, Apr. 1961, 49.
17. In Conference Report, Oct. 1948, 153.
18. In Conference Report, Apr. 1959, 24.
19. *The Way to Perfection*, 258.
20. “대관장단 메시지”, *성도의 벗*, 1971년 4월호, 2쪽.
21. “Our Children—‘The Loveliest Flowers from God’s Own Garden,’” 6.
22. “Our Children—‘The Loveliest Flowers from God’s Own Garden,’” 6~7.
23. *Take Heed to Yourselves!* (1966), 354.
24. “성도들과 온 세상에 드리는 권고의 말씀”, 9쪽.
25. “대관장단 메시지”, *성도의 벗*, 1971년 4월호, 2쪽.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그가 후기 성도에게 회개를 외친  
까닭을 밝혔다. “저는 교회 회원들을 사랑[합니다.]”



## 신앙과 회개

“교회 안팎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강한 신앙과 주님을 섬기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신앙과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합니다.”<sup>1</sup> 그는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해서는 안 되며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앙으로 끝까지 선을 행할 때 “충실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sup>2</sup>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모두가 이 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회개를 외쳤다.

사도로 봉사하던 초기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고 말하고, 후기 성도들에게 그들이 맺은 성약, 곧 그들이 주님과 한 약속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이 경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스라엘 장로들이 준 가르침과 지침을 따르라고 외치는 것을 제 사명으로 여겨 왔습니다. 저는 시온의 스테이크를 방문하면서 주님의 영으로부터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주님 앞에 겸손하고 신중히 행하여 그분의 성령으로부터 축복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경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가 맨 처음 하늘로부터 시현을 받아 복음이 회복되었던 그때부터 경고의 날은 시작되었습니다.”<sup>3</sup>

어느 일요일 성찬식 모임에서 스미스 회장은 그가 경고의 음성으로 말하는 이유를 회중에게 들려주었다. 그 모임에 참석한 그의 아들 조셉은 훗날 이렇게 적었다. “그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 몇 구절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아버지는 회중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이며,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되고 있으며 변영이 코앞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 원리를 실천하

지 않을 때 받으리라 약속된 재앙과 시련을 경고해 주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현재의 회장을 넘어갈 때 그중 누군가가 저를 가리키며 “당신이 내게 경고해 주기만 했다면 내가 이 지경에 이르지지는 않았을 거요.” 하고 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형제 자매들이 영광의 왕국을 받을 준비를 갖췄으면 하는 마음에서 경고의 음성을 높입니다.”<sup>4</sup>

스미스 회장 가까이에서 일한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엄중한 경고 뒤에는 죄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향한 애정 어린 염려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일회장단 비서로 봉사한 프랜시스 엠 기븐스 장로는 스미스 회장이 교회 선도 문제를 고민할 때 그와 함께하는 일이 잦았다. 기븐스 장로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분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최대한의 친절과 사랑과 드넓은 자비심을 발휘하셨다. 몹시 심각한 상황에 관해 들으실 때면 그분은 으레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왜 매사에 신중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비난이나 힐난이 아니라 슬픔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sup>5</sup>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서 스미스 회장과 함께 봉사한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차피 십이사도가 이스라엘의 판사가 될 것이라면 그분 손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친절하고 자비롭고 공의롭고 거룩하게 판단하실 테니까요.”<sup>6</sup> 감독을 성임할 때 스미스 회장은 종종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으며 모든 경우에는 적어도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혹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것 같으면, 차라리 사랑과 자비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하십시오.”<sup>7</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1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며, 또한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며 침례의 물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받들었습니다.<sup>8</sup>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려 세상에 오신 분임을 마음속으

로 가장 중요하게 여깁시다. 그것은 진리이며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집니다. 그 진리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이나 인간의 사상에 맞서 이 가르침을 고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고의 원리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데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조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다 보면 구원받을 것이며 인간의 사상과 어리석음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sup>9</sup>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주님이나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소망을 마음속에 품은 것입니다. ....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물론 그분의 아버지를 믿는 신앙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닐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신앙이 있고, 지당하게도,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대변자로 세우신 그분의 종들도 믿을 것입니다.<sup>10</sup>

## 2

### 신앙은 행위를 의미한다.

“신앙은 모든 행위의 동기이다.”[Lectures on Faith, lecture 1] 이 말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이 현세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두루 참되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적용됩니다. ....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니라”[야고보서 2:26] 달리 말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야고보가 다음과 같은 의미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네 [신앙]을 내게 보이라, [거기에는 아무 것도 맺히지 않을 것이나,] 나는 행함으로 내 [신앙]을 내게 보이리라, [거기에는 무언가가 맺힐 것이니라.]”[야고보서 2:18 참조] 신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 그러므로 신앙은 믿음보다 강합니다. ....

신앙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관한 매우 훌륭한 논문과도 같은 히브리서 11장과 주님이 계시를 통해 교리와 성약과 여러 경전에서 주신 경전 가르침입니다. 행함 없이, 혹은 무관심이나 수동적인 믿음만으로는 신앙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행위 없이, 잘하고 싶어하는 소망만으로는 음악이나 미술에 능숙해질 수 없듯이, 신앙이 생기기를 바라기만 한다고 신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관한 간증을 얻고, 조셉 스미스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원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

만일 우리가 살아 있고 변치 않는 신앙을 원한다면 이 교회 회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우리에게 니파이가 보여 준 것과 같은 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니파이전서 17장을 읽어 보십시오. 여기서 니파이의 형들은 그에게 맞섰으며 배를 만들려는 그를 다음과 같이 조롱했습니다.

“우리 동생은 바보로다, 이는 그가 배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함이라, 그 뿐 아니라 그는 또한 이 큰 물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도다.”[니파이전서 17:17]

니파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사를 다 행하라고 명하셨다면 내가 능히 행할 수 있으리이다. 만일 그가 나에게 명하사 이 물더러 이르기를, 너는 육지가 되라 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육지가 되리니, 내가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리이다.”[니파이전서 17:50]

그것이 바로 그가 지닌 신앙이었습니다.<sup>11</sup>

우리가 이 지상에 올 때 그랬듯이,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고린도후서 5:7 참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계명에 충실하고 신앙으로 행한다면 의로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sup>12</sup>

아무리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교리를 고수하고 신앙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떨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다고 말한 야고보의 말이 옳은 것입니다.[야고보서 2:19 참조]<sup>13</sup>

### 3

#### **회개는 복음의 둘째 되는 원리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승영하는 데 꼭 필요하다.**

회개는 복음의 둘째 되는 기본 원리로서 신앙의 발로입니다.<sup>14</sup>

교회 안팎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강한 신앙과 주님을 섬기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sup>15</sup>

우리 중에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무서운 죄, 곧 치명적인 죄가 아닌 한,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니파이는 오늘날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니파이후서 28:7~9 참조] 그러나 우리가 진리와 의의 길에서 돌아선다면, 결코 주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sup>16</sup>

시온에는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이 거할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 곧 악으로부터 돌아서고 영생과 복음의 빛을 찾는 사람이 거할 곳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죄를 조금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주 앞에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행해야 합니다.<sup>17</sup>

사람은 오직 의 안에서만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고 승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요한1서 1:7 참조]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주님과 친분을 맺고 그분의 영광과 승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sup>18</sup>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sup>19</sup>

### 4

#### **회개의 원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구현되어 있다.**

회개는 복음에서 가르치는, 우리에게 가장 위안을 주고 영광스러운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원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그 어떤 원리보다 더 강하게 구현되어 있는 듯합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면



“회개는 복음에서 가르치는, 우리에게 가장 위안을 주고 영광스러운 원리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구제될 길이나 방법 없이 우리가 저지른 범법에 대한 형벌이 속절없이 영원무궁토록 계속된다고 할 때 우리가 겪을 공포는 이루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형벌에서 어떻게 구제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17, 또한 18~21절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죄 사함은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sup>20</sup>

우리 죄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저지른 범법을 모두 회개하고 그분을 섬기려 할 것입니다.<sup>21</sup>

## 5

### 회개에는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포함된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 네 하나님께 의롭게 희생을, 참으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희생을 바칠지어다.”[교리와 성약 59:8]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

사전에 나오는 정의에 따르면,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 슬픔과 죄에서 벗어나려는 소망 없이는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뉘우침은 죄 때문에 상한 심령, 즉 겸손해진 마음과, 죄의 간악함을 진심으로 자각한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죄인에게 내려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그런 까닭에 주님은 제가 이미 인용한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 참으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희생”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

회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가 쉽지 않지만, 회개와 신앙의 은사를 구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받을 것입니다.<sup>22</sup>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경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영원한 복리와 진보를 위해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sup>23</sup>

## 6

### 회개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해의 왕국으로 구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만 실족한 적이 있다면, 죄를 범하고 있다면,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고 그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하여 새사람이 될 적기입니다. 너무나 사소한 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때로 몇 번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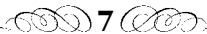
시고 약간의 형벌만 가하신 후에 용서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활을 고집하고 고수하다 보면 결국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sup>24</sup>

복음 원리에서 미루는 행위는 영생,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서 사는 삶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우리 가운데, 심지어 교회 회원 중에는 복음 원리를 준수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

[앰올레크]가 한 말을 잊지 맙시다. “이는 보라,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

또 이제 내가 앞서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너희가 것처럼 많은 증거를 가졌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회개의 날을 끝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영원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이 날 후에는, 보라, 우리가 이 생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수행할 수 없는 어둠의 밤이 오이니라.

너희가 저 참담한 위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회개하겠노라, 내가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나니, 이는 너희가 이 생을 떠날 때에 너희 몸을 소유하는 그 동일한 영, 그 동일한 영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너희 몸을 소유할 능력을 가질 것임이니라.”[앨마서 34:32~34]<sup>25</sup>



### **우리는 온 세상에 경고의 음성을 높일 책임이 있다.**

주님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행복하기를 거절하고 자신을 비참한 상태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며, 이기심과 탐욕과 사악함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sup>26</sup>

이곳저곳을 다니며 살펴보고 언론 출판물을 통해 접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sup>27</sup>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백성에게, 후기 성도에게, ……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외칩니다.<sup>28</sup>

우리는 온 세상, 특히 교회 회원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일 책임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8:81 참조]<sup>29</sup>

서로 돌보고 보호하며, 서로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왕국의 복음 원리를 가르치며, 서로 힘을 합쳐 세상의 죄에 맞서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sup>30</sup>

저는 오늘날, 심지어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조차 회개를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필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저는 비회원뿐 아니라 후기 성도들에게 우리 구속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외칩니다. 주님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분 면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함을 입증하고 신앙과 회개를 통해 그분의 피로 자기의 옷을 땀 자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왕국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sup>31</sup>

“보소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회개할진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리이다.”[니파이전서 22:28] 저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으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속해 주셨고, 회개할 때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사해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온 인류가 주님을 믿고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를 예배하며 주 우리 하나님을 아들의 이름으로 섬기어, 평화가 찾아오고 의로움이 만연하여 주님이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sup>32</sup>

저는 세상 사랑들에게 회개하고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의 삶을 비추며, 그들이 지닌 모든 선하고 참된 원리를 지키며, 여기에 오늘날 계시를 통해 주어진 빛과 지식을 더하라고 권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속하여 복음 축복을 추수하라고 권합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에게 의의 일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며, 영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생활에서 하나님 왕국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 주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합니다.[빌립보서 2:12 참조]<sup>33</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 질문

- 스미스 회장이 “경고의 음성을 높[이고자]” 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찾아본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어떻게 사랑의 표현이 되는가?
-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1편 참조)
- 참된 신앙이 늘 행함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몇 가지 예를 보려면, 2편을 참조한다.)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 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어떻게 회개는 “신앙의 발로”인가?(3편 참조)
-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느낀 때를 조용히 생각해 본다.(4편 참조) 구주의 속죄에 관해 느끼는 고마움 중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슬픔과 죄에서 벗어나려는 소망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5편 참조) 5편 마지막에 나오는 두 문단은 죄로 슬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 미루는 행위는 어떤 면에서 “영생[을] …… 흠치는 도둑”인가?(6편 참조) 회개를 미루는 것은 왜 위험한가?
- 7편을 복습하면서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어떻게 하면 친절과 사랑을 담아 사람들을 경고할 수 있을까?

### 관련 성구

히브리서 11:1~6, 모사이야서 4:1~3, 엘마서 34:17, 이터서 12:4, 모로나 이서 7:33~34, 교리와 성약 18:10~16, 신앙개조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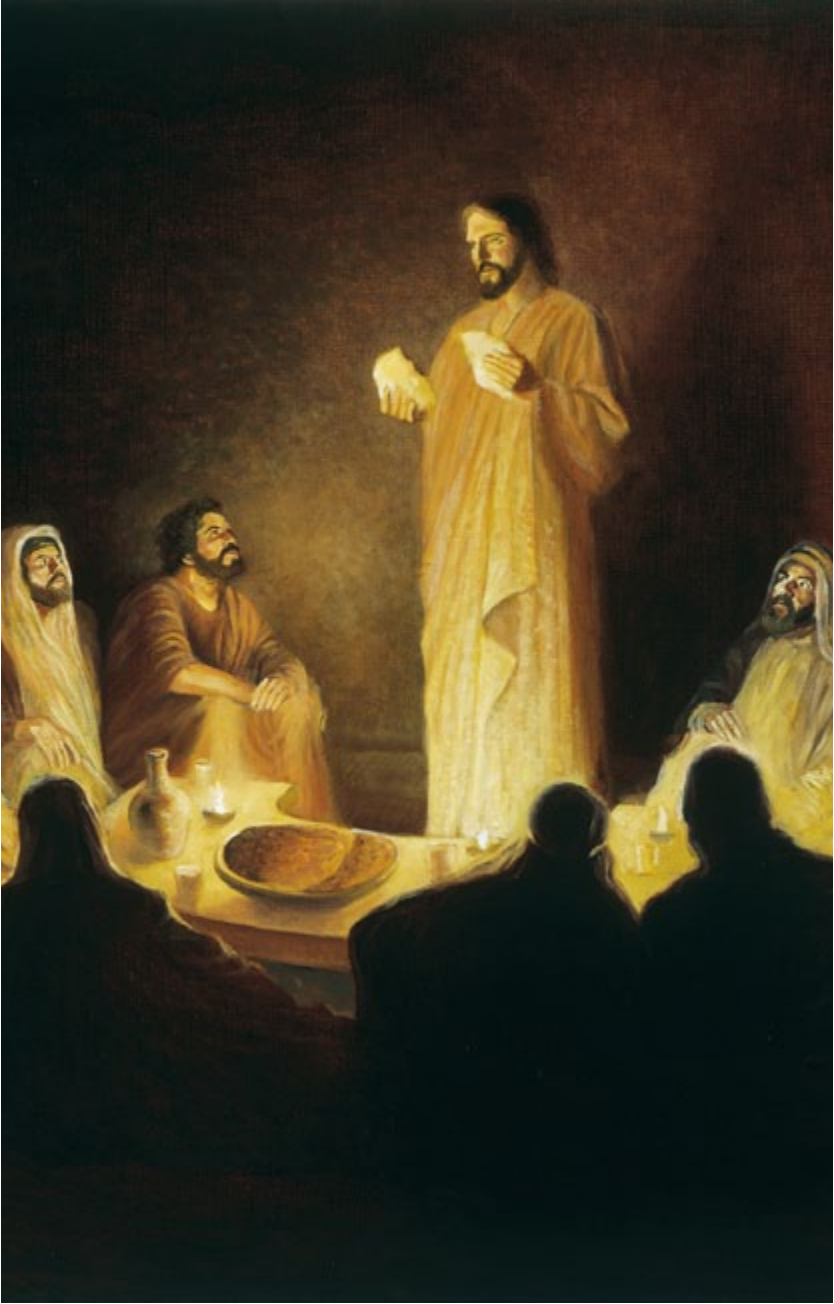
### 교사를 위한 도움말

“행동해야 할 사람은 학생이다. 교사가 주목을 받는다거나, 주역이 된다든가, 모든 말을 한다든가, 또는 모든 활동을 한다면, 이는 교사가 반원의 학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에셀 디 우드럽, 복음을 가르침

[1962], 14쪽;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평범한 교실-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훌륭한 장소”,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12쪽)

## 주

1.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1:84.
2. “Faith and Works: The Clearing of a Seeming Conflict,” *Improvement Era*, Oct. 1924, 1151;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2권, 276쪽 참조.
3. In Conference Report, Oct. 1919, 88; italics in original.
4. Joseph Fielding Smith Jr., in *Take Heed to Yourselves!* (1966), v-vi.
5.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1992), viii.
6. Spencer W. Kimball, quoted by Bruce R. McConkie in “Joseph Fielding Smith: Apostle, Prophet, Father in Israel,” *Ensign*, Aug. 1972, 28.
7. In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10.
8.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113.
9. In Conference Report, Oct. 1921, 186;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267쪽 참조.
10. “Redemption of Little Children,” *Deseret News*, Apr. 29, 1939, Church section, 3;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267~268쪽 참조.
11. “Faith,” *Deseret News*, Mar. 16, 1935, Church section, 3, 7.
12. In Conference Report, Apr. 1923, 139.
13. “Faith and Works: The Clearing of a Seeming Conflict,” 1151;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275~276쪽 참조.
14.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1945), 196.
15. “The Pearl of Great Price,”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uly 1930, 104;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44쪽 참조.
16. In Conference Report, Oct. 1950, 13.
17. In Conference Report, Apr. 1915, 120.
18. In Conference Report, Oct. 1969, 109.
19. “A Warning Cry for Repentance,” *Deseret News*, May 4, 1935, Church section, 6;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39쪽 참조.
20.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196-97.
21.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199.
22. “Repentance and Baptism,” *Deseret News*, Mar. 30, 1935, Church section, 6.
23. “My Dear Young Fellow Workers,” *New Era*, Jan. 1971, 5.
24. “Relief Society Conference Minutes,” *Relief Society Magazine*, Aug. 1919, 473,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15~16쪽 참조.
25. In Conference Report, Apr. 1969, 121, 123.
26. “A Warning Cry for Repentance,” 6;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31쪽 참조.
27. In Conference Report, Oct. 1966, 58.
28. In Conference Report, Oct. 1932, 91-92;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28쪽 참조.
29. In Conference Report, Apr. 1937, 59;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44쪽 참조.
30. In Conference Report, Apr. 1915, 120.
31. In Conference Report, Oct. 1960, 51.
32. In Conference Report, Oct. 1919, 92.
33.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7-8.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누가복음 22:19)



## 성찬의 중요성

“이 상징물을 드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식 중 하나입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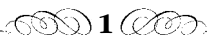
1929년 10월 5일, 사도로 봉사한 지 19년이 흘렀을 때,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그의 39번째 연차 대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솔트레이크 태버넌클 단상에 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성찬과 관련된 한두 가지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듣기 위해 계시와 주님의 계명으로써 교회에 마련된 그 모임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는 성찬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들려주었다.

“저는 성찬식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 중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던 잊지 못할 그날 밤에 그분과 사도들이 함께 모인 엄숙한 장면을 생각하면 제 가슴은 경이로 벅차오르고 감격에 젖어 듭니다. 저는 그 모임이 태초 이래 가장 엄숙하고 놀라운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구주께서는 앞으로 있을 그분의 희생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이 돌아가실 것이며 피를 흘리실 것이라고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죄로 고뇌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성찬이 제정되었고 제자들은 자주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을 기념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희생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타락으로 짙어진 빛을 갠 책임을 주님이 도맡아서 인간을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속하시려던 찰나였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끌 수 있도록 자신이 들릴 것이며,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그분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실 것이므로 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sup>1</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주님은 성찬을 들기 위해 자주 모이라고 명하셨다.

[빵과 물로 된] 이 상징물을 드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식 중 하나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 구속주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것을 [상징한] ……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뒤 먹는 일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 애굽에서 탈출한 후부터 구속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해마다 일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엄숙한 밤에 이 의식을 변경하시고 대신에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 년에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모이고 기도의 집에 가며, 그곳에서 이 거룩한 의식에 자주 참여하여 구속주를 기억하고 그분과 성약을 맺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sup>2</sup>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도 여러 주, 여러 달에 걸쳐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에 충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는 성찬식에 참석해서 빵 한 조각과 작은 물 한 컵에 불과한 이 상징물을 취할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들에게 충실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sup>3</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이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고 늘 염두에 두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우리는 매주 모여 이 상징물을 들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이 성약을 새롭게 해야 하며, 이 계명을 꾸준히 지키지 않으면 주님 영을 지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영을 지니고 이 모임에 참석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에 따라 매주 이 성찬식에서 새롭게 해야 하는 성약을 기억할 것입니다.”<sup>4</sup>

##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며 성찬을 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 겸손하고 충실히 행하는 것은 교회 회원들의 의무입니다. …… 제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저는 교회 회원 중 꽤 상당수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며 먹고 마시는 빵 한 조각과 조그마한 물 한 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빵의] 축복문을 생각해 봅시다.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옵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교리와 성약 20:77] ……

그분을 기억하며 먹는다는 것, 이것은 약 2천 년 전에 사악한 자들이 그분을 끌고 가 십자가에 매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죽음을 맞으시도록 내버려둔 것만을 기억하겠다는 뜻입니까? 제게 이 말은 그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합니다.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제가]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은 죄에서 구속받도록, 즉 헤어나게 하려고 그분이 겪으신 고통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숨을 거두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 …… 그분이 겪으신 또 다른 고통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대다수가 바로 이 점을 간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 극심하고 끔찍했을 테지만, 그것이 그분이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아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훨씬 더 의미 있고 통렬한 또 다른 짐을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일까요? 그 고통을 명확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약간은 알 것 같습니다.<sup>5</sup>

저는 우리 모두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 일에 대해 유감을 느끼고 돌이키고 싶어한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극심한 불행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제가 저지른 범법과 여러분이 저지른 범법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 그분이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그 끔찍한 고통이 아니라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 짐, 즉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저도 그분께 짐을 보탬으며,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그 짐을 스스로 짊어지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참되고 충실하여 그 형벌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며 잔을 물리쳐 달라고 외치실 때 겪으신 그 극심한 고뇌야말로 제가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손이나 발을 못 박은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간청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보다 더 격심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sup>6</sup>

우리 모두는 나약하며, 우리 같이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치르셔야 했던 대가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 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 그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19]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희생에 따른 극심한 고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주었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이 매서운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인류를 향한 크신 사랑 때문에 치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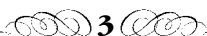


“저는 교회 회원들이 …… 성찬을 들 때 맺는 성약을 좀 더 분명히 이해했으면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통해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열성을 다해 기쁘게 행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sup>7</sup>

제가 여러 번 해 본 것처럼, 구주께서 사도들을 만나시던 엄숙한 장면을 그려 볼 수 있다면, 사도들이 모여 있고 슬픔에 잠긴 주님이 세상의 죄를 슬퍼하고 그분을 배반할 한 사도 때문에 비통해하시면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열한 제자를 가르치시며 그들과 성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모인 그들을 상상할 수 있고 주님이 짊어지신 짐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면, 그들이 만찬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고 나간 후 주님이 배반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재판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신 일을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을 희미하게

나마 이해할 수 있다면,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일을 희미하게 밖에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영원히 진리의 빛 가운데 걷고 싶어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류의 구주께서 켄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주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섬기려 할 것입니다.<sup>8</sup>



### 성찬을 들 때 우리가 맺는 성약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저는 교회 회원들이 성찬식에서 성찬을 들 때 맺는 성약을 좀 더 분명히 이해했으면 합니다.<sup>9</sup>

저는 [성찬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교회 회원 두 명이 대화를 나누다가 빵이나 물을 축복하는 동안 멈췄다가 다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저는 충격을 받았고 주님도 충격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sup>10</sup>

모임에서 [성찬식] 기도문을 낭독하는 동안 이 기도문의 본질을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상징물을 들 때마다 하기로 성약을 맺는 중대한 일이 네 가지가 있으며, 성찬을 드는 행위에는 이 의무를 다하겠다는 우리의 동작이 포함되므로 이 의무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상처 난 몸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며 [성찬 빵을] 먹는다.
2. 우리는 주님이 세상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 곧 아담의 범법을 속죄해 주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는 피를 기억하며 [성찬 물을] 마신다.
3. 우리는 기꺼이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고 성약한다. 이 성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거나 비난받게 할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성찬식] 기도문을 낭독하는 동안 이 기도문의 본질을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4.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겠다고 성약한다. 단순히 한두 계명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교리와 성약 84:44]고 성약한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는 성신으로부터 계속 인도받는다는 약속을 받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한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sup>11</sup>

모든 교회 회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배하는 태도로 성찬식에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이 상징물을 취하는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고의로 깨뜨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찬을 취할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성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며, 이 약속을 매주 새롭게 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이 십일조를 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정월회 및 그 밖의 교회 의무를 다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성도들 앞에서 매주 그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러한 성스러운 원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sup>12</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를 보면, 스미스 회장은 구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던 때에 관한 자기 생각을 나눈다.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1편을 공부하면서 매주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성찬식을 위해 어떻게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가? 부모는 자녀가 성찬식을 위해 준비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스미스 회장이 성찬을 들 때 생각한 내용 중 어떤 점이 마음에 와 닿았는가?(2편 참조) 성찬을 들 때 구주와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3편에 열거된 성약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성약에 관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조용히 생각해 본다. 이 성약은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관련 성구

마태복음 26:26~29, 고린도전서 11:23~29, 제3니파이 18:1~13, 몰몬서 9:29, 모로나이서 4~5장, 교리와 성약 20:75~79, 59:9~12

###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작은 조로 나누어) 각 장 끝에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읽으라고 한다. 본문에서 그 질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한 다음, 자신이 생각하고 깨달은 점을 반원들과 나누도록 부탁한다.” (이 책 vii쪽에서 발췌)

## 주

1. In Conference Report, Oct. 1929, 60-61;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2권, 303~304쪽 참조.
2. "Importance of the Sacrament Meeting," *Relief Society Magazine*, Oct. 1943, 590;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302쪽 참조.
3. *Seek Ye Earnestly*,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1972), 99.
4. In Conference Report, Oct. 1929, 61;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303쪽 참조.
5. "Fall-Atonement-Resurrection-Sacrament," address delivered at the Salt Lake City Utah University Institute of Religion, Jan. 14, 1961, 7-8.
6. "Fall-Atonement-Resurrection-Sacrament," 8.
7. "Importance of the Sacrament Meeting," 591-92.
8. In Conference Report, Oct. 1929, 63;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308~309쪽 참조.
9. "Fall-Atonement-Resurrection-Sacrament," 7.
10. *Seek Ye Earnestly*, 122.
11. "Importance of the Sacrament Meeting," 591.
12. In Conference Report, Oct. 1929, 62-63;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307~308쪽 참조.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 “살아 있을 때 두 사람은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고  
죽을 때도 그들은 헤어져 있지 아니하였[다.]”(교리와 성약 135:3)



##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의  
생애와 성역에 감사하며, 또한 그들이 놓은 기초를 더욱  
굳게 다진 선지자들과 사도들 및 의로운 남성과 여성들의  
생애와 성역에도 감사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아주 어린 적부터 조셉 필딩 스미스는 그의 가족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선지자 조셉의 충직한 친구이자 형이었던 자신의 조부 하이럼 스미스의 모범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이럼은 교회 지도자로서 동생 곁에서 충실하게 봉사했다. 그는 몰몬경 출판을 도왔으며 몰몬경의 여덟 증인 중 한 명으로 부름받기도 했다. 1844년 6월 27일에 조셉과 하이럼은 일리노이 주 카테지에서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관한 그들의 간증을 인봉하며 순교했다. “살아 있을 때 두 사람은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고 죽을 때도 그들은 헤어져 있지 아니하였[다.]”[교리와 성약 1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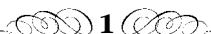
조셉 필딩 스미스는 친조부모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가 태어나기 오래 전에 그의 조부 하이럼이 순교했다. 하이럼의 아내 메리 필딩 스미스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친할머니를 뵈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성 중 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늘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훌륭한 동생인 머시 톰슨 이모 할머니는 알고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모 할머니 댁에 가서 그분을 뵈고 그분 무릎에 앉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에 참으로 감사합니다.”<sup>1</sup>

조셉 필딩 스미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그의 아버지 조셉 에프 스미스가 보여 준 모범에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아버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간증에는 의심이나 불확실한 면이 한 치도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구주의 신성이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명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는 더욱 그랬습니다.”<sup>2</sup>

조셉 필딩 스미스는 이러한 모범과 가르침을 통해 어린 시절에 회복된 복음에 관한 간증을 얻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명을 믿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sup>3</sup> 그는 종종 복음을 가르칠 때 가족의 관점에서 간증을 전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사랑하느냐고요? 네, 저는 아버지가 그분을 사랑하셨듯이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와 그와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내려 주신 축복 덕분에, 저와 제 가족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받은 복음의 회복과 특권과 축복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sup>4</sup>

스미스 회장은 가족에게서 받은 가르침과 유산에 감사했지만 그의 간증은 그만의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선두에 서도록 부름 받았다는, 주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간증에 무척 감사했습니다.”<sup>5</sup> 그는 이런 간증도 전했다. “저는 1820년에 조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하셨으며, 아들이 조셉에게 말씀하시되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물으시며 권고를 주셨고, 중국에는 다른 지식이 밝혀질 것이며, 당시 지면에 없던 충분한 복음이 회복되리라는 약속과 더불어,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셨음을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간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이것에 관해 알고자 하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알 특권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자신을 낮추고 깊은 겸손과 신앙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들이 확실히 살아 있는 것처럼 그것이 확실하다는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sup>6</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조셉 스미스의 관계를 살핍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속죄 희생을 치르셨고,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그분을 통해 온 인류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며, 그분의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생도 얻게 됩니다.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였으며, 그는 이 마지막 날에 복음의 구원 진리를 계시로 받고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아 복음 의식을 집행하는 합당한 집행자가 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를 통해 계시된 이 진리가 재림 이전에 모든 나라에 나아갈 것이므로,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그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조셉 스미스-역사 1:33]라고 말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훗날 주님이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도 당연합니다. “땅 끝이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들은 너를 조롱할 것이요, 지옥이 네게 분노하리라.

한편 마음이 순결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고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 손 아래에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세와 축복을 구하리라.”(교리와 성약 122:1~2)

바야흐로 땅 끝이 조셉 스미스의 이름을 묻기 시작하고, 많은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 회복된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된 이래,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예수님에 관한 간증과 증거는 미국, 캐나다, 영국과 유럽 대부분 지역과 태평양 섬에 전파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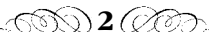
최근 몇 년간 이 사업은 멕시코와 중미 국가와 남미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 확장되었습니다.

[1971년인] 지금 아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 메시지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에 세워지고 있으며 우리는 태국,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국가가 주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문을 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곳에 들어가 그 나라에 있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그리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오늘날 지상에 소개된 그분 왕국의 복음에 관해 들려줄 날이 올 것입니다.<sup>7</sup>

조셉 스미스는 이 시대와 세대를 위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구원의 지식을 계시한 사람입니다.<sup>8</sup>

제가 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조셉 스미스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열도록 부름받고 임명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sup>9</sup>



## 주님은 조셉 스미스를 부르셔서 이 영광스러운 경륜의 시대의 선두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 거룩한 사자들의 지시를 받아 세상이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도록 하나님 왕국과 이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의 기초를 놓았습니다.<sup>10</sup>

저는 그[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고 임명되었으며,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축복이 될, 하나님 아들에게서 오는 계시와 인도를 받았음을 압니다.<sup>11</sup>

저는 주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계시와 계명을 주셨으며, 그에게 하늘 문을 여셨고, 그를 부르셔서 이 영광스러운 경륜의 시대의 선두에 서도록 하셨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가 유년 시절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실제로 그분들을 보았음을 확실히 압니다. 제 마음속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저는 그가 훗날 모로나이의 방문을 받았고, 침례 요한의 안수로써 아론 신권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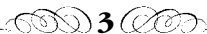


“조셉 스미스[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열도록 부름받고 임명된 선지자였[습니다.]”

의 안수로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명으로 1830년 4월 6일에 조직되었음을 압니다.<sup>12</sup>

주님은 “[크고] 기이한 일이 바야흐로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려 하는”[교리와 성약 4:1] 이 시대의 선두에 설 대표자를 택하시면서 세상의 학식과 전통에 밝은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며, 그분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이사야 55:8 참조] 세상적인 학문에 정통한 사람에게는 그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인간의 전통과 철학이 지나치게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크신 지혜로 순진한 열네 살짜리 어린 소년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충만한 복음을 이 소년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님 면전에서 온 사자들로부터 가르침 받으며 하늘로부터 인도받은 소년 조셉 스미스는 복음 회복과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일을 인도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sup>13</sup>



### **주님은 이 세대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갖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이 지상에 전해질 때는 복음이 주님의 선지자에게 계시되어야 하며, 그들은 이웃을 위해 구원 의식을 집행하고 그 구원 의식 집행을 인도하는 합법적인 집행자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아야 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주님이 이 시대에 구원에 관한 진리를 회복하고 이러한 구원 진리를 집행할 열쇠와 권능을 받도록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가지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5:10) 그런 다음 주님은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복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 곧 악인의 멸망이 오리라.”[조셉 스미스-마태 1:31]<sup>14</sup>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오늘날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관한 진리를 알기 위해 찾아야 할 사람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 선지자의 이름이 온 땅끝까지 퍼져 만민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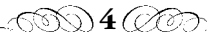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받아들여 그가 밝힌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명을 받아 조직한 교회는 그를 통해서 주어진 계시에 따르기 때문에 번영합니다.

그리고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성령의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며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압니다. 그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선지자일 것입니다. ....

간증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교리와 성약에 들어 있는 이 영감받은 말씀을 [나누어 드립니다.]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교리와 성약 135:3)<sup>15</sup>



###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은 살아 있을 때나 죽을 때나 함께였다.

저는 이 마지막 복음 경륜의 시대에 영원한 진리가 회복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명과 성역, 그리고 축복사였던 제 조부 하이럼 스미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다시 맡겨졌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sup>16</sup>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의 종 하이럼 스미스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의 마음이 고결하므로 또 내 앞에서 옳은 일을 그가 사랑하므로 나 주가 그를 사랑함이니라. 주가 이르노라.”[교리와 성약 124:15]

주님께 그러한 확신에 찬 찬사와 칭찬을 듣고 행복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이럼 스미스는 이 경륜의 시대에 최초로 침례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우 조셉의 곁을 지켰으며 격려와 믿음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이럼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했으며 아우를 자기 목숨보다 아꼈습니다. 그에게 순교자의 왕관을 안겨 준 그의 죽음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는 “옳은 일을 ..... 사랑[했습니다.]”

하이럼 스미스는 1800년 2월 9일에 태어났으며 선지자보다 여섯 살가량 많았습니다. 하이럼은 주님께서 조셉에게 부어 주시는 모든 축복들에 대해 함께 기뻐했으며, 조셉 스미스가 받은 모든 영예를 언제나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역시 이와 똑 같은 형제애를 그의 형 하이럼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슬픈 일과 기쁜 일을 함께 겪었습니다. 박해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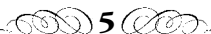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는 피로 그들의 간증을 함께 인봉했다.

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같은 지하 감옥에 갇혔으며, 그들의 간증을 인봉할 시간이 찾아왔을 때 순교의 왕관도 나누어 썼습니다. “살아 있을 때 두 사람은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고 죽을 때도 그들은 헤어져 있지 아니하였[습니다.]”[교리와 성약 135:3] ……

다음은 선지자가 바친 찬사입니다. “나의 형 하이럼, 형의 마음은 어찌 그리 충실한지요! 제 영혼을 돌보기 위해 애쓰는 형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형의 머리 위에 축복을 주시기를! 오, 우리가 함께 나눈 슬픔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무자비한 박해의 손에 묶여 있습니다. 나의 형 하이럼, 형의 이름은 주님의 율법책에 기록될 것이며, 뒤에 오는 자들이 이를 보고 형의 업적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형제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 하이럼처럼 되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한다. 형은 어린 양의 온순함과 옴의 충실함,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다. 나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형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나는 형을 책망할 일이 전혀 없었고, 형도 그랬기 때문이다.”<sup>17</sup>



###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는 피로 그들의 간증을 인봉했다.

제 조부이신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는 그의 동생 선지자 조셉과 함께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지니도록 부름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두 증인의 입으로 모든 일을 확정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고린도후서 13:1 참조] ……

조셉 스미스는 혼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구주께서 하시는 일에도 다른 증인의 확인이 필요했으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의 아버지 말고 누가 있었겠습니까?[요한복음 8:12~18 참조]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조셉 스미스와 함께 서서 그와 함께 증인으로서 이 경륜의 시대에 구원의 열쇠를 지닐 다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

[하이럼]은 그가 장자로서 상속받은 대로 교회의 축복사로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나는 그에게 명하여 그로 나의 종 조셉과 마찬가지로 나의 교회에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가 되게 하노라.

그리하여 그가 나의 종 조셉과 또한 화합하여 행동하게 하며, 또 그로 하여금 나의 종 조셉에게서 권고를 받게 하노니, 나의 종 조셉은 열쇠를 그에게 보여 줄 것이요 그는 그것으로 구하고 받으며, 나의 종이었던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한때 두어졌던 것과 똑같은 축복과 영광과 존귀와 신권과 신권의 은사로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이는 나의 종 하이럼이 내가 그에게 보여줄 일들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며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존귀하게 기억되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24:94~96]

이러한 부름과 계명에 따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 본인과 전에 올리버 카우드리가 지녔던 모든 신권의 열쇠와 권세와 은사를 하이럼 스미스에게 부여했습니다. 주님은 또한 하이럼 스미스에게 그의 동생, 즉 교회의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요, 회장인 조셉과 함께 동등한 증인이 되고, 그의 동생 조셉과 함께 현세와 영원을 통해 이 경륜의 시대의 선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sup>18</sup>

그의 형이요 제 조부 되시는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와 함께, 그[조셉 스미스]는 카테지 감옥에서 피로 자신의 간증을 인봉했습니다. 저 역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 인간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땅 끝까지 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날 강한 선견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다시 세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sup>19</sup>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의 생애와 성역에 감사하며, 또한 그들이 놓은 기초를 더욱 굳게 다진 선지자들과 사도들 및 의로운 남성과 여성들의 생애와 성역에도 감사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sup>20</sup>

## 학습 및 교수 제안

### 질문

- 스미스 회장은 어린 시절에 그가 조셉 스미스의 사명에 관한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참조) 우리는 자녀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명에 관한 간증을 얻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와 조셉 스미스는 어떤 관계인가?(1편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성역은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주님이 “세상의 학식과 전통에 밝은 사람”(2편) 대신 조셉 스미스를 부르셨다는 점에 관해 스미스 회장이 관찰한 바를 생각해 본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책임을 수행하기에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3편에서 스미스 회장은 교리와 성약 5편 10절과 135편 3절을 인용했다.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의 사명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의 관계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4편 참조)
-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가 피로 그들의 간증을 인봉한 것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5편 참조) 우리는 이러한 희생을 어떻게 기릴 수 있는가?

## 관련 성구

조셉 스미스 역, 창세기 50:30~31, 니파이후서 3:5~15, 교리와 성약 11:11~26, 76:22~24, 135편

## 교사를 위한 도움말

부지런히 배우도록 격려하는 한 가지 방법은 누군가가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낼 때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은 종종 희생을 요구한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게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66쪽)

## 주

1. In Conference Report, Apr. 1962, 44.
2. In Bryant S. Hinckley, “Joseph Fielding Smith,” *Improvement Era*, June 1932, 459.
3. In Conference Report, Apr. 1962, 44.
4. In Conference Report, Apr. 1960, 73.
5. In Conference Report, Apr. 1962, 45.
6. In Conference Report, Oct. 1949, 88–89.
7.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6.
8.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첫 예언자”, *성도의 빛*, 1979년 12월호, 31쪽.
9. In Conference Report, Apr. 1920, 108–9.
10. In Conference Report, Apr. 1920, 107.
11. In Conference Report, Oct. 1949, 88.
12. “To Know for Ourselves,” *Improvement Era*, Mar. 1970, 3.
13. *Essentials in Church History* (1950), 20–21.
14.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6.
15.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첫 예언자”, 32쪽.
16. “A Prophet’s Blessing,” *Ensign*, July 1972, 130.
17. “Hyrum Smith: A Tribute by Joseph Fielding Smith,” *Improvement Era*, Feb. 1933, 201; italics removed from original;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61, 481쪽 참조.
18. In Conference Report, Apr. 1930, 91–93;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1권, 205~206쪽 참조.
19.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첫 예언자”, 31쪽.
20. “Ogden Temple Dedicatory Prayer,” *Ensign*, Mar. 1972, 9.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주님 왕국에 헌신한 중



##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그분이 교회의 제반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확고하게 알립시다. 이토록 성스러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1970년 1월 23일부터 1972년 7월 2일까지 조셉 필딩 스미스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기간은 그가 주님 왕국에서 헌신하며 산 세월의 절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기였을 때 교회에서 첫 임무를 받았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가 9개월 된 아기였을 때, 그와 그의 아버지인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브리검 영 회장과 동행하여 함께 세인트조지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유타 주 세인트조지로 여행했었기 때문이다.<sup>1</sup>

젊은 시절, 조셉 필딩 스미스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훗날 신권 정원 회 회장과, (오늘날 청남 조직의 전신인) 청남 상호향상회 본부 위원회 위원으로 부름받았다. 그는 또한 교회 역사가 사무실 서기로 일했으며, 그의 아버지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할 때 비공식적인 비서로서 소리 없이 그를 보조했다. 이러한 봉사 기회를 통해 조셉 필딩 스미스는 교회 내의 영감받은 조직에 대해, 그리고 개인과 가족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조직의 역할에 감사하게 되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1910년 4월 7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 받았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60년 가까이 봉사했으며 그중 20여 년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사도로서, 그는 세계 전역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도왔다. 그는 교회 역사가, 솔트레이크 성전 회장, 유타 계보 협회 회장, 제일회장단 보좌로 봉사하는 등, 교회 사명의 여러 분야에 참여했다.

소박하고 겸손했던 조셉 필딩 스미스는 이런 지위를 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주님이 봉사하라고 부르시면 그는 기꺼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순종했다. 89세 때 모임에 참석하러 가던 어느 날에도 그는 이런 헌신적인 자세를 묵묵히 실천했다. 그는 집을 나서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는 다리를 다쳤지만 400미터 가까이를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늙은이같이 절뚝거리며” 걸어가서 책임을 완수했다. 모임이 끝난 후에 그는 걸어서 귀가했으며 그제야 비로소 의사가 진찰하도록 허락했다. 의사는 스미스 회장의 다리가 여러 군데 골절된 것을 발견했다. 훗날 스미스 회장은 이 경험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모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았는데, 모임이란 원래 그렇잖아요.”<sup>2</sup>

후기 성도 청소년에게 말씀하면서, 스미스 회장은 자신이 교회 일에 그토록 헌신하는 이유를 들려주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임을 압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를 계승한 사람들의 사명을 완전히 믿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 있음을 아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제가 그것을 몰랐다면 저는 여기에 서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업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sup>3</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1

**영적인 암흑과 배도에 빠진 수 세기가 지난 후, 주님은 그분의 복음을 회복하셨고 지상에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셨다.**

주님은 복음을 회복하셨고 지상에 그분의 교회를 다시 조직하셨습니다. 교회가 조직되고 회복된 것은 수 세기 동안 세상 사람들이 권세나 지식 없이 영적인 암흑에 빠져 있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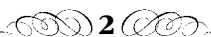
영원한 성약이 깨어졌습니다. 배도로 인해 복음 원리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사라졌습니다. 복음 의식을 집행하는 권리가 인간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커질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충만한 복음과 인간에게 내려줄 신권 권능과 권세를 지닌 사자들을 그분 면전에서 보내셨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에 임할 재앙을 아셨고, 사람들에게 합당한 경고와 복음을 받아들이 기회를 주어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1:17~23 참조]<sup>4</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요 인간이 참된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성 신권의 권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을 선포합니다.<sup>5</sup>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저와 지상에 있는 다양한 국가에 사는 그분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과 전 세계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주신 축복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복음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영원한 복음을 회복해 주신 것을 매일매일 감사드립니다.<sup>6</sup>



## 주님은 교회 일을 직접 이끄시며,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문자 그대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sup>7</sup>

자기 힘만으로 이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분의 신권을 갖고 있으며 그분의 복음을 집행하고 그분의 교리를 가르치며 그분의 일을 합니다.

주님은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시어 그분의 손에 든 도구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일할 때 인도하고 지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며, 종이 달성하는 모든 명예와 영광은 그분의 것이며 영원토록 그분께 돌려야만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실패할 것이나, 이것은 주님의 일이며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며 모든 진리에 충실하다면, 주님은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기 위해 우리와 그분의 교회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이끄시리라고 확신합니다.<sup>8</sup>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지도력 아래 수행해야 할, 하늘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띠고 있으며 누구도 이 사명과 관련된 그분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성취할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그분의 교회 회원이 된 것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복음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sup>9</sup>

우리는 모든 나라에 있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복음이 주는 충만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몬경을 믿고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며 지상에 건설된 그분의 왕국으로 나아가와 그분의 하늘 왕국에서 영생을 상속받으라고 권고하십니다.<sup>10</sup>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인간이 교회를 이끈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시대에도 브리검 영의 시대에도, 그리고 그 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며, 이 일을 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sup>11</sup>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임을 압니다. 또한 현재 조직되고 인도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승인받았으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그분이 교회의 제반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확고하게 알립니다. 이토록 성스러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sup>12</sup>

### 3

## 교회는 회원들이 이생에서는 기쁨과 행복을,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도록 돕기 위해 조직되었다.

주님은 만물을 질서 있게 세우셨으며 우리에게 완전한 조직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를 더 향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계시하신 바를 계시받은 대로 이행한다면 모든 것은 완벽할 것입니다. 이 조직은 완전한 조직이며 이 조직의 논리, 즉 이 조직에 관한 계획은 무결하기 때문입니다.<sup>13</sup>

주님은 그분의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가 이끄는 신권 조직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신권 조직을 돕고 보조하기 위해 …… 다른 조직도 주셨습니다.

복음 경륜의 시대마다 교회 회원들이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빌립보서 2:12 참조) 돕고 보조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특별한 필요 사항과 해결할 문제와 꼭 필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신권 조직을 돕고 보조하기 위한 [상호부조회, 청남, 청녀, 초등학교, 주일학교 등의] 보조 조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모든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부응할 수 있게 조직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직은 하나님 정부의 일부이며 교회 회원들이 온전한 생활을 하고 이생에서는 기쁨과 행복을, 내세에서는 영생을 안겨 주는 일을 하도록 돕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

교회와 교회 조직은 가족과 개인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신권 지도자와 감독은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기 위해 임명되었으며, 보조 조직은 이 위대한 구원 사업을 돕고 보조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도록 이 같은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만일 우리 모두가 교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자신이 할 바를 다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크게 번영케 하셔서 우리의 수고에 성공이 따르게 하실 것이며, 이로써 지상에서는 모든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영광이 따를 것입니다.<sup>14</sup>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능한 봉사를 소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4

###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무한한 봉사에 대한 감사를 나타낸다.**

주님은 교회와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은 이 백성 가운데 임해 계십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한 마음과 한 영혼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요구하십니다.<sup>15</sup>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큰 고통과 죽음을 겪으시면서 이러한 큰 사랑의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대업에서 봉

사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오직 자기와 관련된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 승영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고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고 자신의 삶과 관련된 평범한 의무만을 행할 뿐 더 나아가지 않으려는 사람은 절대 완전이라는 목표에 이를 수 없습니다.<sup>16</sup>

봉사할 기회를 절대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감리 역원이 도움을 청하면 기쁘게 수락하고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며,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며, 이와 동시에 봉사하는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교사는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것 이상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축복보다 훨씬 큰 축복을 돌려받게 됩니다. 봉사할 기회를 마다하거나 교회에서 부여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보살피지 않고 물을 주지 않은 식물처럼 모든 의무에 시큰둥해지고 무관심해져서 시들어 버리고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sup>17</sup>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업을 도울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유능한 봉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sup>18</sup>

주님의 왕국에서 참된 형제 자매로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앞에 놓인 위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기를 기도합니다.<sup>19</sup>



### **이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 왕국과 주님의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다.**

복음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신성하게 택함을 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할 권능과 권세가 주어지고 복음의 모든 의식들이 집행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인간의 범법으로 복음이 인간에게서 거두어진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여러 세대 전에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암흑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상에 오셨을 때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

들을 보내어 온 세상에 그분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다시 범법하기 시작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 문을 열고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소개하여 주님이 천 년 동안 영광 중에 지상을 다스리려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야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문턱에 이르렀습니다.<sup>20</sup>

복음 그 자체는 모든 경륜의 시대에 동일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 자녀에게 동일합니다. 때때로 복음이 배도 때문에 잃어버려진 바 되기도 했지만, 지상에 백성이 있을 때면 그들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과 똑같은 구원의 율법과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이 시대에만 받은 한 가지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교회가 다시는 배도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공표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계시된 진리는 사람들이 인자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마련되었으며, 주님이 평화와 의의 복천년 시대를 열러 오실 때 교회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sup>21</sup>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 교회의 회원이며, 또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후기에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세계적인 교회의 회원입니다. ....

우리는 주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만한 능력과 힘을 갖추었습니다. 그 사명은 회복의 기쁜 소식을 온 나라와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가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나라에 복음을 가르칠 뿐 아니라, 개종자를 내어 그들 가운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sup>22</sup>

하나님 왕국과 주님의 사업은 점점 더 뻗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세상에서 진척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영이 증언합니다. 저 역시 그것이 참됨을 알기에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왕국은 성장하고, 세계로 뻗어 나가고, 땅에 뿌리내리며, 주님이 그분의 권능과 말씀으로 심으신 곳에 지속되고, 더는 파괴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선지자들이 이야기 한 모든 원리가 성취될 때까지 계속되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

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후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그분의 지혜로 직접 이 사업을 지상에 회복하셨습니다.<sup>23</sup>

복음은 만인을 위한 것이며, 인자가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는 온 세계 방방곡곡, 땅 끝까지 세워질 것입니다.<sup>24</sup>

저는 주님이 지상에서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라는 것을 알며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 나라에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방해할 힘이 없습니다.<sup>25</sup>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시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고 주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뻗어 나가리라는 확신과 축복을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sup>26</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스미스 회장이 보여 준 모범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참조)
- 복음 회복에 관해 스미스 회장이 가르친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본다. (1편 참조) 주님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 스미스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증거했다. (2편 참조) 이 진리에 관한 간증을 비회원에게 어떻게 전하겠는가?
- 교회 조직과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3편에 언급된 축복을 받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여러분 가족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4편) 가정 복음 교사 또는 방문 교사로 봉사할 때 구주께서 보여 주신 모범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 5편을 복습하면서 이 경륜의 시대가 다른 경륜의 시대와 어떻게 다른지 주목한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어떤 영향

을 줄 수 있는가? 구주의 재림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 관련 성구

모사이아서 18:17~29, 교리와 성약 1:30, 65:1~6, 115:4, 128:19~22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활용할 때 반원들은 복음 원리를 더 잘 이해하여 간직하는 경향을 보인다. 신중히 선택한 교수법은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흥미롭게] 하며 오래 기억에 남게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89쪽)

### 주

1.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16 참조.
2.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4.
3. “My Dear Young Fellow Workers,” *New Era*, Jan. 1971, 5.
4. In Conference Report, Oct. 1944, 140-41.
5. “암흑으로부터”, *성도의 빛*, 1971년 10월호, 3쪽.
6.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4.
7. “교회 프로그램의 활용”, *성도의 빛*, 1971년 3월호, 2쪽.
8.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113.
9. “나의 교회는 이렇게 불려지리라”, *성도의 빛*, 1970년 8월호, 2쪽.
10. “성도들과 온세상에 드리는 권고의 말씀”, *성도의 빛*, 1972년 12월호, 8쪽.
11. In Conference Report, Oct. 1968, 123.
12.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8.
13. “The One Fundamental Teaching,” *Improvement Era*, May 1970, 3.
14. “교회 프로그램의 활용”, 1~2쪽.
15. “The One Fundamental Teaching,” 3.
16. In Conference Report, Apr. 1968, 12.
17. In Conference Report, Apr. 1966, 102.
18.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59.
19.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114.
20. “A Peculiar People: Gospel Dispensations,” *Deseret News*, Dec. 5, 1931, Church section, 6.
21. “A Call to Serve,” *New Era*, Nov. 1971, 5.
22. In Conference Report, British Area General Conference 1971, 5.
23. In Conference Report, Oct. 1968, 123.
24. In Conference Report, British Area General Conference 1971, 176.
25. “성도들과 온세상에 드리는 권고의 말씀”, 8쪽.
26.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148-49.

## 몰몬경의 증인들

“이 교회 회원이라면 몰몬경을 읽고 또 읽고 숙고해 본 후 그 책이 진정 전능하신 이로부터 온 영감 어린 책[이라고] …… 간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1921년 3월부터 1970년 2월까지 교회 역사가 및 기록자로 봉사했다. 이 직책에 있는 동안 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회 문서 원본을 입수하는 데 기여했다. 이 문서들 중에는 몰몬경의 특별한 세 증인 중 한 명인 데이비드 휘트머가 손수 작성하고 서명한 증언도 있었다. 스미스 회장은 몰몬경의 세 증인 중 또 다른 한 명인 올리버 카우드리가 친필로 쓴 증언을 다루는 특권도 누렸다. 이 두 문서를 직접 옮겨 적은 스미스 회장은 1939년 3월과 1956년 10월 교회 연차 대회를 비롯해 두 차례 이상의 공개 석상에서 그 내용을 낭독했다.

스미스 회장은 문서로 된 이 증언을 사람들과 나눌 만큼 중요하게 여겼지만 몰몬경에 관한 또 다른 간증을 좀 더 자주 언급했다. 그것은 그가 교회 역사가 사무실에서 일하기 오래전부터 갖게 된 그의 간증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집사가 되기 전에 몰몬경을 읽기 시작한 뒤로 줄곧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sup>1</sup> 그는 후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저는 몰몬경을 솔하게 읽었습니다만 아직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이 책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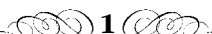
스미스 회장은 몰몬경에 관한 이러한 간증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의 간증을 얻도록 북돋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 “여



한 천사가 조셉 스미스가 동석한 가운데 세 증인 중 두 명인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금판을 보여 주었다. 나중에 이 천사는 세 번째 증인인 마틴 해리스에게도 금판을 보여 주었다.

기 계신 많은 분이 증거하실 수 있듯이, 저는 주님이 제게 이것이 참됨을 계시로써 분명히 알려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책이 참된지 아닌지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이 책을 읽어 보려는, 모든 진지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 사람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나오도록 이 기록을 인봉했던 모로나이의 약속에 따라 그 같은 간증을 얻을 것입니다.”<sup>3</sup>

## 조셉 펠딩 스미스의 가르침



### 몰몬경은 영원한 복음을 담고 있는 성스러운 기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몰몬경은 고대 미대륙 주민의 성스러운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그들 선지자의 예언과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 그리고 고대 백성의 역사와 운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몰몬경은 미대륙 주민의 경전이며, 동반구에 살던 히브리 민족의 성스러운 기록이 수록된 성경과 마찬가지로 성스럽고 영감에 차 있습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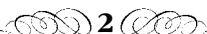
니파이인 선지자들은 그들의 기록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하듯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한 복음을 계시해 주셨음을 리하이의 후손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증거하도록 보존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랐습니다. 니파이인 선지자들은 수 세기 전에 그들에게 전해졌던 간증을 통해 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도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몰몬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것이 몰몬경의 주요 목적임을 이 책에서 배웁니다. ....

주님은 니파이인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역사와 예언이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나아오고, 백성 가운데 그분의 복음을 세우기 위해 보존되리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셨습니다. 니파이는 우리 시대의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예언했고 매우 강하고 힘 있는 어조로 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남겼습니다.(니파이후서 33장) 모로나이도 그렇게 했습니다.(모로나이서 10:24~34)<sup>5</sup>

그리스도 시대로부터 약 600년 전에, 이스라엘인 무리의 초기 선지자 중 한 명인 니파이는 그의 백성의 역사를 담은 기록이 티끌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말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우리의 교훈을 너희는 들으라, 이는 보라, 오늘날 하나님은 없는 연고니 이는 주이시요 구속주이신 이가 그의 일을 다하셨고, 그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셨음이라”[니파이후서 28:5] 또한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이 서반구 백성의 역사가 담긴 새로운 경전이 제시될 때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성경! 하나의 성경! 우리에게는 하나의 성경이 있으니 더 이상의 성경이 있을 수 없도다.”[니파이후서 29:3]

이 새로운 경전은 영원한 복음을 담고 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경전인 성경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니파이와 그의 부친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예언에 따라 이 두 기록은 함께 자라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것이었습니다.[니파이후서 3:11~13, 29:10~14 참조] 오늘날 이 두 기록은 이와 같은 증인으로 우뚝 서서 거기에 담긴 가르침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sup>6</sup>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물문경을 번역했으며 이 책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물문경 표제지] 나아왔다는 것을 압니다.<sup>7</sup>



## 증인의 율법에 따라 주님은 특별한 증인들을 불러 물문경을 증거하게 하셨다.

경전에는 증인과 증인 임명에 관해 명백하게 언급된 율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백성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실 때마다 이 율법을 따르셨습니다.<sup>8</sup>

모든 시대를 아울러 이 [증인의] 율법은 변함없고 명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시대의 완전한 기록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경륜의 시대를 세우실 때마다 그분을 위해 증언할 증인을 한 사람 이상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고린도후서 13:1]<sup>9</sup>

몰몬경 출현에 관해 주님은 증인을 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증거할 특별한 증인 세 명이 필요했으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보고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의 말씀을 증거할 자가 달리 아무도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 르시되, 충실한 자의 말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하듯 말할 것이라 하겠음이니라.

그런즉 주 하나님께서 나아가사 그 책의 말씀을 드러내실 것이며, 그가 보시기에 좋으신 만큼 많은 증인들의 입으로 자기의 말씀을 확증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 버리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니파이후서 27:13~14)<sup>10</sup>

몰몬경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오게 되었음을 증거할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 받은 세 사람은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와 마틴 해리스입니다. …… 그들은 이 경륜의 시대에 이 기이한 일을 수행하는 데 조셉 스미스와 함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

그들은 주님 면전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천사가 그들 앞에 금판을 놓았으며 그 금판에서 몰몬경이 번역되었고, 그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서 금판이 한 장씩 넘겨지는 동안 판 위에 새긴 것을 보았으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 번역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했으며, 이를 온 세상에 증거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세 증인은 역경과 박해와 변화무쌍한 인생을 겪으면서도, 천사의 면전에서 판을 보았으며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들의 증언을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보여 준 판을 보고, 만져 보고, 그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본 또 다른 여덟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역시 세상에 전해졌으며 몰몬경에 실려 있습니다. 이 여덟 사람도 모두 죽을 때까지 그들의 증언을 견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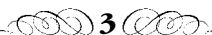


조셉 스미스는 금판을 여덟 증인에게 보여 주었다.

주님이 니파이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조셉 스미스를 포함하여] 이 열두 사람, 곧 천사를 보고 하늘의 시현을 본 네 사람과 조셉 스미스가 보여 준 기록을 본 여덟 사람은 주님이 물몬경이 참됨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신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들의 증언은 율법을 충족하기에 충분합니다.<sup>11</sup>

조셉 스미스는 …… 첫번째 시현을 받을 때도 혼자였고, 모로나이가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 줄 때도 혼자였으며, 판을 받을 때도 혼자였지만, 그

후에는 혼자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증인을 부르셨습니다. 스미스 할머니[조셉 스미스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는 그분의 역사 기록에서, 증인들이 하나님 천사의 지시 아래 판을 보게 된 후 선지자가 기쁜 마음으로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는 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sup>12</sup>



### 세 증인은 물몬경에 관한 그들의 증언을 끝까지 지켰다.

후에 이 세 [특별한] 증인은 모두 교회에서 멀어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올리버 카우드리와 마틴 해리스는 겸손하게 교회로 다시 돌아와 회원 자격을 얻기를 원했으며 온전한 회원 자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교회에 다시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이 세 사람은 모두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물몬경에 나오는 증언을 끝까지 지켰습니다.<sup>13</sup>

다음은 데이비드 휘트머가 1881년 3월 19일에 미주리 주 리치먼드에서 증언한 내용으로, 그날 *Richmond Conservator*에 실린 원본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이 기록을 맞이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합니다.

미주리 주 폴로[콜드웰 군]의 존 머피는 제가 지난 여름에 그와 대화하는 동안 물몬경의 세 증인 중 한 명으로서 제가 했던 증언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그가 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제 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이제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다음 사실을 공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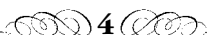
저는 세 증인 중 한 명으로서 그 책에 기록된 제 증언을 일부라도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언제나 그 증언을 지키고 견집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또한 그 점에 관한 제 현재 태도를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그 당시에 증거하고 기록한 제 말이 모두 진실임을 다시 확인하는 바입니다.”<sup>14</sup>

이제 마틴 해리스에 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는 계속해서 물몬경에 대한 그의 증언을 견지했지만, 수년 동안 교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유타에 오고 얼마 후 우리의 훌륭한 형제 몇 명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다독여 교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이곳[유타]으로 왔으며, 다시 침례를 받아 이곳에서 수년 동안 이주민들 가운데서 그의 증언을 증거하며 살다가, 이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유타 주 클라크스틴]에 묻혔습니다.

이제 올리버 카우드리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이 세 사람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인 올리버 카우드리는 어땠습니까? 그는 술한 시간을 조셉 스미스와 함께했으며 천사가 나타나고 열쇠가 회복될 때에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교회를 떠났으며 극도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증언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증언을 부인했다고 말하나 그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증언을 견지했습니다. ……

성도들이 나부에서 쫓겨나 광야에 있을 때 모든 것은 암흑처럼 느껴졌습니다.(시드니 리그돈은 그들 앞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오직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으며, 또한 신문에서는 그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리버 카우드리는 ……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 그는 교회에서 환영받았고,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나갈 준비를 하다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증거하면서 데이비드 휘트머의 집에서 운명했습니다.<sup>15</sup>



#### 모든 교회 회원은 물몬경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물몬경이 참됨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기록이 참되고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주님이 성신의 권능으로 그것을 밝혀 주셔서 그것이 참됨을 알게 되리라는 약속이 물몬경에 나옵니다.[모로나이서 10:3~5 참조] 이 약속을 시험해 보고, 이를 통해 그러한 지식을 얻었음을 온 마음을 다해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sup>16</sup>



“이 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읽으면 영감과 평화로운 기쁨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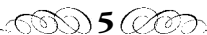
저는 제가 읽은 이 물문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책이 조셉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온 계시를 통해 밝혀졌음을 분명하게 믿는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예지를 지닌 사람은 누구나 이것이 참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방식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요한복음 7:17 참조] 저는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바입니다. ....

저는 물문경에 기록된 이 [세] 증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이 책의 번역이 정확하다고 선포한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명하셨다고 한 그들의 증언이 참됨을 압니다. 그러한 간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모로나이가 계시를 받아 선포한 것처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이 책을 읽을 때, 그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대 미대륙 주민에게 주어진 이 경전의 회복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sup>17</sup>

이 교회 회원이라면 물몬경을 읽고 또 읽고 숙고해 본 후 그 책이 진정 전능하신 이로부터 온 영감 어린 책이며, 그 역사가 참되다고 간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

이 교회 회원 중에 물몬경을 진지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고서 하나님 면전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sup>18</sup>

물몬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진리를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도록 지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도록 지혜와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은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 결코 배도자의 손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성신에 감동되는 대로 기록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승인 도장을 찍으셨으므로, 그들이 기록한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교리와 성약 17:6 참조]<sup>19</sup>



### 물몬경을 계속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이 책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물몬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은 누구나 이 책에 담긴 영감 어린 내용에 감명을 받습니다. …… 이 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읽으면 영감과 평화로운 기쁨과 만족감이 깃듭니다.<sup>20</sup>

[물몬경]을 읽을 때면 저는 물몬경의 성스러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옹호하기 위해 물몬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복음에 관해 더욱 감명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티끌에서 땅의 민족들에게 회개를 부르짖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 기록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sup>21</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스미스 회장은 그가 물몬경을 충분히 읽지 않았다고 말했다.("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참조) 이러한 고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이 장 1편에는 스미스 회장이 물문경의 목적에 관해 가르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목적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 올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 데이비드 휘트머가 교회를 떠나긴 했지만, 그 중 누구도 물문경에 관한 그들의 증언을 부인한 적은 없다.(2, 3편 참조) 그들이 했던 증언을 고려할 때 이 점은 왜 의미 있는가?
- 스미스 회장은 모든 사람이 물문경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4편 참조) 여러분은 이 책에 관한 간증을 어떻게 얻었는가? 물문경을 증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스미스 회장은 물문경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 이 기록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5편) 여러분은 이 말이 사실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물문경에 관한 자신의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관련 성구

니파이전서 6:3~5, 니파이후서 29:7~8, 야곱서 4:1~4, 이노스서 1:13, 교리와 성약 20:8~12

#### 교사를 위한 도움말

“단지 각 공과의 마지막에서만 아니라 영이 여러분에게 간증하라는 느낌을 줄 때마다 간증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간증을 나눌 기회를 주십시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45쪽)

#### 주

1. In Conference Report, Oct. 1961, 18.
2. In Conference Report, Oct. 1949, 89;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쿱키 편, 전3권.(1954~1956), 제3권, 201쪽 참조.
3. In Conference Report, Oct. 1956, 20; 또한 모로나이서 10:3~5 참조.
4. “Origin of the First Vision,” *Improvement Era*, Apr. 1920, 503;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181쪽 참조.
5.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953), 1:31–32.
6. “Predictions in the Bible Concerning the Book of Mormon,” *Improvement Era*, Sept. 1923, 958–59;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198~199쪽 참조.
7.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8.
8. “Testimonies of the Witnesses to the Book of Mormon,” *Improvement Era*, Sept. 1927, 950; 또한 구원의 교리, 개정판, 제1권, 192쪽 참조.
9. 구원의 교리, 개정판, 제1권, 192쪽; 원본에 있는 기울임체 제거.
10. In Conference Report, Oct. 1956, 19–20.
11. “Testimonies of the Witnesses to the Book of Mormon,” 952–53;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200쪽 참조.
12. 구원의 교리, 개정판, 제1권, 199쪽.
13. “Testimonies of the Witnesses to the Book of Mormon,” 952;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199쪽 참조.

14. In Conference Report, Oct. 1956, 20.
15. *구원의 교리*, 개정판, 제1권, 214~215쪽 참조.
16. "Testimonies of the Witnesses to the Book of Mormon," 953;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200쪽 참조.
17. In Conference Report, Oct. 1949, 89;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200~201쪽 참조.
18. In Conference Report, Oct. 1961, 18.
19. "History and History Recorders,"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Apr. 1925, 55;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180쪽 참조.
20. "Origin of the First Vision," 503.
21. In Conference Report, Apr. 1925, 73.



## 진리를 구하며

“주님은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숙지하여 결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 만일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가 여덟 살 때, 아버지는 그에게 물몬경을 주며 읽으라고 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이 니파이 백성의 기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으며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전념했습니다.” 평소 책 읽기를 즐긴 그는 자극을 받아 집안일을 서둘러 끝마쳤고 심지어는 야구 경기에서 일찍 빠져 나와 책을 읽을 조용한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다. 아버지에게 물몬경을 선물받은 지 2년도 채 안 되어 그는 그 책을 두 번이나 읽었다. 경전을 공부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머릿속에 각인되어 지금까지 기억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sup>1</sup> 그는 다른 책도 즐겨 읽었다. “저는 당시 초등학교 어린이와 주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판된 책들을 읽기도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면 늘 손에 책이 들려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 나중에 저는 *Millennial Star*에 기록된 *History of the Church*[교회 역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물몬경, 값진 진주, 교리와 성약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sup>2</sup>

스미스 회장은 평생 이 같은 복음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복음 진리를 배우면서 그는 그 내용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필요에 따라 옹호했다. 사도로 성임되고 3년 후, 그는 다음과 같은 조언이 담긴 신권 축복을 받았다. “그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대하게 진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옹호할 능력을 축복받았으며, 선지자 조셉의 사명이 신성하다는 증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 19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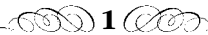
거를 멀하려 할 자들에게 그대가 축적한 간증이 방어벽으로 설 날이 오리라. 또한 이 같은 방어에서 그대는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며, 영의 빛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부드럽게 그대 마음을 비추어 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관한 많은 진리를 펼쳐 주리라.”<sup>3</sup> 그는 이 예언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했다. 복음 학자이자 교사이자 저자로서 그는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수호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했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스미스 회장이 모든 총관리 역원 중에서 “경전에 관해 가장 박식한 사람”이라 일컫기도 했다.<sup>4</sup>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스미스 회장은 복음을 공부하며 받은 축복을 자주 회고했다.

“저는 일평생 복음 원리를 연구하고 상고했으며 주님의 율법대로 생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제 마음속에는 그분과 그분의 사업, 그리고 이 지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커다란 사랑이 생겼습니다.”<sup>5</sup>

“평생을 두고 저는 경전을 연구했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주님의 영이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며, 저는 주님이 주신 지식과 그분의 구원 원리를 가르치는 특권을 기쁘게 여깁니다.”<sup>6</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진리를 구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지식은 복음 지식이다.**

우리는 교육을 믿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분야에서 학문을 구해 왔고, 교회로서 우리는 교회 회원들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상당한 희생을 해 왔습니다. 과학 탐구와 발전이 융성한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교육과 기술적 훈련을 최대한 받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현명하고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구하는 이러한 일이 영적인 이해를 구하는 일과 적절히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는 것보다 천 배는 더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구원을 가져오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sup>7</sup>

사람은 누구나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탐구심이 강하며 여러 분야에서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구하는 바가 영적인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아버지 왕국에서 영생하도록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복음 지식입니다. 인간이 주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관한 지식입니다.[빌립보서 2:12, 물몬서 9:27 참조]<sup>8</sup>

모든 진리의 가치나 비중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진리는 다른 진리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기본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또는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그 진리는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러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그분이 영생의 원리를 주셨음을 아는 것은 세상의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지식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sup>9</sup>

세상의 철학과 지혜에 관한 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어긋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교리가 종교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그 어떤 것의 이름을 빌려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계시된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라면, 결국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럴듯하고 호소력 있는 말로 싸여 있어서 항변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박 못할 증거를 갖춘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종들에게 주신 신성한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교리와 원리는, 아무리 많은 이가 믿는다 해도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그런 이론과 가르침에 어울리게 만들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나, 이러한 그릇된 교리와 이론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진리, 오직 진리만은 남을 것입니다.<sup>10</sup>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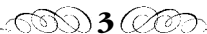
### 주님은 경전을 상고하라고 명하셨다.

주님은 이 시대의 교회 회원에게 기도와 신앙과 연구로 그분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교리와 성약과 물몬경과 모든 경전에 주신 계명을 공부하라고 명하시며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부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나리라. 그리고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그 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130:18~19] …… 구주께서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한복음 5:39] 그러나 생각만 그렇게 할 뿐 신앙과 연구로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 교회 회원이 얼마나 많습니까?<sup>11</sup>

저는 교회 회원들이 연구와 신앙으로 교회 표준 경전에 관한 지식을 쌓지 않으면 고요하고 편히 잠들 수 없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록은 귀중합니다. 세상은 이 기록을 조롱하나, 우리는 거기에 담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며 그분들과 더욱 친밀해지고 우리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더 잘 알게 됩니다.<sup>12</sup>

우리 시대를 내다본 고대 선지자들은 그들 시대의 백성뿐 아니라 이 예언이 가리키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말씀했습니다.<sup>13</sup>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주님의 계명을 모르고서는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의를 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전을 상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안에 든 내용은 참되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1:37 참조] ……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계시해 주신 내용을 숙지하십시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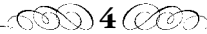
### **우리는 주님이 현재 그분의 종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중대한 책임이 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탐구하며, 물문경, 성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및 교회 지도자가 시시때때로 전해 주는 가르침에서 지식을 얻고, 주님 뜻대로 행하기를 갈망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그분과 맺은 성약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sup>15</sup>

신앙개조 제9조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은 참되므로, 우리는 주님이 계시해 주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해 주고 계시는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일과 무관해지며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sup>16</sup>

후기 성도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교회 총관리 역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예언과 영감의 음성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1편에서 주님은 그분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나 그분 종들의 음성을 통

해 말씀하신 것이나 같다고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8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감리하며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그분 면전에서 천사를 보내 주신 것처럼, 또는 그분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 친히 오신 것처럼 그들의 음성을 경청할 중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sup>17</sup>



#### **우리는 연구와 신앙과 순종으로, 그리고 성신의 인도를 통해 복음 진리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 [조셉 스미스—마태 1:37]라는 주님의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읽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간직하려면 읽고 연구할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겠다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그것을 구해야 하며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sup>18</sup>

우리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불평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숙한 임무인 독서와 연구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독서하고 명상하기 위해 하루에 15분도 할애할 수 없습니까? 15분은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주일로 따지면 1시간 45분이고, 30일을 한 달로 보면 7시간 반이며, 1년이면 91시간 15분입니다.  
.....

극히 소수만이 지나친 독서광일 뿐, 우리 대부분은 책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 109:7]<sup>19</sup>

하나님은 우리가 탐구와 분석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부하고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성과 연구만으로는 배움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sup>20</sup>

인간은 많은 훌륭한 것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배우며 방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지만, 진리의 영, 곧 성신으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결코 진리의 충만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sup>21</sup>

겸손한 태도를 겸비한 참된 신앙은 인간을 진리의 지식으로 이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지 못해야 하는 이유도 없고, 주님이 이 후기에 다시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사도행전 17:27]라고 선언했습니다. 온 땅을 뒤덮는 영적인 암흑과 신앙의 부재 속에서도 주님의 팔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진리를 구하는 이들의 진실한 간구를 들으실 것이며, 신성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찾을 방도를 모른 채 살아가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빛 가운데 행하겠다는 결심과 겸손한 신앙과 통회하는 심령 뿐이며, 이를 행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빛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sup>22</sup>

우리는 모두 진리를 알 수 있으므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그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자유롭게 되는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율법을 따를 때 우리를 가르치도록 보내셨습니다.[요한복음 8:32 참조]<sup>23</sup>



### 진리에 부합하게 생활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이해력을 더해 주신다.

주님은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숙지하여 결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 만일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sup>24</sup>

구원의 진리에 관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찾고 믿으며 그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sup>25</sup>

만일 우리가 주님의 계시에서 주어진 빛의 영, 곧 진리의 영을 따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성신의 인도를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이해력을 더해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갖고 진리를 이해하며, 거짓을 볼 때 이를 깨닫고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전을 상고하고 주님이 계시해 주신 바를 알며 그분의 진리에 부합하게 생활합시다.”

교회에서 미혹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익힌 사람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시에서 주어진 계명을 실천한 사람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잘 모르는 자, 영적인 어둠에 빠진 자, 복음 원리를 알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미혹됩니다. 그런 사람은 미혹될 것이며 이러한 거짓 영이 고개를 디밀 때 그는 빛과 어둠을 깨닫거나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계시의 빛 가운데 행하고, 가르침을 주도록 권능을 받은 교회 평의회 회원들이 전하는 권고에 귀 기울인다면, 결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sup>26</sup>

경전을 상고하고 주님이 계시해 주신 바를 알고 이해하며 그분의 진리에 부합하게 생활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악과 유혹에 대항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일깨움을 받을 것이며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sup>27</sup>

교회 가르침에 관해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나 원리가 있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생각에 일깨움을 받아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sup>28</sup>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진리의 영, 곧 보혜사에게 인도받으며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식과 빛과 진리 면에서 성장하여 마침내 완전한 빛과 진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생에서 그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현세에 있는 몇 년 동안 그 목표에 도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는 진리의 영으로 영감받은 영원한 지식은 무덤 저편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빛과 진리를 받아들여 마침내는 대낮에 이를 것입니다.<sup>29</sup>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탐구와 순종을 통해 복음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진리의 충만함이 그들 몫이 될 때까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시다. 심지어는 왕국의 감추어진 비밀까지도 그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마태복음 7:8, 제3니파이 14:8, 또한 이사야 28:10, 교리와 성약 76:1~10, 98:11~12 참조] 이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그분의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여 영광과 불멸과 영생으로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sup>30</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복음을 배우기 위해 스미스 회장이 기울인 노력을 읽으며(“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참조) 여러분이 기울인 노력을 떠올려 본다. 여러분은 경전과 여러 복음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1편에서 영적인 학문과 세상의 학문 사이의 균형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교육과 관련된 목표를 추구할 때 영적인 지식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도울 수 있을까?
- 경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해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2편 참조) 여러분의 경전 공부를 향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 3편을 읽은 다음, 교회 지도자의 권고를 따르며 받은 축복을 떠올려 본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을까?
- 주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몇 가지 제언을 얻으려면, 4편을 참조한다.) “체계적으로 독서하고 명상하기 위해 하루에 15분[을] 할애[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5편에 나오는 권고가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거짓 정보가 더욱 활개를 치고 접근이 쉬워질수록, 어떻게 하면 “빛과 어둠을 …… 구분[할]” 수 있을까? 어린이와 청소년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관련 성구

시편 119:105, 요한복음 7:17, 디모데전서 3:15~17, 니파이후서 4:15, 32:3, 히라맨서 3:29~30, 교리와 성약 19:23, 84:85, 88:77~80

### 교사를 위한 도움말

“동시에 많은 사람을 가르칠 때에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그들을 접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이 시작될 때 각 반원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면 그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 또한 여러분은 반원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줄 때 개인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35쪽)

### 주

1.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57 참조.
2.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v.
3.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5.
4. Heber J. Grant, in Richard O. Cowan, “Advice from a Prophet: Take Time Out,” *Brigham Young University Studies*, spring 1976, 416.
5.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 *성도의 빛*, 1972년 5월호, 3쪽.

6.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5.
7. Address at the Logan Utah Institute of Religion, Jan. 10, 1971, 1-2, Church History Library; unpublished manuscript.
8. “으뜸이 되는 지식”, *성도의 빛*, 1971년 9월호, 1쪽.
9. In Conference Report, Apr. 1955, 51.
10. In Conference Report, Oct. 1952, 60.
11.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1:xiv; italics in original.
12. In Conference Report, Oct. 1961, 18.
13. In Conference Report, Oct. 1927, 142.
14. In Conference Report, Oct. 1920, 58-59.
15. In Conference Report, Oct. 1918, 56-57.
16. “Search the Scriptures,” *Young Woman’s Journal*, Nov. 1917, 592.
17. In Conference Report, Oct. 1916, 73.
18. “The Resurrection,” *Improvement Era*, Dec. 1942, 780;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1권, 284쪽 참조.
19. “How and What to Read,” *Improvement Era*, Aug. 1913, 1004-5;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179~180쪽 참조.
20. “Pres. Smith Stresses Value of Education,” *Church News*, June 12, 1971, 3.
21.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Deseret News*, Mar. 30, 1940, Church section, 4;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279~280쪽 참조.
22.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1945), 195.
23. “Evidences of Eternal Life,” *Deseret News*, June 3, 1933, Church section, 5;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276쪽 참조.
24. In Conference Report, Oct. 1934, 65;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282쪽 참조.
25. “암흑으로부터”, *성도의 빛*, 1971년 10월호, 1쪽.
26. In Conference Report, Apr. 1931, 71;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267~268쪽 참조.
27. “The New and Everlasting Covenant,” *Deseret News*, May 6, 1939, Church section, 8;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281쪽 참조.
28. In Conference Report, Oct. 1959, 20.
29.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4; punctuation and capitalization standardized.
30. “Search the Scriptures,” 591-92;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283쪽 참조.



##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신권 열쇠를 존중하십시오

“저는 전혀 꾸미지 않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 왕국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권과 왕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만 존재합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선포했다. “저에게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관한 완전한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를 일으키셨고, 그에게 계시와 계명을 주셨으며, 그에게 하늘을 열어 보이셨고, 이 영광스러운 경륜의 시대의 선두에 서도록 부름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sup>1</sup> 스미스 회장은 선지자 조셉을 통해 회복된 신권 열쇠를 존중하는 마음을 이 “완전한 지식”에 보탬다. 그는 항상 이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지지했으며 모든 교회 회원에게 똑같은 존경심을 보이도록 권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교회 내의 부름에서 감리하도록 합당하게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그 부름에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sup>2</sup>

조셉 필딩 스미스가 사도로 봉사하고 있을 때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어떤 난해한 문제를 주제로 한 지속적인 토론에 관여하게 되었다. 스미스 회장은 이 사안에 관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했다. 어느 날, 당시 교회 회장이었던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이 스미스 장로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랜트 회장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고려해 본 결과, 스미스 회장의 견해와 상충하는 조치를 제언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회장은 곧바로 그랜트 회장의 결정에 지지를 표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 회장님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하라는 계시나 영감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할 때 그들은 신권 열쇠도 부여했다.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 그 조치에 관해 그분을 온전히 지지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sup>3</sup>

조셉 필딩 스미스는 교회 회장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신권 지도자 모두에게 한결같은 지지를 보냈다. 한 예로, 1962년 10월에 네이션 엘든 태너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는데, 1년 후에 그는 제일회장단 보좌로 부름받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스미스 회장을 감리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훗날 태너 회장은 스미스 회장이 보여 준 지지에 고마움을 표했다. “제가 제일회장단에 부름받았을 때 스미스 회장님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임 사도였고 50년 넘게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셨지만 그 자리에 있게 된 저를 몹시 존중해 주셨고 제게 전적인 지지와 신임을 보여 주셨습니다.”<sup>4</sup>

또한 스미스 회장은 그의 와드에 있는 신권 지도자들을 존중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 제 자녀에게 침례를 주려면 우선 제가 속한 와드의 감독에게 가서 그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속한 와드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 이 의식을 행하고 자녀를 교회 회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침례를 준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sup>5</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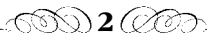
**신권 열쇠는 지상에서 주님의 일을 인도하는 권능이자 권세이다.**

신권 직분을 받는 것과 신권 열쇠를 받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

직분에 성임된 사람은 모두 신권을 갖고 있지만 감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지시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권세는 열쇠라 불립니다.<sup>6</sup>

[신권] 열쇠는 감리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주님의 일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권능이며 권세입니다. 이것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신권 봉사를 수행하는 다른 모든 사람의 방법을 관리하고 조절할 권능이 있습니다.<sup>7</sup>

이 열쇠를 소유한 사람에게 임무를 받을 경우 그들이 하는 일은 유효해 집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땅과 하늘을 막론하고 교회에서 인봉되고 승인됩니다.<sup>8</sup>



## 주님은 그분 면전에서 거룩한 사자를 보내어 신권 열쇠를 회복하셨다.

순수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이탈하여 암흑과 불신으로 뒤덮였던 긴 밤이 지나고,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또 다시 이 땅에 충만하고도 영원한 복음을 회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임을 알며 1820년 봄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 마지막 복음 경륜의 시대를 여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물몬경을 번역했고 하늘에서 이 임무를 띠고 보내신 천사에게서 열쇠와 권세를 받았음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이 구원의 교리를 그에게 계시해 주셨음을 압니다.<sup>9</sup>

주님은 어떤 의식이나 예식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지 않거나 그분에게서 승인받은 종이 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조셉 스미스와 그 외 사람들에게 그분의 면전에서 성스러운 사자를 보내어 지상에서 거두어진 충만한 복음과 충만한 신권과 그 열쇠를 회복하신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sup>10</sup>

신권 열쇠는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의 열쇠를 가져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뿔기세텍 신권의 열쇠를 가져와서 교회가 조직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아담의 시대로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륜의 시대의 수장이었던 모든 선지자가 소유한 열쇠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차례로 와서 자기가 소유한 권세를 조셉 스미스에게 부여했습니다.<sup>11</sup>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고 만유를 완전히 회복하는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경륜의 시대의 열쇠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가족의 조상이요 지상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자신의 권능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모세와 그 외 사람들도 왔습니다. 열쇠를 소유한 선지자가 모두

와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 이런 권세 중 일부가 언제 나타났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 128편에 기록되어 있듯이[17~21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나무에서 성도들에게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해 쓰면서 이러한 선지자들이 모두 우리가 사는 이 경륜의 시대에 그들의 열쇠를 가져왔다고 선언했습니다.<sup>12</sup>

교회를 조직하신 후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집을 짓는 일에 곧바로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95:1~4 참조] 주님께 꾸지람을 들은 그들은 힘을 다해 일하기 시작했고 가난 속에서 커틀랜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실 수 있는 성소이자 그분이 권세의 열쇠를 지닌 그분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실 수 있는 성소로 지어졌습니다. …… 우리는 중요한 열쇠를 소유한, 위대한 고대 선지자 세 명이 1836년 4월 3일에 찾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먼저 모세가 찾아왔습니다.[교리와 성약 110:11 참조] 그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시킬 열쇠를 주었습니다. ……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았으며, 비록 그들에게 땅을 안겨 줄 특권을 받지는 못했지만 집합을 위한 열쇠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는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 그들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모을 똑같은 열쇠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집합을 위한 열쇠를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부여하도록 보내진 것입니다. ……

모세가 그의 열쇠를 부여한 다음, 일라이어스가 와서 아브라함이 살던 경륜의 시대의 복음을 가져다주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10:12 참조] 그 경륜의 시대와 관계되는 모든 것, 즉 아브라함에게 부여되었던 축복,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 등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했으며, 그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던 일라이어스가 왔습니다.

그런 다음 고대 이스라엘에서 인봉 권능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던 마지막 선지자인 엘리야가 와서 이 인봉의 권능을 부여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10:13~16 참조] 교회 회원 중에는 엘리야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또는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한 열쇠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



커틀랜드 성전에서 엘리야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인봉의 열쇠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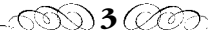
리야의 열쇠는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엘리야의 열쇠는 인봉의 열쇠였으며, 이 인봉의 열쇠는 산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기꺼이 회개하는, 죽은 자에게도 중요했습니다.<sup>13</sup>

선지자 엘리야는 그들[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인봉의 권능, 즉 신권으로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인봉하는 권능을 부여했습니다.<sup>14</sup>

이 인봉의 권능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성전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에 승인 도장을 찍어 줍니다.<sup>15</sup>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대는 영광스러운 경륜의 시대입니다. 모든 다른 경륜의 시대가 이 시대로 흘러들어옵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이 우리가 사는 이 경륜의 시대로 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충실함에 따라 이러한 축복을 누릴 특권을 받았습니다.<sup>16</sup>

저는 전혀 꾸미지 않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 왕국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권과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만 존재합니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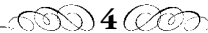


### **교회 회장은 모든 교회를 관할하는 열쇠를 소유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순교하기 직전에 교회의 두 번째 정원회를 구성하는 십이사도에게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크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소유해야 하는 모든 열쇠와 의식과 신권을 부여했습니다.<sup>18</sup>

이 신권과 열쇠는 십이사도 평의회 일원으로 성별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임 사도인 교회 회장만이 이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sup>19</sup>

교회 회장은 모든 교회를 관할하는 열쇠를 소유합니다. 그에게 신권 권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모든 것의 열쇠를 지닙니다. 계시된 과거 경륜의 시대의 모든 열쇠가 그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sup>20</sup>



### **우리는 교회 회장이 권세의 열쇠를 위임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교회 회장에게는] 그가 합당하게 여기고 영감을 받은 사람에게 권세를 위임하거나 거두어갈 권리가 있습니다.<sup>21</sup>

지상에는 신권의 인봉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한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는 것과, 그는 지상에서 인봉할 그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위임한 사람이 승인하는 한 그 권능은 유효하고 구속

력이 있으나, 그가 그 권능을 거두어 가면 아무도 그것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sup>22</sup>

교회 회장에게서 성전 축복을 집행하고 부여할 권세를 위임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떤 부름을 수행할 때 그 부름에 수반되는 권능 없이는 아무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으며, 그 권능은 교회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권세와 열쇠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 교회 회장이 소유한 열쇠의 권세에 따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특정 특권이 거두어져야 한다고 말할 경우, 그 특권을 부여하는 일을 수행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시도한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며 이를 집행하려 한 사람은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문책받을 것이고 범법한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

사도나 그 외 총관리 역원이 시온의 스테이크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의 질서를 세우도록 지명받으면, 그들은 교회 회장이 그들에게 위임한 임무 또는 권세에 따라 그 일을 행합니다. 같은 원리가 스테이크나 와드 내의 하위 조직에도 적용됩니다.<sup>23</sup>

우리는 교회 내의 부름에서 감리하도록 합당하게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그 부름에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 직분에 성임되면, 그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와드를 관할하는 회장단의 열쇠를 받으며, 모든 와드 회원은 그들이 받은 직분에 관계없이 감독을 그 부름에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스테이크 회장과 정원회 회장 및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아버지도 우선 감독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자녀에게 침례를 줄 권리가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감독에게 허락을 받으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 의식을 수행할 권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가 권세의 열쇠를 소유한 와드나 스테이크의 감리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지 않고 침례를 베풀거나 그 아들을 성임하면 그는 상황에 관계없이 범법하게 됩니다. 이것은 와드 내의 장로뿐 아니라 사도에게도 적용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회장도 그의 와드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과 그들에게 위임된 권세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어떤 일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sup>24</sup>

## 5

### 왕국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이 다 같이 내는 목소리는 언제나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주 명확히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회장이나 제일회장단, 또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가 다 같이 성도들을 옆길로 인도하거나 주님의 생각과 뜻에 어긋나는 권고를 세상에 내놓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은 결길로 빠질 수도 있고 주님의 의도와 어긋나는 견해를 갖거나 그러한 권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회장단이나 그 외 왕국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이 다 같이 내는 목소리는 언제나 성도와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

저는 우리가 제일회장단을 의지하고 그들이 주는 권고와 지침을 따르면,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나 개인으로서 나아가는 진로를 멈추거나 변경시킬 힘은 없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으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교리와 성약 59:23 참조]<sup>25</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신권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을 지지할 때 우리는 스미스 회장이 보여 준 모범을 어떤 식으로 따를 수 있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생애에서” 참조)
- 1편은 신권 직분을 갖는 것과 신권 열쇠를 소유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같은 차이점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신권 열쇠가 지상에 회복되면서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축복받았는가?(2편 참조)
- 여러분은 3편과 4편에 설명된 조직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강화된다고 생각하는가? 교회 회원 개개인은 어떻게 강화되는가?

- 스미스 회장이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사이에 구현되는 단합에 관해 전한 말씀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들이 “다 같이 내는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이 인도받은 적은 언제인가?(5편 참조)

### 관련 성구

마태복음 16:13~19, 사도행전 3:21, 교리와 성약 21:4~6, 27:5~13, 65:2, 128:8~21, 132:7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잘 모르겠다고 단순하게 말한다. 여러분은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여러분은 반원들에게 그 해답을 찾도록 권유할 수 있는데, 다음 수업에서 시간을 주어 그들이 공부한 것에 대해 보고하게 할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64쪽)

### 주

1. In Conference Report, Apr. 1951, 58.
2.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2:40.
3. In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1992), 342.
4. N. Eldon Tanner, “A Man without Guile,” *Ensign*, Aug. 1972, 33.
5. “Principles of the Gospel: The New and Everlasting Covenant,” *Deseret News*, May 6, 1939, Church section, 5;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3권, 118쪽 참조.
6. In Conference Report, Apr. 1967, 98.
7.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열쇠와 권리”, *성도의 빛*, 1973년 3월호, 18쪽.
8. In Conference Report, Apr. 1967, 99.
9. “암흑으로부터”, *성도의 빛*, 1971년 10월호, 3쪽.
10. “엘리야의 오심”, *성도의 빛*, 1972년 6월호, 3쪽.
11. “The Keys of the Priesthood Restored,”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uly 1936, 98-99.
12. “The Keys of the Priesthood Restored,” 101.
13. “The Keys of the Priesthood Restored,” 99-100.
14.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58.
15. In Conference Report, Apr. 1948, 135;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112쪽 참조.
16. “The Keys of the Priesthood Restored,” 101.
17.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열쇠와 권리”, 18쪽.
18. *구원의 교리*, 제3권, 132쪽.
19.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열쇠와 권리”, 18쪽.
20. “Priesthood—Restoration of Keys,” *Deseret News*, Sept. 16, 1933; Church section, 4;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116~117쪽 참조.
21. “The Keys of the Priesthood Restored,” 101;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117쪽 참조.
22. *Elijah the Prophet and His Mission and Salvation Universal* (1957), 50;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118쪽 참조.
23. In Conference Report, Apr. 1967, 98-99.
24. *Answers to Gospel Questions*, 2:40-41.
25.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열쇠와 권리”, 18쪽.



## 신권의 맹세와 성약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분의 성 신권을  
지니고 그분을 대표하[는] …… 이들의 보살핌을  
통해 성도들과 온 세상에 전해집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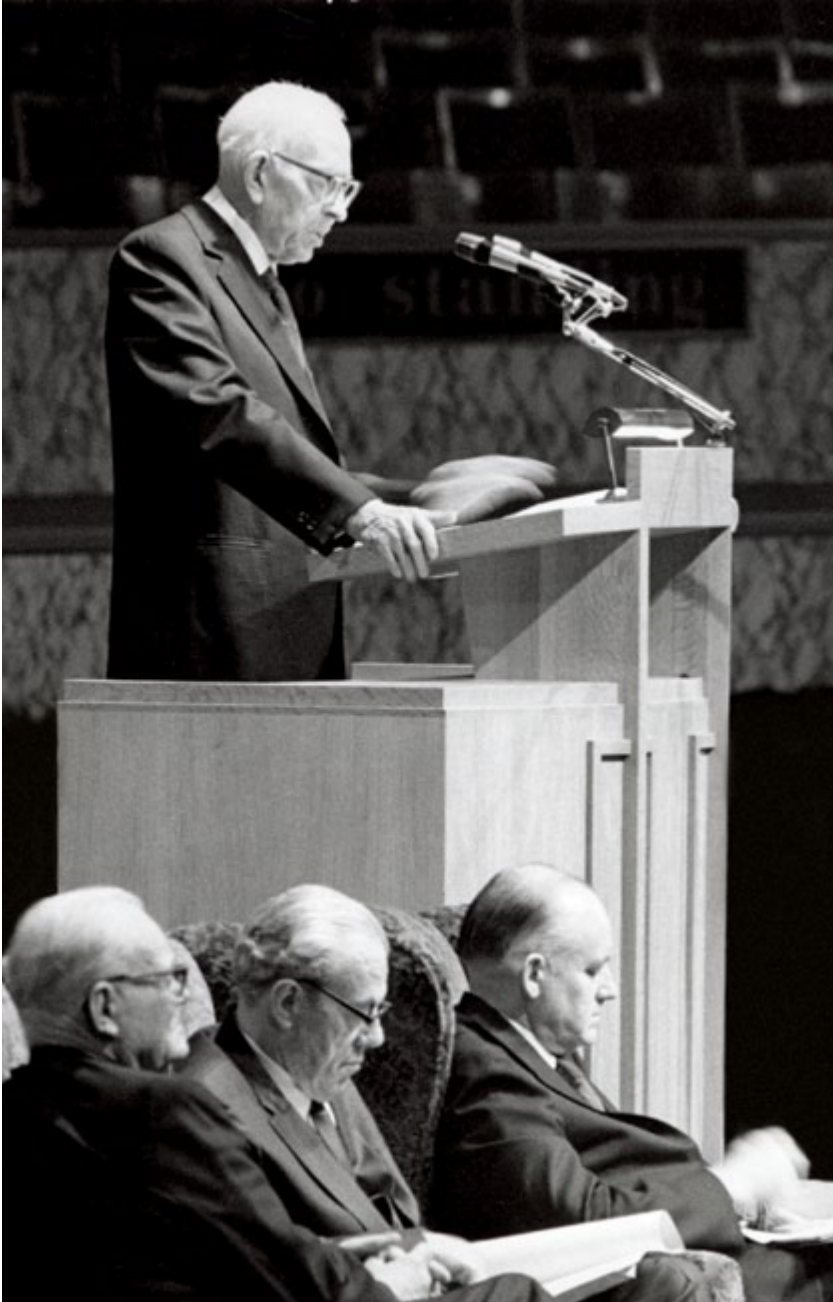
사도로 봉사한 지 41년이 되던 1951년 4월 9일에 조셉 필딩 스미스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다. 부름에 대한 지지를 받고 얼마 후 스미스 회장은 회중들에게 말씀했다. 그는 자신의 부름에 관한 소감을 짧게 나누었다.

“저는 제가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이 자리가 몹시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부름으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제가 교회 회원인 것과 제게 주어진 봉사 기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힘닿는 데까지 제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sup>1</sup>

스미스 회장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자주 권고했다. 그는 신권 안에서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대중들에게 들려주었지만<sup>2</sup>, 이를 이루기 위해 그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거의 나눈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한 그의 친구 조지 에프 리차즈와 함께한 신권 봉사를 들려준 일이 있었다.

“40년 동안 저는 조지 에프 리차즈 회장님과 함께 평의회를 진행하고, 대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했습니다. ……



1971년 8월 영국 지역 대회에서 말하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좌석에 앉은 사람: 매리온 지 룰니 장로, 리차드 엘 에번스 장로, 하워드 더블유 헌터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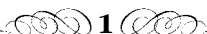
우리는 수많은 시온의 스테이크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초기에 우리 총 관리 직원들은 시온의 스테이크를 방문할 때 둘씩 짝이 되어 다녔습니다. 기차가 다니지 않는 여러 지역을 갈 때면 우리는 보통 ‘흰 지붕’으로 알려진 스프링이 달린 농사용 4륜 짐마차로 여행했습니다. 장거리 여행은 보통 두 스테이크를 방문하는 것을 뜻했지만 서니 스테이크를 방문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그런 여행을 할 때면, 스테이크 대회 사이에도 우리는 다양한 장소나 와드에서 매일같이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지가 폴폴 날리는 여름이나 매섭게 추운 겨울에 진창길이나 폭설을 헤치며 비포장도로와 좁다란 오솔길을 여행했습니다.”<sup>3</sup>

제일회장단 비서로 봉사한 프랜시스 엠 기븐스 장로는 스미스 회장이 신권 안에서 그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 방법을 들려주었다. “[회장님은] 그 분이 지닌 권세를 온전히 자각하고 계셨지만 늘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 권세를 행사하셨다. 거만이나 가식이나 자만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분은 결코 자신을 추켜세우거나 그분의 직분에 주어진 권세를 본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sup>4</sup>

교회 회장으로서는 조셉 필딩 스미스는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다섯 차례 말씀했으며 형제들에게 신권 안에서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독려했다. 이 장에 실린 가르침은 그중 네 차례의 설교에서 발췌한 것이며, 스미스 회장이 1970년 10월 3일에 전한 말씀에 특히 비중을 두고 있다. 신권 모임에서 전한 설교들이기 때문에 이 장에 나오는 말씀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신권 권능이 모든 교회 회원에게 크나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한 연설에서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신권 축복이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축복은 우리의 아내와 딸,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충실한 여성에게도 주어집니다. 이 훌륭한 자매들은 계명을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집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아들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와 축복을 딸들에게도 주십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11:11 참조]”<sup>5</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남자들은 그들이 신권 직분을 받을 때 맺는 성약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저는 여러분이 멜기세덱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권 직분을 받을 때 맺는 성약과, 우리가 부름을 영화롭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는 데 더 큰 동기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 대신권과 연계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마련되고 고안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32년 9월에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신권에 관해 계시하시면서 멜기세덱 신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모든 세대에 걸쳐 참된 교회에서만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신권으로 주님의 백성이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영광의 충만함[인]”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4:17~24 참조)

그런 다음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에 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짐이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무릇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리고 이것은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에 따르는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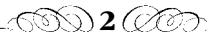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내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그가 깨뜨리실 수 없고 또 이는 옮겨질 수도 없는 것이니라.”

이 성약을 깨뜨리는 자와 이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이 계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그리고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심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84:33~44)<sup>6</sup>

아론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은 아직 대신권에 속한 이러한 맹세와 성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아론 신권은 우리가 앞으로 올 이 같은 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예비 신권입니다.

집사로서, 교사로서, 제사로서 충실하게 봉사할 때, 여러분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과 자격을 얻게 됩니다.<sup>7</sup>



## **신권 소유자는 신권 안에서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고 약속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약이란 최소 두 당사자가 맺는 계약이자 협약입니다. 복음 성약의 당사자는 하늘에 계신 주님과 땅에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주님은 그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며, 주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계약과 약속과 보상을 아우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때 우리는 성약으로 신권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권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고 엄숙히 약속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약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 즉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약속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가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시는 장로, 칠십인, 대제사, 축복사, 사도로서 신권 안에서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해 다룹니다.

인간이 소유한 신권은 지상에 있는 인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도록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이자 권세입니다. 신권 직분 또는 부름은 신권 내에서 특별하게 지명된 봉사를 수행하는 보살피는 임무입니다. 이 부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그와 관련된 특정 직분을 소유한 사람들이 각자 수행하도록 정해진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에 참되고 충실하다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지니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한 신권 소유자가 다른 신권 소유자의 업무를 감리하고 지휘하도록 부름받을 수는 있지만, 어떤 직분이 다른 직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 아버지인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권에서 나온 직분 중에 신권 자체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위대할 수 있는 직분은 없습니다. 신권 직분이 그 권세와 권능을 받는 것은 신권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직분도 신권에 권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도 신권 권능을 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은 신권을 통해서 그 권능과 효능과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는 신권 안에서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받는 직분에 수반된 일을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신권에 관한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지켜 자기의 부름에 따라 일하며, …… 전체 조직이 온전히 보전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84:109~110)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신권 프로그램 안에서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다란 목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장로는 장로의 일을, 칠십인은 칠십인의 일을, 대제사는 대제사의 일을 하게 하여 모든 신권 소유자가 그들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과정에서 약속된 축복을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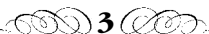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 의식을 행하며, 인류를



“신권은 지상에 있는 인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도록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이자 권세입니다.”

축복하고, 병자를 고치고, 혹 기적을 행하며, 주님이 친히 계셨다면 하셨을 일을 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성 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세속적인 욕망에 관계 없이, 그분의 계명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교리도, 침례나 성임이나 영원한 결혼을 행할 권능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오며, 그와 관련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위임된 권세에서 비롯됩니다.<sup>9</sup>



###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참된 모든 맹기세택 신권 소유자는 승영을 약속받는다.

이제 맹기세택 신권을 받는 데 따르는 맹세에 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맹세는 인간이 혀로 할 수 있는 가장 엄숙하고 영구적인 형태의 말입니다. 또한 맹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즉 그리스도와 신권에 관한 위대한 예언에 사용하기로 택하신 언어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맹기세택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시편 110:4)

바울은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그 제사장 직분 [이] 갈리지 아니하[시며]” 그 직분[신권]을 통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히브리서 7:24, 16 참조) 조셉 스미스는 “이 신권에 성임된 자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충실하고 참될 때를 전제로 합니다.[조셉 스미스 역, 히브리서 7:3 참조]

따라서 그리스도는 침례 및 그 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권의 문제에 관한 한 위대한 모범이 되십니다. 그런 연유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이 신권을 통해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라고 맹세하시는 것처럼, 그와 동일한 신권 안에서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되리라고 맹세하십니다.

이것은 맹기세택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영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 따르는 약속, 즉 신권 안에서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조건이 따르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 신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특권과 책임을 받아들일 때 주어진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약속은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아론 신권은 이 대신권에 따르는 성약을 맺고 맹세를 받아들일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예비 신권입니다.<sup>10</sup>

## 4

###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분의 성 신권을 지닌 이들의 보살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 곧 계명을 지키고, 신권 안에서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집에 가며, 아버지 왕국의 충만한 축복을 받는 것 등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보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sup>11</sup>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분의 성 신권을 지니고, 그분을 대표하며, 사실상 주님의 종이요, 대리인이요, 즐겨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자 하는 이들의 보살핌을 통해 성도들과 온 세상에 전해집니다.<sup>12</sup>

주님을 대표하고 그분의 권세를 소유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

저는 평생 신권 안에서 제 부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생에서 끝까지 견뎌 내세에서 충실한 성도들과 함께 우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sup>13</sup>

저는 노소를 불문하고 신권 안에서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형제들을 축복해 주고 싶으며, 주님이 이생에서 그분의 영 가운데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고 내세에서 영원한 부를 누리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충만한 신권을 허가해 주셨으며, 우리가 이 신권을 받고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주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유산을 상속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sup>14</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스미스 회장은 신권을 통해 “주님은 그분의 아들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와 축복을 딸들에게도 주십니다.”(“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라고 가르쳤다. 이 말씀에 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 스미스 회장은 신권 소유자가 그들이 맺은 성약과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이해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데 더 큰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말했다.(1편 참조) 이 말씀은 어떻게 모든 교회 회원에게 적용되는가?
- 여러분은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 교회 회원들의 봉사를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스미스 회장은 “그리스도는 …… 신권의 문제에 관한 한 위대한 모범이 되십니다.”(3편)라고 가르쳤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4편에서 스미스 회장이 성전에서 주어지는 축복에 관해 전한 말씀을 복습한다. 부모는 자녀가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신권 축복을 받도록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는가?

### 관련 성구

히브리서 5:4, 앨마서 13:1~2, 6, 교리와 성약 20:38~60, 84:19~22, 107:99~100, 신앙개조 제5조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숙련된 교사는 ‘오늘 나는 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학생들은 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자문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찾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평범한 교실-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훌륭한 장소”, 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12쪽; 또한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61쪽 참조)

### 주

1. In Conference Report, Apr. 1951, 152.
2. Conference Report, Apr. 1951, 152; Conference Report, Oct. 1970, 92 참조.
3. “President George F. Richards: A Tribute,” *Relief Society Magazine*, Oct. 1950, 661.
4.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1992), 352.
5.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59.
6.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90-91.
7.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59.
8.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91-92; 또한 Joseph F. Smith, in Conference Report, Oct. 1903, 87 참조.
9.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의 책임”, 성도의 빛, 1971년 12월호, 1쪽.
10.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92.
11.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59.
12. “신권의 축복”, 성도의 빛, 1972년 9월호, 1~2쪽.
13.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92.
14.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58.



## 침례

“침례는 …… 문자 그대로 한 생활에서 다른 생활로, 즉 죄짓는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변화하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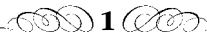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1951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67년 전, 그가 여덟 살 때 침례 받았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는 침례 받는 날 자신이 “주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게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평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다른 누이들처럼, 제겐 무척 다정다감한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이는 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 마음에 새겨 주었습니다. 저는 침례 받는 날 누이가 준 이 가르침을 평생토록 간직했습니다.”<sup>1</sup>

누이가 준 가르침에 충신했던 스미스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영적인 삶”을 지속하겠다는 그들의 침례 성약을 지키도록 격려했다.<sup>2</sup> 그는 이렇게 공표했다.

“교회 회원에게 침례 받은 후에 계명을 지키라는 권고보다 더 중요한 권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율법에 충실할 때 구원을 베푸십니다.”<sup>3</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침수로써의 침례는 탄생과 사망과 부활의 상징이다.**

복음의 셋째 되는 원리이자 첫째 되는 의식인 침례는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고 승영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첫째, 침례는 회개하는 사람이 죄 사



이 그림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근처에 있는 드네프르 강에서 침례 받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

함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입니다. 둘째, 침례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1절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며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

침례는 침수로써 이루어집니다. .... 침례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행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외 부활한 모든 사람의 사망과 매장과 부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2) 침례는 또한 탄생이며,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3) 침례는 부활의 상징일 뿐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한 생활에서 다른 생활로, 즉 죄짓는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변화하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침례는 또한 탄생이기에,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 모세서 6장 58~6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계명을 주노니, 네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이 일을 가르치라. 이르되,

범법의 이유로 인하여 타락이 오고, 타락은 사망을 가져오나니, 물과 피와 내가 만든 영으로써 너희가 세상에 태어나, 그리하여 흠에서 생령이 된 만큼, 참으로 그와 같이 너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하늘의 왕국에 다시 태어나 피 곧 나의 독생자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니,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죄에서 성결하게 되어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 곧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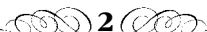
이는 물로써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성령으로써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고 피로써 너희가 성결하게 됨이니라.” ....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물로 둘러싸여 물속에서 피와 영으로써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태어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침례를 통해 물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합니다. 침례는 성신의 침례 없이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하나님 왕국에 태어나는 것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침례는 부활의 상징일 뿐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한 생활에서 다른 생활로, 즉 죄짓는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변화하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모든 인간은 회개해야 합니다. …… 그들은 영적인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침수로써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망하고 물속에 잠기고 영의 부활로 나아가 다시 영적인 삶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sup>4</sup>



##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구속받기 때문에 침례 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않아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부인하고 그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조롱 행위입니다.[모로나이서 8:20~23 참조]<sup>5</sup>

교리와 성약 29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46~47절)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내 앞에서 책임질 수 있게 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어린아이를 유혹할 능력이 사탄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참으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 지상에서 따라야 할 구속의 계획, 즉 구원의 계획이 모두 준비되었으며, 시작부터 끝을 아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어린아이들을 구속할 길을 마련하셨다는 뜻입니다. ……

여러분을 바라보며 웃는 어린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이 아기가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날 그 어떤 죄로 더럽혀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제가 영국에 있는 선교 임지에서 겪은 일이 생각납니다. 그곳에는 한 미국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 장로들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들은 [그 남편]은 그들이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아니라 같은 미국에서 온 장로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연하게도 제가 그곳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 설교와 가르침을 다른 장로들을 통해 이미 들어 보았지만, 나중에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

우리는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야구와 미식축구, 그리고 미국에 있는 것과 영국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며 그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고 처음에는 종교에 관해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더 방문했을 때, 그는 우리가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서인지, 우리를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부터 그와 부인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부인이 제 쪽으로 몸을 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장로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녀는 질문을 하기도 전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흐느끼던 그녀는 말문을 열 수 있을 만큼 진정한 다음, 제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영국으로 건너와서 아기 하나를 잃었습니다. …… 그들은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를 찾아가 아기를 교회 식으로 장사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목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기는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식으로 장사 지내 줄 수 없소. 당신은 아기를 잃었소.” 몹시 직설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은 그녀가 들려준 그대로이며, 이 여성은 이삼 년여 동안 애달프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기를 잃은 것인가요? 이젠 결코 아기를 볼 수 없나요?” 저는 물문경을 펴고 물문이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한 말을 읽어 주었습니다.[모로나이서 8장 참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아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아기도 잃은 바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아기는 죽으면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습니다.” ……

“그리고 또한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아이가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음을 보았느니라.”[교리와 성약

137:10] 이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커틀랜드 성전에서 받은 계시, 곧 시현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으로 공평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지당하지 않습니까? …… [아기는] 원죄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원죄로부터 아기를 요구하며 아기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해할 능력이 있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지식을 가진 자이면 회개하기를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느냐?”[교리와 성약 29:49]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 받으며 침례의 물속에서 죄를 씻도록 명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할 능력이 있으며,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아담이 한 그 어떤 일 때문에 침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저는 제가 한 일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침례 받았습니다. ……

주님은 율법 없이 죽는 사람들을 위한 방편을 마련하셨으며, 어린아이들에게는 회개의 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판단력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를 8세로 정하셨습니다. 8세가 된 후에는 침례를 받을 만큼 충분한 이해력이 생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주님이 보호하십니다.<sup>6</sup>

### 3

#### **이 교회에서 침례 받은 사람은 모두 주님과 성약을 맺었다.**

사람들은 모두 침례의 물에 들어가면서 성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침례 방식에 관하여 교회에 주시는 계명으로서 -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침례 받기를 원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가졌음을 교회 앞에 증거하며, 그들의 죄 사함을 얻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음을 진실로 그들의 행위로써 나타내는 모든 사람은 침례로써 그의 교회에 받아들여져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20:37)<sup>7</sup>

교리와 성약 59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침례 받은 사람은 모두 주님과 함께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교회 회원들을 의미하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어 이같이 이르노니,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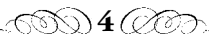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지니라.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교리와 성약 59:5~7]

이 교회에서 침례 받은 사람은 모두 주님과 함께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경륜의 시대에 되풀이된 이 계명에서 우리는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는 명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침례 받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으로 위대한 계명인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겠다는 계명을 지키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온 마음과 능력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교리와 성약 84:44] 것을 증거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며, 그분의 사업에 부지런하고, 우리를 감리하는 사람들의 권고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는 자세로 행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회원인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sup>8</sup>



#### **복음의 축복을 충만히 받으려면 침례 받은 후에도 계속 겸손하고 회개하며 순종해야 한다.**

참된 교회의 위대한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충만히 받으려면 침례 받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sup>9</sup>

진실하게 침례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고,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교회에 들어간 후에 죄를 짓는 것은 그의 특권입니까? 이제 긴장을 늦추어도 됩니까? 주님이 그에게 피하라고 하신 몇 가지 일을 탐닉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침례 받은 후에도 침례 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sup>10</sup>

저는 노소를 불문한 일부 사람들이 침례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침례는 죄 사함을 위한 것인데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침례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도 살아 있는 동안 영적인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는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침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sup>11</sup>

후기 성도 가운데 별의 왕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후기 성도 가운데 달의 왕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왕국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 왕국들은 이 교회에서 침례 받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며,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침례는 하나님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편입니다. 침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별의 왕국이나 달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계속 전진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해의 왕국에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가 있는 이유입니다.<sup>12</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에 나오는 스미스 회장의 추억을 읽으며 여러분이 침례 받던 때를 떠올려 본다. 여러분이 침례 받은 이후로 침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어떻게 더 커졌는가? 침례 받기 위해 준비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1편에 나오는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에서 침례에 관해 어떤 점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그가 침례에 담긴 상징에 관해 전한 가르침은 침례 성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2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이야기에서 스미스 회장이 가르친 교리를 알면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떠올려 본다.

- 침례 성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기울이는 노력을 생각해 본다.(3편 참조) 이 성약은 여러분이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4편 첫 부분에 나오는 스미스 회장의 말을 생각해 본다. 침례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서로가 침례 성약을 지키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관련 성구

마태복음 3:13~17, 니파이후서 31:5~13, 모사이야서 18:8~13, 제3니파이 11:31~39, 교리와 성약 68:25~27, 신앙개조 제4조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진지한 모든 의견에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는 경우, 반원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의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려 깊은 대답이었습니다.’ …… 또는 ‘좋은 예입니다.’ 또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64쪽)

### 주

1. In Conference Report, Apr. 1951, 57–58.
2. “Repentance and Baptism,” *Deseret News*, Mar. 30, 1935, Church section, 8;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쿱키 편, 전3권.(1954~1956), 제2권, 290쪽 참조.
3.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7.
4. “Repentance and Baptism,” 6, 8;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287~290쪽 참조.
5. “Testimony of Elder Joseph F. Smith Jr.,” *Liahona: The Elder’s Journal*, Mar. 30, 1915, 629.
6. “Redemption of Little Children,” *Deseret News*, Apr. 29, 1939, Church section, 7.
7. “Seek Ye Earnestly the Best Gifts,” *Ensign*, June 1972, 2.
8. In Conference Report, Apr. 1940, 95;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292쪽 참조.
9. “The Plan of Salvation,” *Ensign*, Nov. 1971, 5.
10. In Conference Report, Oct. 1950, 12;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292쪽 참조.
11. “Repentance and Baptism,” 8;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290쪽 참조.
12. In Conference Report, Apr. 1922, 60–61.



## 성신의 은사

“우리는 침례와 확인을 받은 후에,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고 생각을 키워 주며 진리를 깨닫게 해 주는 성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충실한 교회 회원은 모두 “개인적으로 인도받는 데 유용하고 필요한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가르쳤다. 그는 언제나 이 같은 개인적인 인도를 구했으며 아들딸들을 가르치고 보호할 때 특히 간절히 간구했다. 제일회장단 비서로 봉사한 프랜시스 엠 기븐스 장로는 스미스 회장의 아들 레이놀즈가 들려준 다음 경험을 전했다.(레이놀즈의 별칭은 ‘레인’이었다.)

“레인은 평생 딱 한 번 담배를 물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루스벨트 중학교에 다닐 때 일이었다. [학교] 입구는 통행량이 거의 없는 한적한 도로 한 편에 있었다. 이날 레인은 평소 흡연하는 친구와 함께 학교 정문을 나서고 있었다. 이 친구는 전에도 자주 그랬듯 레인에게 ‘한 개비만 피워 봐.’ 하고 재촉했다. 이번에는 친구의 시도가 먹혀 들었다. 레인은 담배 한 개비를 받아들고서 불을 붙였다. 그가 연기 몇 모금을 빨아들인 순간 그쪽 모퉁이로 차를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레인의 아버지였다. 창문을 내린 스미스 장로님은 까무러치게 놀란 아들에게 ‘레이놀즈, 저녁 먹고 얘기 좀 하자꾸나.’ 하고 말한 후 차를 몰고 떠나셨다. 레인은 이렇게 회상했다. ‘아버지가 저를 “레이놀즈” 하고 부르셨을 때 저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미스 장로님은 레인이 오후 내내, 그리고 저녁 먹는 내내 죄책감에 마음 졸이게 하셨다. 장로님은 의외로 말이 없으셨다. 식사 후, 아버지의 서재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앉아 있던 레이놀즈에게 심판의 시간이 찾아왔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사도행전 19:6)

그가 받은 건, ‘그런 추잡한 습관’에 갇든 악에 관한 상냥하고 애정 어린 가르침과, 그가 누구이며 그가 한 행동이 온 가족의 명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일깨움뿐이었다. 스미스 장로님은 레인에게 다시는 담배를 물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며 말씀을 마치셨고 레인은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훗날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백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흡연이 만연한 미국 해군에서 복무하던 시기를 비롯해 그는 남은 평생 동안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켰다.”

이 일을 떠올리며 기브스 장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했다. “어린 아들이 난생처음으로 자신의 담배에 불을 붙인 그 결정적인 순간에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님이 그 외딴 도로에 나타나실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하다. 겉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레인의 태도와 어조는, 이 사건을 통해, 자기 아버지가, 특히 가족의 복리에 관한 한, 비범하고 심오하고 강력한 영적 민감성을 갖고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sup>2</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1

#### 성신의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그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육의 인격체로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성신은 영의 인격체로 영체만을 가졌습니다.[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그의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니파이후서 31:18, 모로나이서 10:5 참조]<sup>3</sup>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일에 참여하며 주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에 관해 알려 줍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된 것도 보혜사, 곧 성신의 가르침을 통해서였습니다.[요한복음 14:26 참조] 예언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옵니다.[베드로후서 1:21 참조]<sup>4</sup>

사람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늘의 사자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진리를 전할 능력이 있습니다. 성신을 통해 진리는 몸의 골수에 배어들어 잊을 수 없게 됩니다.<sup>5</sup>

---

## 2

---

### 성신은 모든 정직한 사람에게 진리를 드러내어 준다.

우리는 성신이 계시자이며 그가 모든 정직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이며, 이 교회가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임을 증거하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도 암흑 속에 머물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빛이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진리를 구하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 사업에 관한 진리와 신성한 속성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를 성령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도다]”(사도행전 10:34~35) 이것은 주님이 충실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 스스로 이 종교가 참됨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sup>6</sup>

고넬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신은 진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사도행전 10장 참조] 물몬경에서 모로나이는 그의 기록을 맺으며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비록 교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빛과 진리를 구한다면, 누구나 성신의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가 간구하는 증거를 준 다음 떠납니다.<sup>7</sup>

---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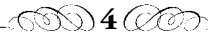
### 침례 받은 후에는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교회 시절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으며 충실한 사람은 모두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신앙을 가진 자를 너희는 안수함으로써 나의 교회 안에서 확인할지니, 그리하면 나는 그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리라.”[교리와 성약 33:15]<sup>8</sup>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하거나, 십일조를 바치거나, 지혜의 말씀을 지키거나, 심지어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침례로 침례를 완성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침례 받은 뒤에] 안수로서 성신의 은사를 주지 않고 확인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가져다가 침례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sup>9</sup>

저는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에 관한 교리를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교를 나누고 그분의 방법을 배워서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sup>10</sup>



#### 성신의 은사를 통해 교회 회원은 성신을 변하지 않는 동반자로 삼을 수 있다.

성신은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사자 곧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침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가 지닌 능력을 통해 변하지 않는 동반자가 되고, 계시와 인도를 통해 진리에 관한 지식을 교회 회원에게 가르쳐 그들이 그 빛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진실하게 침례 받은 회원의 마음을 밝혀 주는 것은 성신입니다. 성신을 통해서 개인적인 계시가 임하고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에 세워집니다.<sup>11</sup>

우리는 침례 받은 후에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신과 동반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화의 세 번째 구성원에게 인도받을 특권, 즉 그의 동반자가 될 특권을 줌으로써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아 승영에 관한 모든 지식과 이해력을 구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sup>12</sup>

침례와 확인을 받은 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고 생각을 키워주며 진리를 깨닫게 해 주는 성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sup>13</sup>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참되고 충실하면 성신으로부터 인도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성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 원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침례 연령에 이른 모든 어린이와 침례 받은 사람들은 성신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여덟 살 난 어린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덟 살 때, 제게는 성신에게서 오는 이 진리에 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간증을 간직해 왔습니다.<sup>14</sup>

계속해서 성신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sup>15</sup>



### 성신을 동반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성신과 함께할 수 있다.

저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를 받았지만 그 은사, 즉 성신의 나타내심을 받지 못한 교회 회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이러한 나타내심을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겸손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신을 동반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단계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런 지식 없이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간사하고 교활하게 속이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와 교리를 헐뜯으며 접근해 올 때, 이 나약한 회원들은 거짓 교리와 가르침에 맞설 수 있는 이해와 지식과 주님 영의 인도가 부족합니다. 그러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그들은 저들의 말을 듣고 자신이 실수를 범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교회를 나갈 궁리를 합니다.<sup>16</sup>

주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성실하게 생활하고 계시된 기본적인 복음 진리를 공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 영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빛 속에서 생활하지 않는 무관심하고 방종하며 거역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례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회복된 복음에 관한 변치 않는 간증을 지닐 특권이 있지만,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고 순종하며 진리를 알고 깨닫기를 부지런히 간구하지 않으면 이 간증은 차츰 작아져서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sup>17</sup>



“주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성실하게 활동하고 …… 기본적인 복음 진리를 공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의 빛과 진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계시를 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계시를 외면한다면 성신의 인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에 빠졌거나 주님이 우리 가까이 마련해 두신 빛과 지식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면 악한 영들과 악마의 교리와 인간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46:7 참조] 또한 우리가 이런 거짓된 영향력에 맞닥뜨렸을 때 그러한 것을 구별하고 그것이 주님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사악한 것과 간사한 것과 인간의 유혹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sup>18</sup>

주님의 영은 깨끗하지 않은 성막에 거하지 않으며, 사람이 간악함으로 진리에서 돌아서면, 영은 그를 따르지 않고 떠나며, 그 자리에 미혹의 영, 불순종의 영, 사악한 영, 영원한 멸망의 영이 임합니다.<sup>19</sup>

---

 6
 

---

### 계속해서 충실하게 생활할 때, 성신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어 평생토록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할 것이다.

주님은 회개하고 계속해서 충실하게 생활하며, 겸손하고 부지런히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영으로부터 인도받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영은 평생토록 그들을 인도하고 안내할 것입니다.<sup>20</sup>

교회 회원은 누구나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회원은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도받는 데 유용하고 필요한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순종하고 겸손하게 생활하여 진리의 영을 통해 계시되는 빛과 진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영에 귀 기울이고 겸손과 신앙으로 영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sup>21</sup>

우리는 회개를 믿고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통해 오는 올바른 이해력을 가지고 빛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영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sup>22</sup>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하고, 성신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은 모든 교회 회원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즉 그분이 주신 계명을 모두 지킨다면, 우리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다가 마침내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대낮이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50:24 참조]<sup>23</sup>

결국 우리는 성신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sup>24</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성신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누군가를 도우라는 영의 속삭임을 들은 때는 언제인가?

- 스미스 회장은 “사람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1편)에 관해 말씀했다. 우리 영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귀나 눈에 말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고넬료가 받은 것처럼 영의 나타내심을 받는 것과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2편 참조)
- 스미스 회장은 성신의 은사 없이는 침례가 불완전하다고 가르쳤다.(3편 참조) 성신의 은사가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면에서 불완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
- 스미스 회장이 4편에서 성신을 변하지 않는 동반자로 삼는 것의 의미에 관해 가르친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성신을 동반자로 삼으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성신을 동반자로 삼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몇 가지 예를 보려면, 5편을 참조한다.)
- 6편을 복습하면서 성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인도에 주의를 기울인다. 부모는 자녀가 이러한 인도를 인식하고 받도록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 관련 성구

요한복음 16:13, 사도행전 19:1~6, 고린도전서 12:3, 니파이전서 10:17~19, 니파이후서 31:15~20, 제3니파이 19:9, 교리와 성약 46:13, 신약 개조 제4조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질문을 한 뒤 반원들이 잠시 말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스스로 대답하지 말고, 반원들이 대답에 대해 생각하도록 시간을 준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 때에는 반원들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말해 줘야 한다는 표시가 될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69쪽)

## 주

1. In Conference Report, Apr. 1940, 96.
2.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1992), xiv-xv.
3. 개인 서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기 편, 전3권.(1954~1956), 제1권, 37쪽에서 발췌; 원본에 있는 기울임체 제거.
4. 개인 서한, *구원의 교리*, 제1권, 37쪽에서 발췌.
5. "The Sin against the Holy Ghost," *Instructor*, Oct. 1935, 431;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45쪽 참조.
6. "암흑으로부터", *성도의 빛*, 1971년 10월호, 3쪽.
7. "Address by Elder Joseph Fielding Smith before Seminary Teachers," *Deseret News*, Apr. 27, 1935, Church section, 7;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40쪽 참조.
8. "Avoid Needless Speculations," *Improvement Era*, Dec. 1933, 866;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37쪽 참조.
9. "Address by Elder Joseph Fielding Smith before Seminary Teachers," 7;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39쪽;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95쪽 참조.
10. In Conference Report, Apr. 1915, 118.
11.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2:149-50.
12. "Seek Ye Earnestly the Best Gifts," *Ensign*, June 1972, 2.
13. 개인 서한, *구원의 교리*, 제1권, 41쪽에서 발췌.
14. In Conference Report, Oct. 1959, 19.
15. *Answers to Gospel Questions*, 4:90.
16. "Seek Ye Earnestly the Best Gifts," 3.
17. In Conference Report, Oct. 1963, 22.
18. In Conference Report, Oct. 1952, 59-60;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41쪽 참조.
19. In Conference Report, Apr. 1962, 45.
20. In Conference Report, Apr. 1931, 68.
21. In Conference Report, Apr. 1940, 96.
22. In Conference Report, Apr. 1916, 74;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253쪽 참조.
23. "What a Prophet Means to Latter-day Saints,"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41, 7.
24. In Conference Report, Apr. 1955, 51.



## 영원한 결혼

“신권 및 복음의 충만함과 축복은 해의 왕국의 결혼에서  
파생됩니다. 결혼은 복음 및 성전에서 가장 높은 의식입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열여덟 살 난 조셉 필딩 스미스는 루이 에밀리 셔틀리프라는 젊은 여성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스미스 일가의 집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살 것이란 말을 들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귀가했을 때 루이가 그들 피아노에 앉아 찬송가를 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놀라움과 기쁨을 금치 못했다. 여름이 저물어 가던 1894년 그날부터 조셉과 루이는 우정을 쌓아 나가다가 서서히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1898년 4월 26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sup>1</sup>

루이와 조셉은 서로 깊이 사랑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조셉이 2년 동안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루이는 조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아버지 밑에서 일했다. 그녀는 조셉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어 마음으로도 영적으로 그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조셉이 귀환한 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며 두 딸을 가족으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결혼한 지 10년이 흘렀을 때 루이는 세 번째 임신 기간 중에 심하게 앓다가 서른한 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조셉은 루이가 “더 나은 세상으로” 떠났다는 확신에서 위안을 찾았으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루이를 만나고, 루이와 재결합[할 수 있는]”<sup>2</sup> 삶을 살겠다는 기도를 일지에 기록했다. 복음에서 위안과 희망을 찾긴 했어도 그는 루이를 몹시 그리워했다. 또한 딸들이 엄마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염려했다. 루이가 죽고 얼마 후, 조셉은 에설 조지나 레이놀즈를 만났다. 루이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그는 에설을 사랑하게 됐고 딸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자신과 루이와 에설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은 조셉은 에설에



“후기 성도는 결혼을 영원히 지속되도록 제정된 성약으로 봅니다.”

게 구혼했다. 그들은 1908년 11월 2일에 인봉되었다. 그들은 슬하에 아홉 자녀를 더 두며 기쁘고 다사다난한 인생을 함께했다. 그들 가정에는 특별히 질서와 근면, 존경, 청결, 온화한 훈육, 사랑, 건전한 즐거움이 넘쳤다.<sup>3</sup>

29년의 결혼 생활 끝에, 에설은 중병으로 4년간 기력을 소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조셉은 또다시 고독에 빠졌으나 영원한 결혼에 관한 확신에서 위안을 얻었다.<sup>4</sup> 그리고 또다시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반려자를 만났다. 그와 제시 에번스는 1938년 4월 12일에 인봉되었다. “함께한 33년 세월 동안 제시는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그가 가는 곳마다 대부분 동행했다. 그 역시 제시가 식료품을 사고, 저녁 먹고 설거지한 그릇을 닦고, 가솔에 과일 병조림하는 일을 도왔다. 그는 사도로서 앞치마 두르는 일을 꺼리지 않았다.”<sup>5</sup> 종종 제시는 남편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가 알기에 가장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가 불친절한 말을 내뱉는 것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불친절한 말을 모르거든요.”<sup>6</sup>

전기 작가인 존 제이 스튜어트는 스미스 회장이 제시에게 보여 준 다정함과 연민을 이렇게 기록했다. “연단에서, 스미스 회장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작 내게 감동을 준 가르침은 1971년 7월 무더운 여름날, 그가 솔트레이크시티의 가파른 북쪽 거리를 아홉 블록 올라가서 후기 성도 병원에 있는 아픈 아내 제시의 침대맡에 앉아 자신의 95세 생일을 보낸 것이다. 제시의 상태가 악화되자 그는 몇 주 동안 밤낮없이 초조한 마음으로 그녀 곁을 지키고 간호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이 줄 수 있는 위안과 격려를 보냈다.”<sup>7</sup>

제시는 1971년 8월 3일에 사망했다. 두 달 뒤에 스미스 회장은 연차 대회 회회사를 전했다. 그가 전한 간증에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의 슬픔이 잠재워졌음이 묻어났다.

“저는 저와 지식의 근원을 같이 공유했던 읍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욥기 19:25~27)

옴의 간증에 제 간증을 더하다 보니 그가 심령의 고뇌와 슬픔에서 외친 다음 말씀처럼 저도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기 1:21)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받고,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으며,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거처와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sup>8</sup>

스미스 회장이 말씀을 마친 후, 모임을 사회하던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회원들은 회장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지를 알고 있기에 오늘 아침 이곳에서 회장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권능과 힘으로 크게 고취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스미스 회장님, 우리는 마음 깊이 우러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sup>9</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1

**해의 왕국의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가장 높은 의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된 의식 중에 결혼보다 더 중요하고 엄숙하고 성스러우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에 필수적인 것은 없습니다.<sup>10</sup>

신권 및 복음의 충만함과 축복은 해의 왕국의 결혼에서 파생됩니다. 결혼은 복음 및 성전에서 가장 높은 의식입니다.<sup>11</sup>

저는 훌륭한 형제 자매 여러분과 훌륭한 교회 회원들께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기 위해 성전에 가시라고 간청드립니다.<sup>12</sup>

### 2

**세상의 관행과는 달리, 결혼은 복음 계획에서 영원히 지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 관계 속에서 함께 살겠다고 맺는 그들 사이의 일반적인 계약 또는 협약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은 인류의 존폐가 달린 영원한 원리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이 율법을 복음 율법의 일부로서 인간에게 주셨으며 첫 번째 결혼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결혼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온 인류가 복음을 준엄하게 지키고 주님 영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결혼은 영원할 것입니다. ....

후기 성도는 결혼을 영원히 지속되도록 제정된 성약으로 봅니다. 결혼은 영생의 기초입니다. 결혼 없이는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한 진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sup>13</sup>

신문을 읽고 라디오 뉴스를 듣고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결혼과 가족을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sup>14</sup>

결혼은 성스러운 성약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결혼은 상스럽고 부정한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을 고상하게 여기지만 이 위대한 원리의 성스러운 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악한 농담이나 장난거리, 또는 일시적인 현상 따위로 치부됩니다.<sup>15</sup>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빛과 기가 되게 하셨으며, 이 복음에는 영원한 속성을 지닌, 결혼이라는 그분의 거룩한 반차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결혼 관행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빛이 있으며, 주님은 그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결혼의 진정한 속성을 압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을 압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결혼해야 하며,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 약속의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결혼에 대해 승인하는 인치심을 받아야 함을 압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계획을 제정하시어 우리가 지상에 와서 성장하고 진보하여 그분과 같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음 계획을 마련하시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원한 가족을 꾸리고 영생을 누리게 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sup>16</sup>

주님은 필멸의 육신이 사망할 때 결혼 관계가 끝나 버리도록 의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약을 맺은 당사자들에게 영광과 통치권과 권능을



“올바르게 구성된 가족의 경우, 그 관계와 유대가 내세에서 의 안에서 지속[됩니다.]”

더해 주시고 하나님 왕국에서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십니다. 그러한 축복은 주님이 계시해 주신 이 성약에 충실하려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녀 두 사람만의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처럼 결혼을 통해 그들은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동반자가 됩니다.<sup>17</sup>

### 3

#### **결혼 성약에 충실하면 행복해지며, 영원한 영광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다.**

저는 결혼 성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원한 결혼 성약으로 인해 다음 세상, 즉 내세에서 남편은 아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아내는 남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집에 가서 이 인봉하는 권능을 소유한 사람에 의해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했다면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올바르게 구성된 가족의 경우, 그 관계와 유대가 다음 세상에서도 의 안에서 지속되리라는 지식에 감사드립니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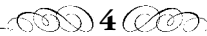
성전에 간 적이 있고 그곳에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맺은 성약과 의무에 충실하고 참되라고 간청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거룩한 성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sup>19</sup>

결혼 성약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만큼 인간이 하나님 왕국에서 영광을 받도록 잘 준비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이 성약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 영광, 통치권, 완전한 사랑의 힘 등은 모두 이 성약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영원한 영광의 축복은 기꺼이 이 성약과 그 밖의 모든 복음 성약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sup>20</sup>

교회 회원들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혼은 그들이 그 의식 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축복, 즉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영생”을 표현하신 방법이며,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성약 안에서 태어난 그 자녀도 그들의 충실함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죽은 자의 부활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그들의 자손이 계속된다는 것과, 가족 관계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2:19~24 참조]<sup>21</sup>

영원하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려면 결합, 곧 충실하고 참된 자들에게 약속되었으며 그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들어올려 줄 축복을 함께 누릴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남자 혼자 하나님 왕국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여자도 마찬가지이며, 둘이 함께일 때에만 아버지 왕국의 충만함과 관련된 모든 축복과 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sup>22</sup>



**마음이 의로운 모든 영혼은 이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영원한 결혼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누릴 것이다.**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서 간과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복음은 마음이 의롭고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그분의 율법과 성약에 순종하려는 모든 사람을 포용합니다. 그러므

로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 인해 성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특권을 얻지 못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이 지닌 마음의 의도로 그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성전에 갈 기회가 없었거나 여건이 되지 못해] 현재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는” 특권을 박탈당한 교회 회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그들은 대리의식을 통해 그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은 대리 사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스스로 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살아 있는 교회 회원들이 스스로 행할 기회 없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 의식을 행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러한 축복을 누릴 기회를 받지 못하고 영의 세계로 떠난 청년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상당수는 유년 시절에 죽었으며, 어려서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습니다. 주님은 그 중 단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승영에 속한 모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와 자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스테이크에 살고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생에서 이 축복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복천년에 주어질 것입니다.<sup>23</sup>

끝까지 충실한 사람은 누구도 승영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 합당하지 못한 남편이 충실한 아내가 승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sup>24</sup>

## 5

**어린이와 청소년은 결혼 성약을 배우고, 번치  
않는 신앙을 기르며,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킴으로써 영원한 결혼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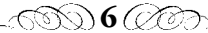
모든 후기 성도 부모는 자녀에게 결혼 성약의 성스러운 속성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성약인 영원한 결혼을 비롯한 하나님의 성약을 지키지 않고서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sup>25</sup>

이생은 짧고 영원은 깁니다. 결혼 성약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 우리는 청소년에게 복

음에 대한 변치 않는 신앙을 지닌 배우자를 선택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중을 기하라고 충고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맹약과 성약에 끝까지 충실할 가능성이 큼니다. 젊은 남녀가 주님의 신성한 사명에 굳건한 기초를 두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된 복음을 믿으면, 영원히 존속될 행복한 관계를 누릴 가능성이 큼니다.<sup>26</sup>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시온의 청소년에게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 주님의 집에 갈 자격을 갖추고 여러분이 선택한 반려자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위대한 축복을 누릴 것을 간청합니다.<sup>27</sup>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작은 규모로 검소하게 시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시점에 그들의 부모가 누리고 있는 만큼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 그들은 자신의 안락을 위해 최대한 모든 편리를 갖춘 채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검소하게 시작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힘닿는 대로 차곡차곡 살림을 불려 나가서 그들이 소망하는 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up>28</sup>



### **남편과 아내가 복음의 모든 의식과 원리를 충실하게 준행하면 그들이 결혼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은 더욱 감미로워진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경건함 속에서 결혼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사는 남성과 여성이 겸손과 사랑과 신앙의 정신으로 이 성약을 맺고 영생의 길을 의롭게 걷는다면, 이혼이나 파멸된 가족 따위는 없을 것이며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만이 있을 것입니다.<sup>29</sup>

저는 성전에서 결혼한 모든 훌륭한 형제 자매가 그들이 받은 위대한 축복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함을 새겨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충실함에 따라, 그들에게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며, 여기서 말한 것처럼[로마서 8:13~19 및 교리와 성약 76:54~60을 가리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갖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충실하게 복음을 준행할 때 그들이 결혼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더욱 감미로워[진다.]”

그럼에도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세와 영원을 위해 결혼하고 아버지 왕국에서 충만함을 누리리라는 약속을 받고서도 자신의 삶에 파멸을 가져오고 두 사람을 갈라놓는 일을 허락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서로 현세와 영원을 위한 성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잊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었음을 망각합니다.<sup>30</sup>

만일 어떤 남자와 그 아내가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복음의 모든 의식과 원리를 준수한다면, 이혼을 유발하는 어떤 원인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은 더욱 감미로워지고, 남편과 아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사랑과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각자가 지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더욱 커질 것이며, 나아가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이의 사랑은 그들의 영혼에 더욱더 굳게 뿌리내릴 것입니다.<sup>31</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이 장은 결혼과 가족생활의 일부일 수 있는 기쁨과 슬픔의 예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영원한 가족에 관한 교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시간과 슬픈 시간을 거치는 동안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가?
- 해의 왕국의 결혼을 “성전에서 가장 높은 의식”이 되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1편 참조)
- 스미스 회장은 결혼에 관한 주님의 시각과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대조했다.(2편 참조) 그가 대조한 내용에서 여러분에게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무엇인가? 오늘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결혼과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가?
- 3편에서 스미스 회장은 결혼 성약에 “충실하고 참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다섯 가지 이상 열거했다. 결혼 성약에 충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 “자녀에게 결혼 성약의 성스러운 속성을 가르치[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몇 가지 조언을 얻으려면 5편을 참조한다.)
- 6편에서 스미스 회장은 결혼 관계가 어떻게 더 “감미로워[질]” 수 있는지 설명한다. 이 원리에 대한 어떤 예를 본 적이 있는가? 기혼자라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더 큰 기쁨과 사랑을 가져올 방법을 생각해 본다.

###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11:11, 교리와 성약 42:22, 131:1~4, 모세서 3:18~24

### 교사를 위한 도움말

“공과 전에 칠판에다 질문을 적어 두는 것은 반원으로 하여금 수업 전에 그날의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93쪽)

## 주

1.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65-75;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1992), 51-55 참조.
2.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62.
3.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214-241 참조.
4.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249 참조.
5.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2-13.
6.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268.
7. John J. Stewart,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1; although this book was coauthored by John J. Stewart and Joseph Fielding Smith Jr., this comment is a personal observation by John J. Stewart.
8.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 *성도의 빛*, 1972년 5월호, 3쪽.
9. In Conference Report, Oct. 1971, 7.
10. “The Law of Chastity,” *Improvement Era*, Sept. 1931, 643;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2권, 52쪽 참조.
11. In “Lay Cornerstone at Provo Temple,” *Deseret News*, May 22, 1971, B2.
12. In Conference Report, Oct. 1951, 120.
13. “The Perfect Marriage Covenant,” *Improvement Era*, Oct. 1931, 704.
14.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Speaks to 14,000 Youth at Long Beach, California,” *New Era*, July 1971, 7-8.
15.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1945), 259.
16.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Speaks to 14,000 Youth at Long Beach, California,” 8.
17.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259.
18. In Conference Report, Apr. 1915, 119.
19. In Conference Report, Oct. 1951, 120.
20. “The Law of Chastity,” 643;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52쪽 참조.
21. In Conference Report, Oct. 1951, 120-21.
22. “Obedience to the Truth,”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60, 6.
23.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2:37-38.
24. 개인 서한, *구원의 교리*, 제2권, 58쪽에서 발췌.
25. In Conference Report, Oct. 1965, 30.
26. “Marriage Ordained of God,” *Young Woman's Journal*, June 1920, 307-8;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69쪽 참조.
27.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Speaks to 14,000 Youth at Long Beach, California,” 10.
28. In Conference Report, Apr. 1958, 30.
29.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259.
30. In Conference Report, Apr. 1949, 135.
31. In Conference Report, Apr. 1965, 11.



##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십시오

“교회에서 태어난 자녀를 훈련하는 것에 관한  
첫 번째 의무는 가정에 있습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그의 아버지인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을 “세상에서 알게 된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분”<sup>1</sup>으로 묘사했다. 스미스 회장은 아버지가 자주 가족을 불러 모아 이렇게 해 주셨다고 회상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자녀는 모두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큰 기쁨을 느꼈고, 아버지가 주시는 권고와 가르침을 감사히 여겼다. …… 우리는 그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며 그때 받은 인상은 계속되었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sup>2</sup> 스미스 회장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아는 누구보다도 사려 깊은 분이셨습니다. …… 아버지 곁에서 함께 복음 원리를 토론하고, 아버지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배운 시간은 제가 진심으로 아끼는 추억입니다. 제 지식의 기초는 이런 식으로 진리 위에 세워졌으며, 그렇기에 저 역시 구속주께서 살아 계시고 조셉 스미스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지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sup>3</sup>

조셉 필딩 스미스는 또한 어머니인 줄리나 엘 스미스와 그녀에게서 받은 가르침에 대해 애정을 다해 말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저의 구속주를 사랑하도록 훈련받은 곳은 제 어머니의 무릎이었습니다. …… 그렇게 훈련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권고를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버지께만 모든 영예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중 상당 부분, 꽤 많은 부분은 어린 저를 무릎에 앉히고 개척자 이야기를 들려주신 어머니께 드려야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과 증손녀 샤나 맥쿱키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머니는 저를 가르치셨고 제가 글을 읽을 만 한 나이가 되자 제가 이해할 법한 책을 손에 들려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기도하고, 제 성약과 의무에 참되고 충실하며, 집사와 교사로서, 그리고 나 중에는 제사로서 제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 어머니는 제가 책을 읽도록 하셨으며 저는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sup>4</sup>

조셉 필딩 스미스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부모에게서 본 모범을 따랐다. 스미스 회장의 딸인 어밀리아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완벽한 학생이자 교사였어요. 아버지는 그분의 위대한 지식 저장고를 열어 가르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배우도록 격려해 주셨지요. ……

아버지는 교리와 성약 93편 40절에 나오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하였느니라.’라는 권고를 자녀에게 실천하셨어요.

아버지는 아침 식탁에서 경전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전에 많이 들은 이야기도 새롭고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시는 재주가 있으셨어요. 바로의 군사들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금잔을 찾게 되면 어찌나 하고 조마조마해 하던 그 마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금판을 찾고 아버지와 아들이 방문하신 이야기를 배웠죠. 아버지가 학교까지 우리를 바래다 줄 시간이 있을 때는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우리는 등갓길에 [솔트레이크] 성전을 지나쳐 걸었는데 아버지는 천사 모로나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우리는 성전이 아주 특별한 장소이며, 그곳에 가려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하는 결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 전에,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은 그분의 후손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충실한 교회 회원을 고양하고 지탱해 줍니다. 그분의 딸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냐 축복인지 모릅니다.”<sup>5</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1

#### 대적의 영향력을 이겨 내려면,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해야 한다.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려 깊게 대하는 가족 화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영적인 결속은 교회와 사회를 번영하게 하는 견고한 기초입니다. 대적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는 전에 없이 교묘한 방법과 영향력과 힘을 한껏 동원하여 이 영원한 제도를 약화하고 파멸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할 때에만 이 사악한 해악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sup>6</sup>

세상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실질적이고 크나큰 위험이 무수히 많은데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우리에게 큰 근심을 안겨 주는 것은 자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직 가정과 가정의 영향력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보호와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sup>7</sup>

우리의 자녀는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은 이웃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왜 자신은 마음껏 할 수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교리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는 일요일에 열리는 음악회, 공연, 영화, 운동 경기,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왜 해로운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거룩한 날에 하지 말도록 금하신 이러한 일들을 친구들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오히려 독려받으며 마음껏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있으며,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가 미치는 영향력 밖에서 자란다면 주님은 부모에게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sup>8</sup>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깃든 곳에서는 부조화, 불순종, 성스러운 의무를 무시하는 일은 일어나지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sup>9</sup>

### 2

#### 자녀를 가르칠 주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분의 자녀에 관한 권리를 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부

모에게 그들을 맡기시면서 그들을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자녀를 빛과 진리로 가르칠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sup>10</sup>

교회에서 태어난 자녀를 훈련하는 것에 관한 첫 번째 의무는 가정에 있습니다.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며, 주님은 부모가 그 일에 실패한다면 심판대 앞에 서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sup>11</sup>

주님은 1831년에 교회에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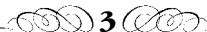
“그리고 또, 시온이나 또는 시온의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여덟 살일 때, 회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이는 이것이 시온 또는 시온의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있는 주민에게도 율법이 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68:25~26] ……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sup>12</sup>

모범과 교훈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데 실패한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모범과 교훈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음에도 자녀가 결길로 간다면, 그 부모는 책임이 없고 죄는 자녀에게 머물 것입니다.<sup>13</sup>



### **교회는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노력을 지원한다.**

구원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할 제일 큰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필멸의 시험을 경험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지 보기 위해서이며, 우리는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다음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빛과 안내자가 되어야 하며,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고 복음을 가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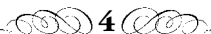
“교회와 교회 조직은 근본적으로 가족과 개인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며 합당한 모범을 보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 조직은 근본적으로 가족과 개인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조직입니다.<sup>14</sup>

사랑하는 형제 자매, 곧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를 훈련하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기회에서 유익을 취하십시오. 그 기회는 주님의 계시에 따라 마련된 여러 조직, 즉 초등학교, 주일학교, 상호 향상 조직[청남과 청녀] 및 감독단의 지시 아래 있는 소신권 정원회를 통해 제공됩니다. ……

우리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회 전역에서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을 시행합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를 세미나리에 보내십시오. 청소년기에 적절한 훈련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는 교회의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려 할 것입니다.<sup>15</sup>



### **부모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원동력이며, 언제까지나 그러할 것입니다. 간증은 가정에서 가장 잘 자라납니다. …… 간증을 얻고 유지하는 일은 가족의 과업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간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어떠한 일도 간과하지 마십시오.<sup>16</sup>

우리는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자녀를] 최대한 보호하여 그들이 진리와 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sup>17</sup>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우십시오. 기도하고, 지혜의 말씀을 준수하고, 주 앞에서 충실하고 겸손하게 행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한 일을 감사하게 여기도록 하십시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신을 돌보고 훈련한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시오.<sup>18</sup>

### **의로운 모범을 보이십시오**

우리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의로운 모범을 보이고 가정의 밤과 그 외 시간에 아이들을 곁으로 불러 모아서 복음을 가르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sup>19</sup>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장차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하며,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그런 사람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sup>20</sup>

여러분은 교훈만이 아니라 모범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해 겸손을 다해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들에게 길을 보여 주는 아버지는 “애야, 주일학교에 가거라, 상호 향상 모임에 가거라, 신권회에 참석해라.”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자, 나와 함께 가자꾸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는 모범으로 가르칠 것입니다.<sup>21</sup>

###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섬기기에 너무 이른 나이는 없습니다. …… 어린이는 부모의 가르침대로 행동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로움으로 가르침 받은 아이는 필시 언제까지나 의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기르기도 쉽고 유지하기도 쉽습니다.<sup>22</sup>

가정에는 기도와 신앙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침례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하고, 침례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 면전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소망을 가슴속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저의 선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과 자녀를 원하십니까? 돌아가신 조상에게 인봉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분의 해의 왕국에 들어갈 때 이런 완전한 가족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요람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야 합니다.<sup>23</sup>

### 자녀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기도의 영이 없는 가정은 어떨까요? 그건 후기 성도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이 둥그렇게 모여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고서 아침을 흘려보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축복에 감사드리고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밤도 그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되며, 가족을 다시 불러 모아 주님의 보호에 감사드리고 그분께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지 않고서 잠자리에 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sup>24</sup>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하고 계셔서 여러분 자녀가 그토록 소중한 성스러우며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는 데 매우 중요한, 계명 준수를 모범과 교훈으로 배우고 있기를 바랍니다.<sup>25</sup>

### 자녀에게 경전을 소개하십시오

세상 모든 가정에는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물몬경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가정은 후기 성도 가정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가 있어야 합니다. 경전을 선반이나 찬장에 두지 말고 쉽게 손이 닿

는 곳에 펼쳐 두십시오. 그리하여 가족이 경전을 찾고 자리에 앉아서 복음 원리를 읽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십시오.<sup>26</sup>

### 가정의 밤을 하십시오

가정의 밤을 하고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건전한 시민이 되고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될 굳건한 토대를 다지게 됩니다. 행복하고, 단합하며,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 관한 기억과 축복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잘 짜여진 가정의 밤은 오래 지속되는 기쁨과 영향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의 밤은 단체 활동을 즐기고, 체계를 세우고, 사랑을 표현하며, 간증을 나누고, 복음 원리를 배우고, 가족의 재미와 오락을 즐기며, 무엇보다도 가족의 단합과 연대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밤을 충실하게 시행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족을 단합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장 위대한 책임인 부모의 책임을 영예롭게 완수합니다.<sup>27</sup>

아버지가 가정의 밤에서 가족을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왕국에서 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가족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을 때 가족 각자가 더 의롭고 행복해지도록 이끄는 단합과 가족 간의 존중심이 생성됩니다.<sup>28</sup>

이 [가정의 밤]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무시하는 부모는 자녀의 장래로 도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sup>29</sup>

### 정결과 순결, 도덕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에게 정결과 순결을 가르쳐야 하며,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과 위험을 인식시켜야 합니다.<sup>30</sup>

우리는 곳곳에 있는 모든 청소년의 영적인 복리와 도덕적인 복리를 크게 염려합니다. 인생의 온전한 목적을 깨닫는다면, 도덕, 순결, 정결 및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우리 생활 방식의 기본이며,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께 교훈과 모범으로 개인적인 순결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자녀와 함께 상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

우리는 교회의 어리고 자라나는 세대를 신뢰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좇지 말고, 반항심에 발을 담그지 말며, 진리와 정결의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믿으며, 그들이 의로움의 대등보가 되고 더 큰 신앙으로, 더 효과적으로 교회 일을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sup>31</sup>

### 자녀가 진리의 증인이 되고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시키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 중 가장 큰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귀족이며, 신성한 운명을 타고난 빼어나고 택함을 입은 세대입니다. 그들의 영은 지상에 복음이 존재하고 주님께 그분의 위대한 후기 사업을 수행할 충실한 종이 필요한 이 시대에 오도록 예비되었습니다.<sup>32</sup>

우리는 자녀가 진리와 이 위대한 후기 사업의 신성을 증명하는, 살아 있는 증인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하며, 특히 우리의 아들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서 하나님의 다른 자녀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합당하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sup>33</sup>

### 자녀가 영원한 가족을 꾸리기 위해 준비하도록 도우십시오

여러분은 [자녀가]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고 싶어하도록 훈육하십니까? 주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위대한 엔다우먼트를 받고 싶어하도록 가르치십니까?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인봉될 수 있으며, 해의 왕국과 관련된 모든 은사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셨습니까?<sup>34</sup>

우리는 반드시 ..... 그렇게 안내하고 인도하여, 자녀가 올바른 동반자를 선택하고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여 우리가 이야기해 온 모든 위대한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sup>35</sup>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온전하게 지키고 그들이 주님 영의 영향력 안에 머물게 하며 복음 원리로 훈련하여, 그들이 의와 진리 안에서 성장하게 합시다. ....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들을 영생의 길에서 훈련하여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sup>36</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를 읽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보인 모범에 주목한다. 가정에서 맡은 책임에 관계없이 그러한 모범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부모는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 스미스 회장은 그 시대에 존재했던 영적인 위험들을 언급했다.(1편 참조) 이 외에도 오늘날에는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가? 부모와 조부모는 자녀가 그러한 영향력을 이겨 내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를 맡기시며 부모에게 보여 주시는 신뢰를 생각해 본다.(2편 참조) 하나님은 어떠한 지침과 도움을 주시는가?
- 교회는 어떤 면에서 “가족과 개인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조직”인가?(3편 참조) 교회 조직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자녀와 청소년이 교회 프로그램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4편에는 자녀와 청소년이 복음을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 권고를 되돌아보면서 다음 질문을 고려해 본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교회 청소년을 돕고 그들의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 관련 성구

신명기 6:1~7, 시편 132:12, 모사이야서 1:4, 4:14~15, 교리와 성약 68:25~28, 93:36~40, 또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참조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미리 준비한 공과를 모두 다 가르치려는 마음에 훌륭한 토론을 너무 일찍 끝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과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원들이 영의 영향력을 느끼도록 돕고,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며,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해력을 증진시켜 주고, 계명을 지키려는 그들의 결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적당한 시간에 토론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를 고양시켜 주는 훌륭한 토론도 너무 길어서

는 경우, 대부분 그 영을 잃어버리게 된다. …… 시간을 관리한다. 언제 공과를 끝내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공과 내용을 요약하고 여러분의 간증을 전할 충분한 시간을 남겨 둔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65쪽)

## 주

1. In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40.
2.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40.
3. In Bryant S. Hinckley, “Joseph Fielding Smith,” *Improvement Era*, June 1932, 459.
4.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56.
5. Amelia Smith McConkie, “Joseph Fielding Smith,” *Church News*, Oct. 30, 1993, 8, 10.
6. Message from the First Presidency, in *Family Home Evenings 1970–71* (family home evening lesson manual, 1970), v.
7. “Our Children—The Loveliest Flowers From God’s Own Garden,”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69, 5.
8. In Conference Report, Oct. 1916, 71–72.
9. In Conference Report, Apr. 1965, 11.
10. “The Sunday School’s Responsibility,” *Instructor*, May 1949, 206;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1권, 294쪽 참조.
11. *Take Heed to Yourselves!* (1966), 221.
12. In Conference Report, Apr. 1958, 29–30.
13. 개인 서한, *구원의 교리*, 제1권, 294쪽에서 발췌; 기oul임체 제거.
14. “Use the Programs of the Church,” *Improvement Era*, Oct. 1970, 3.
15. In Conference Report, Apr. 1958, 29–30.
16. “The Old and the New Magazines,” *Improvement Era*, Nov. 1970, 11.
17. “Mothers in Israel,” *Relief Society Magazine*, Dec. 1970, 886.
18. In Conference Report, Apr. 1958, 30.
19.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6.
20. “Our Children—The Loveliest Flowers From God’s Own Garden,” 6.
21. In Conference Report, Oct. 1948, 153.
22. *Take Heed to Yourselves!* 414.
23. In Conference Report, Oct. 1948, 153.
24. “How to Teach the Gospel at Home,” *Relief Society Magazine*, Dec. 1931, 685.
25. In Conference Report, Apr. 1958, 29.
26. “Keeping the Commandments of Our Eternal Father,” *Relief Society Magazine*, Dec. 1966, 884.
27. Message from the First Presidency, in *Family Home Evenings 1970–71*, v.
28. Message from the First Presidency, in *Family Home Evenings* (family home evening lesson manual, 1971), 4.
29. In “Message from the First Presidency,” *Ensign*, Jan. 1971, 1.
30. “Teach Virtue and Modesty,”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63, 5.
31.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5–6.
32.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6.
33. “Mothers in Israel,” 886.
34. In Conference Report, Oct. 1948, 154.
35. “Mothers in Israel,” 886.
36. In Conference Report, Apr. 1958, 30.



## 인봉의 권능과 성전 축복

“엘리야는 …… 충만한 신권 권능을 …… [지상에] 회복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신권은 인간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의식과 원리를 땅에서나 하늘에서 매고 인봉하[는] ……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1902년에 조셉 필딩 스미스는 매사추세츠 주로 여행했다. 그곳에서 그는 친구 쪽 조상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는 시드니 펠리라는 계보학자를 만났다. 펠리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만 있다면 1700년 이전에 에식스 카운티로 건너온 모든 사람의 기록을 찾는 것이 제 포부입니다.”

훗날 스미스 회장은 나중에 이렇게 전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펠리씨, 정말이지 원대한 뜻을 품으셨군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을 보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하고 보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왜 멈출 수 없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저를 비웃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말씀해 주신다면 분명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에 관한 예언과, 이 예언이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서 성취된 일, 이 탐구 정신이 많은 이들을 사로잡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이 위대한 약속의 성취로 그들이 죽은 자를 찾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재림 이전에 땅이 저주로 치심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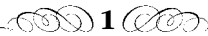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날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있으며,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의식 사업을 수행하여 그들이 비록 죽은 몸이지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특권을 누리게 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그럴싸한 이야기로군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조사를 계속하도록 종용하는 무언가가 있으며 이 일을 멈출 수 없노라고 시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 일에 발을 담그고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비회원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죽은 자들의 기록을 탐구하는 수많은 사람을 접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수집된 기록을 손에 넣어서 성전에 들어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sup>1</sup>

스미스 회장은 가족 역사가 단순히 이름과 날짜, 장소를 찾고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 이상이라고 가르쳤다. 가족 역사는 가족을 영원히 결합하는 성전 의식을 제공하고 모든 세대의 충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가족으로 인봉하는 사업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해의 왕국의 축복을 받기 위해 부모는 서로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인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발전은 합당한 선조의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가족으로서 연합해야 합니다. 이 일은 성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sup>2</sup> 유타 옥든 성전에서 헌납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성전을 헌납할 때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이 집을 사용하겠다고 성약하고 주님을 위한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sup>3</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엘리야는 땅에서나 하늘에서 인철 권능,  
곧 매는 권능을 회복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예언을 끝맺었습니다.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5~6)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후세에 주는 약속으로 그의 말을 맺은 것은 당연한 이치로 보이며, 그는 이 약속에서 과거의 경륜과 후세의 경륜을 잇는 때가 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

우리는 1823년 9월 21일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니파이인 선지자 모로나이를 통해 말라기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천사 모로나이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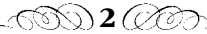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이러한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12년 후인 1836년 4월 3일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날 엘리야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땅에서나 하늘에서 매는 권능, 곧 인칠 권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신권 열쇠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의인들에게 충만한 구원과 관계되는 모든 의식을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해 줄 권세와, 인간뿐 아니라 원소를 다스릴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sup>4</sup>

교회 회원 중에는 엘리야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또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열쇠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열쇠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열쇠는 인봉의 열쇠였으며, 이 인봉의 열쇠는 산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기꺼이 회개하는 죽은 자에게도 중요합니다.<sup>5</sup>

엘리야는 주님으로부터 합당하게 위임받은 필멸의 선지자에게 충만한 신권 권능을 부여하여 지상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신권은 인간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의식과 원리를 땅에서나 하늘에서 매고 인봉하

여 그 의식이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도 유효하게 해 주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

성전에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의식이 집행되는 것은 바로 이 권세 때문입니다. 영원한 계획에 따라 결혼하는 부부를 영원히 결합하는 것도 이 권능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현세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부모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이 권능 때문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 왕국에서 가족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sup>6</sup>



### **인봉하는 권세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막아 준다.**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거에 행해진 모든 일이 부질없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상태라면 그분은 온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사명은 이 세상에 막대한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뿐 아니라, 부부 인봉과, 부모에 대한 자녀 인봉까지 아우르는데, 그래야만 태초로부터 끝 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능과 영광의 전체적이고도 철저하고 완전한 연합과 결합”이 가능합니다[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이 인봉의 권능이 지상에 없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혼란이 판치고 무질서가 질서를 대신할 것이나, 그 권능으로 인해 만사가 하나님 왕국의 완전한 율법으로 다스려지고 통제되므로 이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sup>7</sup>

왜 땅이 황폐하게 됩니까? 아버지와 자녀 간에 굳게 매는 연결, 곧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버림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서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sup>8</sup>

이 [인봉하는] 권세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막아 주는 누룩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속에 확고하고 분명히 새겨 둘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에 인봉의 권능이 없다면 혼란과 재앙만이 있을 것이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sup>9</sup>



신권의 인봉하는 권능은 “영원한 계획에 따라 결혼하는 부부를 영원히 결합[한다.]”

### 3

#### **충만한 구원을 받도록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인봉의 권능을 통해 성전 의식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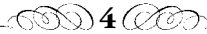
주님은 구원에 관계되는 의식을 받아들이고 성약을 맺는 특권과 축복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의식과 성약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죄 사함을 위한 침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 등의 원리를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원리와 성약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sup>10</sup>

성전 사업은 구원의 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 성전에만 귀속된 성전 의식 없이는 구원도 불가능합니다.<sup>11</sup>

모임에 가고, 십일조를 내고, 교회의 일반적인 의무는 흔쾌히 수행하려 하지만, 주님의 성전에서 오는 축복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후기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축복은 그들을 승영으로 데려가 줄 텐데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에서 유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그분 면전으로 돌아가게 해 줄 필수적인 성약을 받지 않은 채로 그저 물 흘러가듯 사는 데 안주하는 듯합니다.<sup>12</sup>

충만한 구원을 받고 싶다면, 즉 하나님 왕국에서 승영하고 싶다면 .....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집의 일부이며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 거룩한 의식들을 받아야 합니다. 남자 혼자 영원의 충만함, 곧 영생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고, 여자 혼자서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에서 인봉의 권능을 받은 남편과 아내는 승영으로 나아가고 계속 진보하여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며 주님이 그분 자녀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sup>13</sup>

주: 살아생전에 모든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없는 충실한 사람들에게 스미스 회장이 준 희망에 찬 말씀과 약속을 읽으려면 이 책 제18장을 참조한다.



#### **인봉의 권능 덕분에 우리는 구원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 구원 의식을 행할 수 있다.**

말라기가 말한 아버지는 누구이고 자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란 복음을 받아들일 특권을 받지 못하고 죽은 조상으로서 언젠가 그 특권을 받을 날이 오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녀란 현재 살아 있으면서 계보 자료를 수집하고 성전에서 대리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sup>14</sup>

엘리야가 인봉의 열쇠를 갖고 와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으며, 이로써 우리는 죽은 자에게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이 인봉의 권능은 살아 있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복음 지식을 알지 못하고 죽었으나 기꺼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죽은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sup>15</sup>

주님은 그분의 영의 자녀 모두가, 곧 지상에 살았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영혼이, 그분의 영원한 복음 율법을 믿고 순종할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받으리라고 공포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와 해의 왕국의 결혼을 포함한 복음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중 극소수만이 주님의 참된 종의 음성을 통해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공의로써 모든 사람이 그러한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듯이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베드로 전서 4:6)

이생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없었지만 기회만 있었다면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였을 사람들, 그들이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성전에서 의식을 대행해 줄 사람들이며, 그들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구원과 영생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입니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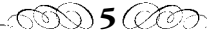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구원 권능이며, 그 일은 자녀가 그 조상을 위해 행하는 대리 사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은 모든 면에서 이치에 맞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구원 사업이 대리 사업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구원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어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우리 죄로부터, 회개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리 사업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이 미치는 범위는 장대하고 무한하며, 이것은 주님이 그분 교회 회원에게 자신을 위한 구원 의식을 행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을 위해 행할 권세를 위임하신 것과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졌습니다.<sup>17</sup>

때때로 우리는 죽은 자의 구원 사업을 다소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의식을 대행해 주는 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합

니다. 살아 있는 대리인은 의식을 대행해 주는 사람이 복음 경륜의 시대에 살았다면 살아생전에 받았어야 하고 받았을 축복을 그들을 대신해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의식을 받는 모든 죽은 사람은 의식이 집행 되는 순간에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sup>18</sup>

죽은 자를 위한 이 구원의 교리는 인간에게 계시된 가장 영광스러운 원리 중 하나입니다. 복음은 이런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사도행전 10:34 참조], 모든 영혼이 그분 보시기에 귀하며,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임을 입증합니다.

저는 주님이 이 시대에 그분의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인봉의 권능이 지상에 돌아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가족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인봉될 특권을 주시며, 이러한 인봉하는 축복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에게 주어지도록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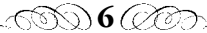


### 가족 역사 사업과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은 사랑의 봉사이다.

돌아가신 조상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고 봉사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안락을 뒤로하고 때로는 생활에 필요한 것마저도 희생하는 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의 봉사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훌륭한 대업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그들의 보화와 부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sup>20</sup>

복음과 관계된 일 중에서 주님의 집에서 죽은 자를 위해 행하는 일보다 더 이타적인 성격을 띤 사업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현세적인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이러한 구원 의식에 성실하게 꾸준히 봉사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난 사랑의 행위입니다. 재정적인 보상이 따르지는 않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와준 영혼들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인간의 영혼을 키우고, 이웃의 복리에 관한 시야를 넓혀 주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심어 줍니다.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만큼 인간에게 이웃을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기에 적합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기꺼이 바치려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이 우리의 도움 없이는 받을 수 없는 복음 축복을 받도록 도움으로써 예수님과 그들에 대한 큰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여 줄 특권이 있습니다.<sup>21</sup>



###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사업을 통해 우리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온전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와 성전 사업은 가족 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족 유대가 본래 끊어지지 않도록 제정되었으며, 남편과 아내가 영원토록 서로를 요구하고 그들 자녀로부터 마지막 세대까지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특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인봉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맺는 모든 계약, 약정, 의무, 협약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에서 맺는 의무와 약속은 그것을 충실히 지키기만 한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2:7 참조] 이 교리는 주님이 그분의 자녀에게 품으신 목적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해 줍니다. 또한 주님이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그분께 모반하는 사람에게까지 품고 계시는 풍성하고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말해 줍니다. 그분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런 모반하는 사람에게까지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sup>22</sup>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는 한, 한 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다음 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에게로 연결되어 끝 날까지 확장되고 뻗어 나가는 온전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sup>23</sup>

우리에게는 결합, 즉 아담의 시대로부터 끝 날까지의 세대 간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담을 가장으로 세우셨으며, 가족은 그를 가장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대가족으로 모일 때까지,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한 세대는 다른 세대에게로 연합하고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사업을 행하려는 소망을 품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 전력을 다해 이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



돌아가신 조상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는 살아 있는 가족에게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고 승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교리, 곧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된 원대한 진리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기회에서 유익을 얻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타당함을 입증하여 우리 자신의 영생을 얻어야 하며, 하나님 왕국에서 열리는 장자의 교회 성도들과의 이성대한 재결합과 모임에서 친족과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지켜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로우며 거기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 모든 일에서 그분을 충실하게 섬기려는 소망을 마음속에 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sup>24</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 질문

- 스미스 회장이 성전 헌납식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에 관해 준 권고를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편에서 읽는다. 이 권고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1편에 나오는 가르침은 돌아가신 조상을 돕기 위한 우리 노력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살아 있는 가족과 우리 관계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 2편을 읽으며 인봉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막아 주는” 이유에 관해 스미스 회장이 설명한 내용을 살펴본다. 이것은 구원의 계획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을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 성전 사업은 어떤 면에서 “구원의 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가?(3편 참조) 이 원리는 성전 사업에 관한 우리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스미스 회장은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성전 사업을 행할 때 그들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고 권고했다.(4편 참조)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5편을 복습하면서, 스미스 회장이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받으리라고 말한 축복을 살펴본다. 이 축복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6편을 공부하고 “성대한 재결합”에서 조상과 기쁨을 누릴 일을 상상해 본다. 여러분과 가족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도록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15:29, 교리와 성약 95:8, 97:15~16, 128:16~19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어떤 사람이 질문할 때, 그 해답을 여러분이 말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  
에게 그 해답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다음  
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십  
니까?’ 또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64쪽)

## 주

1. In Conference Report, Apr. 1948, 134.
2. “Salvation for the Dead,” *Improvement Era*, Feb. 1917, 361;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2권, 131쪽 참조.
3. “Ogden Temple Dedicatory Prayer,” *Ensign*, Mar. 1972, 6.
4. “엘리아의 오십”, 성도의 벗, 1972년 6월호, 1~3쪽.
5. “The Keys of the Priesthood Restored,”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uly 1936, 100.
6. “A Peculiar People: The Authority Elijah Restored,” *Deseret News*, Jan. 16, 1932, Church section, 8;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105쪽 참조.
7. “Salvation for the Living and the Dead,” *Relief Society Magazine*, Dec. 1918, 677-78;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108~109쪽 참조.
8. 구원의 교리, 제2권, 109쪽.
9. “엘리아의 오십”, 3쪽.
10. In “Relief Society Conference Minutes,” *Relief Society Magazine*, Aug. 1919, 466;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36쪽 참조.
11. “One Hundred Years of Progress,” *Liahona: The Elders’ Journal*, Apr. 15, 1930, 520.
12. “The Duties of the Priesthood in Temple Work,”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an. 1939, 4.
13. “Elijah the Prophet and His Mission—IV,” *Instructor*, Mar. 1952, 67.
14. “Salvation for the Dead,” *Millennial Star*, Dec. 8, 1927, 775;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114쪽 참조.
15. “The Keys of the Priesthood Restored,” 101.
16. *Sealing Power and Salv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Jan. 12, 1971), 2-3; italics removed.
17.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1945), 174-75.
18. “The Keys of the Priesthood Restored,” 100-101.
19. *Sealing Power and Salvation*, 3.
20. “A Greeting,”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an. 1935, 5;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160~161쪽 참조.
21. “Salvation for the Dead,” *Improvement Era*, Feb. 1917, 362;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128~129쪽 참조.
22. “Salvation for the Dead,” *Improvement Era*, Feb. 1917, 362-63;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154쪽 참조.
23. In Conference Report, Apr. 1942, 26;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156쪽 참조.
24. In Conference Report, Oct. 1911, 122.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십시오

“최선의 예배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아들의 발자취를 따르며, 항상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선언했다. “저는 제 구원을 추구하고 있으며, 제가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의의 일을 행하고 우리의 행군 대장이자 본보기이자 만인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sup>1</sup>

스미스 회장은 자신의 구원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구원을 추구하도록 도우려고 부지런히 일했다. 제일회장단 비서로 봉사한 프랜시스 엠 기븐스 장로는 스미스 회장이 “사람들이 경전에서 권고하는 바른 길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은 누가 뭐라든 그 의무를 저버릴 생각이 없으셨다. 그런 발언 때문에 몇몇 집단으로부터 얻은 좋지 못한 평판도 그분을 전혀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듯했다. 그분의 목적은 사람들 눈에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다가오는 위험을 보지 못하는 망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음을 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곧 자신의 역할로 여기셨다.”<sup>2</sup>

스미스 회장은 이 경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경험을 들려주었다.

“수년 전에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 [대회가 끝날 무렵] 건물 뒤편으로 가보니 거의 모든 사람이 빠져나가고 한 남자만이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형제님, 형제님 말씀은 지혜의 말씀에 관해 제가 난생처음 좋아하게 된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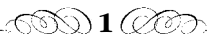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관한 다른 말씀은 들어 보지 못하셨나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쏙 든 말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왜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이제야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요.’”<sup>3</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변하는 율법으로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므로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인 인간은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에 주는 계시를 통해 그러한 진리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모든 왕국에는 주어진 율법이 있고,

왕국은 많도다. 무릇 더 큰 왕국이거나 더 작은 왕국이거나 왕국이 없는 공간은 없으며 공간이 없는 왕국도 없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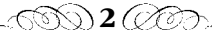
그리고 모든 왕국에는 저마다 한 율법이 주어져 있고 모든 율법에는 저마다 또한 어떠한 범위와 조건이 있느니라.

그러한 조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8:36~39)

이러한 진리는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율법으로 다스려지며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교리와 성약 132:8)

주님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불리는 율법의 법전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영감과 영적인 인도가 부족해서 이 율법과 그 적용에 이견을 보일 수 있으나, 그러한 율법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sup>4</sup>

우리에게는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하늘로 구원받고 승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와 교리와 율법과 필수 요건과 행위와 의식이 있습니다.<sup>5</sup>



##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이다.

교회에서 우리의 책임은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우리는 마음과 능력과 생각을 다해 이러한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태복음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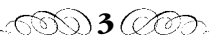
우리는 예배가 기도나 전도나 복음을 실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최선의 예배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아들의 발자취를 따르며, 항상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그분께 봉사하는 것은 그분이 보여 주신 모범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영예롭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저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특권을 기쁘게 여깁니다. 저는 제가 이생에서 받은 영생의 말씀과, 제가 끝까지 충실하고 참되다면 앞으로 올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한 소망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sup>6</sup>

다음은 교회 회원들을 위한 율법으로, 구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21) 구주께서는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

구주께서는 죄를 지은 적도, 양심에 거리낄 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회개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제 범법의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우리 모두의 빛을 갇기 위해 그분은 지상에 와서 희생양을 자청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점을 짊어지셨습니다. 저는 그분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겪으신 고통을 들려주십니다.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리쳐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 아버지께서 주신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셔야만 한단다.”

제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sup>7</sup>



### 주님의 계명에서 돌아서면 그분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신 계명에서 돌아서면 그분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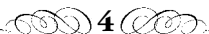
주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도 없이 그분께 간청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부질없는 조롱이며 은혜의 보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감히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이사야 55:6~7) 우리가 찾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디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의 환난의 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더디 하시느니라. 그들이 평화의 날에는 그들이 나의 권고를 가버이 여기더니, 그러나 그들의 환난의 날에는 그들이 부득이 나를 더듬어 찾는도다.”[교리와 성약 101:7~8]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며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반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약속은 없습니다.<sup>9</sup>



부모는 자녀가 “온전한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 주옵소서. 그러나 당신이 바라시는 일은 요구하지 마옵소서.”<sup>10</sup>

우리는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제게는 일부 복음 원리는 저버리고 나머지만 믿으면서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고 승영하는 온전한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특권이 없습니다. 승영을 원하고 주님이 바르고 참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신 처소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온전한 빛 가운데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해야 합니다. 그중 일부는 작고 사소하므로 그것을 어기더라도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명받았습니다.[신명기 8:3, 교리와 성약 98:11 참조] 그분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누가복음 6:46 참조]<sup>11</sup>



##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된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분이 주신 규약과 조건에 맞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맘에 드는 복음 원리를 고르고 그것만을 지키며 나머지는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어떤 원리가 우리 사회와 문화적 상황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주님의 율법은 영원하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충만하고도 영원한 복음이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모든 율법과 진리를 믿고 거기에 일치하는 삶을 살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참된 원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 삶에서 그분 왕국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며,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고, 온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경전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킵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전도서 12:13)<sup>12</sup>

저는 종종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위대하고 훌륭한 담론에 관해 생각하는 데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 우리가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명쾌하게 요약해 주는 다음 구절을 자주 떠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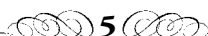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 ……

저는 주님이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함을 의미하셨다고 믿습니다. 온전함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모범에 모범을 더하여 이루어지며, 그런 연후에도 우리가 이생을 사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을 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러한 온전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그 기초를 쌓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순한 복음 진리를 배워서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준비하는 것은 시험의 상태인 이곳에서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낮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낮도록 하는 것이 제 의무이자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때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온전함은 오직 순종과 세상을 이기려는 소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에게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려는 소망을 품고 이를 정복하고 극복할 때까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십일조를 내기 힘들어하면 그는 십일조를 내는 법을 배울 때까지 거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취약한 사람은 이 계명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여기에 매달려야 합니다.<sup>13</sup>



### 계명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며 승영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강화해 주신다.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그분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곧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sup>14</sup>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신앙을 키우고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모두 우리에게 위안과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계명은 단순히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고 승영하는 데 합당해지게 하려고 주어졌습니다.<sup>15</sup>

성전에 갈 때 우리는 손을 들고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바를 인식한다면 엔다우먼트는 우리를 평생 보호해 주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이 보호란 성전에 가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보호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고통과 유혹을 받을 때 주님의 집에서 맺으신 약속, 즉 성약을 생각하면 보호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와 같은 보호는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겠다는” 성약을 맺는다.

이러한 의식이 있는 목적 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존중할 때, 우리는 그 의식을 통해 현세에서는 보호받고, 내세에서는 승영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보호가 실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맺은 성약을 지킨 수많은 사람처럼 저 역시 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sup>16</sup>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과 조화를 이루게 할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진리,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모든 성약과 의무에 참되고 충실하다면 받을 수 있는 이해를 구한다면, 우리 영혼에 깊숙이 뿌리내려 결코 뽑아낼 수 없는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sup>17</sup>

기꺼운 마음으로 율법을 좇아 생활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이 교회 회원에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 왕국에 거처를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면전에 거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4:33~39 참조]<sup>18</sup>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워진 이 계명들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계속 생활한다면 우리는 불멸과 영광과 영생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게 될, 그분들 면전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sup>19</sup>

만일 우리가 유덕하고 거룩한 길을 걷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매사에 “백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베드로전서 2:9)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표준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되고 다를 것이므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목적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할 말이나 행동을 원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과 같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모든 면에서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그분은 또한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신권은 주님의 권능이자 권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시듯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면 그분의 아버지 왕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광과 영예를 누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러한 영광스러운 희망으로 세상의 악한 길을 멀리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왕국의 일들을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에 둘 수 없겠습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sup>20</sup>

저는 주님이 우리 시대에 말씀하셨으며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희망과 기쁨과 구원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약속하거니와 만일 여러분이 하늘의 빛을 좇아 살며 신의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는 평화와 기쁨을, 장차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sup>21</sup>

계명을 지키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며 끝까지 견디십시오. 모든 성약과 임무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sup>22</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부분의 마지막에 나오는 일화를 살펴본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복음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1편에 인용된 경전 구절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시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한 감사 표시가 될 수 있는가? 예배의 표시가 될 수 있는가?(2편 참조)
- 3편에 나오는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본다.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왜 잘못된 일인가?
- 한꺼번에, 또는 이생을 사는 동안에 온전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4편 참조)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 머물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 5편에서 스미스 회장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실 방법을 적어도 열 가지 이상 열거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들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중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줄 만한 것은 무엇인가?

### 관련 성구

마태복음 4:4, 니파이후서 31:19~20, 옴나이서 1:26, 교리와 성약 11:20, 82:8~10, 93:1, 130:20~21, 138:1~4

###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개인 학습을 하며 배운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주 중에 반원 두세 명에게 연락하여 배운 내용을 나눌 준비를 해 오도록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이 책 vii쪽에서 발췌)

## 주

1. In Conference Report, Oct. 1969, 110.
2.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1992), 313.
3. In Conference Report, Oct. 1935, 12.
4. “죽은 자에 대한 공의로움”, *성도의 벗*, 1972년 10월호, 2쪽.
5. In “President Smith’s Last Two Addresses,” *Ensign*, Aug. 1972, 46.
6.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 *성도의 벗*, 1972년 5월호, 3쪽.
7. In Conference Report, Apr. 1967, 121-22.
8. In Conference Report, Oct. 1935, 15.
9. In Conference Report, Apr. 1943, 14.
10. In Conference Report, Oct. 1944, 144-45.
11. In Conference Report, Apr. 1927, 111-12.
12.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Speaks on the New MIA Theme,” *New Era*, Sept. 1971, 40.
13. In Conference Report, Oct. 1941, 95.
14. “The Virtue of Obedience,”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68, 5.
15. In Conference Report, Apr. 1911, 86.
16. “The Pearl of Great Price,”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uly 1930, 103.
17. “Seek Ye Earnestly the Best Gifts,” *Ensign*, June 1972, 3.
18. “Keep the Commandments,” *Improvement Era*, Aug. 1970, 3.
19. In Conference Report, Oct. 1925, 116.
20.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의 책임”, *성도의 벗*, 1971년 12월호, 1~2쪽.
21. In Conference Report, British Area General Conference 1971, 7.
22. “성도들과 온 세상에 드리는 말씀”, *성도의 벗*, 1972년 12월호, 8쪽.



전쟁 중에도 우리는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거할 뿐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1944년 12월 29일,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아들 루이스가 미군에서 복무하다가 사망했다. 스미스 회장은 몹시 슬펐지만 루이스가 선량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위안을 얻었다. 스미스 회장은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루이스가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루이스는 품행만큼이나 생각이 순결했다. ……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세상에 널리 퍼져 있고 군대에 만연한 해로운 습관에서 루이스가 자유롭고 깨끗했다는 것을 알기에 큰 평안과 행복을 느낀다. 루이스는 신앙에 충실했으며, 우리가 재결합하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아이였다.”<sup>1</sup>

약 11년 후,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과 그의 아내 제시는 다른 군인들에게서도 비슷한 성품을 발견했다. 그들은 동 아시아에 있는 교회 선교부를 둘러보다가 그 지역에서 복무 중인 미국에서 온 후기 성도들을 방문했다. 스미스 회장 부부는 세상의 유혹에도 선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감명받았다. 195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보고했다.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그들은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군인들 중에는 개종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원리를 통해, 그리고 주로 함께 복무 중인 교회 회원들의 모범을 통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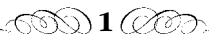
제가 만난 여러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 준 복음 원리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하는 청년이 한두 명쯤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만나 보고 대화할 특권을 누린 청년들은 진리에 관한 간증을 나누며 겸손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 본 장교와 군목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 신내 교회 청년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sup>2</sup>

스미스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나머지 세상과는 다른”<sup>3</sup> 이 젊은 군인들처럼 되라고 권고했다. 그런 설교를 전할 때면 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정숙한 복장을 하며, 순결의 법을 지키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후기 성도들에게 그들이 세상의 악을 떨쳐 버리고 계명을 지킬 때 받을 축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sup>4</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악을 떨쳐 버리고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사악하고 간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거할 뿐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빛이 있으며 주님은 그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sup>5</sup>

저는 눈물 없이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 주님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바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는 가장 유약한 상태에서 아버지께 간구하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한복음 17:15~17)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종교대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리석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에 발을 담그지 말아야 하며 세상의 철학, 교리, 정부 등과 관련된 그 어떤 잘못에도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받아들인 모든 성약과 의무에 충실하게 생활하기만 하면 됩니다.<sup>6</sup>

이 말을 듣고서 제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멀리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한결같은 후기 성도가 되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암흑과 죄 가운데서 주님 뜻에 반하게 행동한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할 곳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sup>7</sup>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세상의 방식을 뒤로하고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으레 하듯이 입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이 차, 커피, 담배, 술을 입에 대고 약물 복용에 관여합니다. 상당수가 불경한 언어를 사용하고 저속하고 외설적이고 부도덕하고 부정한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입니다. ....

저는 교회와 모든 교회 회원에게 세상의 악을 떨쳐 버리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역병을 피하듯이 부정한 것과 모든 형태의 부도덕을 피해야 합니다. ....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목적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할 말이나 행동을 원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과 같도록 해야 합니다.<sup>8</sup>

###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저는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관해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명은 태초부터 주어졌으며 하나님은 성도들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여 7일 중 하루인 안식일을 준수하여 이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쉬고 그분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집에 가서 우리의 성찬을 바쳐야 합니다. 이날은 우리의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우리의 헌신을 바치도록 우리에게 정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59:9~10 참조] 이날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와 금식과 노래와 서로에 대한 교화와 가르침으로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다.<sup>9</sup>

안식일은 향락과 파티의 날, 곧 예배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 저는 너무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이런 대열에 합류했으며 일부 교회 회원이 안식일을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아닌, 파티와 향락의 날로 간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

이 율법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은 이 율법이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이를 불쾌하게 여깁니다.<sup>10</sup>

우리는 안식일을 어길 권리가 없습니다. …… 저는 후기 성도 사회에서 마저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이 교리가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상의 관행을 따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회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면에서 세상의 생각과 관념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어긴다면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sup>11</sup>

###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지혜의 말씀은 기본적인 율법입니다. 이 계명은 방향을 제시해 주며 몸에 유익하고 해로운 음식과 음료에 관해 풍부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 영의 도움을 받아 이 율법을 열심히 따른다면 더 이상의 권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훌륭한 가르침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육체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돕기 위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지혜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

“무릇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18~20]<sup>12</sup>

매년 술과 담배에 소모되는 돈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악이 인간 가족에게 불러오는 취태와 추악함은 인간의 건강뿐 아니라 도덕적 보루와 영적인 보루까지도 약화시킵니다.<sup>13</sup>

불법적인 약물 복용과 처방약 남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은 유리되고 있습니다.<sup>14</sup>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에 위배되는, 몸에 해롭고 그분들이 금하신 물질을 취하도록 유혹하고 현혹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

우리 몸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드린 기도를 기억하려고 마음속으로 소망해야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영의 인도에서 오는 권고를 구해야 합니다.<sup>15</sup>

###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심으로 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성스럽고 엄숙한 존경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상스럽고 무식하고 추잡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말을 듣는 것보다 교양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고 충격에 빠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쩌나 불경스러운지 그들에게는 강조어 정도에 불과한 저속하고 신성모독적인 욕설을 섞지 않고서는 두세 문장을 끝내기도 어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 불경스러운 말을 해야 남자다우며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 어떤 형태든 추잡함은 품위를 떨어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므로 모든 교회 회원은 이를 치명적인 독으로 여기고 피해야 합니다.

훌륭한 이야기도 작가가 성스러운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해 망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만 았았다면 존경받았을 등장인물의 입에서 불경스러운 표현이 나올 때, 줄거리가 고조되기는커녕 이야기의 가치와 흥미가 떨어집니다. .... 일부 사람들, 심지어 훌륭한 사람들마저도 주님의 이름이 들어간 표현을 쓰는 것이 이야기에 흥미나 기지나 힘을 더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

모든 세상 사람 가운데 특히 후기 성도는 모든 거룩한 것을 가장 성스럽고 경건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정직하고 독실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 면에서 그들은 우리처럼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가 있고 주님의 계시가 있으며, 주님은 오늘날에도 그 모든 것과 관련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sup>16</sup>

### 정숙한 복장을 하고 순결의 법을 지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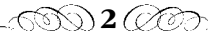
후기 성도는 세상의 유행과 정숙하지 못한 성향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깨끗하고 유덕한 생활을 하고,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유지하며, 그분이 주신 그 밖의 모든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을 따를 이유가 무엇이며, 정숙하게 생활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sup>17</sup>

교회 사무실을 오가는 길에 저는 젊은 여성과 나이 든 여성을 보게 되는데 그중 상당수가 “시온의 딸들”로서 정숙하지 못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이사야 3:16~24 참조] 저는 시대와 유행이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 [하지만] 정숙함과 합당성에 관한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 교회 총관리 역원이 발표한 표준은 남녀가 모두 정숙한 복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합당하게 행동하고 정숙하라는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그들이 정숙하지 못한 복장을 하는 것은 “시온의 딸들”에게 슬픈 일입니다. 이 말은 자매뿐 아니라 형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는 항상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순결의 법을 준수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정숙하고 순결할 것을 간청드리며, 남녀 할 것 없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순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주님이 주신 성약과 계명에 순종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

정숙하지 못한 복장을 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교회 젊은이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갑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영원한 원리를 지키는 일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sup>18</sup>



### 충실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세상의 일시적인 향락보다 훨씬 크다.

[한 교회 회원은] 자신은 십일조를 바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모든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늘 생계를 잇느라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그의 이웃은 안식일을 어기고, 술과 담배를

즐기며, 세상이 말하는 환락을 즐기고,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도 변창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교회 회원이 이 문제를 마음속으로 골똘히 생각하며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 이웃은 세상의 온갖 훌륭한 것으로 축복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가 훌륭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은 실제로는 나쁜 것들입니다.) 왜 교회의 많은 회원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힘겹게 투쟁하고 노력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때때로 미식축구나 야구 경기나 그 밖의 다른 오락장에 가면 저는 담배나 껌이나 파이프 담배를 피워 대는 남녀 틈에 끼이게 됩니다. 몹시 신경이 쓰이고 약간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아내에게 불평을 털어놓을 것이고 아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줬잖아요. 당신은 지금 저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긴 저들의 세상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다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저들 세상이니 저들이 변성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들의 세상은 곧 끝납니다. ……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맞을 것입니다. 의로운 세상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지상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sup>19</sup>

우리가 부지런히 구하고 항상 기도하며 신앙을 지니고 올바르게 행한다면, 주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90:24 참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지리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시험의 상태는 우리에게 경험과 역경과 갈등 상황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원래 순조롭게 흘러가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나, 주님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며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동과 환란에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생이 끝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한 분이자 우리가 지킨 율법의 저자이자 우리가 섬기기로 선택한 그분 면전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자격을 갖추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sup>20</sup>

### 3

####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 왕국을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된다.**

후기 성도는 산 위에 놓인, 숨길 수 없는 성읍과 같고,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비치는 촛불과 같습니다. 의로운 모범으로써 우리 빛이 우리 이웃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마태복음 5:14~16 참조]<sup>21</sup>

우리는 온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받고 그들 나라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sup>22</sup>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분의 계명을 지킵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계획을 믿도록 감화되어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도록 합시다.<sup>23</sup>

저는 성도들이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 대항하여 굳건히 서고, 그들 생활에서 하나님 왕국에 속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며, 모든 기대에 충실하고 모든 성약을 지킬 것을 간구합니다.

저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가 이 땅을 휩쓸고 있는 부도덕과 악물 남용과 모반하는 정신과 예절의 결핍으로부터 그들의 정신과 육체를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기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사 그들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보존되며 당신 면전으로 돌아와 당신과 거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하옵소서.

또한 당신 얼굴을 구하고 온 영혼을 다해 당신 앞에 행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사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당신이 지상에서 바라시는 일을 행할 당신의 손에 든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sup>24</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를 읽으며 오늘날 젊은이들이 부모나 성인 지도자와 떨어져 있을 때 직면하는 어려움에 관해 생각해 본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계속 충실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1편에서 언급된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 세상의 것에 현혹된 사람을 돕기 위해 2편에 나오는 가르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상의 소동과 환란에도”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수 있는가?
- 우리가 보이는 모범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멀리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3편 참조) 의로운 모범의 힘을 느낀 것은 언제인가? 가족 및 그 외 사람들에게 의로운 모범을 보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 관련 성구

마태복음 6:24, 마가복음 8:34~36, 요한복음 14:27, 빌립보서 2:14~15, 모로나이서 10:30, 32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은 반원들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들의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고, 사람들이 영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46쪽)

### 주

1.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287-88.
2. In Conference Report, Oct. 1955, 43-44.
3. In Conference Report, Apr. 1947, 60-61.
4.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의 책임”, 성도의 벗, 1971년 12월호, 1쪽.
5.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Speaks to 14,000 Youth at Long Beach, California,” *New Era*, July 1971, 8.
6. In Conference Report, Apr. 1952, 27-28.
7. “The Pearl of Great Price,”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uly 1930, 104.
8.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의 책임”, 2쪽.
9. In Conference Report, Apr. 1911, 86.
10. In Conference Report, Apr. 1957, 60-61.
11. In Conference Report, Apr. 1927, 111.
12.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1:199.

13. "Be Ye Clean!" *Church News*, Oct. 2, 1943, 4;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3권, 241쪽 참조.
14. "대관장단 메시지", *성도의 벗*, 1971년 4월호, 2쪽.
15. In Conference Report, Oct. 1960, 51.
16. "The Spirit of Reverence and Worship," *Improvement Era*, Sept. 1941, 525, 572; 또한 *구원의 교리*, 제1권, 13~14쪽 참조.
17. "Teach Virtue and Modesty,"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63, 6.
18. "My Dear Young Fellow Workers," *New Era*, Jan. 1971, 5.
19. In Conference Report, Apr. 1952, 28.
20.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Speaks on the New MIA Theme," *New Era*, Sept. 1971, 40.
21. In Conference Report, Oct. 1930, 23.
22. In Conference Report, British Area General Conference 1971, 6.
23. In Conference Report, Apr. 1954, 28.
24. "A Witness and a Blessing," *Ensign*, June 1971, 110.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사도행전 3:6)



## 모든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이해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 것을 인지한다면, 서로에게 친절하고 싶은 마음과 친밀감을 느껴서 생활 방식이 통째로 바뀌고 지상에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와 존 제이 스튜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의 진면모는 그의 인생에 있었던 사려 깊고 소소한 일에서 가장 확실히 드러난다.” 이어서 그들은 그가 실천한 다음과 같은 “사려 깊고 소소한 일” 세 가지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템플스퀘어 몰몬 태버네클에서 열린 교회 대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어 들뜬 열두 살 난 한 소년이 앞자리에 앉기 위해 모임 장소에 일찍 도착했다. …… 모임 시작 직전에 모든 자리가 꽉 찼을 때, 한 안내원이 그 소년에게 늦게 도착한 미 상원 의원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 달라고 부탁했다. 소년은 순순히 그 말을 따랐고 실망하고 당황한 채로 눈물을 비추며 통로로 일어섰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소년을 발견하고는 그에게 [연단으로]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소년이 정황을 설명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안내원은 네게 그럴 권리가 없단다. 어찌 됐든, 여기 내 옆에 앉으렴.’ 그러고선 그는 교회 사도들 가운데 있는 자기 자리에 그 소년과 함께 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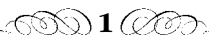
하루는 교회에서 2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나는 젊은이 무리를 접견하다가 캐나다 동부로 부름받은 한 시골 소년이 그의 눈에 띄었다. 그는 그 소년에게 물었다. ‘형제님, 그곳은 춥습니다. 두툼하고 따뜻한 외투는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는 그 젊은이를 길 건너 백화점으로 데려가 신열대에서 제일 따뜻한 코트를 사 주었다.

그가 대회에서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은 날, 한 여자아이가 모임 후에 군 중을 뚫고 나아와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 모습에 감동한 스미스 회장은 허리를 숙여 아이를 팔에 안았다. 그는 아이의 이름이 비너스 홉스이며 곧 네 살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너스는 생일 날 깜짝 놀랄 전화를 받았다. 조셉 필딩 스미스와 그의 아내가 아이에게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러 주기 위해 장거리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다.”<sup>1</sup>

이 같은 친절한 행동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삶의 방식 중 일부였다. 스미스 회장은 “상냥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궁핍한 사람을 돕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혼란에 빠진 사람에게 조언을 주며,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모로나이서 7:47]인 자애를 실천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sup>2</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하나님이 만인의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어 한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이해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들이 물려받은 것 중에 무한한 잠재력도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서로에게 친절하고 싶은 마음과 친밀감을 느껴서 생활 방식이 통째로 바뀌고 지상에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존엄하며 태생이 신성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영원한 가족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사실에 바탕을 둡니다.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제정하고 확립하셔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대로 발전하고 성장할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고 온전하고 영화로우신 존재이며, 그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이 지닌 특징과 성품을 담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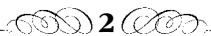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운명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학과 생활 방식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며, 두 번째 큰 계명이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가르침에서 매우 기초적인 부분입니다.(마태복음 22:37~39 참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 가족의 합당한 일원이 되기를 자연스럽게 갈망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 복음의 표준, 곧 참된 예배의 기본이 되는 모든 것과 일치하는 생활을 할 의무를 느낍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친교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이것 역시 참된 예배의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신성한 율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한 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복리를 진심으로 한결같이 염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들의 현재적 및 영적인 복리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듯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마태복음 5:16 참조]<sup>3</sup>



##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지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이것은 주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성찬을 들고, 세상의 죄를 위해 고통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들과 함께 모여 계셨습니다. 이 모임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조금 전에 그분은 같은 주제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3~34] ……

우리는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형제자매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우리에게 영감을 통해 주어진 모든 것에 충실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다른 많은 계명처럼 영원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계명이 존재하지 않고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이 계명은 늘 새롭습니다. 이 계명은 결코 바래지 않습니다. 참되기 때문입니다.<sup>4</sup>

저는 서로 사랑하고 믿으며 서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엄숙한 의무이며, 서로의 잘못과 결점을 눈감아 주고 그것들을 우리의 눈이나 세상 사람들의 눈 앞에 확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결점을 찾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종교의 모든 원리에 충실해야 하며 서로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질투하거나 화내서는 안 되며, 서로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감정을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됩니다. 대상에 관계없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감정이 하나님 자녀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우리는 서로 감정을 쌓는 대신, 용서하는 마음과 형제애와 자매애를 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결점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생에서 온전함에 이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신의 도움을 통해 단결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의 죄와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이를 행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진리에 대항하는 모든 힘과 모든 악을 정복하고 극복하며, 지면 위에 의를 이룩할 것입니다. 복음은 널리 퍼지고, 세상 사람들은 시온의 백성이 발하는 영향력을 느끼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여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sup>5</sup>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 주게 된다.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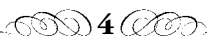
#### **우리는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큰 고통과 죽음을 겪으시면서 이러한 큰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우리는 타인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행한 사람, 진리를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영적인 어둠에 처한 사람, 궁핍한 사람, 학대받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월 엘 톰슨이란 시인의 말을 상고해 봅시다. …… 그의 시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궁핍한 사람 도왔나  
 슬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줬나  
 우리 실수하지 말고”[찬송가, 182장]<sup>6</sup>

우리의 사명은 모든 세상 사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평화와 희망과 행복과 현세적 및 영적인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 저는 모든 설득력을 동원하여 이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만방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나아가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십시오.<sup>7</sup>



####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주니라는 말이 한 필 있었습니다. 주니는 제가 본 가장 영민한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주니에게는 거의 인간에 가까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니를 헛간에 매어 둘 수 없었는데 녀석이 자기 마구간 문에 묶어 둔 줄을 계속 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구간의 반쪽짜리 문에 연결된 줄을 기둥 꼭대기에 둘러 놓았는데 주니는 코와 이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줄을 벗겨 내고는 마당으로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마당에는 구유를 채우는 데 쓰는 수도가 있었습니다. 주니는 이빨로 수도꼭지를 틀고 물이 흘러나오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니를 헛간에 가두어 두지 못한다고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주니는 절대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틀어 놓고 마당 주위나 잔디 위나 정원을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물 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일어나서 수도꼭지를 잠그고 주니를 다시 가두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저보다 더 영리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직접 주니가 나오지 못하게 가두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는 대충 기둥 꼭대기에 둘러 두던 끈을 기둥 둘레와 가로대 밑에 죄어 놓고는 “요 녀석, 이렇게 했는데도 나오는지 보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헛간을 나와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니가 우리 곁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녀석은 마당으로 가서 다시 물을 틀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니 주니가 우리 둘만큼 영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니가 마구간에서 나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니가 못된 말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니는 좋은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니를 팔거나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니에게는 이 자그마한 결점 하나를 가려 줄 장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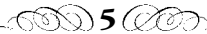
주니는 마구간을 빠져 나오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마차를 끌게 하기에  
 침직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면허를 가진 산과셨기 때문에 이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주로 한밤중에 어머니가 계곡 어딘가에 분만에  
 도우러 가서야 할 때면 저는 일어나서 등을 들고 마구간으로 가서 주니를  
 마차에 연결했습니다.

당시 저는 겨우 열 살, 열한 살 정도였기 때문에 말은 날씨에 관계없이  
 저와 어머니를 계곡 이곳저곳으로 데려다 줄 만큼 온순하면서도 튼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 아기들은 대부분 밤  
 에 태어나며 그 중 상당수가 한겨울에 태어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가끔 저는 마차에서 어머니를 기다렸는데 그럴 때면 착하고 늙은 주니  
 와 함께라는 사실이 참 좋았습니다. 주니와의 이런 경험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  
 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니는 고작 몇 가지 나쁜 습관을 지닌 훌륭한 말이  
 었습니다. 사람들도 매우 흡사합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모  
 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부모나 교사, 또는 와드나 스테이크 지도자, 친구, 형  
 제자매를 평가할 때 이 점을 기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들이 가진 한두 가지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돕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들의 장점을 보아야 한다는 이 교훈을 저는 언제나 명심해 왔습니다. ....

저는 어린 시절에 제 결점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다른 사  
 람을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sup>8</sup>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성스러운 율법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7~40)

달리 말해, 태초부터 우리 시대까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계시된 모든 것은 이 두 큰 계명에 국한되고 내재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성스러운 율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큰 계명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려 한다면 사악함, 질투, 야망, 탐욕, 유혈 및 온갖 종류의 죄는 지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며, 그러한 상태가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해를 정립하고 더욱 완벽한 형제애를 구현하리라는 것을 이해할 능력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

우리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복리를 염려하듯 이웃의 복리를 염려한다 할 수 있습니까?<sup>9</sup>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곧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 되는 계명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하면 미완성으로 남겨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sup>10</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사려 깊고 소소한 일”을 생각해 본다.(“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참조) 그와 유사한 친절한 생활 방식을 우리 삶에 정립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1편에 나오는 교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2편에 나오는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 중에서 인상 깊은 내용은 무엇인가? 이 권고를 따를 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3편 참조)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 주나라는 말에 관한 이야기를 되돌아본다.(4편 참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쁜 습관을 극복하도록 도우면서도 그들에게서 장점을 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 나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몇 가지 예를 보려면, 5편을 참조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모든 성스러운 율법과 조화를 이루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관련 성구

사도행전 17:28~29, 로마서 8:16~17, 요한1서 4:18~21, 모사이야서 2:17, 18:8~10, 모로나이서 7:45~48

###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이 장 소재목을 읽고 그들이나 그들 가족에게 의미 있는 편을 선택하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그 편에 나오는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과 장 끝에 있는 해당 질문을 공부하라고 한다. 그런 다음 반원들에게 배운 내용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 주

1. In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10–11.
2. S. Perry Lee, “Church Expresses Devotions to President Smith,” *Church News*, July 14, 1956, 2.
3.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4–5.
4. In Conference Report, Oct. 1920, 53–55.
5. In Conference Report, Apr. 1915, 119–20.
6. In Conference Report, Apr. 1968, 12.
7.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4.
8. “My Dear Young Fellow Workers,” *New Era*, Jan. 1971, 4–5.
9. In Conference Report, Apr. 1943, 12.
10. In Conference Report, Oct. 1920, 59.



1910년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 사도로 성임되고 얼마 후



## 세상에 복음을 전파합시다

“우리는 복음 열매를 맛보았고 그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토록 풍성하게 받은 축복과 영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에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서명이 담긴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와 그의 아내 루이는 놀라지 않았다. 교회 초기에는 기혼 남성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봉사하는 경우가 잦았다. 따라서 조셉과 루이는 결혼 1주년을 맞기 한 달 전쯤인 1899년 3월 17일에 이 편지를 받았을 때, 2년간 헤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슬프기도 했지만 이 기회를 신앙과 용기로 받아들였다.

스미스 장로는 집에서 약 7,600킬로미터 떨어진 영국에서 봉사했다. 그와 루이는 사랑과 간증이 듬뿍 담긴 편지를 수시로 주고받았다. 루이에게 쓴 선교 사업 초기 편지에서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적었다. “내가 부름받은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있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곳에 1분도 머물러있지 않을 거고, 애초에 집을 나서지도 않았을 거요. 하지만 나는 우리의 행복이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소.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 이 정도는 기쁘게 감수해야 하요. ……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소.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은 나를 돌보고 보호해 주실 거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없는 동안 당신과 함께하셔서 당신을 돌봐 주시고 모든 일에서 보호해 주실 거요.”<sup>1</sup>

스미스 장로와 동반자들은 주님께 헌신하는 종이였다. 루이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그는 자신과 동료 선교사들이 매달 1만 부가량의 소책자를 나눠 주고 4천여 가정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목격한 심각

한 현실도 이러한 보고에 덧붙였다. “우리가 전한 소책자 백 개당 한 개도 제대로 읽히지 않는 것 같소.”<sup>2</sup> 스미스 장로가 영국에 있는 동안 그곳에서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2년간 봉사하면서 “그가 개종으로 이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그는 단 한 번의 침례도 주지 못했다. 개종자 한 명에게 확인 의식을 해 준 게 전부였다.”<sup>3</sup> 그는 노력한 결실을 얼마 볼 수 없었지만, 자신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며,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있다는 믿음에서 위안을 받았다.

스미스 장로는 선교 사업 기간 중 2주가량을 다른 선교사 네 명과 함께 병원에서 보냈다. 이들 장로 다섯은 천연두에 걸려서 전염을 막기 위해 격리되었다. 비록 스미스 장로가 자신들의 입원 생활을 “감금”이라 표현하긴 했지만 그와 동반자들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병원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퇴원할 무렵에 스미스 장로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감금된 동안 우리를 보러 온 사람들과 간호사들과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과 복음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들에게 읽을 책을 주고 오기도 했다. 병원을 나올 때 우리는 찬송가 한두 곡을 불렀는데 우리가 한 여러 가지 일 중 특히 이 일은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우리가 떠날 때 사람들 눈에 눈물이 맺혔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엔 우리가 병원, 특히 간호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다. 자신들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며, 이제부터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변호해 주고 두둔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sup>4</sup>

스미스 장로는 1901년 6월에 선교 사업을 마쳤다. 70년 후 그는 교회 회장으로서 지역 대회를 감리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갔다. 그 무렵, 영국에서는 그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뿌렸던 씨앗이 싹을 틔우며 만발하고 있었다. 그는 모임에 온 수많은 영국 성도를 보고 기뻐했다.<sup>5</sup>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 시온의 스테이크, 주님께 헌납된 성전, 많은 와드와 스테이크 건물들, 그리고 선교 사업에서 거두고 있는 큰 성공, 이 모든 것이 영국에 교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는 영국에서 이루어 낸 이러한 성장이 전 세계에 임할 일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그는 복음이 만민을 위한 것이며 “교회는 온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질 것이고 인자가 재림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라도 세워질 것”<sup>6</sup>이라고 선포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1

**우리만이 충만한 회복된 복음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

무한한 지혜로, 또한 고대 선지자에게 주신 성약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은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영원한 복음을 충만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창세 이전에 천국 회의에서 제정되고 확립되었으며,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기 위해 우리 시대에 새로이 계시되었습니다. ……

기원전 육 세기경에 위대한 선지자 니파이는 그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 온 땅 위에 한 하나님과 한 목자가 계심이라.

또 그가 모든 국민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가 이르나니, ……”(니파이전서 13:41~42)

그 약속된 날이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나라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로 한 때입니다. 만방에는 진리에 응하고, 교회로 나아오고,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는 빛이 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

복음은 만인을 위한 것이며,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 진리대로 생활하며, 자신의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과 형제애의 영으로,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들을 통해 계시된 영생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모로나이서 10:32)고 권유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의 교회로 나아와 그분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우리는 복음 열매를 맛보았고 그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토록 풍성하게 받은 축복과 영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sup>7</sup>

저는 모든 교파와 당파와 종파에 선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선행으로 그들이 축복과 보상을 받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인간이 하늘 집에서 충분한 보상을 얻도록 준비시키는 충분한 율법과 의식을 갖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선하고 고결하며, 의롭고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닌 모든 선함을 보존하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참된 원리를 충실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나아와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다시 부어 주시는 더 많은 빛과 지식을 받아들이십시오.<sup>8</sup>

저는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주님이 지상에서 뜻하시는 바가 속히 이루어지며 주님이 그분의 충실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진리를 갈구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이 의로운 많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회복된 복음의 온전한 축복을 상속받기를 바랍니다.<sup>9</sup>

## 2

### **모든 교회 회원은 그들이 지닌 힘과 정력과 자원과 영향력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안수로써는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성별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받았거나 선교 사업을 하도록 개별적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척하는 일을 돕겠다고 약속한 교회 회원으로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 회원이 지닌 책임 중 일부입니다.<sup>10</sup>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교회 회원들에게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며, 그들이 지닌 힘과 정력과 수단을 동원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권고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성한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칠 줄 모르는 성실함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다른 자녀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sup>11</sup>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그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인도자가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최대한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치유하고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 그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의무이며, 특히 교회의 신권 정원회에 부여하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sup>12</sup>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계시를 통해 알려진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얻게 될 기회를 받아들인 적이 없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애쓴 적이 없는, 위대하고 정직한 영혼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부분에 관해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 주위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과 매일같이 어울리고 마주칩니다. 그들은 우리를 꽤 괜찮은 사람들로 여기지만 특이한 종교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종교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온의 스테이크에서 시행 중인 이 위대한 선교 사업은 복음을 들을 기회는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직하고 충실한 영혼들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sup>13</sup>

영원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 우리는 최고가 아닌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해서는 안 되며, 최고의 것은 곧 하나님 왕국의 충만함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모범을 보여서 누구도 우리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의의 길에서 돌아서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sup>14</sup>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거두는 성공이 성도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크게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행동과 행위에서 완벽히 하나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생활한다면, 이 마을에서, 실로 모든 지역 사회에 사는 후기 성도 [회중]이 온 세상에 뿜어내는 영향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앞에 나아가서 길을 마련해 줄 것이기에 더 많은 정직한 남성들과 여성들이 개종할 것입니다. …… 이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이는 복음에 대한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힘이자 능력이자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한다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책임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불러 갔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가리키며 “이 사람 또는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진리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빛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 빛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sup>15</sup>

주님은 만일 우리가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구하면,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하십니다.[교리와 성약 18:15 참조] 반면에 우리가 한 행위 때문에 한 영혼을 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의 슬픔과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sup>16</sup>

세상 어디에 있든지 후기 성도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며 빛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어둠 속에서 발하는 빛이며,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인도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 이 사업의 참됨과 거룩함을 증거하는 살아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복음을 실천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마태복음 5:16 참조]<sup>17</sup>

### 3

#### **교회에는 주의 심부름을 하러 나아갈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 받은 넓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습니다.[누가복음 10:2 참조] 또한 받은 희어져 추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4:4 참조] ……

우리 선교사들은 나아갑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힘은 없었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 선교사 수가 극히 적던 초창기에 대대적인 시도가 있긴 했지만, 그런 시도가 이 일이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은 멈출 수 없습니다. 약속된 대로 마지막 멸망이 악인들에게 임하기 전에 땅의 주민이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교회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올 기회를 받도록 이 사업은 전진해야 하고 또 전진할 것입니다. ……

대부분이 젊은 남성으로 구성된 이 선교사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훈련받지 않으며, 이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 위대하고 힘 있는 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sup>18</sup>

우리는 모든 합당하고 자격을 갖춘 젊은 후기 성도 남성이 주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나아와 땅의 민족들에게 진리의 증인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장년 선교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선교 사업에서 봉사할 견실하고 성숙한 장년 선교사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합당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자신의 제반사를 잘 정리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름을 받을 때 이에 응하여 그들의 의무를 기쁘게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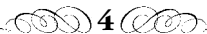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이 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자매 수도 많습니다. 비록 자매들에게는 형제의 경우와 같은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많은 자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젊은 자매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합당한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교 사업에서 용감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에게 선교 사업을 원조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돕기 위해 자원을 후히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교 사업에서 용감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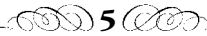
**우리는 구원의 교리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경전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영의 인도를 받는 대로 전파해야 한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주님은 그분의 성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요, ……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세상 끝까지 그리고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20, 23)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과 그분 교회에 속한 모든 “장로, 제사와 교사”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영의 지시를 받는 대로” “물론경과 성경[과 다른 경전]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리를 가르칠지니라.”(교리와 성약 42:11~13 참조)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오늘날과 같은 과학 시대의 사변적인 이론을 가르치도록 부름이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구원의 교리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경전에 제시되고 기록된 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표준 경전에 나오는 복음 원리를 영의 인도를 받는 대로 가르치라고 지시하신 다음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14)<sup>20</sup>



### **복음은 지상에 화평을 가져올 유일한 방편인 동시에 세상이 갈구하는 유일한 희망이다.**

이 세상에서 지상에 영원한 평화를 이룩할 가장 강력한 힘, 곧 인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다른 것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그에 관한 제 견해를 펼치며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인자는 성 신권의 권능이며 이 권능은 후기 성도가 갖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주님은 장로들을 세상에 보내어 백성에게 ‘회개하라. 시온으로 나아오라. 나의 복음을 믿으면 평화를 얻으리라.’라고 외치도록 명하셨습니다.

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권능, 즉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권능을 통해 평화가 임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의무는 이러한 것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평화의 기가 세워진 시온으로 나아오며, 주님의 집에서 주어지는 축복과 이곳에서 구현되는 성령의 영향력을 입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세상에 평화를 이룩할 위대한 힘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환영하며, 그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만한 것은 무엇이든 지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후기 성도가 단합하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 하나가 되며, 온 세상에 영생의 말씀을 전파한다면, 세상에 평화를 이룩하는 데 무엇보다 막강한 힘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저는 주님이 여러 단체를 활용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분의 일이 후기 성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께 봉사할 많은 사람을 교회 밖에서 부르셨으며, 그들에게 힘을 부여하시고 그분의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 하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상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진리를 전파하며 평화를 이룩할 힘이라는 인식을 잃지 맙시다. …… 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사명은 “너희는 회개하라. …… 이는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이니라.”[교리와 성약 33:10 참조]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의인이 모이고, 모든 사람이 경고받으며, 듣고자 하는 사람이 듣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도 들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은 듣지 아니할 영혼도 없고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으리라고 선포하셨으며[교리와 성약 1:2 참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장로가 한 것이든 다른 수단을 통한 것이든 앞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은 의 안에서 그분의 일을 서두르실 것이며, 그분의 진리를 세우고, 지상에 와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sup>21</sup>

우리는 교파나 당파나 종파와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존중하며,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를 통해 받은 더 많은 빛과 지식을 그들도 받아 회복된 복음이 가져온 위대한 축복을 우리와 함께 상속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은 지상에 화평을 가져오고 온 세상에 존재하는 잘못을 바로잡을 유일한 방편인 동시에 세상이 갈구하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sup>22</sup>

우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고, 침례의 물속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성약을 맺으며, 이 권능에 부름받고 성임 받은 사람들에게서 안수로써 성신을 받고 계명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는 것을 압니다.[교리와 성약 59:23 참조]<sup>23</sup>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세상의 질고를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화평과 현세적이고 영적인 풍요를 바라고 종국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회복된 복음 안에서, 그리고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교회와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sup>24</sup>

## 학습 및 교수 제안

### 질문

- 조셉 필딩 스미스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에 응한 태도를 생각해 본다.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참조) 그가 보여 준 모범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복음 열매”(1편)를 맛보는 축복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이 “열매”를 나눌 만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
- 2편에 나오는 스미스 회장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스미스 회장은 교회에는 “성숙한 장년 선교사”(3편)를 비롯한 전임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교 사업을 하도록 청소년을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4편 참조) 성신이 이러한 노력을 돕는 것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
- 5편에 나오는 가르침 중에 특히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내용은 무엇인가? “지상에 화평을 가져[올] …… 유일한 방법인 동시에 세상이 갈구하는 유일한 희망”을 나누는 것을 고려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 관련 성구

마태복음 24:14, 마가복음 16:15, 니파이전서 13:37, 니파이후서 2:6~8, 제3니파이 12:13~16, 교리와 성약 1:17~24, 4편, 50:13~14, 88:81, 133:57~58

##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이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소리 내어 읽는 동안 나머지 반원들에게 “특정한 원리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고 살펴볼 수 있도록 권유한다. 구절에 낯설거나 어려운 낱말이나 구가 포함된 경우, 구절을 읽기 전에 이에 대해 설명해 준다. 반원들 중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돌아가면서 읽는 대신 자원하는 사람이 읽게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56쪽, 번역 수정)

## 주

1. Joseph Fielding Smith to Louie Shurtliff Smith, in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114-15.
2. Joseph Fielding Smith to Louie Shurtliff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02.
3.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91 참조.
4. Journal of Joseph Fielding Smith, Apr. 30, 1901, Church History Library; punctuation and capitalization standardized.
5. Conference Report, British Area General Conference 1971, 85 참조.
6. In Conference Report, British Area General Conference 1971, 176.
7.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성도의 벗*, 1972년 5월호, 1~3쪽.
8. “A Witness and a Blessing,” *Ensign*, June 1971, 109-10.
9. “암흑으로부터”, *성도의 벗*, 1971년 10월호, 3쪽.
10. *Take Heed to Yourselve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1966), 27-28.
11.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5-6.
12. In Conference Report, Apr. 1944, 50;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쿱키 편, 전3권.(1954~1956), 제1권, 287쪽 참조.
13. In Conference Report, Apr. 1921, 42.
14. In Conference Report, Apr. 1923, 139.
15. In Conference Report, Oct. 1933, 62-63.
16. In Conference Report, Apr. 1951, 153.
17. In Conference Report, British Area General Conference 1971, 176.
18. In Conference Report, Apr. 1953, 19-20.
19.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7;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30쪽 참조.
20.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5.
21. In Conference Report, Oct. 1919, 89-90.
22. “영국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성도의 벗*, 1972년 2월호, 3쪽.
23. In Conference Report, Oct. 1970, 7.
24. “성도들과 온세상에 드리는 권고의 말씀”, *성도의 벗*, 1972년 12월호, 8쪽.



## 기도—계명이자 축복

“인생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기도의 영을 “우리 존재의 일부”<sup>1</sup>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또는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방식을 통해 이러한 원리에 관한 모범을 보였다.

첫 번째 아내 루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다음과 같은 애정 어린 청원을 일지에 적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드린 개인 기도를 엿볼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당신께 기도하오니 제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루이를 만나고, 루이와 재결합하며, 영원토록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해지고 당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에 저항하고 당신의 진리에 굳건할 힘을 얻도록 하늘의 일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고 당신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금쪽 같은 자녀를 잘 보살펴서 그들이 생애 동안 순결하고 흠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이 생을 마치면 우리를 당신의 해의 왕국에 데려가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속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sup>2</sup>

스미스 회장의 아들 조셉 이세는 스미스 회장과 함께 유타 동부를 여행하고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들었던, 아버지의 잊지 못할 기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강한 폭풍우에 에워싸였으며 길을 잘못 들어서” 인디언캐니언이란 곳에 이르렀다. “폭풍은 거세졌고 길은



“자녀에게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곧바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진창투성이에다 몹시 미끄러워서 위험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짙은 안개가 한 차선으로 된 흙길 옆으로 이어지는 깊은 협곡에 드리웠으며, 차에 타고 있던 어린 조셉 이세와 데이비드 이 스미스 박사는 자동차가 깊은 협곡 아래로 미끄러질까를 염려하여 차를 밀어 고정시키려고 애썼다. 바퀴가 진흙 속에서 헛돌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차가 멈춰섰다. …… 조셉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것을 회상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간구합시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며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고 위험한 협곡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갈 길을 마련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 그는 주님께 다음날 자신이 있어야 할 중요한 약속이 있으며 반드시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기적처럼 폭풍이 잦아들었고 바람이 불어와 마침내 그들이 고속도로로 되돌아갈 수 있을 만큼 도로를 말려 주었다. 그들이 저지대에 당도하자마자 다시 폭풍이 불어와서 몇 시간 동안 인근 교통이 마비되었다. 그들이 여러 시간을 헤맨 끝에 솔트레이크시티를 향해 프로보케니언을 타고 내려갈 때 교통순경이 그들을 불러 세우고는 어디서 오는 길인냐고 물었다. 그들이 인디언캐니언을 지나왔다고 말하자 순경은 이렇게 말했다. ‘그럴 리가요! 그 지역에 있는 다리가 몽땅 쓸려 내려갔다는 보고를 받은 참인데요.’ 놀랍게도 다음 날 신문 머리기사에는 그들이 빠져나온 지역에서 차량 200대가 발이 묶였다는 보도가 실렸다.”<sup>3</sup>

62년간 사도로 봉사하면서, 스미스 회장은 그가 전한 여러 설교에 교회 회원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하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곁들였다. 예를 들어, 교회 회장으로서 참석한 첫 번째 연차 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청원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어 온 땅에 있는 그분의 자녀에게 그들의 현세적이고 영적인 처지를 향상해 줄 위대하고도 영원한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sup>4</sup>

스미스 회장이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향한 그의 간증과 사랑의 깊이가 나타난다. 조셉 필딩 스미스가 교회 회장일 때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아흔을 넘어서도 ‘주님이 주신 성약과 의무를 지키며 끝까지 견디겠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sup>5</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1

#### 우리는 기도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명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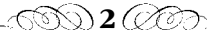
주님은 겸손한 기도로써 그분을 끊임없이 찾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으며 아버지께 자주 기도하시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주신 계명이기에 우리는 기도가 의로운 행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을 때에는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

자녀에게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곧바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자녀가 기도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 시절에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면 이 습관은 커서도 유지될 것이며, 진실로 주님을 찾고 그분이 주신 축복에 감사해 본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이 자신을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sup>6</sup>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그것이 주된 이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지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그분의 사업은 여전히 진척될 것입니다. ....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의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아시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서 그것들을 다룰 방법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그분의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오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좀 더 유익이 되며, 우리 자신을 강화하고 힘과 용기를 얻으며 주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겸손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 주고 생각을 키워 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 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오는 영감을 통해 생각에 일깨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며 충실함과 순종을 통해 그분 면전으로 돌아가기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분께 기도합니다.<sup>7</sup>

인생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망각의 장막을 드리우셔서 그분과, 우리가 전세에서 그분의 가족으로서 함께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그분과 다시 대화하도록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통신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멸의 시험을 받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지니고 배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영혼으로 그분 음성을 듣는지 보는 것입니다.<sup>8</sup>



## 기도해야 할 시기는 언제나이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가 그들(곧 시온의 부모)에게 주노니 - 기도해야 할 시기에 주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내 백성의 재판장 앞에서 기억될지이다.”[교리와 성약 68:33]

저는 우리가 이 편에 나오는 이 구절을 지나치게 읽은 적은 없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주님의 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기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누구도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제 저는 잠시 이 구절을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 기도해야 할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그림에서 엘마와 함께 묘사된 앰올레크는 백성에게  
 “[주님께] 부르짖어 자비를 구하라. 이는 그가 구원하시기에  
 능하심이라.”(엘마서 34:18)라고 권고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시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일을 끝내고 밤에 잠자리에 들러 할 때이며 그 외에는 기도해야 할 때가 없다고 생각하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나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훌륭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제 말을 증명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제 말에 근거 대기를 좋아하며, 제 말이 주님이 직접 하시거나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경에서 [앰올레크가] 가난한 조램인에게 하는 말을 읽습니다. 이들은 진리에서 떠났고 가난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으며, 거룩한 단이라 불리는 곳에 한 번에 한 사람만 올라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여겼고[엘마서 31:12~23 참조],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암울레크]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그에게 부르짖어 자비를 구하라. 이는 그가 구원하시기에 능하심이라. 참으로 스스로 겸손하고, 쉬지 말고 그에게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의 들에 있을 때, 참으로 너희의 모든 양 떼를 위해 그에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집에서, 참으로 너희의 모든 권속을 위해,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그에게 부르짖으라. 참으로 너희 원수들의 권력을 막아 주시도록 그에게 부르짖으라. 참으로 모든 의의 원수인 악마를 막아 주시도록 그에게 부르짖으라. 너희 밭의 작물을 위해 그에게 부르짖어, 그것들로 너희가 형통하게 하라. 너희 들판의 양 떼를 위해 부르짖어, 그것들로 증식하게 하라.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너희는 너희의 골방과 너희의 은밀한 장소에서 또 너희의 광야에서 너희의 영혼을 쏟아 내어야만 하느니라. 또한 너희가 주께 부르짖지 아니할 때는, 너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너희의 복리와, 또한 너희 주위에 있는 이들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그에게 기도하는 데 너희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라. 또 이제 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모두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만일 궁핍한 자와, 헐벗은 자를 물리치며,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곤궁에 처한 자들에게 너희의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이러한 일 중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되고, 너희에게 무익하며, 너희는 신앙을 부인하는 위선자와 같음이니라.”[엘마서 34:18~28]

저는 이것이 매우 탁월한 교리라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시기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 드리기 위해 이 구절을 읽어 드렸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기는 아침에 가족이 흠어지기 전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식탁에 모일 때이며, 가족이 돌아가며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해야 할 시기입니다. 상인이 기도해야 할 시기는 아침에 거래하는 곳에 가서 그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을 놓고서입니다. 목자가 기도해야 할 때는 양 떼와 함께 밖에 나가 그들을 돌볼 때입니다. 농부가 기도해야 할 때는 쟁기를 들고 밭에 나가고, 곡물을 심고, 추수할

때입니다. 제가 읽어 드린 경전 구절에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 모든 면에서 의로울 것입니다.<sup>9</sup>

---

3

---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우리는 입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행동과 말과 우리가 하기로 한 일에서 기도한 내용을 실천하고, 매일 주님께 간구하며 전해 드리는 생각과 일치하게 살아야 합니다.<sup>10</sup>

우리는 기도의 영을 지니고 있습니까? 기도의 영을 우리 존재의 일부로 삼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sup>11</sup>

---

4

---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혼을 쏟아 내어 감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땅의 주민이 오늘날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죄 중 하나는 통치하고 통제하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이라고 믿습니다.<sup>12</sup>

기도할 때 우리는 생명과 존재와 하나님 아들의 구속 희생과 구원의 복음과 조셉 스미스와 그를 통해 이루어진 위대한 회복 사업에 우리의 영혼을 쏟아 내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손길을 인식해야 하며 현세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에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sup>13</sup>

---

5

---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지닌 모든 의로운 소망에 관해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 정직, 모든 경건한 성품, 그분 사업의 승리와 성공, 그분의 성령의 인도, 그분 왕국에서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아내, 자녀, 음식, 처소와 의복, 사업과 관련된 문제 및 우리가 지닌 모든 의로운 소망에 관해 기도해야 합니다.<sup>14</sup>

저는 하늘 축복이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이 온 세상에 의와 진리를 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 주님의 종들에게서 나오는 진리와 빛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유념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의 만백성 가운데 주님의 목적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인 교회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강건하여지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소망이 마음속에서 커지며, 주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빌립보서 2:12, 골몬서 9:27 참조]

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모든 참된 원리를 지지하며, 자유와 정의의 대업을 진척하도록 인도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때에, 모든 사람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인도되어[요한복음 1:9, 교리와 성약 93:2 참조]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 즉 노소를 막론하고 슬퍼하는 사람,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 불행한 상황과 유해한 환경에 놓인 사람, 원조와 도움과 구제와 지혜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선하고 위대한 일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분의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같이, 저는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과 연민을 품고 있으며, 그들의 현세적이고 영적인 처지가 향상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분에게서 배우며 그분의 명에를 메어서 그들 마음이 쉼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명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11:29~30 참조]

저는 후기 성도와, 그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동참하려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기를 기도하며[교리와 성약 59:23 참조], 이 모든 것을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sup>15</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에는 스미스 회장이 드린 기도의 예가 네 가지 실려 있다. 각 예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식을 깊이 생각해 본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가?(1편 참조)
- 스미스 회장은 “기도해야 할 시기는 언제나”(2편)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는 권고를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 “기도한 내용을 실천[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3편 참조)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쏟아 내어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가?(4편 참조)
- 5편에 나오는 스미스 회장의 기도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본다. 다음 질문을 마음속으로 상고해 본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어떤 사안을 좀 더 자주 포함해야 할 것인가?

### 관련 성구

마태복음 7:7~8, 빌립보서 4:6, 데살로니가전서 5:17~18, 야고보서 1:5~6, 니파이후서 32:8~9, 앨마서 34:38~39, 제3니파이 18:18~21, 교리와 성약 10:5

### 교사를 위한 도움말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각 장 끝에 있는 질문을 사용한다. 반원들을 위해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보아도 좋다.”(이 책 vi쪽에서 발췌)

### 주

1. In Conference Report, Apr. 1918, 156.
2. In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162–63; italics in original.
3.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232–33.
4.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6.

5. 보이드 케이 패커, “성약”,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96쪽; 원본에 있는 기울임체 제거.
6.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3:83-85.
7. In Conference Report, Apr. 1968, 10; italics in original.
8.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Speaks on the New MIA Theme,” *New Era*, Sept. 1971, 40.
9. In Conference Report, Oct. 1919, 142-43.
10. In Conference Report, Oct. 1913, 73.
11. In Conference Report, Apr. 1918, 156.
12. In Conference Report, Oct. 1969, 110.
13.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Speaks on the New MIA Theme,” 40.
14.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Speaks on the New MIA Theme,” 40.
15.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149.



“주님은 우리가 현세적인 지식을 얻[기]를] ..... 바라십니다.”



## 개인적인 책임

“우리는 전 세계 회원들이 올바른 원리를  
배워서 자신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디 아서 헤이콧 형제는 교회 행정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건물 옆문을 막 여는 것을 보았다. 십이사도 정원회 비서로서 그 건물에 들어가야 했던 헤이콧 형제는 “한 번에 두세 계단씩 성금성금 올라가서 문이 닫히기 전에 발을 디밀고는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스미스 회장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기 위해 그를 따라잡으려고 다시 서둘렀다. 헤이콧 형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회장님이 여는 문 틈으로 천국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네요.’” 스미스 회장은 아무런 답이 없었고, 헤이콧 형제는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데 뭔가 실수했나 싶어 걱정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스미스 회장은 재미있어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 그럴 생각일랑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sup>1</sup>

스미스 회장은 그가 헤이콧 형제에게 전한 원리를 연설과 모범으로 거듭 가르쳤다. 그는 후기 성도가 복음이 주는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받도록 열심히 도와야 하지만 구원은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성도들에게 자립을 이룰 것과 현세적인 일에 있어서도 근면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말했다. “잠재력을 개발하고, 무엇보다도 자제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sup>2</sup>

조셉 필딩 스미스는 어려서부터 일하는 것을 배웠다. 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운 탓에 “그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성인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데

보냈다.” 실제로 그는 워낙 근면해서 “필요 이상으로 이른 나이에 우연찮게 어떤 일을 맡게 되었다. 남자아이 자존심에, 그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가족이 기르는 소 젖을 짜다. 이를 계기로 그는 이 일을 도맡게 되었다.”<sup>3</sup>

기꺼이 일하는 그의 태도는 그가 영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때도 계속되었다. 그의 아내 루이는 그가 영국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적어 보냈다. “당신이 오락거리를 즐기는 것보다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무척 사랑하고 믿어요. 당신은 그 나이 청년들 가운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 같아요.”<sup>4</sup>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복음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집으로 보낸 한 편지에서 그는 경전 구절을 암기하기 위해 그가 기울인 노력을 들려 주었다. “나는 하루종일 어떤 구절을 외우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해내지 못했소. 하지만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할 작정이요.”<sup>5</sup>

스미스 회장은 자신이 믿는 노동관을 자녀에게 전수했다. 그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잠자리에서 죽는다. 야망과 포부도 마찬가지다.”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긴 스미스 회장 부부는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집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데 힘을 보태게 했다. 한 아들은 이렇게 회상했다. “웬일인지 아버지는 우리가 [아침] 여섯 시 이후에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을 부도덕하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딱 한 번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제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sup>6</sup> 스미스 회장 역시 집안일을 도왔다. 루이와 잭 결혼했을 때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들의 첫 보금자리를 짓는 일에 참여했다. 수년에 걸쳐 그는 대부분 집수리를 도맡아 했고 부엌 일을 거들었으며 수확기에는 과일을 따서 병조림하는 일을 도왔다.<sup>7</sup>

스미스 회장을 따라 교회 행정 건물에 들어가려고 서둘렀던 헤이콧 형제는 훗날 스미스 회장을 포함한 교회 회장 다섯 명의 개인 비서가 되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그는 스미스 회장이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종종 스미스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면 선지자가 경전을 공부하거나 다른 책을 읽고 있었다고 전했다.<sup>8</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1

#### 주님은 우리가 현세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데 성실하기를 바라신다.

주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세기 3:19, 또한 모세서 4:25 참조] 또한 모든 시대에 걸쳐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부지런하며 충실하게 그분을 섬기고 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이 [유타] 계곡에서의 교회 초기 시절에 브리검 영 회장과 여러 형제는 근면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빈손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일해야 했고 근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급자족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근면하라는 권고가 즐기차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할 뿐 아니라 겸손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권고를 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게으르지 말라. 이는 게으른 자는 일꾼의 밥을 먹지도 말고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42:42]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게으른 자가 어떻게 근면한 사람의 노고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자들에게 게으르기를 중용하여 남성성을 말살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전적으로 반대하며, 그 나이가 얼마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강건하고 봉사할 능력이 된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는 자신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또 다른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가피하게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부양할지이다. 그리하면 그는 결단코

자기의 면류관을 잃지 아니하리니, 그는 교회 안에서 일할지이다. 각 사람은 모든 일에 부지런할지니, 게으른 자는 회개하고 자기의 길을 고치지 않는 한, 교회 안에서 자리를 갖지 못할지니라.”[교리와 성약 75:28~29]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날 교회에 주신 권고입니다. 이것은 단지 경작이나 수확이나 추수나 제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계를 꾸려 나가는 현세적인 면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인간은 근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sup>9</sup>

우리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백 년 가까이 장사하고 밭에 곡식을 심고 작물을 수확하며 과일을 거두고 집 안에서 지내고 필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며 우리가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를 쌓고 안락하게 생활하며 지상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사치품과 특권과 향락으로 둘러싸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시간을 들이면서도, 그 외 것은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축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습니다. 우리는 체온을 유지하고 몸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이 인생이란 여정을 보내는 동안 필요한 일시적인 축복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축복은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며 가져갈 수 있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이라 불리는 금은보배는 인간이 자신을 부양하고 지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이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sup>10</sup>

주님은 우리가 현세적인 지식을 얻어서 우리의 현세적인 면을 돌보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복음 메시지를 전 세계에 있는 그분의 자녀에게 전하기를 바라십니다.<sup>11</sup>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지상에서 의를 행하며, 사악함을 정복하여 우리의 발 아래 놓고, 죄와 우리 영혼의 대적을 정복하며, 주님의 영감과 그분이 보여 주신 그분의 권능으로 빈약하고 타락한 인간성이 지닌 불완전함과 약점을 극복하며, 나아가 지상에서 주님의 성도와 종이 되는 것입니다.<sup>12</sup>

---

## 2

---

###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의무에 대해 주님께 보고해야 할 책임을 진다.

우리는 신앙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나 교회 회장단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행동합니다. 십일조에 관해 저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율법을 지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의 제 행실과 교회의 여러 율법과 규율을 준수하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는 주님께 대해 책임이 있으며,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관해서도 언젠가 그분께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 회원 자격에 관해 교회에 답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요구하셨다고 이해한 바에 따라 제 의무를 다한다면 저는 양심에 하등의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 제 의무를 다했다는 자족감을 느껴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수궁할 것입니다. 제게, 이것은 저와 주님 사이의 문제이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를 지상에 보내어 그가 이루신 사명을 성취하게 하신 분은, 제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 실로 모든 세상 사람을 독생자와 마찬가지로 지상에 보내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등한시하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무시해서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서로에 대한 의무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주님의 것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키우기 위해 생각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영적인 면에서 번성할 수 없고, 주님에 관한 지식이나 지혜 면에서 발전할 수 없습니다.<sup>13</sup>

천성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잘못은 남 탓으로 돌리고, 흠족하고 유익한 성과는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달갑지 않은 실수를 책임지고 싶어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우리는 그 짐을 다른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짊어집시다.<sup>14</sup>

---

## 3

---

###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셨으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기를 바라신다.

선택의지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은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행동하고 선택하여,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 영생을 얻거나, 진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그 어떤 말로도 선행을 강제하[신] …… 적이 없습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리를 거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낄 주체가 되게 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지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강요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우리가 강요받고 강제된다면, 우리에게겐 구원도 없고, 의로움에 대한 보상도 없게 되며, 어느 누구도 불신앙으로 형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앞에 책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sup>15</sup>

조셉 스미스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후기 성도를 다스리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며 저들은 자신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회원들이 올바른 원리를 배워서 자신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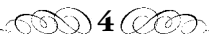
선택의지라는 위대한 은사, 즉 인간에게 주어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박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사는 모든 영혼에게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를 주는 영원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그 어떤 말로도 선행을 강제하거나 악행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지를 말살하고 인간에게 자기 뜻을 강요하려 한 것은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은사 없이는 만족스러운 상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어기고 모반하는 일까지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즉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범법자에게 온당한 형벌이 내려지려면, 구원과 영생은 강요 없는 자신의 의지와 개인적인 공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sup>17</sup>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며, 그리스도 속죄의 기초 위에, 모든 사람이 주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함을 믿습니다.[니파이후서 25:23, 몰몬서 9:27 참조]<sup>18</sup>

모든 경전에 공공연하게, 그리고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을 위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은 모두 해 주셨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그들이 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부활한 거룩한 사자 또는 천국에 속한 사자가 지상에 와서 인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을 대신해 행하는 것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제정된 하늘의 질서에 어긋납니다. ....

사람이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그분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주셔서 인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오산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이루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으라고 지시한 것과[사도행전 10장 참조]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낸 것은[사도행전 9:1~22 참조] 모두 이 영원한 율법과 맞아 떨어집니다. 니파이 판의 기록을 알고 있던 모로나이가 판을 번역하지 않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조셉 스미스에게 우림과 둠뎀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중요한 번역 사업을 완수하게 한 것도 이 율법에 순종한 본보기였습니다.<sup>19</sup>



### 우리가 받은 두 가지 큰 책임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책임이 있습니다. …… 첫째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지에서 저는 저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제 첫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차적인 의무이자 모든 교회 회원의 일차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sup>20</sup>

우리는 우선 자신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모든 복음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례 받고 해의 왕국의 결혼의 반찬에 들어가서 아버지 왕국의 충만함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가족과 자녀와 조상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sup>21</sup>

우리의 의무는 산 자뿐 아니라 죽은 자를 아울러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이 정직한 이스라엘 자녀를 집합하여 산 자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집에 가서 침례, 안수례, 확인 및 기타 주님이 요구하시는 여러 의식을 행하여 죽은 자를 구원하고 있습니다.<sup>22</sup>

전력을 다하고, 의무를 회피하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부름을 온 영혼을 다해 영화롭게 하려고 힘쓰고,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제 의무이자 제 형제 자매인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sup>23</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자녀에게 일을 가르치기 위해 스미스 회장이 기울인 노력 중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참조) 자녀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1편에 나오는 가르침은 자립에 관한 이해를 키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좀 더 자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 2편에 나오는 권고를 복습한다. “주님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 스미스 회장은 “우리는 전 세계 회원들이 올바른 원리를 배워서 자신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3편)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은 가족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이 가르침은 신권 정원화와 상호부조회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가?
-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할 때 “우선 자신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4편 참조)

### 관련 성구

빌립보서 2:12, 니파이후서 2:14~16, 25~30, 교리와 성약 58:26~28

###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이 생각을 나누고, 질문을 하고, 서로 가르치도록 격려하면서 이 책을 가르친다. 반원들은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배우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도록 준비된다.”(이 책 v~vi쪽에서 발췌)

### 주

1.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358–59.
2.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0.
3.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51–52.
4. Louie Shurtliff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13.
5. Joseph Fielding Smith, in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16.
6. In Joseph Fielding McConkie, “Joseph Fielding Smith,” in Leonard J. Arrington, ed. *The Presidents of the Church* (1986), 336–37; 또한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217–21 참조.
7.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2–13, 155–57;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1992), 202 참조.
8. Jay M. Todd, “A Day in the Life of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Ensign*, July 1972, 5 참조.
9. In Conference Report, Apr. 1945, 48–49.
10. “Salvation for the Dead,”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Apr. 1926, 154–55;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1권, 64~65쪽 참조.
11. Address at the Logan Utah Institute of Religion, Jan. 10, 1971, 2, Church History Library; unpublished manuscript.
12. In Conference Report, Oct. 1969, 108.

13. In Conference Report, Oct. 1969, 108.
14. In Conference Report, Oct. 1932, 88.
15. In Conference Report, Oct. 1949, 88.
16. In Conference Report, British Area General Conference 1971, 6;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284쪽 참조.
17.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2:20.
18. “암흑으로부터”, 성도의 빛, 1971년 10월호, 3쪽.
19. “Priesthood—Restoration of Divine Authority,” *Deseret News*, Sept. 2, 1933, Church section, 4;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78~79쪽 참조.
20. “The Duties of the Priesthood in Temple Work,”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an. 1939, 3;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129~130쪽 참조.
21. *Sealing Power and Salvation*, BYU Speeches of the Year (Jan. 12, 1971), 2.
22. In Conference Report, Oct. 1911, 120;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172쪽 참조.
23. In Conference Report, Apr. 1921, 41.



## 후기 성도 여성의 일: “이 영광스러운 대업에 쏟는 이타적인 헌신”

“우리 자매들이 베풀 수 있는 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1963년 10월 2일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은 훌륭한 자매님들이 이 영광스러운 대업에 쏟는 이타적인 헌신에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sup>1</sup>

스미스 회장은 수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그와 같이 공언했다. 그는 충실한 후기 성도 여성과 함께 봉사하며 평생을 보냈다. 이러한 봉사는 그가 열 살 무렵이던 18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당시 후기 성도 여성은 의학과 보건 분야를 공부하도록 독려받았다. 그의 어머니인 줄리나 엘 스미스는 이 권고에 따라 산파 훈련을 받았다. 그녀는 종종 한밤중에 그를 깨워서 출산이 임박한 가정으로 마차를 몰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방법으로 어머니와 봉사하면서 어린 조셉 필딩 스미스는 교회 여성이 지닌 저력과 연민의 모범을 보았다.<sup>2</sup> 스미스 자매는 훗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다.

스미스 회장은 상호부조회를 몹시 높이 샀으며 이 조직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sup>3</sup>이라고 말했다.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에설은 21년간 본부 상호부조회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했다. 에설과 함께 이 위원회에서 봉사했고 훗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을 역임한 에이미 브라운 라이먼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스미스 자매님은 제가 아는 여성 중에 가장 명석한 한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본부 상호부조회] 위원회에서 글 솜씨와 언변에 가장 뛰어난 분이었다고 생각해요.”<sup>4</sup> 이 부름에 봉사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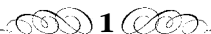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여성은 주님의 후기 사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에설은 현지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교육하기 위해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다. 그녀와 스미스 회장은 교회에서 받은 몇몇 임무에 함께 참석했으며 두 사람은 종종 회원들을 가르치기 위해 한 연단에 서기도 했다.<sup>5</sup>

에설이 세상을 떠난 후, 스미스 회장은 제시 에번스와 결혼했다. 제시는 스미스 회장이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여행할 때마다 거의 매번 동행했다. 그녀는 노래 실력이 출중해서 스미스 회장은 그들이 참석하는 모임마다 그녀가 노래해 주기를 바랐다. 제일회장단 비서로 봉사한 프랜시스 엠기븐스 장로는 이렇게 회고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감리하실 때면 그분은 언제나 자매님이 노래해 주기를 바라셨다. 회장님이 자매님 노랫소리에 결코 싫증을 내지 않으신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매님이 잘 훈련된 알토 목소리로 성스러운 찬송가를 부르실 때면 모임에 특별한 영이가미되어 듣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회장님 본인의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이 더욱 고취되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즐기차고 장난기 어린 재촉에 못 이겨, 훗날 회장님은 이따금 자매님과 듀엣으로 노래하며 자매님 목소리에 멋진 바리톤 음색을 보태셨다. 그럴 때면 두 분은 함께 피아노 의자에 앉으셨고 자매님은 피아노 반주를 맡으며 평소에 발휘하시던 풍부한 성량을 조절하여 남편의 노랫소리가 묻히지 않게 하셨다.”<sup>6</sup>

교회 회장으로서 조셉 필딩 스미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벨레스 스페포드 자매와 정기적으로 함께 일했다. 훗날 스페포드 자매는 스미스 회장과 함께 일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상냥함과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 주시던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늘 교회 여성들의 일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며, 그 점을 상호부조회 회장단에게 수차례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전해 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시야를 열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sup>7</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경전은 주님의 교회에서 책무를 수행한  
충실한 여성에 관해 말해 준다.**

값진 진주에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이 가져온 결과를 겪게 된 후 이브가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르침은 짧지만 놀라우리만치 의미심장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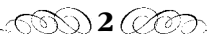
“……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하니라.”[모세서 5:11]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니라.”[모세서 5:12, 기울임체 추가]

우리는 여기서 아담뿐 아니라 이브가 자녀를 영생의 길로 가르치라는 계시와 계명을 받았다는 것을 배웁니다.<sup>8</sup>

우리는 이스라엘 [초기]에 여성이 활동적이었으며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읽습니다.[출애굽기 15:20, 사사기 4~5장 참조]<sup>9</sup>

신약전서에서 우리는 권고를 구하기도 하고 주기도 한 여러 충실한 여성에 관해 읽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보살폈습니다.[누가복음 8:1~3, 10:38~42 참조]<sup>10</sup>



## 후기에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1842년 3월 17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나부 교회에 있는 여러 자매와 만나 그들을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라는 명칭의 단체로 조직했습니다. …… 이 조직이 계시로 조직되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되다는 것은 여러 해에 걸쳐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오늘날 이 조직의 가치와 필요성은 누가 봐도 자명합니다.<sup>11</sup>

이 훌륭한 조직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완벽히 조직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 상호부조회가 없었다면 회복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조직에서 자매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봉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교회 복지에 너무나도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sup>12</sup>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는 존 테일러 장로의 도움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조직했습니다. 주님은 교회 여성이 단체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는]”[교리와 성약

6:6] 일을 돕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에게 주어진 이 일은 기본적으로 교회 여성에게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되고 발전을 안겨 주어 그들이 해의 왕국에서 처소를 얻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을 덜어 주는 자비로운 구제 사업에 도울 책임도 받았습니다. 이 단체가 조직된 이래로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부름에 온 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 사업에 충실하게 임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어떠한 임무도 무리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어떠한 책임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베푼 보살핌으로 수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습니다.<sup>13</sup>

상호부조회는 계속 성장하여 교회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조직을 보조 조직이라 부르며, 보조 조직은 돕는 조직을 의미하지만, 상호부조회는 그 이상입니다. 상호부조회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sup>14</sup>

저는 이 훌륭한 조직에 속한 자매들이 나부 시대부터 한결같이 발휘해 온 성실함과 충실함을 칭찬하고 싶습니다.<sup>15</sup>

주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베푼 봉사를 통해 하나님 왕국을 세우고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교회에는 신권 정원회의 봉사만큼이나 상호부조회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점을 다소 지나치게 역설한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자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매우 온당하며,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이 이 왕국을 세우고 강화하고 넓히며 우리 모두가 세워질 기초를 놓기 위해 하는 일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꼭 필요합니다.<sup>16</sup>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조직에 속한 회원입니다. 그 조직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며, 그 조직이 마련되고 운영되는 이유는 그 조직에 속한 충실한 회원들이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상호부조회는 영으로 오는 영감에 따라 창립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그 영으로 인도되어 왔으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의로움을 소망하는 우리 수많은 선한 자매들의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sup>17</sup>



상호부조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조직[이자]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에서 꼭 필요한 …… 조직”이다.

### 3

####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하나님 자녀의 현세적 및 영적 복리를 살피는 일을 돕는다.**

주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 자매들을 불러서 신권 정원회를 돕게 하셨습니다. 자매들이 품은 동정심과 상냥한 마음과 친절 때문에 주님은 [여성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궁핍한 사람과 고난당하는 사람을 돌보는 의무와 책임을 주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따라야 할 길을 알려 주셨으며 그들이 와드 감독의 지시 아래, 그와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유익과 현세적인 유익을 돌보며 봉사할 권세를 지니는 이 위대한 조직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매들에게 궁핍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원조하고 도우며,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장로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듯 자매들이 아픈 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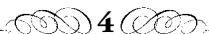
상호부조회가 띤 목적과 의무는 많습니다. …… 제 아버지인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직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세운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직은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보조 조직이자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아픈 사람, 궁핍한 사람의 어려움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어머니와 딸들의 영적인 복리와 구원을 살피고, 누구도 소홀히 여김받지 않게 하며,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불행과 재앙과 어둠의 권세와 악마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것도 이 조직이 띤 큰 임무 중 일부입니다. 자신과 교회에 있는 모든 여성 회원의 영적인 복리를 살피는 것은 상호부조회의 의무입니다.”<sup>19</sup>

상호부조회는 상호부조회 회원을 돌볼 뿐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시련이나 병고나 고난에 빠진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상호부조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그들은 불안정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우며 그들을 활동 상태로 돌이키고, 그들이 약점이나 죄나 부족함을 극복하도록 도우며,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매들이 베풀 수 있는 선에 한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저는 스테이크 회장들과 와드 감독들이 이 훌륭한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까다롭지만 자매들은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많은 봉사들이 있는데, 이런 봉사들을 자매들에게 요청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 모든 교회 회원이 완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남녀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진 책임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 자매들 중에는 약간의 현세적 도움과 영적인 도움 및 격려가 필요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훌륭한 조직에 속한 우리 자매들보다 그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업에서 자매들은 형제들 중에 불안정하고 무관심하고 무심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신권 형제들처럼, 불안정하고 무관심하고 무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하며 교회 의무에서 멀어지고 이를 등한시한 사람들을 다시 활동화시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sup>20</sup>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미약한 첫발을 내디디던 그때, 교회 회원이 소수에 불과하던 그때부터 우리는 이 단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이 조직이 궁핍한 사람과 아픈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며 이론 선을 제대로 헤아리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참된 정신에 따라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sup>21</sup>



#### **주님은 여성이 빛과 진리를 추구하여 해의 영광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를 바라신다.**

복음은 형제들만큼이나 자매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복음은 형제들만큼이나 자매들에게도 관심을 둡니다. 주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그것들이 참되고 신실하며, 그 안에 있는 예언들과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37]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 계명을 교회의 남성 회원에게만 국한하지 않으셨습니다. …… 우리 자매들이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형제들이 이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들 역시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죄 사함을 위한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받지 않고서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을 여성은 없습니다. ……

주님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교리와 성약 131:6 참조] 저는 그분이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포함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며, 교회 여성도 경전을 공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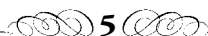
주님은 교회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그분의 신성한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는 것과 관련하여 그분이 계시해 주신 진리에 관한 변치 않는 간증을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신권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유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영혼을 위해 몰몬경을 밝히셨습니다.<sup>23</sup>

신권 소유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자매들이 진리에 관한 간증을 얻어 교회 교리를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승영을 얻으려면 지식과 신앙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33, 제3니파이 13:33]라고 말씀하셨을 때, 회중 가운데에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sup>24</sup>

장로들은 교회에서 침례 받은 모든 여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신의 은사를 주어서 그들이 모든 진리에 관해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님은 신성한 인도 없이 지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이 인도는 그들에게 진리를 밝혀 주고 빛과 어둠을 분별할 능력을 주어서 그들이 오늘날 세상에 극히 만연한 모든 거짓 교리와 이론과 관념을 이겨 내도록 강화해 주고 힘을 줄 것입니다.<sup>25</sup>

우리의 자매들은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아야 할 사안에 관해 예언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기도할 때, 그들은 기도에 응답받으리라고 믿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간절하고 참되다면 주님은 형제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듯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sup>26</sup>

주님은 충실하고 겸손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신의 은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음 진리를 공부하고 이해하며, 연구와 신앙으로, 그리고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준비하여 빛과 진리를 추구해서 해의 영광을 받을 자격을 갖추 것을 요구받습니다.<sup>27</sup>



### 신권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와 축복을 딸들에게도 주신다.

신권 축복이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축복은 …… 교회에 있는 모든 충실한 여성에게도 주어집니다. 이 훌륭한 자매들은 계명을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집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아들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와 축복을 딸들에게도 주십니다. 주



“주님은 교회 …… 여성에게 그분의 신성한 뜻을 이해하고 ……  
변치 않는 간증을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기 때문  
입니다.[고린도전서 11:11 참조]<sup>28</sup>

우리는 모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  
며 그의 씨가 수적인 면에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  
라고 말씀하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사라도 같은 약속을 받았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래라 하  
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  
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창세기 17:15~16]<sup>29</sup>

신권, 신권의 권능, 그리고 신권을 통해 받는 교회 의식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느니라.” ……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그것의 의식과 그 신권의 권세 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나니, 무릇 이것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음이니라.”[교리와 성약 84:19~22]

이 같은 내용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위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에 기뻐해야 합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위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신권과 신권 의식 덕분에 남녀를 막론한 모든 교회 회원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sup>30</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에 묘사된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하였는가?
- 스미스 회장은 하나님 왕국에서 중요한 책무를 수행한 여러 시대의 여성에 관해 말씀했다.(1편 참조) 여성이 가족과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기여하는 모습을 본 일을 떠올려 본다.
- 상호부조회가 수행하는 봉사가 “교회 복지에 ……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일은 무엇인가?(2편 참조)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신권 소유자들은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어떤 식으로 협력하는가?
- 상호부조회는 후기 성도 여성의 영적인 복리를 어떤 식으로 돌보는가?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어떤 식으로 그들 조직 밖에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몇 가지 예를 보려면, 3편을 참조한다.)
- 스미스 회장은 모든 여성과 남성이 복음 교리를 이해하고, 간증을 강화하며,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4편 참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스미스 회장은 신권 축복이 “교회에 있는 모든 충실한 여성에게도 주어 [진다]”(5편)라고 가르쳤다. 여성이 가정과 교회에서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왜 신권 축복이 필요한가? 여성이 영적인 은사를 받는 모습을 본 예를 떠올려 본다.

### 관련 성구

사도행전 5:12~14, 앨마서 32:22~23, 교리와 성약 46:8~9

### 교사를 위한 도움말

“한 공과를 끝낸 직후부터 다음 공과 준비를 시작한다. 아마도 여러분은 반원들과 시간을 함께한 바로 다음, 그들과 그들의 필요 사항 및 관심사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98쪽)

### 주

1. “Purpose of the Relief Society,”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64, 5.
2. 조셉 필딩 스미스가 산파로서 일한 어머니를 도운 경험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이 책 제24장을 참조한다.
3. “Mothers in Israel,” *Relief Society Magazine*, Dec. 1970, 883.
4. Amy Brown Lyman, in Joseph Fielding Smith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972), 243.
5.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1992), 261 참조.
6.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 281.
7. Belle S. Spafford, *Latter-day Prophet—Presidents I Have Known* (speech given at Brigham Young University, May 29, 1973), 4.
8.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3:66.
9. “The Relief Society Organized by Revelation,”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65, 5.
10. *Answers to Gospel Questions*, 3:67.
11. “Purpose of the Relief Society,” 4.
12. “The Relief Society Organized by Revelation,” 6.
13. “Relief Society Responsibilities,” *Relief Society Magazine*, Oct. 1954, 644.
14. “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59, 4.
15. “Relief Society Responsibilities,” *Relief Society Magazine*, Oct. 1954, 646.
16. “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6; punctuation standardized.
17. “Mothers in Israel,” 883.
18. “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5.
19. “Teaching the Gospel,”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66, 5; see also Joseph F. Smith, in Conference Report, Apr. 1906, 3.
20. “Relief Society Responsibilities,” *Relief Society Magazine*, Mar. 1954, 151–52.
21. “Purpose of the Relief Society,” 5.
22. “Obedience to the Truth,”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60, 6–7.
23. “Relief Society Responsibilities,” *Relief Society Magazine*, Oct. 1954, 644.
24. “Relief Society Responsibilities,” *Relief*

- Society Magazine*, Mar. 1954, 152.
25. "Relief Society Responsibilities," *Relief Society Magazine*, Oct. 1954, 644.
26. "Obedience to the Truth," 7.
27. *Answers to Gospel Questions*, 3:68-69.
28.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59.
29. "Mothers in Israel," 885.
30.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Deseret News*, Mar. 30, 1940, Church section, 4;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3권, 122~123쪽 참조.



구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자주 회자된다 해도 절대로 바래지 않[는다.]”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배어 들고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1971년 성탄 절기에 한 신문 기자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을 비롯한 그 가족과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다. 이 기자는 선지자의 삶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었고,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성탄절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에게 특별한 시간이다. 이날은 가족을 위한 날이자 무언가를 기억하는 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미스 회장에게 성탄절은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다.

‘성탄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아이들 같아요.’ 스미스 회장이 증손녀를 꼭 끌어당기며 말했다.

커다란 그림 성경을 무릎에 올린 채, 스미스 회장과 증손녀인 샤나 맥콩키(4세)와 세리 맥콩키(2세)는 아기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루는 부분으로 책을 넘겼다. 그들은 말구유 그림이 나오는 장에서 한참 머물렀다. 스미스 회장과 증손녀들 사이에 친밀감이 물씬 풍겼다. ……

스미스 회장은 성탄 절기에 많은 가족이 방문하는 것을 즐겼다. 그는 ‘성탄절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절기이지요.’라고 말했다.”<sup>1</sup>

스미스 회장이 기리는 성탄절 전통은 구주의 탄생, 성역, 속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교회 회원들이 보내온 성탄절 인사장에 그는 이렇게 답례했다. “성탄절 카드를 보내 주시는 분들의 사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카드가 사랑의 표시이며,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구주

의 탄생을 상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구주께서 주신 메시지는 화평과 친절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제 친구들께 바라는 바입니다.”<sup>2</sup>

1970년 12월에 스미스 회장은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을 위한 성탄절 메시지를 발행했다.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성탄 절기에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자비로 굽어살펴 주시고 그분의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사랑과 우정을 담아 인사를 전합니다.

죄악이 판치고 지상에 큰 환란이 있으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도, 주님이 여전히 지상의 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에 참되고 충실하면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적절한 시기에 그분 왕국에서 영생으로 보상해 주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

저는 우리가 이 성탄 절기에, 그리고 늘, 우리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두어 상상을 초월하는 평화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sup>3</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1

#### 우리 구속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의 아름다움은 그 소박함과 단순함에 있다.

우리 구속주의 탄생에 관한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만큼 아름답고, 겸손한 이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울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소박함과 단순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과 언변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자주 회자된다 해도 절대로 바래지 않을 텐데도, 인간의 가정에서는 이 이야기를 너무 뜨문뜨문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념할 만한 밤에 양 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선조의 신앙을 잃지 않았으며, 주님이 성역을 베푸시던 시대에 유대 통치자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그렇지 않았다면 천사들이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이야기를 되뇌어 봅시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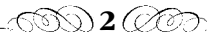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누가복음 2:8~16]

이 이야기를 읽고 그 소박함에 감동받지 않거나, 그 이야기에 담긴 단순한 진리에 감명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sup>4</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기의 몸으로 지상에 오셔서 은혜에 은혜를  
받아 충만함을 받으실 때까지 발전하셨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 하셨고, 더욱이 아담의 시대부터 역사하신 여호와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벳의 형제에게 영체로 나타나셨으며, 이 세상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셨다는 점도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sup>5</sup>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지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중 한 분이셨으며 이곳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신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도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지상 생활을 고려할 때, 그분은 여느 자녀처럼 시작하셔야 했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지식을 얻으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누가복음 2:52]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가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며]” “은혜에 은혜를 받[아], 드디어는 충만함을 받으[실 때까지]”[교리와 성약 93:13] 발전하셔야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

성전에서 선생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놀라게 하신 점으로 보아, 예수님이 12세 이전에 아버지의 사업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셨음은 분명합니다.[누가복음 2:46~49 참조] 이 지식은 계시나 천사의 방문이나 그 외 방법으로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상 생활을 고려할 때, 그분의 지식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어져야 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때때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 ....

“예수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자라나며 강건하여지고 주께서 장차 임할 그의 성역의 때를 알려 주시기를 기다리시더라. 또 그는 자기 부친 아래에

서 일하였고 다른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셨으며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나니, 이는 어느 누구도 그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음이다. 그리고 많은 해가 지난 후 그의 성역의 시간이 다가왔더라.”[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3:24~26]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는 주님의 말씀은 쉽게 말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그분에게 계시되었다는 뜻입니다.[요한복음 5:19~20 참조]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와 같은 조건으로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잊으셨고, 은혜에 은혜를 받아 성장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망각을 거치시는 것, 곧 이전의 지식을 잃으시는 것은 현재의 현재적 상태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않으셨으나, 육체를 받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에서의 모든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과 다른 땅들을 창조할 권능과 권세를 지닌 하나님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활하실 때까지 받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해, 그분은 부활한 육체를 받기까지 충만함을 받지 못하셨습니다.<sup>6</sup>

### 3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분께 부여된 분명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경전에서는 그분을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요한계시록 13:8]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아담의 범법으로 인간에게 임할 타락으로부터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절정의 시기에 오시기로 자청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지상의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분의 영의 아버지이자 모든 인간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영생을 받으셨고 어머니로부터 사망할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분의 모친은 필멸의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머니로부터 피를 받으셨고 아버지로부터 불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을 권능이 있으셨던 주님은 아담의 범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모든 창조물을 무덤에서 구속하실 수 있었습니다.<sup>7</sup>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는 첫째, 아담이 세상에 가져온 육체적 사망, 곧 필멸의 사망으로부터 모든 인간을 구속하고, 둘째,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필멸의 시험을 끝까지 견딜 때 모든 인간을 영적인 사망, 곧 주님 면전에서 쫓겨나는 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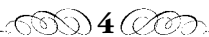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사이에 나신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피를 흘려 이루신 속죄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속하셨고 문을 여시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상에 평화가 임하고, 복음이 널리 퍼지며, 마지막에 진리가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간청하건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안겨 줄 일들을 함께합시다.[교리와 성약 59:23 참조]<sup>9</sup>



#### **우리는 구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삶에 배어 들고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성탄절 아침이] 되면, 어떤 이들은 겸손하게 간구하는 태도로 빛들의 아버지께 고개를 숙이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치른 고통을 통해 그들이 받은 축복을 감사할 것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경이로운 이야기를 읽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진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의 탄생이 의미하는 바는 안중에도 없이, 찬양하는 태도나 겸손한 기도로써가 아니라 불경스럽고 술에 전 파티로 이날을 기념할 것입니다. ……

그 누가 자신의 죄를 버리고 싶은 소망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절기에, 아직도 궁에 임금이 있다면 궁에 있는 임금이, 초라한 오두막에 사는 소작농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같이 엎드려서, 죄가 없으셨으나, 이웃의 유익을 위해 희생과 슬픔 속에 목숨을 바치셨으며,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피 흘리신 그분을 경배한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배어 들고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이 아기가 정말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명을 변함없이 믿으며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로 그분을 따르려 합니까? 만일 세상이 그 같이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면, 이토록 모든 세대에 걸쳐 다툼과 간악함으로 갈기갈기 찢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하나님의 아들을 따른다고 고백한 이들 가운데 입으로만 그분을 섬긴 경우는 너무나 잦은 반면, 그분이 주신 가르침을 따르려는 성실함을 바탕으로 그분을 진정하게 예배한 경우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 영화로운 밤에 천사는 목자들에게 자신이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다고 선포했지만[누가복음 2:8~10 참조] 지면 곳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식에 담긴 축복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버리고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삶을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

다시 한 번 저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아들을 참되게 예배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영혼이 그분 왕국에서 구원받도록 하십시오.<sup>10</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여러분 가정에서는 성탄절에 구주를 기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 스미스 회장의 성탄절 전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참조)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절대로 바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1편 참조)
-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서 지상에 오셨으며 필멸의 고난을 감당하신 점에 관한 스미스 회장의 말씀을 복습한다.(2편 참조) 구주께서 이 일을 기꺼이 하려 하셨다는 점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가?
- 구주의 탄생과 속죄의 연관성을 깊이 생각해 본다.(3편 참조) 부모는 자녀가 이 점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성탄절 전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어떻게 하면 구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삶에 배어 들고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는가?(4편 참조)

### 관련 성구

이사야 53장, 누가복음 1:26~35, 2장, 니파이전서 11:8~23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소단위 그룹 토론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과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준다.] 일반적으로 참여를 꺼리는 사람들도 큰 집단 앞에서의 발표가 아닌 소단위 그룹에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166쪽)

### 주

1. “A Big Christmas Hug from Pres. Smith,” *Church News*, Dec. 25, 1971, 3.
2. “A Big Christmas Hug from Pres. Smith,” 3.
3. “Christmas Greetings from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to the Members of the Church throughout the World,” *Church News*, Dec. 19, 1970, 3.
4.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1945), 279–80.
5. 개인 서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1권, 11쪽에서 발췌.
6. 개인 서한, *구원의 교리*, 제1권, 31~32쪽에서 발췌.
7.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2:134, 136.
8. “The Resurrection,” *Improvement Era*, Dec. 1942, 780–81;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228~229쪽 참조.
9. “Christmas Greetings,” 3.
10.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278–79, 281–82, 286; punctuation standardized.



##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는 그의 오시는 시각이 가까움이라”(교리와 성약 133:17)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한 후기 성도 무리 앞에서 그가 “세상의 종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날이 내 일이라면 저는 기쁠 것입니다.” 그런 공언에 한 여성은 남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어머나, 제발 내일이 아니길.”

훗날 이 경험을 들려주면서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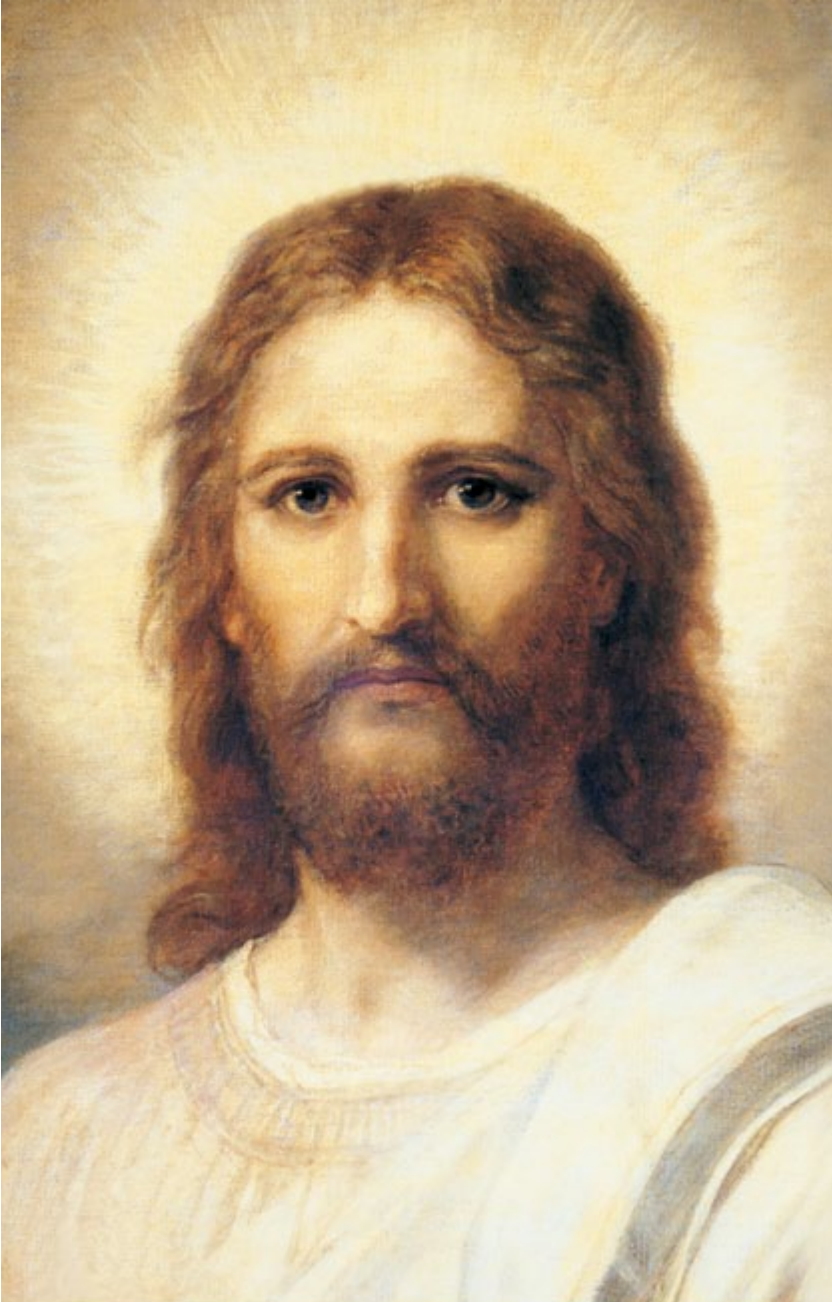
“여러분은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게 싫으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의 종말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 그때는 어떤 전쟁도 혼란도 시기도 거짓도 없을 것이며 간악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법을 배울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며, 그것이 바로 구주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때 그분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기도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누가복음 11:1~2 참조]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종말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저도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sup>1</sup>

설교와 저술에서 스미스 회장은 마지막 날과, 주님의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 조셉 스미스가 한 역할과, 영광 중에 지상에 오실 구주에 관한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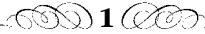
“우리는 평강의 왕이 오[실] …… 그날이 오기를 염원하나이다.”

예언을 자주 인용했다. 그는 이러한 예언에 관해 자신이 받은 강한 느낌을 유타 옥든 성전 헌납 기도에 담았다.

“하나님이시여,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대의 표적이 나타나는 마지막 날, 곧 당신께서 당신의 일을 서두르고 계시며 다음과 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마태복음 3:3 참조] ……

오 아버지시여, 우리는 평강의 왕이 오시고, 땅이 안식을 누리며, 지면에서 다시 의를 찾게 될 그날이 오기를 염원하나이다. 또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가 그날을 능히 당하고, 당신이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도록 지명하시고 이제와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있게 하신 그분과 함께 살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하옵소서.”<sup>2</sup>

##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



###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주의 큰 날, 곧 “새롭게 되는” 날에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그분의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평화로 통치하려고 지상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사도행전 3:19~20 참조]<sup>3</sup>

충실한 교회 회원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조직되었습니다. 신권이 인간에게 부여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여러 경륜의 시대가 계시되었으며 그들의 열쇠와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의 땅으로 집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나라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있고 그 안에서 산 자뿐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의식 사업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고 있으며 자녀들은 그들의 조상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겠다고 한 성약이 계시되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집합하여 그 성약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은 진척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표적입니다. ……

선지자의 말씀이 급속히 성취되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이 알아채지 못할 만큼 매우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요엘은 주님이 그분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요엘 2:28~29 참조] ……

마지막 날의 표적 중에는 지식이 증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의 예언이 담긴] 이 글을 봉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다니엘 1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사 이래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빨리 왕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식이 더해지지 않았습니까? 세계 역사상 이토록 방대한 지식이 사람들에게 부여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디모데후서 3:7) ……

우리 시대에 전쟁의 소문이 무성하지 않습니까?[교리와 성약 45:26 참조] 우리는 세상이 전에 본 적 없는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국가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으며 그 통치자들은 근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왕국이 전복되고 국가 간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온 땅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곳곳에서 지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45:33 참조] ……

그럼에도 세상은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표적과 조짐은 간과하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끝이 이르기까지 그의 오심을 늦추신다”(교리와 성약 45:26)라고 말합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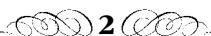
얼마 전에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말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네”라고 답했으며, 지금도 제 대답은 “네”입니다. 저는 주님이 오실 때를 압니다. 그분은 내일 오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인자가 올 때까지를 오늘이라 일컫나니, 진실로 오늘은 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를 위한 날이라. 무릇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그가 오는 때에 타지 아니하리라.”

십일조에 관해서는 더 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저 오늘 이후에는 불타는 일이 임하나니 - 이것은 주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라 -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일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는 다 그루터기 같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태워버리리니, 이는 내가 만군의 주가 됨이니라.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 두지 아니하라.”[교리와 성약 64:23~24]

그러기에 저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십시오.<sup>5</sup>



##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가르치신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마지막 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씨 뿌리는 자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는 사이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싹이 나기 시작하자 좋은 나아가 가라지를 뽑으려 했으나, 주인은 가라지를 없애다가 연약한 밀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추수 때에 밭에 나가서 밀을 모으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사를 작정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3:24~30, 36~43, 교리와 성약 86편 참조]<sup>6</sup>

가라지와 밀은 함께 자라며, 지금까지 같은 밭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밀은 모아지고, 가라지는 불사르기 위해 거두어질 때가 가까웠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분리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며, 마음에 회개가 필요하다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의로움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sup>7</sup>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교회 회원들을 일으켜 세우고 강화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이 필요합니다. 교회 회원 중에도 우리를 분열하려는 손길이 무수히 많은데, 가까운 미래에 밀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밀 아니면 가라지이며, 이편 아니면 저편에 속할 것입니다.<sup>8</sup>



“우리는 주의 큰 날, 곧 [주님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새롭게 되는’ 날에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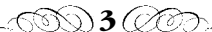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맞을 것입니다. 의로운 세상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지상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기록된 내용을 읽으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지구를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관한 한,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분의 나라, 곧 교회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거두어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3:41 참조]<sup>9</sup>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의인 가운데 권능으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지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러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의인들에게는 이날이 무섭지 않을 것이며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나,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날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마태복음 24장, 조셉 스미스—마태 1장 참조]<sup>10</sup>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책들이 펴질 것이고,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책 중에는 생명책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요한계시록 20:12 참조] 우리는 그 책의 내용을 볼 것이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든 …… 추방을 당하든 간에,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이 공의롭고 참되다는 것을 올바른 이해력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sup>11</sup>

저는 후기 성도들에게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굳건하고 충실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권을 존중하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산 자든 죽은 자든 간에 이 영광을 취하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sup>12</sup>



###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집에 질서를 세워야 한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은 구속주께서 복천년 통치를 예비하시기 위해 그분의 왕국을 의로움 가운데 세우려 다시 나타나시는 주의 큰 날

이 가까웠음을 보여 줍니다. 그동안 교회 회원들은 지식을 구하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날을 맞기 위해 연구와 신앙으로 자신을 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sup>13</sup>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와 시기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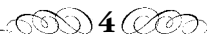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받아들일 만큼 의로워질 때 주님이 오시리라고 말하는 몇몇 장로를 볼 때면 마음에 거슬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로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실 채비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죄악의 잔이 가득 차면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롭지 않다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로 분류되어 지푸라기같이 지면에서 쓸려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악은 견디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sup>15</sup>

주님이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 주신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고 잠들어 버릴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42~44)

주님이 주신 이 경고에 귀 기울이고 집에 질서를 세우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sup>16</sup>



#### 후기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로운 통치를 시작하시고, 악인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지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려는데 그분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시지 않는다면 참으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으시고, 또 회개할 모든 사람을 위해 해를 피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시고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천사 모로나이가 어린 조셉 스미스를 방문했을 때, 그는 구주의 재림을 예언했다.(조셉 스미스-역사 1:36~41 참조)

노아는 홍수를 경고하도록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 홍수를 면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성취하도록 보내졌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졌습니다. 모든 경우, 부름은 하늘이 열리면서 왔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는 이스라

엘과 유다에 분산과 속박이 임하기 전에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경고에 귀 기울였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들을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경고받았으며, 해를 피할 방법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인류가 그와 동일한 혜택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sup>17</sup>

조셉 스미스는 충만한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인간에게 죄악과 범법에서 벗어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림을 예비하도록 보내졌습니다.<sup>18</sup>

요한은 밧모섬에서 후기에 있을 다음과 같은 시현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요한계시록 14:6]

이 약속에 대한 성취로, 조셉 스미스는, 이 대륙의 고대 선지자였으며 지금은 부활한 모로나이가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만유의 회복에 관해 알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하늘 가운데를 지나가며 외치게 하셨음이니,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는 그의 오시는 시각이 가깝음이라”[교리와 성약 133:17]

후기 성도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현대에 하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늘날 “천국 복음”이 증거로써 세상에 주어졌다고 믿습니다.[마태복음 24:14 참조]<sup>19</sup>

후기 성도들은 그들이 이 경전 말씀[마태복음 24:14]을 성취하도록 명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특이하고 유별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더욱이 이 후기에 제시된 것처럼, 우리는 온 백성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비로소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온 나라가 주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에게 보내진 사자들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sup>20</sup>

복음은 만인을 위한 것이며, 인자가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는 세계 방방 곡곡, 땅 끝까지 세워질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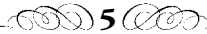
주님은 교회 안으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기 위해 두 번째로 손을 뻗으셨으며, 이번에는 모든 나라에 성도의 무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sup>21</sup>

유타 옥든 성전 헌납 기도에서:

아버지시여, 의로움이 이기고, 국가 통치자들이 선교 사업에 문호를 개방하며,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 가운데 정직하고 의로우며 선한 이들에게 활짝 열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진리가 널리 퍼지고 선교 사업이 진척되기를 기도하오며, 당신의 영원한 진리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있는 당신의 더 많은 자녀에게 선포할 능력과 인원과 방편을 구하나이다. ....

당신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당신 아들의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기를 바라옵나이다.<sup>22</sup>



### 북천년은 평화의 시대이자 주님 사업에서 봉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이 오실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에 지상에 평화가 임하고, 사람들에게 의가 미치며, 이 대륙에 200년 동안 가득했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기운이[제4니파이 1:1~22 참조] 다시 사람들 사이에 이룩되고 종국에 온 인류에게 미치며, 그리스도께서 천 년 동안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지상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sup>23</sup>

천 년 동안 이러한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가 꽃필 것이며 때가 되면 땅의 모든 주민이 교회의 우리 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sup>24</sup>

땅의 모든 주민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북천년 동안 복음은 훨씬 더 열정적으로, 더욱 큰 권능을 가지고 전파될 것입니다.<sup>25</sup>

북천년은 안식의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일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계름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더 나은 방법이 사용될 것입니다. 일상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을 것이며 왕국의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땅의 모든 지역에 세워질 성전에서 계속 바쁘게 일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매우 분주하게 일해서 성전은 거의 꽉 차 있을 것입니다.<sup>26</sup>

죽은 자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천 년 동안 지면 위에는 필멸의 인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천 년 동안 주님의 위대한 사업이 성전에서 행해질 것이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 죽은 자들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은 자신의 구원과 관련된 의식을 지상에서 아직 필멸의 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행해 주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sup>27</sup>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며, 이 사업은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엔다우먼트를 받고 인봉받을 때까지 복천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sup>28</sup>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그분이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나와 그리스도께서 복천년 동안 지상에 계시는 것 같이 지상에 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천 년 내내 이곳에 있지는 않을 것이나, 아직 필멸의 몸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것입니다. 이 부활한 성도들과 구주께서는 우리가 합당한 자의 구원에 꼭 필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침과 인도를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알려 주시며, 주님의 성전에서 행하는 사업에 관한 지식을 주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sup>29</sup>

주님께서서는 죽어서 부활한 자들이 복천년 동안 아직 필멸의 육신을 지닌 사람들에게 몸소 나타나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알려 줄 것이라고 그분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그들이 원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것들을 알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어떠한 영혼도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사업은 완전해질 것입니다.<sup>30</sup>

매일매일 저는 주님이 그분의 일을 서두르시기를 기도합니다. …… 저는 세상의 종말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통치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며, 신앙과 겸손과 기도의 영 안에서 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sup>31</sup>

## 학습 및 교수 제언

### 질문

-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1편에 언급된 예언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2편에서, 스미스 회장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관해 가르친 내용을 복습한다. 우리는 “밀”에 속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족과 그 밖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깨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집에 질서를 세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3편 참조)
-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기도했다. “당신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당신 아들의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기를 바라옵나이다.”(4편)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는가?
- 5편을 복습한다. 우리는 복천년에 일어날 일에 관한 지식을 통해 당장 어떤 식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 관련 성구

시편 102:16, 이사야 40:3~5, 야고보서 5:7~8, 교리와 성약 1:12, 39:20~21, 45:39, 56~59

### 교사를 위한 도움말

“영감받은 교사가 ‘저는 성신의 권능과, 제 영혼에 주어진 성령의 계시를 통해, 제가 가르친 교리가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할 때 복음 교육의 가장 높[은 힘이자], 확신과 개심을 가져오는 힘이 발휘됩니다.”(브루스 알 맥콩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43쪽)

## 주

1. *The Signs of the Times* (1943), 103-5.
2. "Ogden Temple Dedictory Prayer," *Ensign*, Mar. 1972, 10-11.
3.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1945), 302.
4. In Conference Report, Apr. 1966, 12-14.
5. In Conference Report, Apr. 1935, 98; 또한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1954~1956), 제3권, 1쪽 참조.
6. "Watch Therefore," *Deseret News*, Aug. 2, 1941, Church section, 2;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13쪽 참조.
7. In Conference Report, Apr. 1918, 156-57;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13~14쪽 참조.
8. "How to Teach the Gospel at Home," *Relief Society Magazine*, Dec. 1931, 688;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14쪽 참조.
9. In Conference Report, Apr. 1952, 28; italics in original.
10. "엘리아의 오심", 성도의 벗, 1972년 6월호, 3쪽.
11. "The Reign of Righteousness," *Deseret News*, Jan. 7, 1933, 7;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53쪽 참조.
12. In Conference Report, Apr. 1935, 99;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34쪽 참조.
13.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5:xii.
14. "A Warning Cry for Repentance," *Deseret News*, May 4, 1935, Church section, 6.
15. "A Warning Cry for Repentance," 8.
16. In Conference Report, Apr. 1966, 15.
17. "A Peculiar People: Modern Revelation—The Coming of Moroni," *Deseret News*, June 6, 1931, Church section, 8;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3~4쪽 참조.
18. "A Peculiar People: Prophecy Being Fulfilled," *Deseret News*, Sept. 19, 1931, Church section, 6.
19. "A Peculiar People: Modern Revelation—The Coming of Moroni," 8;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4쪽 참조.
20. "A Peculiar People: Prophecy Being Fulfilled," *Deseret News*, Nov. 7, 1931, Church section, 6;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5쪽 참조.
21. In Conference Report, British Area General Conference 1971, 176.
22. "Ogden Temple Dedictory Prayer," 9, 11.
23. "The Right to Rule," *Deseret News*, Feb. 6, 1932, Church section, 8.
24. "Priesthood—Dispensation of the Fulness of Times," *Deseret News*, Aug. 19, 1933, 4;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58쪽 참조.
25. "Churches on Earth During the Millennium," *Improvement Era*, Mar. 1955, 176;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57쪽 참조.
26. *The Way to Perfection* (1931), 323-24.
27. "The Reign of Righteousness," 7;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52쪽 참조.
28. In "Question Answered," *Deseret News*, Jan. 13, 1934, Church section, 8; 또한 구원의 교리, 제2권, 147쪽 참조.
29. "The Reign of Righteousness," 7;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52쪽 참조.
30. "Faith Leads to a Fulness of Truth and Righteousness,"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Oct. 1930, 154; italics removed; 또한 구원의 교리, 제3권, 58쪽 참조.
31. *The Signs of the Times*, 149.



## 시각 자료 목록

표지: 배경 © Artbeats.

5쪽: 물문경을 공부하는 어린 조셉 필딩 스미스, 마이클 티 맘. © Michael T. Malm.

36쪽: 나는 빛을 보았습니다 세부, 존 맥노튼. © Jon McNaughton.

41쪽: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세부, 월트 레인. © Intellectual Reserve, Inc.

48쪽: (그리스도) 어린 양을 구하라, 미네르바 테이체르트

53쪽: 마지막 만찬, 사이먼 듀이. © Simon Dewey.

58쪽: 사진의 세부 © Corbis. 복사나 다운로드, 배부 금지.

61쪽: 에덴 동산을 떠남, 조셉 브리키. © 1998 Joseph Brickey.

66쪽: 겻세마네의 그리스도 세부,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Inc. 제공.

94쪽: 성찬을 제정하시는 예수님 세부, 게리 이 스미스. © 1982 Gary E. Smith.

104쪽: 강 옆에 서 있는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 테어도어 에스 고르카. © 1996 Intellectual Reserve, Inc.

109쪽: 첫번째 시현 세부, 텔 파슨. © 1987 Intellectual Reserve, Inc.

112쪽: 조셉과 하이럼의 순교, 게리 이 스미스. © 1984 Intellectual Reserve, Inc.

128쪽: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금판을 보여주는 천사, 윌리엄 엘 모건. © 1988 William L. Maughan.

132쪽: 물문경을 보는 여덟 증인, 해롤드 티 (데일) 킬번. © Dale Kilbourn.

143쪽: 해변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 세부, 제임스 티숏.

152쪽: 뿔기세텍 신권 회복, 미네르바 테이체르트,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156쪽: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난 엘리야, 대니얼 에이 루이스. © 2007 Daniel A. Lewis.

172쪽: 키에프에서의 침례 세부, 미콜라 크리사첸코.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182쪽: 성신을 부여하는 바울 세부, 마이클 티 맘. © 2006 Michael T. Malm.

228쪽: 주의 기도 세부, 제임스 티숏

245쪽: 지혜의 말씀이 계시됨 세부, 케네스 에이 코벳. © Kenneth A. Corbett.

252쪽: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월터 레인. © Intellectual Reserve, Inc.

262쪽: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 및 자료 보관소 제공

280쪽: 감옥에 있는 엘마와 앰올레크 세부, 게리 엘 캅. © Gary L. Kapp.

310쪽: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부, 월터 레인. © Intellectual Reserve, Inc.

314쪽: 성전에 계신 그리스도,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Inc.  
제공.  
320쪽: 그리스도의 형상 세부.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Inc.  
제공.  
324쪽: 재림, 해리 앤더슨. © Intellectual

Reserve, Inc.  
327쪽: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다, 톰 로벨. © 2003 Intellectual  
Reserve, Inc.

# 색인

## ㄱ

가정. 가족; 가정의 밤; 결혼; 부모 참조

가정의 밤, 211

또한 가족; 부모 참조

가족 역사

가족 조직이 세대를 이어 완전하도록

도움, 224~226

마음을 조상에게 돌이킴, 215, 217~218

사랑이 담긴 수고임, 223~224

또한 엘리야; 인봉 권능 참조

가족

-과 승영, 68~69

-을 강화하는 방법, 75~76, 79~80

또한 가족 역사 가정의 밤 결혼 부모

인봉 권능 참조

영원히 건디기 위해 주께서 제정하심,

77~79

현세와 영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임, 29, 75~76

개인의 책임, 287~294

결혼

-에 대한 충실함은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줌, 196~197

-의 성스러운 본질, 195

남편과 아내가 함께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더욱 감미로워짐,

199~201

복음 계획에서 영원히 건딤, 194~196

어린이와 청소년을 -을 위해 준비시킴,

198~199

해의 왕국의 -은 모든 충실한 사람에게

가능함, 197~198

해의 왕국의 -은 복음에서 최고의

의식임, 194

또한 가족; 부모; 인봉 권능 참조

경고

-의 음성을 높이는 조셉 필딩 스미스의

사명, 18, 83~84, 229

-의 음성을 높이는 후기 성도의 책임,

90~91

계명

-을 어기면 축복을 잃게 됨, 232~233

-을 지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냄, 231~232

-을 지키면 큰 축복을 받음, 65~67, 69,

234~237

고든 비 힝클리, 1

교회 회장

교회를 벗어나게 인도하지 않음, 159

온 교회를 위한 신권 열쇠를 갖고 있음,

157

구원

개인적 -을 추구함, 294

다른 사람이 -을 추구하도록 도움, 294

또한 구원의 계획 참조

구원의 계획

-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44, 52,

62~68, 107

가족이 중심에 있음, 68~69

전세의 영의 세계에서 기쁨으로 받음,

60

창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심, 60

타락이 포함됨, 61

근면, 일 참조

기도

- 를 항상 함, 279~281
- 에서 의로운 소망을 간구함, 282~283
- 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의 모범, 275, 277, 282~283
- 와 조화를 이루며 생활함, 281~282
- 할 때 감사를 표현함, 282
- 복음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함, 148
-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함, 278~279

끝까지 견딤, 1, 65, 69, 277

## ㄷ

다른 종교, -에 대한 존중심, 272~273

## ㄹ

머시 톰슨, 105

모범, 209, 241~242, 249

물몬경

- 에 대한 간증을 얻음, 134~136
- 에 대한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개인적 간증, 127, 129, 136
- 에 복음이 담겨 있음, 129~130
- 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함, 129~130
- 의 세 증인과 여덟 증인, 127~135
- 물몬경에 대한 개인 학습, 135~136
- 조셉 필딩 스미스가 소년 시절에 -을 읽음, 4~5, 139

## ㅂ

배도, 118~119

배움

- 교회 지도자에게서 -, 144~145
- 많은 분야에서 -을 추구함, 141~142
- 복음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함,

141~143

성구에서 -, 134~136, 143~144, 148

성신에게서 오는 인도를 통한 -,

145~146

연구와 신앙, 순종을 통한 -, 145~146

의로운 생활을 통해 커짐, 146~149

진리를 배우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함,

142~143

보이드 케이 패커, 18~19, 28

복음

-의 충만함은 회복된 교회에만 있음,

265~266

가족에 중심을 둬, 76

간단명료하게 전파해야 함, 271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 125, 265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 59, 271~273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됨, 110~11,

265

복천년. 329~330

봉사, 257~258

부모

가정의 밤을 가짐, 211

의로운 -의 모범, 209

자녀가 진리에 대해 간증을 갖고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시킴, 212

자녀가 커서 부모가 되도록 준비시킴,

212~213

자녀들이 어릴 때 가르침, 210

자녀들이 역경을 견디도록 도와줌,

205~206

자녀에게 경전을 소개함, 210~211

자녀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침, 210

자녀에게 순결하고 유덕하도록 가르침,

211~212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의 책임,

205~207

책임에 대해 교회의 도움을 받음,

207~208

또한 가족; 가정의 밤; 결혼 참조

부활, 67~68

불경스러움, 246

## ㅅ

### 사랑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하고 인정함,  
258~259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  
-이 더 커짐, 254~256

봉사를 통해 표현됨, 257~258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선한 것을  
보는 것이 포함됨, 256

조셉 필딩 스미스는 자신의 애마였던  
주니에게서 -을 배움, 258~259

주님과 타인을 위한 -은 성스러운 모든  
율법과 조화를 이룸, 259~260

후기 성도 사이에서의 -, 255~257

### 상호부조회

-의 조직, 300

-의 현세적 및 영적 목적, 302~304

교회 사업에서 꼭 필요함, 300~301

또한 여성 참조

### 선교 사업

-과 복음 축복의 충만함을 나눔,  
265~266

-에 참여하는 후기 성도의 책임,  
266~269

간단명료하게 영으로 행해져야 함, 271  
더 많은 선교사가 교회에 필요함,  
269~270

소망과 평화를 세상에 가져다줌,  
271~273

전임 선교사 시절의 조셉 필딩 스미스,  
7~12, 263~265

선택의지, 292~294

### 성신

-의 사명, 183~184

각 사람의 영에 말하는 -의 권능,  
183~184

거룩하지 않은 성전에는 거하지 않음,  
188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나타냄,  
145~146, 184

조셉 필딩 스미스는 가족 내에서 -을  
통해 인도를 받음, 181, 183

### 성신의 은사

-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함, 186~188

-와 구원의 계획, 65

개인 생활을 인도하는 계시로 이끌,  
188~189

성신을 한결같이 동반할 수 있게 해줌,  
185~188

안수례에 의한 -, 185

### 성전 사업

가족 조직이 세대를 이어 완전하도록  
도움, 224~226

마음을 조상에게 돌이킴, 215, 217,  
218, 221

사랑의 수고임, 223~224

또한 엘리야; 가족 역사; 인봉 권능  
참조

성전 헌납, 개인적인 헌납의 표현, 217

### 성찬

-에 참여하여 맺는 성약, 100~102

-을 취하라는 계명, 96~97

성스러운 의식임, 96

예수 그리스도께서 -을 소개함, 95~96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함,  
97~100

참여할 때의 태도, 100~102

성찬식 모임, 95

성탄절, 311~312, 316~317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세상, 현재, 속세

-을 버림, 242~249

세상적인 사람들의 외견상 성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답변함, 247~248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음, 248

또한 세상, 현재, 속세 참조

순결, -의 법, 211~212, 246~247

순종, 계명 참조

시련, 유익을 가져다줌, 248

신권 열쇠

-를 지닌 사람을 존중함, 151, 153, 157~159

온 교회를 위한 -는 교회 회장이 갖고 있음, 157

정의, 153~154

하늘에서 온 사자가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함, 154~157

신권

- 부름을 영화롭게 함, 164~167, 169

-의 맹세와 성약, 164~165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의 축복, 163, 169, 305~307

예수 그리스도는 -의 위대한 원형임, 168

합당한 - 소유자에게 주어진 약속, 168

신앙

-과 구원의 계획, 65

-으로 생활함, 86~87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임, 84~85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 38~39, 84~85

하나님의 특성을 이해해야 함, 38~39

행위를 의미함, 85~87

회개와 결합하여 용서에 이룸, 83

십이사도 정원회, -의 권고, 159

## ㅇ

아담과 이브의 타락

구원의 계획에서 꼭 필요함, 61

깊은 구덩이로 떨어진 사람에 비유됨, 64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극복됨, 44, 62~64

안식일, 244

언어, -에서의 경건함, 246

에셀 레이놀즈 스미스(두 번째 아내), 14~15, 19~21, 73~74, 191, 193, 297, 299

에즈라 태프트 벤슨, 27

엘리야

-의 영, 215, 217

인봉 권능을 회복함, 217~219

또한 가족 역사; 인봉 권능; 성전 사업 참조

여성

-에게 주어지는 신권의 축복, 305~307

주님의 왕국에서 꼭 필요한 -의 일, 299~301

경전에 있는 봉사에 대한 -의 모범, 299~300

빛과 진리를 추구해야 함, 304~305

또한 상호부조회 참조

역경, 유익을 가져옴, 248

예배

-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 55

-에서 최고의 행동은 계명을 지키는 것임, 231, 235

성찬식 동안 -의 영, 97, 102

안식일 -, 244

하나님에 대한 -는 평안으로 이어짐,

- 하나님을 -하려면 그분의 특성을 이해해야 함, 38~39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안에서의 사랑은 세상에 대해 모범이 됨, 255~257
  - 회원이 될 때의 특권, 120
  - 에서의 봉사는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봉사에 대해 감사를 나타냄, 122~123
  - 의 보조 조직, 121
  - 개인과 가족이 기쁨과 영생을 얻도록 돕기 위해 조직됨, 121
  -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도록 도움, 207~208
  - 수 세기 동안의 배도가 끝난 뒤 -의 회복, 118~119
  - 예수 그리스도께서 -를 인도함, 119~120
  - 전 세계에 뻗어나갈 것임, 123~124
  -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임, 119~120
- 예수 그리스도
- 에 대한 간증에 계속 참됨, 53~55
  - 에 대한 간증을 얻음, 54
  - 에 대한 조셉 필딩 스미스의 사랑, 49~50
  - 에 대한 후기 성도의 믿음, 50~52
  - 와 조셉 스미스, 107~108
  - 을 믿는 신앙을 행사함, 84~85
  - 의 모범을 따름, 55~56, 168, 237
  - 의 속죄, 44, 52, 62~68, 97~100, 107, 315~316
  - 의 아들과 딸이 됨, 52~53
  - 의 유년 및 청소년 시절, 313~315
  - 의 재림, 319, 321~323, 325~329
  - 의 탄생, 52, 312~317
  - 갯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의 고난, 62~64, 97~100
  - 교회를 이끄는, 119~120
  - 구원의 계획에서 -의 역할, 44~45, 52, 62~68, 107
  - 모든 것은 그분에게 집중되어 모여 있음, 51
  - 성찬을 소개함, 95~96
  - 성찬을 통해 -을 기억함, 97~102
  - 성탄절기에 -을 기억함, 311~312, 316~317
  - 신권 봉사의 위대한 원형임, 168
  - 이 경륜의 시대에서 -, 53~54
  - 죄에서 구원을 가져다 줌, 62~65
  -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발전함, 313~315
  - 타락에서 구원을 가져다 줌, 62~65
  - 하나님의 독생자임, 50~51
  -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참조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 에 대한 감사, 64
  - 을 통한 구원, 62~65, 315~316
  - 을 통한 부활, 67~68, 107
  - 갯세마네와 십자가에서 -, 64, 97~100
  - 깊은 구덩이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과 비교됨, 64
  - 성찬을 통해 -을 기억함, 97~100
  - 성탄절기에 -을 기억함, 312, 316~317
  -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 때에 세상이 깨끗이 되어야 함, 248, 325
  - 시의 심판, 323, 325
  - 에 대비함, 325~329
  - 이 가까움, 321~223
- 율법
- 에 대한 순종이 구원에 필요함, 65
  - 우주와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림, 230~231

증인의 법, 130~132  
 의무, -에 대한 개인적 보고 책임, 291  
 인봉 권능  
 -과 죽은 자를 위한 의식, 221~223  
 성도들이 충만한 구원을 받도록  
 준비시킴, 220~221  
 엘리야를 통해 회복됨, 217~219  
 파멸에서 지구를 구함, 219  
 또한 엘리야; 가족 역사; 성전 사업  
 참조  
 인생, -의 목적, 66~67  
 일  
 -의 가치, 287~290  
 구원을 위한 일과 사업, 292~294

## 스

정숙함, 211~212, 246~247  
 제시 에번스 스미스(세 번째 아내),  
 21~23, 30~31, 193, 299  
 제일회장단, -이 주는 권고, 159  
 조셉 스미스  
 -에 대한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개인적인  
 간증, 106  
 -와 예수 그리스도, 107~108  
 -을 통해 복음이 회복됨, 108~111  
 -을 통해 신권 열쇠가 회복됨, 151,  
 154~157  
 -의 사명에 대해 간증을 얻음, 106  
 -의 순교, 3, 113~114  
 -의 첫번째 시현, 37~38, 108~109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자, 108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선두에 서도록  
 부름받음, 108~110  
 형 하이럼과 함께함, 111~113  
 조셉 에프 스미스(부친), 1, 3, 106, 139,  
 166, 203, 303

조셉 필딩 스미스  
 -에 대한 감사와 찬사, 26~27, 30,  
 31~32  
 -의 개인적인 간증, 106  
 -의 사망, 31  
 -의 어린 시절, 3~5  
 -의 유산, 1, 3, 105, 113~114  
 -의 자비로운 본성, 18~19, 84  
 -의 침례, 171  
 -의 탄생, 1  
 가족 역사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설명할 수 없는 계보학자와  
 이야기함, 215, 217  
 가족과 성탄 절기를 보냄, 311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함, 29, 75~76  
 관리 의무에서 아버지를 도움, 13  
 교회 봉사에 대해 개인적인 이유를  
 설명함, 118  
 교회 역사가, 17, 127  
 교회 회장으로 지지됨, 27~30  
 교회 회장이 되어 영국으로 돌아감,  
 263~264  
 교회에서 위대한 여성들 곁에서  
 봉사함, 297, 299  
 교회의 많은 직책에서 봉사함, 13,  
 117~118, 161, 163  
 군대에 있는 의로운 후기 성도들의  
 모범을 칭찬함, 241~242  
 군중 속에 있는 어린 소녀에게 주목함,  
 254  
 궁핍한 선교사에게 겹옷을 줌, 253  
 끝까지 충실하기 위한 힘을 위해  
 기도함, 1, 277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19~20, 73~75,  
 191, 193~194, 205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모임 장소로  
 걸어감, 118  
 단호함과 용서로 대표되는 -의 성격,  
 18~19

- 데이비드 휘트머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손으로 쓴 간증을 읽음, 127
- 둘째 아내 에설의 죽음을 애도함, 21,  
193
- 디 아서 헤이콧과 권고를 나눔, 287
- 루이 셔틀리프 스미스(첫 번째 아내),  
6~14, 191
- 루이 셔틀리프와 결혼함, 6~7, 14, 191
-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 282~283
- 복음을 부지런히 공부함, 4~5, 139, 141
- 부모에게서 복음을 배움, 203, 205
- 부친의 자리에서 헌납 기도를 드림,  
13~14
-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의 사명, 18, 83~84,  
229
- 사망 시에 평안을 찾음, 14, 21, 25,  
30~31, 59, 191, 193~194, 241
- 선교사들에게 차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자비를 보임, 18~19
- 설교 중에 공개적으로 기도함, 277
-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함, 312
- 세상의 종말을 위해 기도함, 319, 321
- 셋째 아내 제시의 죽음을 애도함,  
30~31, 193
- 신권 열쇠를 존중함, 151, 153
-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음, 15~18, 117
-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함, 15~19,  
23~27, 117~118
- 아내 루이와 함께 가정을 꾸림, 13~14
- 아내 제시와 함께 사람들 앞에서  
노래함, 299
- 아들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우라는 영감을 받음, 181, 183
- 어렸을 때에 솔트레이크 성전 헌납식에  
참석함, 6
- 에설 레이놀즈와 결혼함, 14~15, 191,  
193
- 영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함, 7~12,  
263~264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함,  
49~50
- 유아 시절에 유타 세인트조지 성전  
헌납식에 참석함, 117
-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침, 205
- 자신의 애마였던 주니에게서 사랑과  
포용을 배움, 258~259
- 자신이 가르친 사람들에게 대한 -의  
사랑, 83~84
- 젊은 시절에 경전을 공부함, 4~5, 139
- 젊을 적에 일을 배움, 3~4, 287~288
-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될 때 유럽에서  
봉사함, 23~25
- 제시 에번스와 결혼함, 21~23, 193
- 조산원 역할을 하는 어머니를 도움,  
259, 297
- 조셉 스미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함,  
106
- 줄리나 램슨 스미스(모친), 1, 3, 203,  
205, 259, 297
- 처음으로 지혜의 말씀 설교를 즐긴  
사람과 이야기함, 230
- 첫째 아내 루이가 죽은 뒤에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함, 275
- 첫째 아내 루이의 죽음을 애도함, 14,  
191, 275
- 폭풍이 지나가도록 기도함, 275, 277
- 하나님과 가까웠음, 35
- 한 소년에게 연차 대회에서 함께 앓을  
것을 권유함, 253
- 회장단으로 있는 동안 교회의 성장, 29
- 죽음, 육체적 및 영적 -, 62
- 지식. 배움 참조

지혜의 말씀, 230, 244~246  
진리와 거짓의 분별, 142~143, 146~148

## 츠

### 첫번째 시현

-을 통해 조셉 스미스가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선두에 섬, 108~110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회복함,  
37~38  
또한 조셉 스미스 참조

### 침례

- 성약, 176~178  
-를 받은 후의 충실함, 178~179  
-와 구원의 계획, 65  
-의 이중적 본질, 179  
8세 미만의 어린이는 필요하지 않음,  
174~176  
조셉 필딩 스미스의 -, 171  
죄의 생활에서 영성의 생활로 부활하는  
-, 174  
침수에 의한 -의 상징, 171, 173~174

## 티

토마스 에스 몬슨, 1

## 히

### 하나님 아버지

-에 대한 신앙을 행사함, 38~39, 84~85  
-의 계획, 44~45, 52, 59~69  
-의 일은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임, 42  
-의 특성, 38~44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심, 44, 315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아오라고 권유하심, 45

모든 사람은 -의 가족의 일원임, 40,  
60, 254~255  
모든 사람의 영의 아버지이심, 40,  
254~255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심, 42~44  
세상에는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35,  
39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심,  
44~45  
우리에 대한 -의 사랑, 40~44

### 하이럼 스미스(조부)

-의 고결성, 111  
-의 봉사, 1, 3, 105  
-의 순교, 3, 113~114  
조셉 스미스와 교회에 대한 -의  
충성심, 105, 111~113

### 해롤드 비 리, 31

### 회개

-와 구원의 계획, 65, 87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돕는 책임,  
90~92  
복음의 둘째 되는 원리임, 87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조셉 필딩  
스미스의 사명, 83~84  
신앙과 결합하여 용서에 이룸, 83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포함됨, 89  
지금 이 -할 시기임, 89~90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냄, 87~89

### 히버 제이 그랜트, 141, 151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KOREAN

